연구책임자 정기환 연구위원 연구참여자 김경덕 연구위원 김 수 석 부연구위원 심재만연구원





머리 말

그동안 우리나라의 공적 개발원조에 대한 국제사회의 요구가 강화되어 왔다. 이는 우리나라의 경제성장과 OECD 가입에 따른 국제적 역할 증대에서 유래한 것이다. 국제사회 요구에 부응해 최근 우리도 공적개발원조를 양적으로 확대하고 OECD/DAC 등 국제기구가 제시하는 기본이념에 발맞추어 원조의 내용과 방식을 개선하고자 하고 있다.

이 연구는 이러한 움직임과 노력의 일환으로 농업·농촌분야 협력사업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설계되었다. 지금까지 진행된 농업·농촌분야 협력사업의 실태를 조사·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다시 말해 농업분야 협력사업 중 프로젝트 사업, 연수 사업, 전문가 파견 사업에 대해 그 효과를 평가하고 사업별대안을 제시하여 협력사업의 방향을 재정립하고자 한 것이다.

이 연구는 이러한 연구목표를 충실히 수행한 것으로 판단되며, 연구결과는 한국국제협력단의 농업분야 협력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농업분야 협력사업에서 한국형 협력모델을 제시한 것은 이 연구의 독창성을 보여준 것이라 여겨진다.

그동안 이 연구를 수행할수 있도록 지원해 주신 한국국제협력단에 감사를 드리며 아무쪼록 이 연구가 우리나라 공적개발원조 사업의 발 전에 기여하는 유용한 자료로 활용되길 기대한다.

2005. 6.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대행 허 길 행

차 례

제1장 서 론
1. 연구 배경과 목적
2. 연구 방법
3. 연구 추진 절차
4. 선행연구 검토
제2장 국제 공적개발원조 사업 동향
1. OECD/DAC의 공적개발원조 동향 ···································
2. OECD/DAC 주요 국가 공적개발원조 현황2
제3장 우리나라 공적개발원조 사업 동향
1. 공적개발원조 사업의 전반적 동향4
2. 농업분야 협력사업 동향5
제4장 프로젝트 사업 평가
1. 프로젝트 사업 동향6
2. 프로젝트 사업 추진절차6
3. 평가지표 설정과 평가방법6
4. 프로젝트 사업 평가6
5. 프로젝트 사업 추진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세5상 신문가 파선 사업 평가
1. 전문가 파견 사업 동향137
2. 전문가 선발 과정138
3. 전문가 파견 사업 평가
4. 국내 농업분야 전문가 파견 가능성146
5. 전문가 파견 사업의 개선 방향154
제6장 연수생 초청 사업 평가
1. 연수생 초청 사업 동향
2. 평가 방법 및 지표166
3. 연수 사업 평가171
4. 연수생 초청 사업의 개선 방향205
제7장 농업분야 협력사업의 발전방향
1. 농업분야 협력사업의 기본구상 209
2. 국별 계획에 의한 협력방안215
3. 농업분야 협력사업의 모델 구상226
제8장 요 약
참고문헌259
부록 1. 전문가 파견 사업 조사표(기파견 전문가용)261
2. 전문가 파견 사업 조사표(DB등록 전문가용) ······275
3. 연수사업 참여 연수생 조사표 282

표 차 례

세	2상			
	丑	2-	1.	OECD/DAC 주요 가이드라인19
	丑	2-	2.	OECD/DAC 회원국 전체 ODA 지출의 지역별 분포 22
	丑	2-	3.	미국 양자 간 ODA 지출의 지역별 분포30
	丑	2-	4.	미국 양자 간 ODA 주요 수원국30
	丑	2-	5.	미국 양자 간 ODA의 분야별 지출 규모31
	丑	2-	6.	ODA 중 JICA 기술협력 비중35
	丑	2-	7.	일본 양자 간 ODA 주요 수원국37
	丑	2-	8.	일본 양자 간 ODA의 분야별 지출 규모38
	丑	2-	9.	독일 양자 간 ODA의 분야별 지출 규모44
제	3장			
	丑	3-	1.	한국의 주요 5대 수원국 현황52
	丑	3-	2.	농업분야 사업형태별 사업비 추이56
	丑	3-	3.	프로젝트 사업 세부내용(1999-2003년) 58
	丑	3-	4.	전문가 파견 사업 세부내용(1999-2003년) 59
제	4장			
	丑	4-	1.	시범 사업지구별 기자재 지원 내역76
	丑	4-	2.	코이키 커뮨 시범사업지역의 농가 및 인구 구성99
	丑	4-	3.	공여된 농기계 및 장비 현황113
	뀨	4-	4.	연도별 사업지출 현황114

제5장

丑 5-1	농업분야 전문가의 최종학위147
丑 5-2	파견 경험별 파견의향 유무148
丑 5-3	향후 파견전문가 프로그램 불참 이유149
丑 5-4	파견을 희망하는 전문가의 영어 구사능력149
丑 5-5	업무 수행을 위한 통역의 필요 여부150
丑 5-6	전공분야별 파견의향 유무151
丑 5-7	경쟁력 있는 주요 농업분야152
丑 5-8	우리나라의 분야별 농업기술 수준153
丑 5-9	파견 희망 지역154
제6장	
丑 6-1	연수생 초청사업 연도별 실적163
丑 6-2	1991-2003년간 지역별 연수생 초청 사업 실적163
丑 6-3	1991-2003년간 형태별 연수생 초청 사업 실적163
丑 6-4	2003년도 연수분야별(DAC) 사업실적164
丑 6-5	농업분야 연수생 수(1999-2003)165
丑 6-6	농업분야 연수과정 목록165
班 6-7	농업·농촌분야 연수과정의 연수형태별 구성166
丑 6-8	응답자의 연령분포175
丑 6-9	응답자의 국별 구성175
丑 6-10	응답자의 학력175
丑 6-11	응답자의 참가연수과정176
丑 6-12	연수과정에 대한 전반적 평가176
丑 6-13	연수과정의 전문성177
丑 6-14	연수기간178

丑	6-15.	연수교재의 적합성178
丑	6-16.	연수과정의 수행직무와의 적합성178
丑	6-17.	강의 수준179
丑	6-18.	강사의 교수기법179
丑	6-19.	연수과정에의 참여도180
丑	6-20.	연수생 특성180
丑	6-21.	현장견학의 적절성180
丑	6-22.	국별 사례발표의 유익성181
丑	6-23.	연수시설181
丑	6-24.	연수효과182
丑	6-25.	연수과정을 통한 한국에 대한 이해도 변화182
丑	6-26.	연수생 사후관리183
丑	6-27.	분석대상 개별연수과정183
丑	6-28.	개별 연수과정의 전반적 평가184
丑	6-29.	개별 연수과정의 전문성184
丑	6-30.	개별 연수과정 강의 평가185
丑	6-31.	개별 연수과정 강사의 교수기법185
丑	6-32.	연수과정별 국별 사례 연구발표 및 현장견학의 적합성186
丑	6-33.	주요 연수과정 개요187
丑	6-34.	주요 연수과정의 적정 연수기간202
제7경	당	
丑	7- 1.	협력단의 무상원조 지원 대상 국가 분류218
丑	7- 2.	주요 지역별 농업분야 특별 대상국 농업현안과 중점 지원방향 223
뀨	7- 3.	R&D 연구시설 및 유영관리 지원의 예239

그림 차례

제	1장			
	그림	1-	1.	연구흐름도7
제	2장			
	그림	2-	1.	DAC 회원국 전체 ODA 지출규모 추이20
	그림	2-	2.	OECD/DAC 주요 회원국의 ODA 지출규모(2003년) ············21
	그림	2-	3.	DAC 주요 회원국 ODA/GNI 비율 추이21
	그림	2-	4.	DAC 회원국 ODA의 분야별 분포 추이23
	그림	2-	5.	ODA 중 농업분야 비중 추이24
	그림	2-	6.	미국의 개발협력 추진체계29
	그림	2-	7.	ODA 자금의 기구별 구성비(2002년 현재)35
제	3장			
	그림	3-	1.	한국의 ODA 예산 연도별 추세51
	그림	3-	2.	한국 ODA/GNI 비율 추이52
	그림	3-	3.	ODA의 분야별 지출규모(1999년-2003년 누적) ············ 53
	그림	3-	4.	타분야 대비 농업분야 비중 추이55
	그림	3-	5.	농업분야 ODA 지출의 지역별 분포55
	그림	3-	6.	지역별 ODA 중 농업분야 비중56
	그림	3-	7.	농업분야 주요 3개 사업의 비중 추이57

-11	4 -
세	ᄺᄾ

그림 4- 1. 농업분야 프로젝트 사업 예산액 추이6
그림 4- 2. 인도네시아 벼농사 기계화 시범사업지구8
그림 4- 3. 베트남 새마을 시범사업지구9
그림 4- 4. 라오스 볍씨증산 사업의 사업목표11
그림 4- 5. 라오스 볍씨증산 사업 대상 지구11
제5장
그림 5- 1. 연도별 전문가 비중 및 농림수산부문 파견 비중 13

세 **1** 제 장

서 론

1. 연구 배경과 목적

1.1. 연구배경

지난 25년 사이에 중국과 인도 등 선진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에 힘입어 세계의 빈곤 인구는 현저히 감소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프리카와 아시아의 일부 최빈 개발도상국가들은 아직도 1일 임금이 미화 1달러 이하인 절대빈곤 인구가 전체 인구의 절반을 상회하는 절박한 상태에 있다.

이와 같은 세계의 빈곤 문제를 해결하고자 제 55차 UN 총회는 2000 년 9월 8일, 1일 임금이 1달러 이하인 인구와 기아로 고통 받고 있는 빈곤 인구의 수를 2015년까지 반으로 줄인다는 UN 밀레니엄 개발목표 (UN Millenium Development Goal)를 선언했다.

1960년대까지 세계 최빈국의 대열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선진국의 원조를 받아 오던 우리나라는 1995년 세계은행의 차관 제공 대상 국가에서 제외되면서 사실상 수원국의 지위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공적원조 역사는 1963년도부터 시작되고 있다. 미국 원조청(USAID)의 원조자금에 의해서 개발도상국의 연수생을 위탁받아 훈련시키면서 우리나라의 대외 원조 공여 사업은 시작되었으며 1977년부터는 우리나라의 기자재를 개발도상국에 공급하는 물자지원사업과 한국의 개발경험을 개발도상국에 전하는 연수사업을 독자적으로 시작하였고 1987년도에는 개발도상국에 대한 양허성 차관 지원금과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조성하면서 개발도상국에 대한 공적 원조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본격적인 공적 원조사업은 1991년에 한국국제협력단(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KOICA)이 설립되고 그동안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 수행해 오던 대외 무상원조사업을 한국국제협력단(이하 협력단)이 통합하여 관리하면서 시작되었다. 협력단은 설립 이래 공적개발원조(ODA)를 통하여 최빈국에 대한 빈곤퇴치와 경제개발을 지원함으로써 "세계화 시대에 함께 잘사는 인류사회 건설"이라는 원대한 목표를 추구해 왔다.

1991년 협력단 설립 당시 5,740만 달러에 불과하던 우리나라의 공적 개발원조는 한국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 OECD 가입과 한국 경제의 국제적 역할 증대, 한국의 경제성장 경험 전수에 대한 국제사회의 요구 증대 등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증대되어 2003년도에는 3억6,591만 달러로 증가하였다.

1993~2003년의 11년 동안 우리나라의 공적 원조는 연평균 20.7%씩증가하여 총국민소득(GNI)의 0.06%를 차지하게 되었으며 이와 같은 추세는 OECD 가입 이후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위해 향후 ODA 규모는 더욱 급속히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업분야의 협력사업은 한국국제협력단이 역점으로 추진하고 있는 개발도상국의 빈곤퇴치와 경제개발을 지원할 수 있는 협력 수단으로써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대부분의 개발도상국가의 기간산업은 농업이고 대부분의 인구가 농업/농촌지역에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개발도상국의 빈곤 퇴치와 경제성장은 농업 부문으로부터 시작해야 하고 농업분야에 대한 공적개발원조의 중요성은 막중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93~2003년 기간 중에 추진된 한국의 전체 공적개발원조 예산 중에서 농림수산 분야 협력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5.6%에 불과한 실정이다. 다시 말해 농업분야 공적개발원조사업이 개발도상국의 빈곤퇴치와 경제발전 지원을 위해 대단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우리의 대응은 매우 미흡했으며 계획적이고 체계적이지 못했다고 지적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대 개발도상국 농업분야 원조사업에 대한 종합적이고도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며 공적 원조사업에 대한 우리 정부의 기본 철학과 명확한 정책 방향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농업분야의 정책 방향은 원조 공여국의 입장에서 정립되기보다는 수원국의 현실에 적합하게, 그리고 수원국의 전문가들의 참여하에 수원국의 빈곤 퇴치와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에서 설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동안 추진되어 온 농업분야 협력사업은 외교적 수단의 하나로, 그리고 단편적으로 실시되어 온 감이 있으며 추진된협력사업에 대한 평가는 대부분 내부의 자체 평가로 그치고 있다.

따라서 그동안 추진되어 온 농업분야 협력사업이 수원국의 현실에 맞게 추진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 협력사업의 성과가 수원국의 빈곤퇴치와 경제발전에 긍정적으로 기여하고 있는지의 여부에 대한 적절하고 도 종합적인 평가가 필요하다.

또 이제까지 추진해 온 농업분야의 주요 사업에 대한 추진 절차와 협력 내용, 개발협력사업의 성과와 확산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의

절차와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한 후, 향후 개발도상국의 빈곤퇴치와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농업분야 협력사업의 기본방향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1.2. 연구목적

이 연구는 협력단에서 1999년부터 2003년까지 5년간 추진해 온 농업 분야 협력사업이 수원국의 빈곤퇴치와 경제성장에 기여했는지 여부를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우리나라의 농업분야 협력사업이 수원국 의 빈곤퇴치와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농업분야 협력사업의 기 본방향을 제시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둔다.

구체적으로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세부 목적을 지닌다.

- (1) 협력단의 농업분야 사업 중 프로젝트 사업, 연수사업, 전문가 파견 사업의 추진 절차와 내용 및 성과에 대한 평가
- (2) 수원국의 협력 수요 분석 및 농업분야 협력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우리나라 농업분야 인적자원과 시설 등 협력사업 인프라에 대한 평가
- (3) 평가 결과에 따른 대안과 향후 농업분야 협력사업의 기본 정책 방향과 추진 전략 제시

2. 연구 방법

2.1. 문헌 조사

- (1) 1999-2003년 기간 중 실시한 농업분야 협력사업의 추진 절차, 내용 및 성과 검토
- (2) 농업분야 협력사업평가 문헌 검토
- (2) OECD 회원국의 해외 협력사업 동향 조사

2.2. 설문지 조사

- (1) 대상
 - 수원국 농업분야 연수 수료자 및 원조 기관 관계자
 - 프로젝트 사업 및 전문가 파견 사업 참가자(국내 전문가)
 - 향후 농업·농촌분야 협력사업 파견 가능한 국내 전문가
- (2) 내용
 - 연수사업 성과 평가 및 개선방향
 - 전문가 파견 사업의 개선방향
 - 향후 국제협력사업 참가 가능성 및 협력 가능 분야 우선순위

2.3. 현지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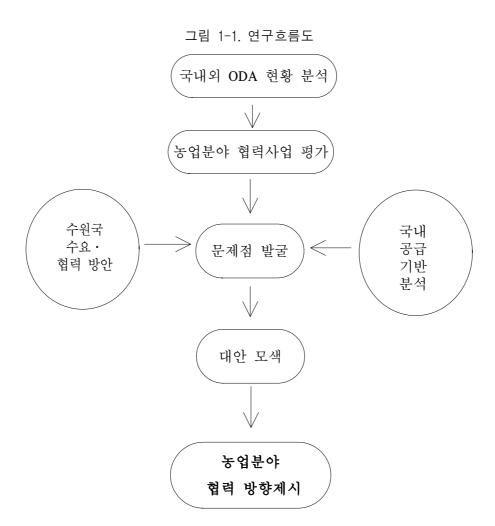
- (1) 현지 조사 대상국 : 인도네시아, 베트남, 라오스
- (2) 조사 대상: 1999~2003년에 수행된 프로젝트 사업, 전문가 파견 사업 및 연수 사업

- (3) 조사 방법
 - 사례 대상국을 방문하여 정부 관계자와 전문가 면담
 - 사업 현장 방문 조사
 - 준비된 질문지에 따라 조사
- (4) 조사 내용
 - 연수 효과 및 향후 연수사업 개선 방안
 - 프로젝트 사업의 성과 및 확산 효과
 - 파견 전문가의 활용 실태와 향후 개선 방안

2.4. 국내 농업분야 전문가 조사

- (1) 대상
 - 국내 농업기관, 대학 및 연구소의 농업·농촌분야 전문가
 - 국내 농업전문가 중 협력사업 전문가로 파견된 경험이 있는 자
- (2) 내용
 - 국내 농업기술 중 국제적으로 비교 우위가 있으며 대 개발도상 국 기술 이전이 가능한 협력 분야
 - 협력 가능한 분야별 파견 가능성
 - 협력사업 전문가 파견 사업의 문제점과 개선 사항
- (3) 조사 방법
 - 협력가능 사업 및 지원 우선순위 등에 대한 전문가 의견 조사
 - 지역별/국가별 협력 가능한 사업

3. 연구 추진 절차



4. 선행연구 검토

4.1. ODA 사업 전반에 관한 연구

우리나라 개발원조정책에 관한 연구는 나원찬·송하율(1989), 김학수 (1990), 권율(1995, 1999), 이창재(1995), Kim(2003) 등이 있다.

나원찬·송하율(1989)은 「우리나라의 대개도국 개발원조 정책」이라는 연구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 개발원조의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개발도상국의 발전 단계와 그들이 처한 현실에 따라서 지원내용을 차등화, 단계화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특히, 나원찬(1991)은 「우리나라의 대개발도상국 기술협력 정책 방향」이라는 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은 정책 방향을 도출하였다.

- 장기적으로 국가 전반적인 기술협력의 기반을 확충해야 하며 우리 나라의 국가 이익과 개발도상국의 이익을 조화시키는 호혜적인 방 향으로 추진
- 개발도상국에 적합한 기술 분야를 개발하고 유형화하여 제공
- 정부의 종합적인 ODA 정책 수립과 전문적인 기술 개발을 위한 협력기관 육성
- 기술 협력 분야에서 민간 부문의 참여 확대와 컨설팅 기업의 육성 필요

권율(1995)은 「ODA 운용체계 개선 방안」이라는 연구를 통하여 미국, 독일, 일본, 캐나다 등의 원조기관과 협력사업 실시체계를 분석하고, 협 력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 조사·기획 기능을 강화한 종합적 개발방식으로 원조사업을 실시할 것을 제안하고 이를 위해서 국별 협력 전략을 수립하고, 수원국에 대한 협의 채널 구축과 조사활동 강화, 중점지원 분야 선정 등 국 별 원조프로그래밍을 작성함.

○ 개발조사 사업을 강화하며, 현재 이원화되어 있는 개발원조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원조기관의 일원화를 통해 대부분의 OECD/DAC 회원국과 같은 전문성을 갖춤.

한편, 권율(1999)은 「OECD/DAC의 공적개발원조 논의와 동향」이라는 연구보고서에서 향후 우리나라가 OECD/DAC 회원국으로 가입하기 위 해서 필요한 기본 여건 분석과 함께 개발도상국과의 상호 보완적 경협 기반 확대를 목적으로 하는 원조정책의 기본 틀을 제시하였다.

- 우리나라가 OECD/DAC 회원국 가입 여건이 충족 될 때까지 매년 ODA 규모를 0.01%씩 단계적으로 확대할 것.
- 우리나라 원조 정책의 기본방향을 담은 ODA charter를 채택할 것.
- 원조 정책의 기본 목표와 전략적 운용방안을 수립하고 이를 위한 조사 연구 기능을 강화하고, 원조기관간의 상호 협조 체제를 구축 할 것.

이창재(1995)는 「우리나라의 공적개발원조: 현황과 정책 방향」이라는 연구보고서에서 OECD/DAC 회원국을 중심으로 선진국의 해외원조 체계를 비교분석하고 한국형 개발원조 모형 정립과 한국형 ODA 기본 원칙 등을 제안하였다.

- 선진국의 문턱에 들어선 우리의 개발 경험, 기술 및 기법 등 개발 도상국에 쉽게 적용될 수 있는 한국형 개발원조 모형을 정립하여 제공하고 인적자원 개발 중심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
- 한국형 개발원조는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개발도상국의 개발에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개발협력 원조가 되도록 기본 원칙이 정립되어야 하며 지나친 경제적 실익 추구나 개발원조가 외교적, 정치적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주장

○ 개발협력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장기적으로 개발협력청 의 신설을 검토하되 현재의 KOICA가 개발협력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폭넓은 자율성을 지닐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

Kim. S. T.(2003)는 「ODA Policy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 Context of Its Evolving Diplomatic and Economic Policies』에서 우리나라 개발원조사업의 변천 과정을 역사적으로 검토하고 우리나라의 ODA 정책의 기본구조와 수행 메커니즘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다음 우리나라의 ODA 사업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 한국 ODA 사업의 철학과 기본 원칙, 그리고 이러한 원칙에 입각한 한국의 ODA 실천 방향을 제시해야 함.
- 한국의 경제력 향상과 국제사회에서 기대하는 역할 수행을 위한 ODA 기금 증액과 개발원조 기구의 전문화를 검토할 필요 있음.
- 개발도상국의 빈곤, 인구, 환경, 여성인력 개발 등 개발도상국의 개 발 협력을 위한 범세계적 이슈와 정책 방안에 대한 조사 연구를 강 화하고 수요자 중심의 ODA 사업 추진 체제를 구축함과 동시에 ODA 전문 인력을 양성해야 함.
- ODA 사업에 NGO의 참여 확대와 ODA 필요성에 대한 대국민 홍 보를 강화해야 함.

이상의 연구들은 우리나라 ODA 사업 전반의 문제와 향후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있지만 우리나라가 제공하는 농업·농촌분야 협력사업의 문제와 발전방향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 한계를 갖는다.

4.2. 전문 분야별 성과에 대한 평가 연구

협력사업의 분야별 평가 분석에 관한 연구로는 「아세안의 농업 및 농촌개발분야의 연수프로그램 평가」와「직업훈련 프로젝트 사업 외부 위탁 평가 경과보고서 를 들 수 있다.

정기환·김영렬(2001)은 「아세안 농업 및 농촌개발분야 연수프로그램 평가』보고서를 통해서 아세안 농업·농촌 분야 연수사업의 문제점과 발전방향을 제시하였다.

- 아세안 농업·농촌 분야 연수사업이 준비기간이 불충분했음에도 불구 하고 연수생들로부터 성공적이었다는 반응이 있었다고 평가
- 농업분야 기술 협력사업이 전략적 다변화를 통해 경제협력 파트너 십을 강화
- 개발도상국 실정에 맞는 수요자 중심의 연수사업을 실시할 것과 현장성 있는 교재개발과 교육 강화와 함께 고위 정책담당자를 위 한 정책 세미나 과정을 개설하는 등 연수 과정의 다양화 필요

협력단과 한국기술교육대학(2004)이 실시한 「직업훈련 프로젝트 사업 외부 위탁 평가 경과보고서」는 중국, 베트남, 남아공의 직업훈련 지원사 업과 관련하여 향후 KOICA의 직업훈련 발전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상의 선행연구 결과를 검토해 볼 때, 농업분야 국제협력사업에 대해 서는 종합적인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이에 대한 협력사업의 정책 방향에 대한 연구도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2 장

국제 공적개발원조 사업 동향

- 1. OECD/DAC의 공적개발원조 동향
- 1.1. 협력사업의 이념 및 기본방향

1.1.1. 개발협력을 위한 국제협의체 현황

현재 개발도상국에 대한 원조의 방향과 구체내용을 공여국 간에 상호 조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다자 간 조정체계 형식의 다양한 국제적협의체가 운영되고 있다. 잘 알려진 협의체는 연간 혹은 반년간에 개최되는 세계은행(World Bank)의 CG(Consultative Group)와 UNDP의 Round Table이다. 이들 포럼은 수원국에서 진행되는 크고 작은 회의결과를 수용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지역적 차원에서의 협의체로는 세계은행의 SPA(Special Programme of Assistance for Africa)가, 특정 분야에 대한 협의체로는 CGIAR(Consultative Group on International Agricultural Research)이 있다. OECD/DAC는 정책 수준에서 회원국 간 개발협력을 조정하는 역할을 실시하고 있다.

가. CG Meeting(세계은행)

세계은행은 1963년부터 CG회의를 주최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목적은 공여국과 개발도상국 간 정책대화를 강화하고 개발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는 것이다. 최근에 가장 활발하게 다뤄지는 의제는 분야별 계획, 참여적 개발, 좋은 통치(good governance) 등이다.

나. Round Table(UNDP)

RT는 1970년대 초에 설립된 최빈국과의 정책대화 및 재원조달을 위한 UNDP의 주요한 수단이다. 세계은행의 CG회의와 달리 수원국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공여계획이 약속한 대로 잘 수행되는지를 점검하고 있다. 필요에 따라 분야별 RT도 개최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회의의 주안점을 재원조달에 둔다.

다. SPA(세계은행)

1987년 설립 이후 사하라사막 이남의 아프리카 지역의 원조 조정을 위한 포럼으로 발전해왔다. 경제개혁을 실시하고자 하는 국가들에게 적합한 원조와 재원을 조달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다.

라. CGIAR

1971년에 설립된 후 공여국 및 개도국의 공공·민간 주체들이 참여하는 비공식적 협의체이다. CGIAR은 전 세계 16개 국제 농업연구센터간 네트워크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센터는 농업, 식량정책, 자연자원관리 등에 대한 전략수립과 연구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주로 개도국의 식량안보를 의제로 삼아 지속적인 연구 활동을 진행하는 게 특징이다.

마. OECD/DAC

1960년 DAG(Development Assistance Group)으로 발전한 직후 1961년 OECD 산하 위원회인 DAC(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로 발전하였다. 현재 OECD 회원국을 중심으로 22개국이 회원으로 참여하는 가운데 회원국 간 개발협력사업을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주요활동내용은 첫째, 권위 있는 정책지침서(가이드라인) 채택, 둘째, 회원국 원조정책에 대한 동료 회원국의 심사(Peer Review) 실시, 셋째, 개발협력 관련 상호학습을 위한 포럼 개최 및 주요 국제적 합의안 도출, 넷째, 개발협력 관련 통계 및 보고서 발간 등이다.

1.1.2. 개발협력을 위한 주요 국제강령

가. UN 밀레니엄 개발 선언(Millennium Development Declaration)

OECD/DAC를 비롯해 개발도상국 개발협력에 대한 다양한 국제협의의 준거는 UN의 '밀레니엄 개발 선언'(2000.9)에서 채택한 '밀레니엄 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이다. 밀레니엄 개발목표는 1996년 OECD/DAC가 21세기 개발협력 전략으로 채택한 '21세기 개발협력 전략(Shaping the 21st Century)'을 토대로 빈곤근절을 위해 설정한 세계적 규범으로 기능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개발도상국은 밀레니엄 개발목표와 관련한 각국의 현황 및 발전에 대한 보고서를 2004년까지 작성해 UN에 제출하고 UN은 이를 바탕으로 2005년에 세계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이다. 밀레니엄 개발목표에 담겨 있는 개발협력의 목표와 구체적 지표는 다음과 같다.

- □ 목표 1: 극심한 빈곤과 기아 근절
 - 지표 1: 하루 수입 1달러 이하로 생활하는 사람의 비율을 1990년~

2015년 사이에 절반으로 줄임.

- 지표 2: 기아로 고통받는 사람의 비율을 1990년~2015년 사이에 절 반으로 줄임.
- □ 목표 2: 초등교육의 보편화
 - 지표 3: 전 세계 모든 아동에게 2015년까지 초등교육과정 보장
- □ 목표 3: 성 평등 및 여성의 임파워먼트
 - 지표 4: 초등·중등교육과 모든 교육과정에서 성차별 근절
- □ 목표 4: 아동사망률 감소
 - 지표 5: 5세 이하 유아 사망률을 2/3로 줄임.
- □ 목표 5: 모자보건 향상
 - 지표 6: 산모 사망률을 3/4로 줄임.
- □ 목표 6: HIV/AIDS, 말라리아 등 질병 퇴치
 - 지표 7: HIV/AIDS 확산방지 및 감소세로 전환
 - 지표 8: 말라리아 및 기타 질병의 발병 억제 및 감소세로 전환
- □ 목표 7: 환경적 지속가능성 확보
 - 지표 9: 국가정책에 지속가능성 원칙 도입, 환경자원 손실 역전
 - 지표10: 안전한 식수에 접근하지 못하는 인구의 비율 반감
 - 지표11: 기아인구 비율 반감
- □ 목표 8: 지구적 개발파트너십 구축
 - 지표12: 규칙을 준수하는 자유무역체제 및 금융체제 구축, 좋은 통 치, 개발, 빈곤완화 등에 대한 헌신
 - 지표13: 최빈국의 특별요구(수출품에 대한 관세 및 쿼터 면제, 부채 탕감, 공적개발원조 증액) 해결

- 지표14: 내륙국가와 군소 도서 개발도상국의 특별요구 해결
- 지표15: 개발도상국 부채문제 해결
- 지표16: 청년을 위한 일자리 창출
- 지표17: 제약회사와의 협력으로 약품에 대한 접근성 제고
- 지표18: 민간부문의 협력으로 정보통신기술에 대한 접근성 제고

나. 몬테레이 합의

2002년 UN은 밀레니엄 개발목표를 달성하는 데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는 방안에 대한 몬테레이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 회의의 주요 목적은 개발도상국이 세계화 과정에 순조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6개 분야에 걸친 개발도상국 지원 및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국제적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었다. 회의 결과 6개 분야에 대한 몬테레이 합의문(Monterrey Consensus)이 채택되었다.

- □ 국내 재원 조달
 - 지속가능 개발을 위한 국내 여건 조성 및 '좋은 통치(good governance)' 체제 확립
- □ 외부 재원 조달
 - 외국인직접투자(FDI) 등 민간재원을 위한 투명한 투자환경 조성
 - 기업활동의 다차원적 효과에 대한 고려 및 기업윤리 확립

□ 무역

- 개발도상국 관심사인 농업, 노동집약적 공산품, 반덤핑조치, 전통지 식 등 보호
- WTO 각료회의 결과의 성실한 이행, 최빈국 시장접근 허용
- □ 공적개발원조(ODA)

- 개발도상국의 리더십과 주인의식(ownership)에 근거한 수원국과 공 여국 간 협력관계 구축, 개발도상국 내 통치관행 개선
- ODA의 실질적 규모 증액, ODA/GNI 0.7% 달성
- IMF 특별인출권(SDR) 및 개발협력 위한 신규재원 확보 연구

□ 부채

○ 빈곤 채무국에 대한 부채경감조치의 조속한 이행

□ 세계체제

- 세계경제 안정을 위한 선진국간 주요 경제정책 조정
- 국제금융규범 설정에 개발도상국의 효과적 참여 제고
- 금융위기 방지대책 강화/ 유엔, 무역기구, 개발협력기구 등 협조

다. 요하네스버그 지속가능 개발 선언

2002년 요하네스버그 정상회의(WSSD; World Summit on Sustainable Development)는 리우 회의(UNCED) 이후 10년간의 추진경과를 점검하고 향후 이행계획을 수립할 목적으로 개최되었다. 회의에서는 빈곤퇴치, 지속가능한 소비·생산, 지속가능한 자연자원 관리, 지속가능 발전에 대한 세계화의 기여, 이행수단(무역, 재원 등) 확보, 지속가능 발전 관리체계 등 6개 의제에 대한 합의안이 도출되었다. 다음은 요하네스버스지속가능 개발 회의의 주요 합의사항이다.

- 2015년까지 식수 및 위생시설에 접근치 못하는 인구 절반 감축
- 2015년까지 통합 수자원관리체계 마련
- 2015년까지 하루 1달러 미만으로 사는 인구 반감
- 2015년까지 5세 이하 유아사망률 2/3로 낮춤
- 화학물질 소비 억제, 어종 보호 위한 어획량 감축
- 농업보조금 및 기타 보조금 철폐

○ 대체에너지 개발노력, 교토의정서 비준 촉구

1.1.3. OECD/DAC 가이드라인

OECD/DAC 가이드라인은 UN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개발협력에 대한 국제강령과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회원국의 개발협력사업에 구체 적인 지침 역할을 하고 있다.

주요 가이드라인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OECD/DAC의 개발협력 논의는 시대별로 다음과 같이 변해 왔다.

- 1960년대: 개발원조의 태동기로서 거시지표 개선에 목표를 둔 성장 중심의 개발원조에 초점을 둠.
- 1970년대: 성장 중심의 개발로부터 인간의 기본욕구(BHN: Basic Human need) 충족으로 개발의 우선순위를 설정함.
- 1980년대: 이 무렵부터 인적자원개발(HRD), 여성개발(WID) 등에 중점을 두고 ODA 사업을 추진함.
- 1990년대: 빈곤심화, 인구증가, 식량부족, 마약확산, 환경파괴 등이 범세계적인 이슈로 등장함에 따라서 지속가능한 개발, 참여적 개발 등에 초점을 둠.
- 2000년대: 수원국 중심의 개발을 강조하며 주인의식과 파트너십 강화, 참여적 개발, '좋은 통치(good governance)' 등을 강조하며 밀레니엄 개발목표 달성에 치중함.

2000년 밀레니엄 선언을 전후해 현재까지 각국 개발협력사업에 주요한 지침으로 작용하고 있는 주요 가이드라인은 <표 2-1>과 같다. 이 중특히 1996년의 '21세기 개발협력 전략(Shaping the 21st Century)'은 현재개발도상국 개발협력사업의 핵심지침인 UN 밀레니엄 선언의 토대가되었다.

표 2-1. OECD/DAC 주요 가이드라인

연도	주요 가이드라인 및 내용					
1996	· 21세기 개발협력전략(Shaping the 21st Century)					
1998	·성평등과 여성의 임파워먼트를 위한 지침					
2001	• 빈곤완화를 위한 지침 - UN의 밀레니엄 개발목표 달성을 채택 •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협력 지침 • 개도국의 세계무역체제 내 역량강화를 위한 전략 • 폭력적 분쟁과 갈등의 예방					
2002	·개발협력과 리우 환경의제 간 통합을 위한 지침					
2003	· 빈곤과 보건 간 악순환 고리의 단절 · 공여국 간 효과적 협력 증진 · 테러예방을 위한 개발협력 과제					
2004	· 인권과 국가안보(범죄예방, 공중안전)를 위한 통치체제 개혁 방안					

자료: DAC, http://www.oecd.org/

가. 21세기 개발협력전략

DAC는 1996년 인간중심 개발, 수원국의 주인의식(ownership) 강화, 세계통합 및 국제적 파트너십 등을 강조하는 21세기 개발협력전략을 채택함으로써 이후 국제사회에서 개발협력의 주요 원칙으로 기능하였다.

여기에서 제시된 2015년까지의 주요 전략적 목표는 다음과 같다.

- 절대빈곤 인구 비율 반감
- 모든 국가에서의 의무교육 실시
- 초중등 교육에서의 성 차별 폐지 및 여성의 임파워먼트
- 영아 및 5세 이하 유아 사망률 2/3로 감소, 모성사망율 3/4로 감소
- 모든 개인에게 보건서비스 접근권 확보
-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2005년까지 각국의 국가별 지속 가능발전 전략 수립. 2015년까지 환경자원 감소 현상 반전

1.2. 공적개발원조의 일반 동향

2003년 현재 DAC 회원국이 지출하고 있는 ODA 총액은 690억2천9백만 달러이다. 이는 개발도상국과 관련한 회원국의 총지출액 1,085억5천5백만 달러의 64%에 해당하며, DAC 비회원국을 포함한 전세계 ODA의 95%를 점하고 있다.

DAC 회원국의 ODA 지출의 시기별 추이를 보면, 실질가치 측면에서 2003년도 지출규모는 이전까지 최고 수준이었던 1992년도 수준을 앞지르고 있다. 1997년과 2001년 사이에 지출규모는 꾸준히 증가했다. 전년도에 비해 2002년에는 7%, 2003년에는 5%의 성장이 있었다.

ODA/GNI 비율에서도 1997년부터 2001년까지 매년도 비율은 0.22%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그리고 2003년도에는 0.25%로 조금 상승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몬테레이 재원회의에서 합의한 대로 DAC 회원국의 ODA 규모가 증가하고는 있지만, 아직 UN이 선진국들에게 제시한 0.7% 권고안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2003년 현재 회원국 내 각국별 지출규모에서는 미국(157.9억 달러), 일본(89.1억 달러), 프랑스(73.4억 달러), 독일(66.9억 달러), 영국(61.7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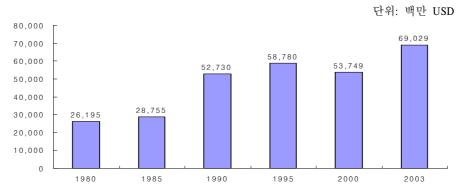


그림 2-1. DAC 회원국 전체 ODA 지출규모 추이

달러) 등이 주요 5대 공여국의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 UN의 ODA/GNI 비율 권고안 0.7%를 만족시키는 국가들은 노르웨이, 덴마크,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등이다. 네덜란드를 제외하면 모두 ODA 절대규모가 OECD/DAC 회원국 중 하위권에 속하는 국가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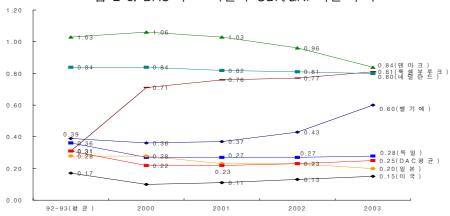
그림 2-2. OECD/DAC 주요 회원국의 ODA 지출 규모(2003년)

단위: 십억 USD



자료: OECD(2004), Development Cooperation Report 2004

그림 2-3. DAC 주요 회원국 ODA/GNI 비율 추이



양자 간 지출규모는 약 498억 달러로 전체 ODA의 72.2%를 차지하고 있는데 대부분 무상원조의 형태로 집행되고 있다. 1960년대에 양자 간 ODA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던 기술협력은 약 36%로 줄어들었다. 그럼에도 이러한 최근 경향은 평균 25% 수준에 머물렀던 1990년대에 비해늘어난 규모이다.

한편 기술협력의 구체적인 형태에서는 선진국으로의 유학 지원, 전문 가의 장기해외파견 지원 등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는 반면, 현지교육, 현지전문가 활용, 단기 교육프로그램 지원 등 수원국과의 협력적 파트너 십을 통한 프로젝트 개발사업 관련 지원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OECD/DAC 회원국 전체 ODA 예산의 80% 정도가 아프리카지역과 아시아지역(중동 포함)에 지출되고 있다. 2000년대에 들어서는 두 지역 중에서도 아시아에 대한 지출규모가 줄어드는 가운데 아프리카에 대한 지출규모는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년 동안 DAC 회원국은 사회하부구조에 대한 지출을 늘리는 가운데 경제하부구조에 대한 지출을 축소시켜 왔다. 생산부문(농림수산업 및 광공업)에 대한 지출 역시 감소하고 있으며 물품지원 및 일반프로그램 지원 비중도 감소하였다. 대신 다부문 등 기타부문과 긴급보조는 늘어나고 있다. 2002년과 2003년 평균치를 기준으로 할 때, 다부문 등

표 2-2. OECD/DAC 회원국 전체 ODA 지출의 지역별 분포

단위: 백만 USD, %

구분	1999	2000	2001	2002	2003
아프리카	16,074(35.9)	15,717(38.1)	16,681(38.2)	21,251(41.5)	26,308(46.2)
아메리카	6,046(13.5)	4,966(12.0)	6,004(13.7)	5,141(10.0)	6,133(10.8)
아시아	17,564(39.2)	16,043(38.9)	16,851(38.6)	19,112(37.3)	20,178(35.5)
- (중동)	2,384(5.3)	2,337(5.7)	2,487(5.7)	3,704(7.2)	5,512(9.7)
유럽	3,705(8.3)	3,736(9.1)	3,355(7.7)	5,042(9.8)	3,456(6.1)
오세아니아	1,426(3.2)	817(2.0)	781(1.8)	709(1.4)	813(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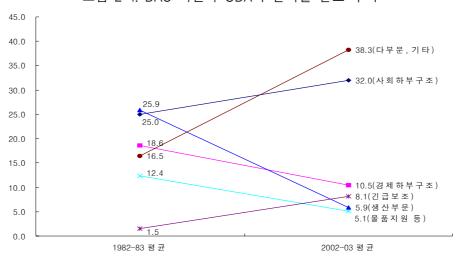


그림 2-4. DAC 회원국 ODA의 분야별 분포 추이

자료: OECD(2004), Development Cooperation Report 2004

기타 부문에 대한 지원을 제외하면 사회하부구조(32.0%), 경제하부구조(10.5%), 긴급보조(8.1%) 등의 순으로 ODA 지출이 이뤄지고 있다. 생산부문에 대한 지출은 5.9% 수준에 머물러 있다.

사회하부구조와 경제하부구조(생산부문 포함)간 지출규모의 상이한 발전궤적은 UN의 밀레니엄 개발목표에서 개발도상국의 초등교육, 식수, 보건 등 사회문화적 인프라에 대한 관심이 적극적으로 표명되는 데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분위기 아래 당분간 경제부문과 사회부문 간 경합은 어느 정도 불가피하다 하더라도, 개발도상국의 사회경제발전이 특정 분야에 대한 투자만으로 불가능하다는 인식만큼은 분명하다(OECD, 2003: 25-26).

1.3. 농업분야 협력사업 동향

OECD/DAC의 21세기 개발협력전략이 마련된 이후 1998년에 DAC 빈

곤 네트워크(DAC Poverty Network)가 설치되고 각국 개발협력정책의 통합성 제고 노력에 따라 농업분야에 대한 개발협력은 빈곤완화를 위한다양한 사회경제 분야-교육, 보건, 환경 등-에 대한 지원과 궤를 같이하고 있다.

그러나 <그림 2-5>에서 지난 15-20년 동안 선진국의 농업분야 개발협력의 비중은 줄어들고 있으며, 2000년대에 들어서도 이러한 경향은 지속되고 있다.

절대규모 측면에서 보면 미국의 ODA 지출규모가 줄어든 것이 전체적인 ODA 규모 축소로 나타나고 있다. 상대적 비율 변화에서는 캐나다,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스위스 등의 감소폭도 두드러진다.

1980년대 이후 이와 같이 농업분야 ODA 규모가 축소되는 데에는 몇 몇 대규모 농촌개발 프로젝트가 실패하는 데 따른 지원동기 감소, 세계 곡물생산량 증대 및 가격 하락, 생산 등 경제부문을 대신해 사회부문투자의 중요성에 대한 재인식(특히, 1995년 코펜하겐 사회개발회의의 중심의제) 등이 주요한 배경을 이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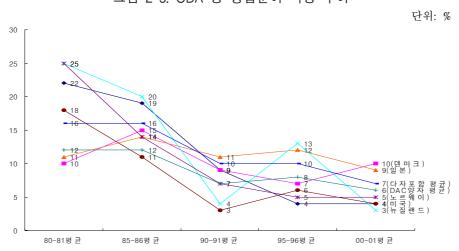


그림 2-5. ODA 중 농업분야 비중 추이

한편으로 농업분야에 대한 지원 비중 감소는 농업 부문에 대한 지원 방식의 전환에도 원인이 있다. 선진국들은 농업생산과 관련된 직접적 인 지원을 감소하는 대신 다부문 지원을 통하여 농촌 지역의 빈곤완화 를 위한 다양한 농촌 지역의 사회구조 부문, 즉 농촌 지역의 교육, 보 건, 환경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수원국 측면에서 볼 때 인도에 대한 농업분야 지원이 1980년대에 급격히 감소한 것은 인도의 성공적인 녹색혁명과 관련이 있다. 녹색혁명으로 식량 문제가 완화된 인도 농업에 대해서 주요 선진국들은 농업분야 개발협력 규모를 감소시켰던 것이다.

그럼에도 동남아시아 등지에서의 농업분야 협력 규모는 오히려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낸다. 이러한 경향은 특히 중국이 주도하는 것으로 분석되는데, 90년대 들어 중국경제가 발전해감에 따라 그때까지 해안지역의 공업화에 집중하던 DAC 회원국의 개발협력이 내륙지역의 농업·농촌지역으로 지원전략을 선회한 데 따른 것이다. 이와 같은 전략적 선회를 주도한 것은 일본이다.

한편 농업분야 내 소분야별 개발협력의 특징은, ① 농업정책에 관한 프로그램 지원의 증가, ② 농업분야 공공부문의 역할 재인식에 따른 농자재 투입, 농업서비스(보관, 운반, 판매) 및 교육 등에 대한 지원의 전반적 감소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그러나 후자에 대해서는 양자 간 협력규모가 감소하는 데 반해 다자 간 협력, 특히 CGIAR을 통한 곡물생산 및 가축사육에 대한 교육·훈련·조사연구는 안정적으로 지속되고 있다. 또 농업용수 개발 지원 역시 안정적으로 지속되고 있다.

일본은 농업 부문의 공공 서비스, 교육, 조사연구, 농업용수개발 등에 집중 지원하고 있는 점이 두드러진다.

2. OECD/DAC 주요 국가 공적개발원조 현황

2.1. 미국

2.1.1. 원조이념 및 기본방향

개발협력에 대한 국가별 기본방향 설정에서 미국은 선도적 위치를 점하고 있다. 20세기 초 마셜플랜은 물론이고 1961년의 대외원조법 (Foreign Assistance Act) 입안이 대표적인 예이다. 여러 차례의 수정을 거 치면서 대외원조법은 현재까지 미국의 개발협력을 장기적·체계적 관 점에서 규정하는 법적 토대가 되고 있다.

가. 국가안보를 위한 개발협력

우선 대외원조법에 나타난 대외원조의 기본정신은 다음의 세 가지로 요약된다.

- 그 동안 대외원조 프로그램은 미국 자국의 이해는 물론 수원국의 이해에 부적합했음.
- 개발도상국의 경제적 붕괴는 미국의 번영과 국가안보에 해로우며 미국적 양심을 위반하는 것임.
- 선진산업국은 저개발국이 자족적인 경제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

한편 부시행정부 들어 2002년부터는 개발협력과 관련해 몇 가지 중요한 변화모습이 발견된다. 우선 부시대통령의 '개발을 위한 신협약(New Compact for Development)'과 '국가안보전략(National Security Strategy)'은 대외협력의 거시적 맥락을 설정하고 있다.

외교, 개발, 국가안보 등을 주요한 세 개념으로 채택하고 있는 국가 안보전략은 '저발전 → 테러와 군비확장 → 미국의 국가안보 위협'을 개발협력의 실용적 배경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논리를 배경으로 부패와 빈곤에 빠진 개발도상국에 대한 개발협력은 개발도상국이 테러 국가로 전략하는 것을 방지하고 궁극적으로는 이를 통해 미국의 국가 안보를 확보하데 중요한 통합적 수단으로 정의된다. 국가안보전략이 담고 있는 개발협력의 기본방향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빈곤국가의 경제규모를 10년 내에 두 배로 확장
- 빈곤국가의 사회체제를 세계무역과 세계자본시장에 개방
- 보건, 교육, 농업 등에 대한 지원 강화
- 미국의 개발협력 규모를 2006년까지 현재수준에서 50% 신장
- '밀레니엄 개발협력 기금(Millenium Challenge Account)' 활용

나. 개발협력에 대한 국제강령의 미국적 변형

국가안보전략에 앞서 2002년 초에 발표된 '개발을 위한 신협약'에서는 '밀레니엄 개발협력 기금(MCA)'의 설치 및 이를 통한 개발협력 확장 방안이 마련되었다. 이후 MCA의 운영을 위해 '밀레니엄 개발협력 공사(MCC; Millenium Challenge Corporation)'가 신설되었다.

MCA는 UN의 밀레니엄 개발목표에서 중요하게 언급하고 있는 저개 발국의 빈곤경감을 중심과제로 설정하고 있으며 MCA 설치 방안에 나 타난 개발협력의 이념 및 기본방향은 다음과 같다.

- 기금운영의 일차적 목적은 빈곤과의 전쟁에 있음. UN의 밀레니엄 개발목표를 달성하는 데에 사용될 수 있음.
- 기금은 제한된 소수의 빈곤국가들에 선택적으로 집중될 것임.
- 기금지원을 희망하는 국가는 좋은 통치(good governance), 교육·보 건에 대한 사회적 투자, 인권 신장, 개인 및 기업활동의 경제적 자

유 등에 강한 신념을 보여야 함.

○ 2004년부터 2006년 사이에 50억달러 규모의 기금을 운영함.

다. 우선분야

국가안보전략과 개발에 관한 신협약의 거시적 맥락에 따라 작성된 2004년부터 2009년까지의 전략계획(Strategic Plan)은 다음을 주요 사업분 야로 선정하고 있다.

- 평화와 국가안보 확보: 분쟁지역 안정화, 테러와의 전쟁, 자국 내 안전 확보, 대량살상무기 억제 등에 대한 지원
- 지속가능한 발전과 지구적 이슈에 대한 지원: 민주주의와 인권 신 장, 경제적 번영과 경제활동의 자유 보장, 사회적·환경적 이슈(보 건, 교육, 인구, 환경)에 대한 관심, 인도주의적 구호활동 등
- 우호적 국제환경 조성: 미국적 가치와 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외교활동

2.2.2. 추진체계

국무부가 일반적 수준에서 대외정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을 뿐, 미국의 개발협력은 연방정부 내 약 50여개의 독립적인 부처나 기구들에서 분산적으로 진행되어 왔다. DAC 보고서는 다양한 대외협력의 동기, 집중화에 대한 역사적 거부감, 대외협력에 대한 정치적 관심의 부족 등을 그 원인으로 분석하고 있다.

그럼에도 대외 개발협력에서는 현재까지 국무부 산하의 미국제개발청 (USAID)의 활동이 지배적이다. 물론 과거 미국정부 ODA 자금의 60% 이상을 운영했던 점에 비춰보면 USAID의 비중 역시 최근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개별 부처 및 타기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점차 커지고 있다. 더욱이 부시행정부에서는 USAID와는 별개로 밀레니엄 개발협력 공

사(MCC)를 신설하였다. 따라서 갈수록 정부 내 각 부처 및 기관별로 진행되고 있는 개발협력사업의 조정 및 추진체계 확립 문제가 중요해 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실정을 고려한 가운데 현재 미국의 공적원 조사업 추진체계는 <그림 2-6>과 같다.

그림 2-6. 미국의 개발협력 추진체계

자료: OECD(2003), The DAC Journal 2002

2.1.3. 원조현황

가. 일반현황

2003년 현재 미국의 ODA 지출 총액은 158억 달러로 DAC 회원국 중 가장 규모가 크다. ODA 지원규모의 시간적 추이를 보면, 1965년 이후 꾸준히 감소하다가 1990년대 중반부터 다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인다. 50억 달러 규모의 MCA가 현실화될 경우 향후 ODA 규모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절대 규모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ODA/GNI 비율은 1965년 이후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1965년 0.6% → 2001년 0.11%). 2003년 현재비율은 0.15%로 DAC 회원국 평균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양자 간 지원규모는 2003년 현재 전체 ODA 중 90%인 142억 달러 수준이다. 양자 간 지원규모 역시 1990년대 중반부터 최근까지 상승하는 추세이다. 1990년대 중반 이후 양자 간 ODA 지출을 지역별로 나누어 살펴보

면, 아프리카, 아시아, 아메리카 등에 대한 지출이 지배적임을 알 수 있다. 양자 간 ODA 지출의 국가별 분포를 보면, 주요 국가들에 대한 지출비중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즉 초기에 주요국들에 집중되어 있던 ODA가 갈수록 지원국가가 늘어나면서 여러 국가들 사이에 분산되어 있다. 1999년-2000년 평균에서 수원국 중 상위 5개국은 이집트, 인도네시아, 요르단, 콜롬비아, 보스니아 등의 순이다.

표 2-3. 미국 양자 간 ODA 지출의 지역별 분포

단위: 백만 USD

지 역	1996년	1998년	2000년
아 프 리 카	1,507(26%)	1,681(46%)	1,901(41%)
아 시 아	698(12%)	588(16%)	1,047(22%)
아메리카	600(10%)	701(19%)	932(20%)
중 동	2,611(45%)	240(7%)	332(7%)
오세아니아	231(4%)	182(5%)	143(3%)
유 럽	188(3%)	248(7%)	318(7%)
합 계	5,834(100%)	3,640(100%)	4,672(100%)

자료: OECD(2003), The DAC Journal 2002

주: 1999년 기준 고정가격임

표 2-4. 미국 양자 간 ODA 주요 수원국

			2-			3 -			
1989-90 평균			1994-95 평균			1999-2000 평균			
 구분	백만	비중	구분	백만	비중	구분	백만	비중	
	USD*	(%)	. –	USD*	(%)	, –	USD*	(%)	
이집트	2,110	26	이스라엘	892	14	이집트	791	17	
이스라엘	1,559	19	이집트	738	12	인도네시아	192	4	
파키스탄	360	4	하이티	513	8	요르단	177	4	
엘살바도르	350	4	요르단	223	4	콜롬비아	167	4	
필리핀	283	3	소말리아	220	4	보스니아	151	3	
주요 5개국 합계	4,661	57	주요 5개국 합계	2,585	42	주요 5개국 합계	1,479	31	
주요 10개국 합계	5,529	67	주요 10개국 합계	3,375	55	주요 10개국 합계	2,076	44	
주요 15개국 합계	6,186	75	주요 15개국 합계	3,995	65	주요 15개국 합계	2,545	54	
주요 20개국 합계	6,640	81	주요 20개국 합계	4,453	72	주요 20개국 합계	2,942	62	
전체	96개국 ((100%)	전체	119개국	(100%)	전체	135개국	(100%)	

자료: OECD(2003), The DAC Journal 2002

주: *는 1999년 기준 고정가격임

양자 간 ODA의 분야별 지출현황을 보면, 사회하부구조(35%), 긴급보조(19%), 물품지원 및 일반프로그램 지원(11%) 등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나. 농업분야 현황

양자 간 ODA 지출 중 농업분야에 대한 지원은 5% 내외로 낮은 비중을 보이고 있다. 특히 1999년-2000년 평균은 3%에 불과해 같은 기간의 DAC 회원국 평균 6%의 절반에 머물러 있다.

표 2-5. 미국 양자 간 ODA의 분야별 지출 규모

단위: 백만 USD, %

	1989-90	0 평균	1999-2000 평균		
· · · · · · · · · · · · · · · · · · ·	금액*	비율(%)	금액*	비율(%)	
사회하부구조	2,134	15	3,546	35	
- 교육	453	3	292	3	
- 보건	440	3	392	4	
- 인구정책/프로그램 및 생식보건	249	2	651	6	
- 식수공급 및 위생	301	2	164	2	
- 공공행정	461	3	602	6	
- 기타 사회 인프라 및 서비스	230	2	1,445	14	
경제하부구조	468	3	1,344	13	
- 운송 및 보관	156	1	12	0	
- 통신	16	0	10	0	
- 에너지 생산 및 공급	296	2	100	1	
- 금융 및 재정	-	-	1	0	
- 민간기업 및 기타 서비스	1	0	1,221	12	
생산부문	1,024	7	368	4	
- 농림수산	561	4	320	3	
- 광・공업 건설	58	0	47	1	
- 상업 및 관광	405	3	1	0	
다부문	44	0	1,017	10	
물품지원과 일반프로그램 지원	3,481	25	1,127	11	
부채 경감	6,093	44	102	1	
긴급보조	144	1	1,864	19	
기타	568	4	702	7	
- 행정관리비용	568	4	702	7	
- NGO 지원	-	-	-	-	
합계	13,956	100	10,069	100	

자료: OECD(2003), The DAC Journal 2002

주: *표는 경상가격임

2.1.4. 원조전략

가. 수원국 중심의 원조

미국은 5년마다 국가별 발전전략(Country Development Strategy Statement; CDSS)을 작성해 정부 차원의 정책협의자료로 사용함으로써 개별 수원국에 대한 개발협력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있다.

수원국 현지에서 타 공여국과의 협력을 통해 해당 국가에 적합한 개발 협력의 효과를 확보하기 위해, 수원국이 국제기구에 제출하는 '빈곤완화 전략보고서(Poverty Reduction Strategy Paper; PRSP)'를 자국의 개발협력과 조화시키려 한다. 이는 수원국 차원에서 USAID와 수원국 내 중앙·지방 정부, NGO와의 협력성을 제고하고자 시도해온 NPI(New Partnerships Initiative) 전략과도 무관하지 않은 것이다.

이와 같은 국가별 발전전략 및 수원국 중심의 전략적 접근들은 궁극적으로 개발의제를 스스로 추진해갈 수 있는 수원국 자체의 능력배양을 목적으로 한다.

나. 정부 내 개별화 · 분화된 개발협력 간 조정

국무부와 USAID가 다양한 부처와 기관들에서 진행되고 있는 개발과 경제 원조를 조정하는 중심적 임무를 담당해왔다. 최근에는 국무부와 USAID 두 기관 간 협력 틀을 새로 구성하고자 하고 있다.

먼저 그 동안 두 기관이 독립적으로 작성해오던 전략계획(Strategic Plan)은 단일의 5년 단위 전략계획(Strategic Plan from 2004 to 2009)으로 통합되었다. 이 전략계획에서는 관리 및 조정 차원의 개혁과제로 외교와 개발협력 간 협력 틀 구성을 제안하였다. 아직 구체적인 형태로 발전하지는 않았으나 새로운 조정·협력 틀은 국무부-USAID 간 공동정책협의회와 공동관리위원회의 두 가지 차원으로 제안되어 있다.

다. 농업분야 원조전략

농업분야 개발협력의 두 축은 USAID와 농무부의 국제농업국(Foreign Agricultural Service)이다. 이들을 중심으로 그간 농업분야 개발협력은 농업생산 증대, 시장효율성 증대, 세계무역과 투자에 대한 접근성·개방성 제고 등을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더불어 개발도상국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나타나는 기아와 영양불량 문제를 해결하고자 진행된 식량원조(food aid)에서는 세계 최대의 공여 국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식량원조가 파생시키는 개발협력의 고비용구조, 즉 생산에서 운반, 소비까지를 책임져야 하는 노동집약적 원조사업 집행방식에 대한 비판이 적지 않다. 수원국 입장에서도 식량 원조에 비해 보다 지속가능한 형태의 농업·농촌 발전 전략이 적합하 다는 인식이 늘어가고 있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최근 USAID를 중심으로 농업분야 개발협력의 과제를 농촌지역의 농가와 비농가 모두에게 중요한 빈곤완화 전략의 일환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빈곤완화를 주제로 하는 DAC 회원국 간 네트워크에 대한 USAID의 관심과 빈곤완화를 목적으로 미국정부차원에서 신설된 MCA에 대한 USAID의 관심이 근래의 발전상인 것이다.

2.2. 일본

2.2.1. 원조이념 및 기본방향

1992년 내각에서 결의돼 10여년 동안 일본 ODA 집행의 기본원칙으로 기능하였던 'ODA 대강(ODA Charter)'이 2003년 8월에 새로 개정되었다. 개정 'ODA 대강'은 ODA의 철학(목표, 정책, 우선순위), ODA 집행의 원칙, ODA 정책의 형성과 집행 절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면서 아래와 같은 특징을 보이고 있다.

가. 개발협력에 대한 국제강령과의 일치성 제고

과거에는 수원국의 일반적인 경제성장에 대한 지원을 강조하는 가운데 빈곤문제가 중요하게 드러나지 못했던 게 사실이다. 새로운 ODA대강에서는 빈곤완화가 4대 우선분야의 하나로 명시됨으로써 밀레니엄개발목표(MDG)로 대변되는 국제사회의 발전목표가 일본 ODA의 기본방향으로 보다 명시적으로 채택되고 있다.

나. 4대 우선분야

- 빈곤 완화: 교육, 보건, 식수 및 위생, 농업 등에 대한 지원
- 지속가능한 성장: 사회간접자본, 무역과 투자 등에 대한 지원
- 국제적 이슈에 대한 관심: 환경, 전염성 질환, 인구, 식량, 에너지, 자연재해, 테러, 마약, 조직범죄 등에 대한 지원
- 평화구축: 분쟁예방, 응급구호 등에 대한 지원

다. 우선지역

- 일본의 안보와 번영에 직접적 관계를 맺고 있는 아시아지역, 특히 아세안(ASEAN)을 포함하는 동아시아 지역이 최우선 지역임.
- 다음으로 중앙아시아, 아프리카, 중동, 라틴아메리카, 오세아니아 등의 순으로 나타남.

2.2.2. 추진체계

외무성이 개발원조를 총괄하는 주무부처이지만 대장성, 경제통상산업성, 농림수산성 등 여러 부처가 협의체를 이뤄 개발협력을 진행하고 있다. 이를 반영해 새로운 ODA 대강은 ODA에 대한 부처간 협의체를 통해ODA 관련 기관들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자 한다.

외무성이 ODA를 총괄하는 가운데 경제통상산업성은 통상과 투자에

대한 정책을 결정함으로써 일본의 경제협력 시스템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또 농림수산성은 개발협력에 기술전문가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기도 한다.

한편 ODA의 실질적인 운영은 JICA와 일본국제협력은행(JBIC)에 의해 이뤄져왔다. <그림 2-7>은 기술협력과 자금협력을 모두 포함한 2002년도 일본 ODA 관련 예산의 기구별 구성비이다.

그림 2-7. ODA 자금의 기구별 구성비(2002년 현재)

재원	외무성 (33%)	대?	장성 (5	9%)	경제통상 산업성 (3%)	기타 (5%)	
	\downarrow			\downarrow	\downarrow	\downarrow	
예산 운영	외무성 (자금협력 등 19%) JICA (10%)	UN (5%)	국제금융 기구 (11%)	기타 (1%)	일본국제 협력은행 (47%)	경제통상 산업성 (3%)	기타 부처 (5%)

자료: OECD(2004), The DAC Journal 2004

이 중 기술협력(technical cooperation)을 주로 담당하는 JICA가 일본 ODA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표 2-6>과 같다.

표 2-6. ODA 중 JICA 기술협력 비중

단위: 백만 USD

		구분	2002년	2003년
전체	ODA ∄	모	9,359(100.0%)	8,674(100.0%)
	기술합	¹ 력 규모와 비중	2,754(29.4%)	2,828(32.6%)
		JICA 활동 규모와 비중	1,268(46.1%)	1,299(45.9%)
		-기술훈련	218	237
		-전문가	319	315
		-연구팀	328	349
		-협력봉사자	133	132
		-장비지원	111	100
	-기타 봉사자		54	66
		-기타	104	100

자료: JICA(2005), Annual Report 2005

2.2.3. 원조현황

가. 일반 현황

2002년 현재 일본의 ODA 지출 총액은 97억 3천만 달러(2001년도 기준 고정가격)로 DAC 회원국 중 미국 다음으로 규모가 크다. 90년대 초에 비하면 절대적 지원규모가 줄어든 실정이다. ODA/GNI 비율 역시 2002년 현재 0.23%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1991년 0.32% → 1996년 0.20% → 2002년 0.23%).

양자 간 지원규모는 2002년 현재 전체 ODA 중 92.3%인 89억 8천만 달러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역시 1999년 이후 감소하는 추세이다. 양 국 간 ODA 지출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전체의 74%가 아시아지역에 집 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아시아 지역에 대한 집중 정도는 1990년대 이후부터 꾸준히 70% 안팎을 유지하고 있다. 아메리카, 아프리카 등에 대한 지출이 각각 11%, 10% 등으로 그 뒤를 잇고 있다.

국가별 지출 비중을 보면, 주요 5개국에 대한 지원이 양자 간 ODA 지출 전체의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또 양자 간 ODA의 70% 이상이 주요 15개국에 집중되어 있다.

한편 아시아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주요 5개국 중에서도 인도네시아와 필리핀에 대한 지원비중이 줄어드는 가운데 중국과 인도에 대한 지원비중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게 특징이다. 주요 5개국 외에 베트남에 대한 지원이 90년대 이후 증가하고 있으나 아직 전체의 5% 수준에머물러 있다(1991년 2% → 1996년 2% → 2002년 5%).

양자 간 ODA의 분야별 지원현황에서는 경제하부구조에 대한 지원이 37%로 가장 높고, 사회하부구조와 생산부문에 대한 지원이 각각 21%, 14% 등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소분류상으로는 경제하부구조 지원 중 운송 및 저장에 대한 지원이 24%로 가장 높고, 부채경감, 에너지 개

발에 대한 지원, 생산부문 중 농업분야에 대한 지원 등이 각각 13%, 11%, 11% 등을 차지하고 있다.

1991-9	1991-92 평균			6 평균		2001-02 평균			
구분	백만 USD*	비중 (%)	구분	백만 USD*	비중 (%)	구분	백만 USD*	비중 (%)	
인도네시아	1,574	16	인도네시아	1,075	13	중국	1,234	14	
필리핀	954	10	중국	860	10	인도	862	10	
중국	887	9	태국	679	8	태국	775	9	
인도	805	8	인도	664	8	인도네시아	764	8	
태국	544	6	필리핀	640	8	필리핀	683	8	
주요 5개국 합계	4,764	49	주요 5 개국 합계	3,918	47	주요 5 개국 합계	4,317	48	
주요 10개국 합계	6,310	64	주요 10개국 합계	5,164	61	주요 10개국 합계	5,760	64	
주요 15개국 합계	7,418	75	주요 15개국 합계	5,802	69	주요 15개국 합계	6,490	72	
주요 20개국 합계	8,048	82	주요 20개국 합계	6,225	74	주요 20개국 합계	6,959	77	
전체	1527 (100		전체	1587 (100		전체	1447 (100		

표 2-7. 일본 양자 간 ODA 주요 수원국

자료: OECD(2004), *The DAC Journal 2004* 주: *표는 2001년도 기준 불변가격임

나. 농업분야 현황

양자 간 ODA 지출 중 농업분야에 대한 지원은 1990년대와 2000년대 를 통틀어 10% 이상의 비중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 DAC 회원국 전 체의 2001년도 농업분야 지원 비중이 7%인 점에 비춰볼 때 높은 수준 임을 알 수 있다.

표 2-8. 일본 양자 간 ODA의 분야별 지출 규모

단위: 백만 USD, %

	단위: 백단 USD, %						
 분야	1991-92	2 평균	2001-02	2 평균			
선 약	금액*	비율(%)	금액*	비율(%)			
사회하부구조	1,953	16	2,097	21			
- 교육	778	6	861	8			
- 보건	205	2	303	3			
- 인구정책/프로그램 및 생식보건	9	0	14	1			
- 식수공급 및 위생	490	4	501	5			
- 공공행정	117	1	218	5 2 2			
- 기타 사회 인프라 및 서비스	355	3	200	2			
경제하부구조	4,653	39	3,734	37			
- 운송 및 보관	1,970	16	2,460	24			
- 통신	577	5	69	1			
- 에너지 생산 및 공급	1,551	13	1,146	11			
- 금융 및 재정	495	4	38	1			
- 민간기업 및 기타 서비스	60	0	21	0			
생산부문	2,236	19	1,381	14			
- 농림수산	1,414	12	1,164	11			
- 광・공업 건설	787	7	194	2			
- 상업 및 관광	35	0	22	1			
다부문	127	1	553	5			
물품지원과 일반프로그램 지원	1,986	16	43	0			
부채 경감	538	4	1,291	13			
긴급보조	111	1	84	1			
기타	435	3	977	10			
- 행정관리비용	411	3	709	7			
- NGO 지원	24	0	268	3			
합계	12,038	100.0	10,159	100.0			

자료: OECD(2004), The DAC Journal 2004

주: *표는 경상가격임

2.2.4. 원조전략

가. 국가별 원조프로그램(CAP; Country Assistance Programmes) 강화

국가별 전략적 접근을 통한 개발협력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달성하기 위해 2000년대에 들어 베트남, 탄자니아 등에서처럼 국가별 원조프로그 램에 따라 협력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2003년 현재 15개 국가에 대한 국가별 원조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다. 구체적인 원조 사업은 이처럼 외무성이 수립하는 국가별 프로그램에 따라 진행된다.

나. 사업추진의 분권화

국가별 프로그램 수립과정에서는 수원국 주재 대사관에 일종의 ODA 태스크포스가 설치된다. 이를 통해 일본의 ODA 담당 현지기관 간 조정은 물론이고 NGO 및 현장의 민간전문가의 참여가 이뤄진다. 수원국에 대한 정보수집과 전략 개발, 수원국 정부와의 협상, 기타 공여국과의 협상 등이 태스크포스의 주요 기능이다.

이와 같은 과정은 개발협력의 효과성은 물론 사업추진의 지속성과 효율성을 달성하기 위한 현장 중심의 개발협력 분권화(decentralization) 과정으로이해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2.3. 독일

2.3.1. 원조이념 및 기본방향

가. 개발협력에 대한 국제강령 준수

1990년대 들어 원조 관련 정책과 제도가 체계화되었다. 정부부처 및 원조 관련 기관의 원조에 대한 기본적인 지침으로 1996년 "개발정책원칙(Concept for Development Policy)"을 수립하였다. 여기에서는 지속가능한 발전, 개도국의 정치·경제적 조건의 발전 등이 원조정책의 중심적 가치로 설정되었다.

2000년대에 들어서는 2000년 9월에 채택된 밀레니엄 선언과 2002년 멕시코 몬테레이(Monterrey)에서 이뤄진 합의 및 2002년 요하네스버그에서 채택된 행동계획을 독일 개발협력의 기본원칙으로 수용하였다.

이러한 국제강령을 기초로 10가지 조항의 독일 자체 행동강령 "2015년 행동프로그램(Poverty Alleviation: a Global Task, The German Government's Programme of Action 2015)"을 개발하였다.

- ① 경제동력을 개발하고 빈민들의 적극적 참여를 높임
- ② 식량에 대한 권리를 실현시키고 농업개혁을 실시
- ③ 개발도상국들을 위한 공정한 교역 기회를 제공
- ④ 부채를 경감하고 개발프로그램에 재정을 지원함
- ⑤ 사회적 기본시설과 사회보장을 강화
- ⑥ 생활필수자원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고 온전한 환경보전을 촉진
- ⑦ 인권을 보장하고 핵심적인 노동규범을 존중함
- ⑧ 남녀평등의 실현을 장려
- ⑨ 빈민들의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참여를 촉진, 책임행정을 강화
- ⑩ 갈등의 평화적 해결과 인권보장 및 군비감축을 촉진

나. 3대 우선분야

- 참여와 자조(self-help)를 통한 빈곤 완화
- 환경 및 자원 보호
- 교육 및 훈련

다. 원조 제공시 고려조건

- 인권 존중
- 정치적 결정에의 주민참여
- 법치주의

- 사회적 시장경제 도입
- 수원국 정부의 발전공약

2.3.2. 추진체계

가. 연방경제협력개발성(BMZ)

독일은 연방경제협력개발성(BMZ; Bundesministerium für wirtschaftliche Zusammenarbeit und Entwicklung) 에서 ODA를 총괄하고 있다. BMZ는 3 국 37과 조직에 600명 이상의 직원을 갖고 있으나, ODA 집행을 직접담당하지는 않는다.

ODA 집행실무는 전문기관에 위탁되는데, 실무대행기관으로는 독일개 발공사(Deutscher Entwicklungsdienst, DED), 독일투자개발회사(Deutsche Investitions- und Entwicklungsgesellschaft, DEG), 독일기술협력회사(Deutsche Gesellschaft für technische Zusammenarbeit, GTZ), KfW 개발은행 등이 있다.

나. 독일개발공사(DED)

독일개발공사(DED)는 1963년에 개발전문가를 파견하고 수원국을 돕는 공사로 건립되어 지금까지 13,000명 이상의 전문가를 파견하였다. 현재 아프리카, 아시아, 라틴아메리카 등 40개국 이상의 국가들에서 약 1,000명의 DED 개발전문가가 활동하고 있다.

한편 DED는 자체 프로젝트는 가지고 있지 않고 수원국과의 계약에 의해서만 활동하고 있다. 주된 활동은 개발전문가 파견과 수원국의 개발기구 및 자조(self-help)기구를 육성하는 것이다.

다. 독일투자개발회사(DEG)

독일투자개발회사(DEG)는 1962년 재건금융은행(Kreditanstalt für Wiederaufbau,

KfW) 그룹의 자회사로 설립되어 개발도상국에 대한 민간자본의 투자를 육성하는 역할을 해왔다. DEG는 출자액 56억 유로를 활용하여 지금까지 약 370억 유로를 투자하였고, 1,100개 이상의 민간기업과 공동사업을 추진해 왔다.

DEG는 민간자본의 장기적인 투자 지원을 위해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에 노력해왔다. 그리고 DEG는 개발도상국의 농업과 제조업, 서비스 및 인프라 등을 포함하는 모든 산업분야에 있어 지속가능하고 개발에 도움이 되는 수익사업에 대해 투자를 확대하고, 자본투자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개발도상국의 금융시장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고 있다.

라. 독일기술협력회사(GTZ)

독일기술협력회사(GTZ)는 1975년에 설립된 독일연방정부 소유의 민간회사로서 독일정부의 개발협력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전세계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현재 GTZ는 세계 130여국에 약 2,700개의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고, 약 9,500명의 직원이 종사하고 있는데, 이 중 약 1,100명은 전문인력으로 파견된 사람이고 약 7,100명은 수원국의 사람들이다. 67개국에 GTZ 사무소를 개설하고 있다.

GTZ는 조직형태가 민간회사이기 때문에 독일정부 이외에 다른 제3 자(EU나 세계은행 등)의 요청을 용역형태로 수행할 수 있다. 하지만 실제 주된 고객은 독일연방정부, 특히 BMZ가 되는데, GTZ 수입의 약90%가 독일정부 측에서 발생하고 있다. 사업영역은 독일의 개발협력정책이 서술하고 있는 모든 영역을 포괄한다.

마. KfW 개발은행

KfW 개발은행은 KfW 그룹 산하의 은행으로 개발도상국과의 재정금

융상의 협력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이다. 주로 장기자본이 부족한 곳과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개발도상국을 지원한다. 수원국의 개발 협력 파트너로 하여금 경제적으로 수행가능하고 사회적으로 정당한 발 전을 유도하며, 인프라와 금융시스템에 대한 투자를 지원한다.

KfW 개발은행은 기관 스스로 프로젝트를 추진하지 않고, 파트너 국가의 기구가 프로젝트를 수행하도록 하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즉 개발은행은 프로젝트를 심사하여 평가하고, 프로젝트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지도하고 컨설팅하는 것을 주된 임무로 한다.

2.3.3. 원조현황

가. 일반 현황

독일 ODA 지원 내역을 보면, 2002년 독일이 개발도상국과 관련한 지출 총액은 92억 7,000만 유로인데, 이 중 ODA는 56억 5,000만 유로이다. 2002년도 ODA/GNI 비율은 0.28%이다. 시간적 추이를 보면, ODA/GNI 비율은 1990년대 초반에 크게 감소한 후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일정한 수준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다(1990년 0.42% → 1997년 0.28% → 2002년 0.28%).

2002년도 ODA 중 양자 간에 지출된 것은 35억 3,000만 유로로 전체의 약 62.5%이고, EU를 통해 지출된 것이 13억 3,000만 유로로 전체의 23.5%에 달한다. 양자간 ODA를 지역별로 보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가 27.2%로 가장 많고, 중동부 유럽, 아시아 및 태평양지역 등이 각각 21.1%와 17.9%를 차지하고 있다.

양자 간 ODA의 분야별 지원내역을 DAC 분류체계에 따라 살펴보면, 대 분류상으로는 사회하부구조에 대한 지원이 가장 많고 그 다음이 부채경 감 지원이다<표 2-9>. 소분류상으로는 교육에 대한 지원이 가장 많았다.

표 2-9. 독일 양자 간 ODA의 분야별 지출 규모

단위: 1.000유로

		_	단위: 1,000유로		
분야	20	02	2003		
七年	금액	비율(%)	금액	비율(%)	
사회하부구조	1,634,195	33.5	1,914,732	38.3	
- 교육	734,612	15.1	869,448	17.4	
- 보건	161,134	3.3	125,741	2.5	
- 인구정책/프로그램 및 생식보건	55,424	1.1	78,362	1.6	
- 식수공급 및 위생	232,116	4.8	337,888	6.8	
- 공공행정	246,696	5.1	316,624	6.3	
- 기타 사회 인프라 및 서비스	204,213	4.2	186,670	3.7	
경제하부구조	540,744	11.1	597,291	11.9	
- 운송 및 보관	190,276	3.9	162,719	3.3	
- 통신	19,765	0.4	5,130	0.1	
- 에너지 생산 및 공급	114,615	2.3	180,867	3.6	
- 금융 및 재정	147,985	3.0	161,245	3.2	
- 민간기업 및 기타 서비스	68,103	1.4	87,331	1.7	
생산부문	227,350	4.7	198,240	4.0	
- 농림수산	180,516	3.7	134,013	2.7	
- 광·공업 건설	18,881	0.4	53,404	1.1	
- 상업 및 관광	27,953	0.6	10,823	0.2	
다부문	527,474	10.6	580,430	11.6	
- 환경보호 일반	88,422	1.8	92,947	1.9	
- 여성과 개발	11,899	0.2	6,493	0.1	
- 기타 다부문 사항	427,154	8.8	480,989	9.6	
물품지원과 일반프로그램 지원	40,094	0.8	580,430	11.6	
- WB/IMF 구조적응 지원	88,422	0.2	4,000	0.1	
- 식량지원 및 식량안보 지원	21,335	0.4	27,677	0.6	
- 기타 프로그램 및 물품 지원	11,089	0.2	13,367	0.3	
부채 경감	1,304,086	26.7	1,214,575	24.3	
긴급보조	233,400	4.8	152,218	3.0	
기타	370,230	7.6	295,932	5.9	
- 행정관리비용	259,669	5.3	220,061	4.4	
- NGO 지원	3,885	0.1	1,083	0.0	
- 나머지 기타	106,676	2.2	74,787	1.5	
합계	4,877,573	100.0	4,998,463	100.0	

자료: BMZ(2005), http://www.bmz.de

나. 농업분야 현황

농업분야에 대한 지원은 지원승인 규모로 2002년도에 전체 ODA의 3.7%, 2003년도에는 2.7%를 각각 차지하고 있다. 양국관계 ODA 중 약 1/4이 부채경감으로 지원되기 때문에 개별 사업분야별 지원비율이 낮게 나타난다. 따라서 부채경감 지원을 제외한 나머지 지원만으로 지원비율을 산출할 경우, 농업분야에 대한 지원은 전체의 약 4~5%이다.

2.3.4. 원조전략

가. 다양한 원조형태

개발원조의 형태는 수원국에 직접 원조, EU를 통한 원조, 국제기구를 통한 원조 등의 3가지로 분류된다. 먼저, 수원국에 대한 직접원조는 독일형 개발정책 "면모" 제시, NGO와 공동으로 개발협력 추진, 수원국 정부와의 공동으로 개발협력전략 개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독일식 개발모델에서는 독일정부뿐 아니라 민간단체와 자선단체 등 개발도상국의 개발협력에 관심을 가진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즉 독일식 개발협력에서 첫 번째 축은 국가 대 국가의 원조이고, 두 번째 축은 교회와 NGO 등에 의한 개발원조이다.

수원국 국가와의 공동개발전략은 독일정부가 매 2년마다 수원국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공동으로 미래를 위한 전략을 개발하는 것이다.

나. 국별 원조계획

독일은 1992년부터 국별 원조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개발협력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현재 50개국 이상의 국별 원조계획이 있는데, 여기에는 수원국의 향후 목표와 중장기 우선순위가 명시되어 있다.

국별 원조계획은 원조 총괄기관인 BMZ가 작성한다. 이를 위해 BMZ

는 ODA 집행대행기관인 DED, DEG, GTZ, KfW 및 연방외무성, NGO 등과 수원국에 대한 정보를 교환한다. 또 2년마다 실시되는 수원국과의 정책대화시에 수원국으로부터도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 국별 원조계획은 재정지원 및 기술협력의 공식적인 기준이 된다.

다. 농업분야 원조 전략

1988년 '농촌발전에 대한 부문정책적 원칙(Sector Concept on Rural Development)'을 대신해 BMZ는 2001년 11월에 포괄적 다부문 계획을 개발도상국 농업·농촌발전전략의 기본원칙으로 확립하였다. 농촌발전전략의 배경, 목적 및 주요 과제 등은 다음과 같다.

- 개발도상국 농촌발전 원조의 필요성은 인구의 80%와 절대빈곤 인구의 75%가 농촌지역에 거주한다는 점, 갈수록 농촌지역은 세계인구의 식량공급기지로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는 점 등에 있음. 전자에서는 농촌발전이 국가 차원의 빈곤완화에 핵심이라는 점이, 후자에서는 세계 각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의 근간이 개발도상국 농촌지역의지속가능한 발전에 있음을 강조하고 있음.
- 보다 구체적인 농촌지역 발전목표로는 빈곤완화, 환경과 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이용, 공공·민간부문의 민주화 등이 제시됨.
- 주요 개발협력 과제로는 지역적·국가적 의사결정 지원, 농촌지역 자조조직(self-help organization) 형성 지원, 여성 등 소외계층 지원, 보건·의료 지원, 학교교육 및 직업교육 지원, 농림수산업 생산력 증대 및 연구조사활동 지원, 농촌지역 사회간접자본 축적 지원, 지속가능한 자연자원 관리 지원 등이 제시됨.
- 이와 같은 분야별 지원전략은 아시아지역 등 지역별·국가별 지원전략과 짝을 이루면서 공적개발원조의 한 축을 이루고 있음.

2.4. 주요 국가의 ODA 사업 특징

가. ODA의 이념과 기본방향 확립

주요 DAC 회원국의 개발원조는 민주주의 구축, 지속가능한 개발, 빈 곤타파 등 인류의 보편적 가치에 바탕을 둔 철학적 기조나 원칙 하에 서 운영되고 있다. 사업의 효과적 집행을 위한 중장기 전략계획 역시 이러한 국가적 차원의 원칙에 따라 마련되고 있다.

나. 개발협력에 관한 국제강령 준수

대체로 OECD/DAC의 가이드라인이나 UN 등 국제기구가 천명하는 개발협력 지침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수용해 각국의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다. 수원국별 원조계획에 따른 전략적 접근

수원국 중심의 국가별 원조계획을 수립하여 수원국에 대한 개발원조를 계획적·장기적 관점에서 수행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국별 개발원조를 위한 조사 연구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조사연구사업은 역으로 국별 원조계획을 꾸준히 수정·보완하는 토대로 기능한다.

라. 수원국과의 파트너십 구축 및 강화

공급자 중심의 개발원조사업이 파생시키는 문제를 최소화하면서 개발의제의 효과성·효율성·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원국 현지의 공공·민간 주체의 참여와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더불어 수원국과의 파트너십 구축작업은 공여국 차원의 협력사업 추진체계 분권화 및 분권적 주체들 간의 조정 문제 등과 밀접히 연관된 것으로 파악된다.

마. 사업 발굴 위한 적극적인 조사 연구 수행

효율적인 사업 발굴을 위해 수원국 전문가와 함께 수원국에 필요한 사업, 추진 방법 등에 관한 연구사업을 추진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별 원조계획을 수립·조정한다.

제 **3** 장

우리나라 공적개발원조 사업 동향

1. 공적개발원조 사업의 전반적 동향

1.1. 원조이념 및 추진체계

우리의 대외 개발원조는 외교통상부와 재정경제부로 이원화되어 추진되고 있다. 무상원조는 외교통상부 산하의 한국국제협력단(KOICA, 1991년 설립)이, 유상원조는 재정경제부 감독 하에 한국수출입은행이 총괄하되 14개 관련 부처로 구성되는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1987년 설치) 운용위원회의 의사결정에 따르고 있다.

그러나 유상·무상 원조를 집행하는 관련 기관들 간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조정하기 위한 협의기구는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다. 대외경제장관회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운용위원회, 한국국제협력단이사회 등이 유사한 의사결정을 수행하고는 있으나, 종합적인 유·무상 원조계획, 유·무상 원조 지원기준 및 대상국 선정, 유·무상 원조협력방안 등을 논의하는 기구로 기능하지는 못하고 있다.

범정부적 대외협력 추진체계가 갖춰지지 못한 것과 함께 개발원조의

이념, 목표 및 기본방향 등도 명확히 설정되어 있지 않다. 최근 '국제개 발협력법(가칭)'을 제정하려는 시도가 있기는 하나 아직 OECD/DAC 주 요 공여국과 같이 범정부 차원의 이념적 목표나 가이드라인은 확립되 어 있지 않다.

그럼에도 무상·기술협력사업을 주로 담당해온 협력단이 지향하고 있는 개발협력의 기본방향과 목표는 현재 세계의 주요 공여국 간에서 이뤄지는 국제적 논의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국가 차원의 기본철학의 확립 및 원조목표의 구체성 측면에서는 여전히 주요 공여국의 기본방향이나 이념에서는 차이가 있다. 다음은 2004년도 협력단 업무계획에 나타난 협력사업의 기본방향이다.

- 빈곤해소를 위한 개발도상국의 자조능력 배양 지원 강화
 - 우리의 개발경험에 기초한 개발도상국 인적자원개발(HRD) 및 기 관능력 강화에 중점 지원
 - 봉사단원 파견 확대 등 개발도상국과의 인적 교류협력 강화
- 인도적 지원 및 범지구적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 노력 동참
 - 기근·빈곤 등 인간기본욕구(BHN : Basic Human Needs) 해결 및 홍수·한발 등 긴급 재난구호 적극 지원
 - 이라크·아프간 재건지원 등 세계평화 정착 노력에 참여
 - 환경, AIDS, 마약퇴치 등 범지구적 과제에 대한 지원 강화
- 우리와의 협력관계 및 국별 발전단계 등을 고려한 사업 추진
 - 지리·경제·문화적으로 밀접한 관계에 있어 협력효과가 큰 아 시아(특히 ASEAN 국가) 지역 중점 지원
 - 기타 지역은 협력효과와 국별 특성을 감안하여 조화롭게 지원
- 개발도상국과의 경제·통상 파트너십 강화
 -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적극 발굴, 지원
 - 개발도상국의 시장경제 정착, 발전 노력 지원

1.2. 원조현황

2003년 현재 한국의 ODA 지출 총액은 약 3억7천만 달러로 명목가치 측면에서 보면 1995년(1억2천만 달러) 이후 꾸준히 증가해왔다. 양자 간 ODA가 전체 ODA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2년의 74%에서 2003년에는 67%로 감소했다. 이는 지역개발은행이나 국제개발기구에 대한 다자 간 ODA가 급격히 증가한 것에 따른다. 다자 간 ODA는 2002년 7천2백만 달러에서 2003년 1억2천1백만 달러로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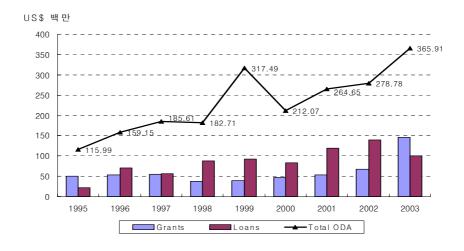


그림 3-1. 한국의 ODA 예산 연도별 추세

한편 지난 10여년 동안의 경향과 비교할 때 2002년과 2003년 사이의 변화에서 특징적인 것은 양자 간 ODA 중 무상원조(grants)가 유상원조 를 앞지르는 점이다. 이와 같은 변화를 뒷받침하는 것은 아프가니스탄 과 이라크에 대한 무상원조가 크게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ODA/GNI 비율의 시간적 추이를 살펴보면, 최근 5년 동안 0.06%의 일 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DAC 회원국 평균 0.25%의 1/4에 불 과한 것이며 우리와 GNI 수준이 비슷한 네덜란드(0.83%), 호주(0.25%), 스페인(0.23%) 등과 비교해도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양자 간 ODA 지출의 지역적 분포를 보면, 아시아지역에 ODA 지출이 집중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1999년 약 65% → 2001년 75% → 2002년 78% → 2003년 65%). 아시아 지역에 대한 지출비중은 미국, 일본, 독일 등 주요 국가들에 비해서도 높게 나타난다. 다음으로는 중동과 아프리카에 대한 지원이 비교적 높다.

국가별로 한국의 주요 5대 수원국은 중국과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이며 이들에 대한 지원은 최근 꾸준히 지속되었다. 2003년에는 이라크에 대한 지원이 증가한 점이 5대 수원국 구성의 변화에도 반영되었다.

단위: % 0.9 0.8 0.79 0.7 0.6 0.5 0.3 **____0.25**(DAC평균,호주) 0.22 0.23 0.2 (DAC평균) 0.1 0.08 0.06 0.06 0.05 ◆ 0.06(한국) 0

그림 3-2. 한국 ODA/GNI 비율 추이

표 3-1. 한국의 주요 5대 수원국 현황

단위: 백만 USD

	200)0년			20	01년		2002년 2001		03년					
우즈	.베키:	스탄	18	베	트	早	28	베	E	남	31	중		국	24
베	E	남	16	우즈	베키	스탄	17	중		국	23	인도	E네/	시아	22
중		국	15	중		국	16	인도	E네/	시아	19	०]	라	크	20
튀	니	지	12	인도	근네/	시아	14	크를	E 아 E]아	16	베	트	남	19
	-		-	스	리 링	카	12	스	리 링	카	13	스	리 링	l 카	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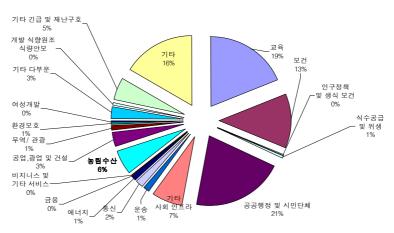


그림 3-3. ODA의 분야별 지출규모(1999년-2003년 누적)

자료: 한국국제협력단 내부자료

지난 5년 동안 분야별 지출규모에서는 사회하부구조에 대한 지원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나는데, 이는 DAC 회원국 전체 역시 사회하부구조에 대한 지원을 늘려가고 있는 점과 궤를 같이 하고 있다. 최근 5년간소분류별 지출구조를 보더라도 공공행정, 교육, 보건 등이 각각 21%, 19%, 13% 등으로 나타나 사회하부구조의 하위분야들에서 지출비율이높게 나타난다. 2003년도 분야별 지출구조에서도 교육(19%), 공공행정(15%) 등 사회하부구조에 대한 지원이 각각 19%와 15%로, 15%와 12%수준에 머문 운송·보관, 통신 등 경제하부구조에 대한 지원보다 높다.

2. 농업분야 협력사업 동향

1999년~2003년 기간 동안 한국국제협력단을 통해 지원된 ODA 금액 (5년 누적) 중 농업분야에 대한 지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5.6%이며, 2003년도 비율은 누적치보다 더 낮은 3.0%에 불과하다. 농업분야가 차지하

는 비율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1999년에 8.9% 수준에 머물러 있다가 이후 6-7% 수준으로 하락하였다.

2003년을 제외하면 최근 농업분야에 대한 지원은 6-7%선에서 안정화되는 것으로 보인다. 각 연도별 농업분야 ODA 지출액의 절대규모 역시 2000년 이후 증가하다가 2003년에 감소하고 있다(1999년 39억9,900만원, 2002년 60억9,600만원, 2003년 43억8,100만원).

그런데 농업분야 협력사업의 2003년도 실적에서 절대 금액과 상대적비율이 적지 않게 축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농촌개발 관련 협력사업의절대 액수와 비율은 증가했다. 농촌개발과 관련한 여러 형태의 사업들은도시개발 등과 함께 '기타 다부문'으로 분류되어 있는데, 이 '기타 다부문'에서의 협력사업은 이전 4년 동안 10억원 안팎에서 이뤄지던 것이 2003년에는 76억원으로 급증하였다. 이 중 농촌개발 관련 사업에 52억원의 예산이 집행되었다. 따라서 농촌개발 사업을 포함할 경우 2003년도 농업분야 협력사업의 비중은 과거와 유사한 추세를 나타내게 된다.

한편 잠재적인 수원국이 2003~2005년 기간 중에 지원받기를 원하는 프로젝트 및 개발조사 분야 수요조사 결과를 보면, 농업분야 수요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사업건수 기준 20%, 사업비 기준 6% 수준이다. 그런데 이 조사결과는 프로젝트 사업과 개발조사에 국한된 것임을 고려할 때, 농업분야 전체 협력사업 수요는 더욱 클 것으로 판단된다. 더욱이 농업뿐 아니라 다부문을 통한 농촌개발사업의 중요성을 고려할 경우, 농업·농촌분야 사업에 대한 요구는 더욱 큰 것으로 보인다.

ODA 지출의 지역별 분포에서는 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등이 농업분야 개발협력의 주요 수원자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경향은 농업분야를 포함하는 한국의 전체 ODA 지출의 지역별 분포와도 비슷하다. 다만 전체 ODA에서 아시아 지역이 차지했던 비율은 70% 수준에 이르렀으나 농업분야에서는 50%에 못 미치고 있다.

35.0 30.0 ─¥ 29.3 (공공행정 및 시민단체) 25.0 20.0 15.0 13.8 10.0 5.1 (기타 다부문) 5.0 <mark>==</mark> 3.0 (농업분야) 0.0 1999 2001 2002 2003

그림 3-4. 타분야 대비 농업분야 비중 추이

자료: 한국국제협력단 내부자료

한편 지역별 ODA 지출에서 농업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각지역에서 농업분야 협력사업의 위치가 보다 뚜렷해진다. 특히 한국의 ODA가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아시아지역에서 농업분야의 사업 비중은 80%에 이르는 지배적 위치를 점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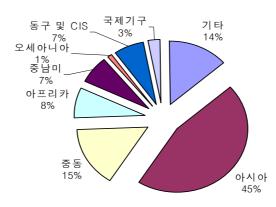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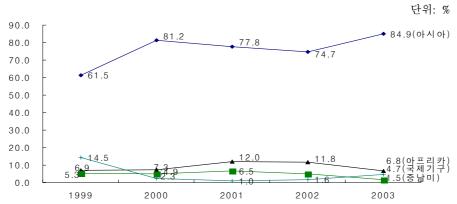
그림 3-5. 농업분야 ODA 지출의 지역별 분포

자료: 한국국제협력단 내부자료

한국의 ODA 지출이 아시아지역을 중심으로 이뤄진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농업분야 사업의 중요성 역시 마찬가지로 높을 수밖에 없다. 아시아지역 다음으로 농업분야 사업비중이 높게 나타나는 곳은 아프리카와 중남미지역이다. 또 최근에는 국제기구를 통한 다자 간 협력에서도 농업분야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농업분야 협력사업의 구체적인 구성내용에서는 프로젝트 사업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연수생 초청 사업이 그 다음으로 비중이 크다. 한편 전문가 파견 사업은 2001년 이후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협력사업에 필요한 개발조사 사업은 거의 전무한 상태이다.

그림 3-6. 지역별 ODA 중 농업분야 비중



자료: 한국국제협력단 내부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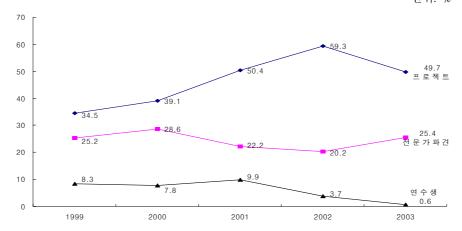
표 3-2. 농업분야 사업형태별 사업비 추이

단위: 백만원

	1999	2000	2001	2002	2003
ODA 총액	45,116	51,276	69,718	77,664	147,900
농림수산 총액	3,999	3,116	4,510	6,096	4,381
프로젝트	1,380	1,218	2,273	3,614	2,176
물자공여	152	187	124	0	23
개발조사	658	3	0	0	0
연수생	1,008	892	1,003	1,232	1,114
전문가	332	244	446	224	26
봉사단	413	461	525	804	719
봉사요원	56	112	139	223	322

그림 3-7. 농업분야 주요 3개 사업의 비중 추이

단위: %



특히 주요 3개 사업형태별 사업비 비중에서는 프로젝트 사업이 꾸준히 증가하는 데 비해 전문가 파견 사업과 연수사업 비중은 감소하고 있다. 정책 통합성 및 사업 간 연계성을 확보함으로써 농업분야 협력사업의 효과제고를 위해 향후 주요한 사업들 간 상호보완적 운영을 더욱고려할 필요가 있겠다.

최근 5년 동안 한국국제협력단이 추진한 농업분야 주요 사업의 국가 별 협력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프로젝트 분야에서는 UN ESCAP을 통한 농촌새마을운동 시범사업(2002-2004년)을 포함해, 모두 10개국을 대상으로 16개 사업이 진행되었다.

그런데 몇몇 국가를 제외하면 사업기간이 단기적으로 설정되어 있다. 중국과 인도네시아에서는 각각 2~3개 프로젝트 사업이 5년 동안지속되었던 반면,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등에서는 개별 사업이 2~3년의 짧은 기간에 진행되었다.

표 3-3. 프로젝트 사업 세부내용(1999-2003년)

<u></u> 연도	국가	사업명	금액(원)
	중국	랑팡시 시범농장 지원(1/3년차)	127,240,447
1000	인도네시아	저습지 벼농사 기계화 지원(2/4년차)	360,544,208
1999	태국	영농개발 지원(3/3년차)	54,081,735
	미얀마	산림녹화 시범(2/3년차)	136,117,470
		농업통계조사 지원	59,619,008
		랑팡시 시범농장 지원(2/3년차)	722,627,194
	중국	농업통계조사 사업	1,552,279
2000		서부지역 조림사업	37,179,594
2000		밀운저수지 보호림 조성사업	16,318,754
	인도네시아	336,237,064	
	태국	영농개발지원(2차)	1,058,389
	미얀마	산림녹화 시범(3/3년차)	37,335,822
		농업통계조사 지원	76,256,846
	중국	랑팡시 시범농장 지원(3/3년차)	274,660,042
		밀운저수지 보호림 조성사업	335,130,720
2001		서부지역 조림사업	158,308,840
2001	 인도네시아	저습지 벼농사 기계화 지원(4/4년차)	501,839,492
	_ ,, ,	건지농업 중점개발	7,952,623
	라오스	볍씨증산사업(1/3년차)	206,434,087
	베트남	새마을운동 시범사업(1/2년차)	189,322,288
		농업통계조사 지원	68,176,559
	중국	밀운저수지 보호림 조성사업	355,172,967
		서부지역 조림사업	1,632,321,603
2002	인도네시아	저습지 벼농사 기계화 지원	537,862
2002		전작물농업 중점개발(1/3년차)	392,614,829
	라오스	볍씨증산사업(2/3년차)	371,138,928
	ESCAP	KOICA-ESCAP 농촌새마을운동 시범사업(1/3년차)	54,204,002
	베트남	새마을운동 시범사업(2/2년차)	143,489,780
	중국	밀운저수지 보호림 조성사업	312,718,917
	0 1	서부지역 조림사업	1,226,503,723
	인도네시아	저습지 벼농사 기계화 지원	26,168,770
	_ ,, ,	전작물농업 중점개발(2/3년차)	222,764,172
2003	라오스	볍씨증산사업(3/3년차)	3,255,098
2000	미얀마	중부지역 산림녹화 시범	8,119,558
	ESCAP	KOICA-ESCAP 농촌새마을운동 시범사업(2/3년차)	352,226,819
	우루과이	농업연구소 지원사업	11,601,101
	루마니아	온실건립 지원사업	8,760,951
	몽골	축산 위생검역능력 사업	3,670,468

같은 기간 동안 모두 16개국을 대상으로 26명의 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진행된 전문가 파견 사업의 국가별·사업별 사업기간은 더욱 단기적인 것으로 나타난다. 인도네시아와 탄자니아에 대한 파견사업 지원이 4년 간 지속된 것을 제외하면, 국가별 전문가 파견 사업은 대부분 2년 안팎의 단기간에 이루어졌다.

또 인도네시아의 농업용수자원 관련 파견사업이 4년에 걸쳐 이뤄진 것을 제외하면, 단일 사업의 사업기간 역시 2년을 넘지 못하고 있다. 프로젝트 사업에서와 마찬가지로 협력사업의 효과성 확보는 물론 국가 간 우호관계 강화를 목적으로 할 경우 지속적인 전문가 파견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표 3-4. 전문가 파견 사업 세부내용(1999-2003년)

연도	국가(전문가 수)	분야	금액(단위: 원)
	인도네시아(2)	농업용수자원	61,825,765
	[한도네시아(2)	임업개발	47,248,724
	메콩강위원회(1)	농업용수자원	74,612,902
	네팔(1)	농업개발	3,291,921
	라오스(1)	식량생산	16,155,371
1999	탄자니아(1)	농업정책 및 행정관리	5,556,747
	몽골(1)	경제작물, 수출작물	31,895,871
	캄보디아(1)	농업정책 및 행정관리	17,018,306
	이집트(1)	농업개발	19,673,125
	휘지(1)	농업용수자원	28,538,164
	에쿠아도르(1)	농업정책 및 행정관리	12,202,997
	인도네시아(1)	농업용수자원	35,278,621
	메콩강위원회(1)	농업용수자원	62,691,464
	라오스(1)	식량생산	46,912,322
2000	페루(1)	임업연구	13,141,520
	탄자니아(1)	경제작물, 수출작물	14,584,968
	이디오피아(1)	경제작물, 수출작물	16,887,018
	베트남(1)	임업 정책·행정·관리	16,235,321

표 3-4. 전문가 파견 사업 세부내용(1999-2003년)(계속)

연도	국가(전문가 수)	분야	금액(단위: 원)
2001	인도네시아(2)	농업용수자원	90,204,903
		경제작물, 수출작물	55,221,432
	메콩강위원회(1)	농업용수자원	33,071,072
	미얀마(3)	경제작물, 수출작물	36,562,275
		경제작물, 수출작물	26,371,793
		경제작물, 수출작물	26,382,628
	라오스(1)	식량생산	687,397
	탄자니아(1)	농업정책 및 행정관리	38,199,580
	몽골(1)	농업개발	23,143,929
	에디오피아(1)	경제작물, 수출작물	15,509,581
	콜롬비아(2)	경제작물, 수출작물	20,319,665
		경제작물, 수출작물	1,694,808
	캄보디아(1)	농업연구	25,558,982
2002	인도네시아(2)	농업용수자원	66,566,000
		농업용수자원	668,471
		경제작물, 수출작물	58,611,000
		경제작물, 수출작물	588,585
	탄자니아(1)	농업관련 기자재	21,329,000
		농업관련 기자재	543,128
	우루과이(1)	식량생산	50,695,000
		식량생산	1,290,915
	이디오피아(1)	식량생산	23,000,000
		식량생산	585,679
2003	아프가니스탄(1)	경제작물, 수출작물	11,822,821

마지막으로 농업·농촌분야 연수생 초청 사업은 5년 동안 55개의 연수과정을 마련해 모두 85개국 800명의 연수생을 대상으로 사업을 실시하였다.

4 3

프로젝트 사업 평가

1. 프로젝트 사업 동향

1999~2003년 기간 중 농업부문 프로젝트 사업은 중국, 인도네시아, 태국, 미얀마, 라오스, 베트남, 우루과이, 루마니아, 몽골 등 10개 수원 국간의 국가 간 협력사업(bilateral cooperation) 중심으로 수행되어 왔다. 그러나 2002년부터 UN ESCAP을 통해 캄보디아 라오스, 네팔에 지원되고 있는 새마을운동 시범사업은 다자간 협력사업(multilateral cooperation)의 형태로도 지원되고 있다.

지난 5년 동안 프로젝트 사업에 지원된 예산은 88억4천만원에 달한다. 1999년도에 6억7천8백만원에서 2003년의 21억7천6백만원으로 증가하여 연평균 29.2%씩 증가하였다. 그러나 프로젝트 사업비는 2002년 이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프로젝트 사업은 주로 아시아권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예외적으로 남미의 우루과이와 동유럽의 루마니아에서도 2003년도에 프로젝트 사업이 수행되었으나 이들 국가에 지원된 금액은 2003년도 전체 프로젝트 사업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미미한 액수이다.

프로젝트 사업이 주로 아시아권 국가에서 수행되었지만 중국에 대한

지원금이 지난 5년간 농업 부문에서 수행된 전체 프로젝트 사업의 63.9%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의 경우는 1999년도 전체 농업부문 공여예산의 18.7%인 1억2천7백만원이 지원되었으며 2003년도에는 15억3천9백만원이 지원되어 전체 농업 부문 공여예산의 70.7%를 차지한 것으로나타나고 있다. 지난 5년간 중국에 대한 프로젝트 사업 지원 금액은 연평균 62.4%씩 증가하였다. 중국에 대한 농업분야 지원은 주로 내륙 내몽골지방의 건조지역에 대한 조림사업 지원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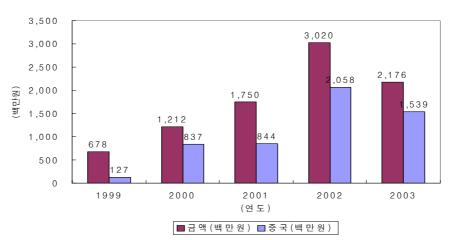


그림 4-1. 농업분야 프로젝트 사업 예산액 추이

2. 프로젝트 사업 추진절차

협력단이 추진하는 프로젝트 사업은 다음과 같은 절차에 의해서 수 행되고 있다.

(1) 수원 창구기관 요청

○ 모든 프로젝트 사업은 수원국의 창구기관(counter part agency)의 요청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됨.

○ 국내 기관에 의해서 프로젝트가 제안되는 경우에도 수원국의 창구기관의 검토를 거쳐 원조 요청이 이루어짐.

(2) 주재국 공관 접수 및 사전 타당성 검토

- 수원국의 창구 기관이 요청하는 프로젝트 사업은 주재국 공관 이 접수하며 주재국 협력단 사무소는 이 제안 프로젝트에 대해 서 사전 타당성 검토를 실시하게 됨.
- 프로젝트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되는 프로젝트는 외교부를 거쳐 협력단에 접수됨.

(3) 협력단 사정 및 승인

- 협력단에 접수된 프로젝트 제안 사업은 전문가 검토와 예산 사 정에 관한 검토를 거쳐 차후 실시될 프로젝트로 잠정 선정되며 외교부의 승인을 요청하게 됨.
- 외교부의 승인을 거쳐 공식적으로 프로젝트 사업으로 선정됨.

(4) 실시계획 수립

- 외교부 승인을 거친 프로젝트 사업은 협력단에서 사업 실시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
- 사업 실시를 위한 기본 계획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
 - 사업 추진 경위 및 배경
 - 사업 추진의 타당성
 - 사업 추진의 기본방향
 - 개발 목표 및 사업 목표
 - 지원 세부 계획
 - 기대 성과

- (5) 사업 실시협의 및 협의문(Record of Discussion: RD) 작성
 - 협력단이 수립한 기본계획에 따라서 사업 실시를 위한 수원국 과의 실시협의를 실시함
 - 실시협의 과정에는 협력단이 수립한 기본계획의 실천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협의함
 - 수원국이 동의한 실시협의 내용은 협력단과 수원국 총괄기관 사이에 사업 실시 협정서(Record of discussion: RD)를 작성함

(6) 사업 실시를 위한 구상서 교환

- 사업 실시협의가 완료된 후 주재국 대사와 수원국 총괄기관장 사이에 구상서(Note of Verbal), 혹은 각서(Note of Exchange)를 교 환함.
- (7) 사업 실시
- (8) 사후관리 및 평가

3. 평가지표 설정과 평가방법

3.1. 평가 지표의 설정

프로젝트 사업의 평가를 위해서 UN이나 세계은행 등에서 실시하는 정성적 평가 방법을 따르되 (1) 사업 선정의 적절성(appropriateness of project selection), (2) 사업계획의 합리성(rationality of project planning), (3) 사업 추진의 효율성(efficiency of project implementation), (4) 사업 추진의 효과성(effectiveness of project implementation), (5) 사업성과의 확산성 (impact of project result), (6) 사업 추진의 지속성(sustainability of project maintenance) 등 6가지의 지표를 설정하였다. 각 지표별로 다음과 같은 세부 사항에 대해서 평가하였다.

3.1.1. 사업 선정의 적절성

- (1) 사업 선정을 위한 타당성 검토가 충실하게 이루어 졌는가?
- (2) 사업이 지역의 특성이 맞도록 선정되었는가?
- (3) 지역 주민의 빈곤 해소와 생활의 기초수요 충족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인가?
- (4) 사업에 대해서 지역 주민과 주재국 정부의 충분한 이해와 참여 속에서 선정되었는가?

3.1.2. 사업계획의 합리성

- (1) 주어진 시간과 예산에 비추어 설정된 목표를 무리 없이 달성할 수 있도록 사업의 목표와 전략이 수립되었는가?
- (2) 사업 목표 달성을 측정할 수 있도록 개발 목표가 객관적인 지표로 설정되었는가?
- (3) 지역 주민, 혹은 수행 주체의 능력으로 사업 목표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도록 계획이 수립되었는가?
- (4) 사업 계획 단계에서 주민 혹은 지방정부가 참여하여 그들의 의사 를 개진하고 반영할 수 있었나?

3.1.3. 사업 추진의 효율성

(1) 공여기관, 정부, 지역 주민이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과 인력, 기자 재 등을 계획된 기간 안에 공급하여 사업을 추진하였는가?

- (2) 사업 계획을 변경하거나 사업 추진이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고 예정대로 사업이 추진되었는가?
- (3) 사업 추진에 지방정부, 단체, 혹은 주민이 자발적인 사업의 주체로 참여할 수 있는 기제(mechanism)가 마련되었는가?
- (4) 지방정부와 지역 주민 간에, 혹은 주민 집단간에 갈등의 소지없이 추진될 수 있었나?

3.1.4. 사업 추진의 효과성

- (1) 계획된 사업의 목표를 제대로 달성하였는가?
- (2) 사업의 성과가 사업지구의 발전이나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할 수 있었는가?
- (3) 사업의 경제적, 사회적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가?
- (4) 사업의 성과에 대해서 지역 주민이 만족하고 있는가?

3.1.5. 사업 성과의 확산성

- (1) 사업의 성과가 주변지역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는가?
- (2) 사업의 성과가 지방정부 혹은 중앙정부 정책으로 반영되었거나 정책 발전에 기여한 바가 있는가?
- (3) 사업의 성과가 보다 발전적으로 변하고 있는가?
- (4) 사업의 성과가 다른 사업에 영향을 주어 성과의 간접적인 상승효과가 나타나는가?

3.1.6. 사업관리의 지속성

- (1) 사업성과가 지속될 수 있도록 정부의 예산이 확보되거나 제도가 정비되었는가?
- (2) 사업성과의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주민 교육 등 자체적인 노

력이 나타나고 있는가?

(3) 사업지구 주민의 재정적 · 기술적 자립 발전의 가능성이 있는가?

3.2. 평가방법

프로젝트에 대한 사후 평가를 위해서는 프로젝트 단위별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사업 실시 후에 나타난 효과에 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지만 이 연구에서는 각 사업별로 5일간 현장 방문을 통하여 단기간 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프로젝트에 대한 사후 평가라고 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평가는 협력사업의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중간 단계 평 가의 성격을 가진다.

제한된 시간 내에 프로젝트 사업의 수행상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찾기 위하여 최근 5년 동안 농업분야 프로젝트를 수행한 국가 중 협력 사업 비중이 큰 국가 중에서 프로젝트 사업을 선정하여 사례연구를 실 시하였다.

이 연구를 위하여 인도네시아, 베트남, 라오스 3개국을 사례연구 국 가로 선정하였으며 이들 국가에서 시행된 인도네시아 저습지 벼농사 기계화사업, 베트남의 새마을운동 시범사업, 라오스의 볍씨 증산 시범 사업에 대해서 사례 연구를 실시하였다. 이 사례 연구는 문헌검토, 전 문가협의, 현지조사 등의 절차를 거쳐 수행되었다.

3.2.1. 문헌 검토

협력단이 비치하고 있는 사업 수행 관련 문헌을 통하여 프로젝트 선정, 사업 타당성 조사 결과, 사업실시 계획 수립, 사업 실시, 사업 종료평가에 관한 절차와 내용을 검토하였다.

3.2.2. 전문가 협의

현지 평가를 위한 조사 실시 이전에 문헌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프로 젝트 실시와 관련된 협력단 관계자 및 파견 전문가 등과의 협의를 통하여 프로젝트 추진에 관련된 사항을 확인한 후 평가 관련 지표를 설정하였다.

3.2.3. 평가를 위한 현지 조사

사례조사를 위한 현지 조사는 다음과 같은 절차에 의해 수행되었다.

- 1) 주재국 대사 면담 및 협력단 사무소 방문
 - 주재국 한국 대사와의 면담을 통하여 프로젝트의 중요성과 사 업성과 평가
 - 사업의 선정과 타당성 조사, 사업 실시, 평가, 현재의 관리 상태 등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주재국 협력단 사무소 직원과 의견을 교환

2) 주재국 협력사업 담당 기관 방문

- 주재국 협력사업 관계자 및 프로젝트 관련 중앙정부 관계자에 대한 면담 평가
 - 주재국 정부 관계자와 프로젝트의 성과와 문제점, 지속 가능성 등에 대하여 면담 조사
 - 프로젝트 실시에 따른 성과와 파급 효과 및 지속성
 - 프로젝트 실시 후 대상국 중앙정부 정책에의 반영 정도
 - 프로젝트 선정과 실시 과정에서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3) 현지 방문 조사

- 지방정부 관계자와의 면담을 통한 사업 효과 평가
 - 프로젝트 실시에 따른 성과와 파급 효과

- 프로젝트 종료 후 프로젝트 지속성을 위한 사후 조치
- 현재의 관리 상황
- 프로젝트 선정과 실시 과정에서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 주민 면담 및 프로젝트 현장 확인
 - 프로젝트 실시 효과에 대한 면담 조사
 - 지역 주민의 참여도
 - 정부와의 협력 관계
 - 프로젝트 실시 과정에서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4) 현지 평가 종합

○ 현지 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협력단 현지 사무소 관계자 및 주 재국 관계자와의 평가 결과 확인 및 의견 종합

4. 프로젝트 사업 평가

4.1. 인도네시아 저습지 벼농사 기계화 사업

4.1.1. 사업 개요

가. 사업 추진 경위

이 사업은 협력단이 매년 조사하는 국내 중앙정부의 개발 수요 조사 결과 농촌진흥청이 제안한 과제가 채택됨으로써 시작되었다. 1995년도 에 KOICA 농업기계 전문가로 인도네시아에 파견되었던 농촌진흥청의 농기계 전문가는 파견을 종료하면서 인도네시아 농업발전을 위해 벼농 사 기계화 사업을 건의한 바 있었다.

귀국 후 동 전문가는 1997년 3월에 협력단이 실시하는 프로젝트 발굴 수요 조사시 농촌진흥청을 통하여 인도네시아 칼리만탄지역의 벼농사 기계화 지원사업을 추진해 줄 것을 협력단에 건의하였다.

농촌진흥청의 건의에 따라서 협력단은 주재국 사무소를 통하여 이 사업의 추진 타당성을 조사하였고 타당성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1997년 11월에 사업 추진 계획서를 작성하였다. 외교통상부는 이 계획서에 따라서 1998년 3월에 이 사업을 공식적으로 승인하였다.

한국 정부가 승인한 이 사업에 대해 인도네시아정부는 1998년 6월에 남부 칼리만탄지역 저습지의 농업기계화 발전을 위하여 벼농사 기계화 시범사업을 지원해 줄 것을 인도네시아 주재 한국 공관을 통해 공식적 으로 요청하였다. 이상의 과정을 일정별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사업 제안

- 1995. 12. 농진청 농업기계화연구소 연구관이 인도네시아 농업 발전을 위해 벼농사 기계화 사업을 추진 할 것을 인도네시아 정부에 건의
- 1997. 3. 농촌진홍청은 인도네시아 칼리만탄지역의 벼농사기계 화지원사업의 추진을 협력단에 건의

2) 사업 타당성 조사

○ 동 사업의 추진을 위해 협력단 인도네시아 사무소에서 사업 타 당성 조사

3) 사업 승인

○ 1997. 11. 타당성 조사를 바탕으로 사업 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외교부 승인 요청

- 1998. 3. 외교통상부가 이 사업 추진을 승인
- 4) 수원국 지원 요청
 - 1998. 6. 인도네시아 정부가 이 사업의 지원을 공식 요청
- 5) 사업 추진 기본 계획 수립
 - 1998. 8. 인도네시아 저습지 벼농사 기계화사업 기본계획 수립
- 6) 사업 실시 협의 및 RD 작성
 - 1998. 9. 인도네시아 저습지 벼농사 기계화사업 실시협의 조사 단 파견
 - 실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인도네시아 정부와 RD 작성 서명
- 7) 구상서 교환 및 사업 실시
 - 1998. 10월 3일 주 인도네시아 대사관과 인도네시아 외교부 간 에 구상서 교환
 - 구상서 교환 이후 사업 실시

나. 사업 추진 배경

인도네시아 정부는 중앙 칼리만탄과 남부 칼리만탄 일부를 포함하는 저습지 100만 정보에 달하는 면적을 단계적으로 농지로 개발하여 벼농사를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었지만 계절적 노동력 수요가큰 벼농사의 경우 이앙과 수확 등의 계절에는 노동력이 부족하여 벼농사 작업의 기계화가 절실히 요청된다고 판단되었다.

인도네시아의 농업기계화는 탈곡, 도정 작업 등 기초 수준에 머물러 있다. 최근에 경운기를 중심으로 경운·정지작업의 기계화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나 칼리만탄 지역은 아직 기계화가 낮은 수준에 있었기 때문에 남부 칼리만탄 저습지의 벼농사 기계화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이 지역의 계절적 노동력 부족 현상을 해소하고 벼농사의 적기적작업(適期適作業)을 가능하게 하여 미곡 증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다. 사업 타당성 검토

인도네시아 정부의 공식 요청에 따라서 협력단은 1998년 8월에 본 사업의 추진 타당성을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인도네시아 저습지 기 계화사업 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수립하였다.

1) 사업의 필요성

인도네시아의 보르네오섬 남부 칼리만탄 주는 광대한 저습지가 분포하며 이지역의 농업 기계화는 인도네시아 농업발전에 매우 긴요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남부 칼리만탄 주는 보르네오섬 동쪽 남단에 위치하며 총면적 37,660평방㎞ (남북 간 길이 110㎞, 동서 간 폭 90㎞)중 벼 재배 면적이 390,300㎞로서 이 지역 전체 식량작물 재배면적의 89.4%를 차지하고 있다.

비리토(Birito)강 하류에 위치한 남부 칼리만탄 저습 평야지는 우기(10월 하순~3월 상순)에 연간 1모작 벼를 재배하고 있으나 "TAJAK"이라는 농구를 이용하여 잡초를 제거하고 물속의 토양을 경운 정지함으로서 농작업 노력이 과다하게 소요됨은 물론 벼 이앙 등 적기(適期) 작업이 어려움에 따라 생산량이 낮기 때문에 동력을 이용한 벼농사 기계화기술보급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판단하였다.

1998년도 현재 남부 칼리만탄의 농기계 보유 대수는 경운기 110대, 트랙터 120대, 탈곡기 1,600여대로 탈곡작업 외의 농작업은 기계화가 진전되지 못한 실정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2) 지원 계획

(가) 사업기간 : 1998~2001(4개년)

(나) 사업비: 110만 달러

(다) 사업 지역: 인도네시아 남부칼리만탄(South Kalimantan, Indonesia) 지역

3개군의 10개 시범지역 내 논 약 5,491ha 지역

- (라) 개발 목표: 인도네시아 저습지 벼농사 기계화 촉진
- (마) 사업 목표: 남부 칼리만탄 저습지 벼농사 기계화 기술보급
- (바) 지원 내역
 - 전문가 파견 12M/M(6명)
 - 일반 농기계 연수생 초청198M/W(36명)
 - 관리자 초청 12M/W(6명)
 - 기자재 공여 트랙터 등 7종
 - 실시 협의 조사/평가 등

(사) 사업 실시 기관

- 인도네시아측: 농업부 식량작물원예청 (DGFCH: Directorate General of Food-Crops and Horticulture, Ministry of Agriculture)
- 한국 측: 국제협력단(주관기관) 농촌진흥청(협력기관)
- (아) 주요 사업 내역
 - 저습지용 농작업 기술개발
 - 제초/경운 정지기술 지원
 - 수확작업 기술 지원
 - 관련 장비 및 자재 지원
 - 제초/경운/수확장비 지원

(자) 지원수단

- 전문가 파견 : 경운/정지/수확 등 저습지벼농사 기계화 관련 분 야 전문가 파견
- 연수생 초청: 경운/정지/수확 및 농기계관리 관련분야 연수생을 초청하여 농기계 실무에 대한 연수 실시
- 관리자 초청(Study Tour) : 저습지벼농사 기계화 정책담당자 초

청, 아국농업기계화 현황견학 및 년차별 사업계획 협의

(차) 기자재 지원

- 저습지용 경운/정지/수확 및 보조 장비 지원
- 관리기, 예취기, 트랙터, 경운기, 트럭 및 선반 등

3) 사전 타당성 조사 종합 의견

- 이 사업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추진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됨.
 - 남부 칼리만탄 저습지 벼농사 체계를 개선하여 이 지역 농업발 전에 기여함.
 - 남부 칼리만탄의 경험을 다른 지역의 저습지 벼농사에 적용시킴 으로서 인도네시아 저습지 전 지역의 기계화를 촉진함.
 - 이 사업의 경험은 앞으로 시작될 중앙칼리만탄 저습지 일대의 개발지역 영농에 적극 활용될 수 있음.
 - 인도네시아는 향후 수년 내 평야지를 중심으로 농기계 보급이 본격화 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국산 농기계의 인도네시아 시장 진출 의미도 크다고 판단됨.

4) 기대 성과

- 저습지 벼농사 기계화 기술 전수
- 농업 노동력 부족 해소
- 쌀의 안정적 다수확 달성
- 저습지 벼농사 농민 소득 증대
- 한국산 농기계 수출기반 조성

라. 사업 추진 실적

1) 사업 기간: 1998~2001(4년간)

- 2) 총사업비 및 지원 내역: 110만 달러
- 3) 사업 대상 지구: 3개군 13개면 지역 47개 마을(8,195ha) 반자루 바루(Banjar Baru)군: 3개면 15개 마을 타나 라우트(Tanah Laut)군: 5개면 16마을 바리토 쿠알라(Barito Kuala)군: 5개면 16마을
- 4) 지원 내역

(가) 연수생 초청

- 3회에 걸쳐 경운/정지/수확 및 농기계관리 관련분야 기술 연수 생 총 39명을 초청하여 농기계 실무에 대한 연수 실시
- 저습지벼농사 기계화 정책담당자 9명을 초청하여 한국의 농업 기계화 현황 견학 및 년차별 사업계획 협의

(나) 전문가 파견

- 경운/정지/수확 등 저습지벼농사 기계화 기술 전수를 위해 농기 계 기술 관련 분야 전문가 6명 파견
- 1999년 농기계 조작방법 전수를 위하여 2인의 전문가를 1개월 간 파견(11월 22월~12월 17일)
- 2001년 농기계 조작방법 전수를 위하여 2인의 전문가를 1개월 간 파견(2월 19일~3월 18)
- 2002년 농기계 조작방법 전수를 위하여 2인의 전문가를 1개월 간 파견(1월 3일~1월 31일)

(다) 기자재 공급

○ 트랙터, 경운기 등 농기계와 작업기, 공구, 수송수단 등 18종

농기계 종류 Banjar Tala Batola Tapin K.Baru Prop 합계 Power Tiller Power Brush Cut Power Cultivator Four Wheel Tractor Bansaw Machine Lathe Machine Power Sprayer Manual Sprayer Work Shop Tools Computer & Printer Laser Facsimile Mini Truck Water Pump Welding Electro Excavator Generator Spare Parts Material

표 4-1. 시범 사업지구별 기자재 지원 내역

마. 사업 종료 평가

프로젝트 종료 후인 2002년 2월 27일자로 협력단 인도네시아 사무소는 이 사업에 대해 다음과 같이 평가하는 종료 평가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1) 평가 요약

- 인도네시아 정부는 벼농사 기계화 시범사업을 통하여 한국의 농기계가 도입되고 기계화 영농기술을 전수받게 되어 인도네시 아 농업발전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함.
- 한국의 입장에서는 이 사업을 계기로 인도네시아 공무원 및 농 민들에게 한국의 농기계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켜 향후 한국산

농기계의 대 인도네시아 진출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음.

○ 그러나 이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종료 2-3년 후 전문가에 의해 종합적으로 사후 평가를 실시할 필요가 있음.

2) 목표달성도

- 상위계획과의 적합성
 - 양측간에 합의한 RD내용을 충실히 이행
 - 농기계 지원 관련 시범사업으로서 의미가 있음.
- 사업목표의 달성도
 - 농기계화를 통한 인도네시아 식량증산 기여 및 농민들의 영 농방법에 대한 인식 전환
 - 한국산 농기계에 대한 인식 제고
 - 향후 한국 농기계의 대 인도네시아 농기계 시장 진출 가능성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임.
- 사업투입 목표 달성도
 - 농기계 전문가 파견을 통하여 인도네시아 농업에 대한 정보 를 확보할 수 있었고 향후 열대농업에 대한 진출 가능성을 확보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됨.
 - 연수생을 초청하여 우리나라의 농업개발 경험을 전수시키고 또 우리의 영농기술과 농기계에 대한 관심 제고
 - 향후 인도네시아 농업시장 진출시 우호적 저변을 조성한 것 으로 평가
 - 한국산 농기계에 대한 성능 확인과 함께 저습지 등 현지 영농조 건에 맞는 농기계의 개발 가능성을 확인하는 계기 조성
 - 쟁기, 동력분무기, 관리기 등 농구 및 농기계는 현지 실정에

부적합함.

- 사업 지속성에 대해서는 공여된 농기계의 부속품이 원활히 교체되어 기계가 지속적으로 활용될 수 있느냐에 달려 있음.

3) 사업의 효과

- 직접적인 효과
 - 쌀 생산량 30-60% 증대, 농작업 노동력 90% 절감, 벼 재배 면 적 확대 등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평 가(남 칼리만탄 주 농업국의 사업 평가 자료)
- 간접적인 효과
 - 지역 농민과 공무원들이 농기계 작업 및 관리 기술 확보
 - 한국산 농기계에 대한 인식 제고
 - 전통농업에서 현대농업으로 변화할 수 있는 계기 제공
 - 새마을운동을 모델로 한 현지 농민과 주·군 정부와 공동노 력으로 농로를 개설하는 등 관·민 협력 증대

4) 자립 발전성

- 조직적 자립발전성
 - 남 칼리만탄 주 및 군청에서 농로 개설 등을 위해 자체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하는 등 적극적 관심 표명
 - 남 칼리만탄 주 농업국에서는 농기계의 수리·정비를 위하여 주 정비소·군정비소를 운영하고 이들 정비소와 시범마을 간의 역할 분담, 필요 인력과 조직을 확보·운영하겠다는 입장을 표명
 - 그러나 이러한 지원이 앞으로 계속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 상됨.

○ 재정적 자립발전성

- 사업 수행 과정에서 수원국의 대충 자금(counter budget) 마련, 농로개설 예산 확보 등이 무리없이 이루어졌음.
- 이미 공여된 농기계의 관리, 정비 인력의 확보와 운영 등에 필요한 예산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할 경우에는 문제 발생 가능성 있음.
- 공여 기자재의 철저한 관리 운영으로 사업 효과가 상당히 지속될 수 있는 마을이 다수 나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지만 마을별 편차가 심할 것임.

○ 물적·기술적 자립발전성

- 이 사업을 계기로 농기계 운전, 수리·정비기술 등에 대한 기술 이전이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됨.
- 그러나 향후 많이 발생할 부품교체 수요에 어떻게 대처할 것 인가 하는 것이 문제임. 공여된 국제 농기계는 현지 부품공 급이 안되고 있음.

5) 관리 운영상의 문제점 및 향후 개선 방안

- 사업 수행상의 문제점
 - 사업 발굴부터 종료까지 특정 전문가 1인에 의해 사업이 추진 됨으로써 사업 추진 과정상의 객관성 확보가 부족함.
 - 이 사업은 농기계 위주로 지원이 이루어진 기계화영농 시범사 업임. 농기계 지원은 영농개선을 위한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 지만 그 자체가 사업목적이 될 수는 없을 것임.
 - 농업 기계화 시범사업은 경지정리와 농로 확보 등 기계화의 여건을 갖춘 지역에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금번 대상 마을 중에는 그러한 여건을 갖추지 못한 곳이 있었음.

- 일부 마을의 경우 농기계에 대한 관심이 극히 미약하여 지원 된 기계가 활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었음.
- 공여된 농기계의 경우 통상 3년 경과시 부품교체 수요가 많이 발생하게 됨에도 불구하고 농기계를 제공한 한국의 국제농기 계는 현지에 부품 공급체계를 갖추고 있지 않음.
- 사업 성과는 현지 농업기관의 통계에 의존하고 있으나 그 통계 가 정확한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함.
- 전문가의 파견이 년 1회 1개월씩 이루어져 충분한 자문활동을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기간이었음.

○ 향후 개선 방안

- 농기계 지원이 아닌 종합적인 영농개발 지원사업으로 전환해 야 함.
- 충분한 현장조사를 거쳐 적정한 후보지를 선정하고 현지 상황에 적합한 지원계획이 수립되어야 함.
- 사업실시 기간 중에 사업 진행 과정을 점검·평가하고 사업 방향을 보완·재정립하는 중간 평가제도가 필요함.
- 충실한 자문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전문가 파견 기간이 충분 히 확보될 수 있어야 함.
- 사업 종료 후에도 사업이 지속되도록 부품 공급이나 사후관 리방안 마련되어야 함.
- 사업 종료 2-3년 후 전문적인 조사평가를 실시해야 함.

4.1.2. 사업 평가

가. 사업지구 현황

인도네시아 저습지 벼농사 기계화사업 대상지구1는 남부 칼리만탄주

내의 3개군, 즉 반자르 바루(Banjar Baru)군, 타나라우트(Tanah Laut)군, 바리토 쿠알라(Barito Kuala)군의 13면(district) 47개 마을에 걸쳐 널리 분 산되어 있었다.

1998년도 사업 추진을 위한 RD 협약 당시 사업지구는 반자르 바루군 (Banjar Baru) 등 3개군 10개 지역의 논 5,491ha에 해당하는 지구였으나 사업 종료시에는 사업지구가 3개군 13개면 47개 마을로 확대되었으며 총 몽리면적도 8,195ha로 증가하였다.



그림 4-2. 인도네시아 벼농사 기계화 시범사업지구

¹ 이 사업의 현지 평가를 위하여 2005년 5월 2일부터 7일까지 인도네시아 중앙 정부와 남부 칼리만탄주 정부의 관계자를 면담하고 사업지구를 방문하여 농기계 워크숍에 비치된 농기계 상태의 점검, 농기계 수리 실태 확인, 농민들의 농기계 활용상태 확인, 논에서의 로터리 작업 등을 확인하고 농민들과 군 공무원들과의 면담을 통하여 농기계 활용도, 농기계 활용상의 문제점, 농기계를 이용한 영농의 유리성과 경제성, 농기계를 이용한 소득증대효과 측정, 농기계 영농조직을 통한 농기계 활용의 지속 가능성 등을 조사하였다.

반자르 바루(Banjar Baru)군은 사업 추진 기관인 남부 칼리만탄 도청이 있는 반자르 마신(Banhar Masin)으로부터 15km, 타나 라우트(Tanah Laut) 군과 바리토 쿠알라(Barito Kuala)군은 각각 30km와 79km 정도 거리에 분산되어 있었으며 이들 군내의 각 면과 마을도 넓게 분산되어 있었다.

나. 사업의 평가

1) 사업 선정의 적합성

이 사업은 벼 재배기술, 특히 벼농사 기계화 기술이 낙후된 남부 칼리만탄주 저습지의 벼농사 기술과 기계화를 촉진시켜 인도네시아의 농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그리고 저습지에서 힘든 노동을하는 농업인들로 하여금 기계화를 통하여 힘든 노동을 부분적으로 해소시켜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사업의 적합성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업이 벼농사기계화영농 시범사업인 점을 감안한다면 시범사업지구로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고 판단된다.

첫째, 기계화 영농에 대한 경제적 타당성 결여다. 인도네시아와 같이 농가 경제력이 취약해서 자력으로 경운기와 같은 농기계를 구입하기 어렵고, 농업 노동력이 풍부해서 기계화 영농의 필요성이 낮은 지역에 서 벼농사 기계화 사업은 경제적 타당성을 찾기 어렵다.

둘째, 지속가능성이 결여되어 있다. 이 사업과 같이 외부의 지원에 의해서 농기계를 확보할 수 있을 경우, 농가 단위에서 기계화 영농이 가능하지만 외부의 지원이 종료될 경우, 농기계의 교체나 부품의 교체가 이루어지기 어렵게 되는 상황 하에서는 농기계의 지속적인 사용이 어렵게 된다. 이와 같은 현상은 현장 조사 당시 일부 지역에서 지원된 농기계의 20% 이상이 기계 고장이나 부품이 교체되지 못하여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이미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지속가능성이 낮은 사업이 선정될 경우 지원이 종료된 이후에 사업이 더 이상 지속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되기 어렵다.

2) 사업 계획의 합리성

이 사업의 1차적 목적은 농기계 공급과 기계에 대한 조작 훈련을 통하여 벼농사 기계화를 촉진하는데 있다. 그러나 이 사업에서 기대하는 것은 쌀 증산과 이모작 논 면적 확대를 통한 소득증대, 그리고 나아가인도네시아 농업발전과 한국산 농기계의 수출 증진에 기여하는 것으로나타나고 있다.

인도네시아 저습지 벼농사 기계화 촉진이 이 사업을 통한 개발목표이며 사업의 목표를 남부 칼리만탄 저습지 벼농사 기계화 기술보급에 두고 있다면 이 사업은 기계 도입과 함께 농기계 조작 및 운전 기술뿐만 아니라 작부체계개선, 기계화 작업에 의한 적기 정밀작업, 벼 재배기술, 시비 및 물 관리, 기계화 영농조직 운영 등을 주요 사업계획으로 채택해야 마땅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 사업은 계획단계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지적된다. 첫째, 농기계 공급 중심으로 사업 계획이 수립되었다. 이 사업의 지원 규모는 110만 달러로서 지원액의 70.4%를 기계지원에 충당하고 20.1%는 사업추진과 관련된 연수사업에 사용하고 있으며 전문가 파견 예산은 6.4%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모작 논 면적 확대와 농가 소득증대라는 목표달성에 필수적인 작부체계개선, 기계화 작업에 의한 적기 정밀작업, 벼재배 기술, 시비 및 물 관리, 기계화 영농조직 운영 등은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았다.

둘째, 예산과 인력에 비해 지나치게 광대한 사업지구가 책정되었다. 사업지구는 3개군 47개 마을에 8,195ha에 이르는 광대한 면적을 지니고 있다. 벼농사기계화시범사업이라는 특성을 감안할 때, 시범사업지구가 지나치게 방대하다. 이와 같이 방대한 사업지구에 주 전문가 1인과 보 조 전문가 1인이 연간 1개월씩 파견되어 농기계 이용과 관리 등에 관한 현장 지도를 한다는 것이 무리라고 판단된다.

셋째, 실현 가능성이 적은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이 사업은 ① 저습지 벼농사 기계화 기술 전수, ② 농업 노동력 부족 해소, ③ 쌀의 안정적 다수확 달성, ④ 저습지 벼농사 농민 소득증대, ⑤ 한국산 농기계수출기반 조성 등으로 기대 성과로 삼고 있다. 이 중 ①, ②, ③ 등은이 시범사업을 통하여 사업지구 농가를 대상으로 달성 가능한 목표라고 평가되지만 ④, ⑤는 이 사업으로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이기 때문에계획이 현실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넷째, 공여된 농기계중에는 현장에 적합하지 않은 기종이 공급되었다. 이 사업에 의해 공급된 농기계는 남부 칼리만탄의 저습지에 적합한 농기계라고 보기 어렵다. 반자르 바루 군의 시범사업 현장에서 농민들은 한국산 농기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문제들을 지적하고 있다.

- 이 사업에 의해 공급된 습지용 경운기 철바퀴가 너무 무거워 활용되지 못한 채 창고 한 편에 보관되어 있으며 자체적으로 가벼운 철바퀴를 제작하여 사용하고 있음.
- 저습지에서 중량감 있는 농기계를 무리하게 운행하기 때문에 바퀴 와 본체를 연결하는 조인트가 쉽게 부서짐².
- 로터리 날과 같이 간단한 부품은 자체 제작해서 사용하고 있으나 중요 부품은 교체가 이루어지지 않아 농기계의 활용도가 낮음.
- 전작용 관리기, 저습지 논에서의 사용하기 어려운 수확기 등이 공 급되었음.
- 이와 같은 현상은 현지 사정에 대한 정확한 조사 없이 농기계를 공

² 현지 주민은 한국이 제공한 경운기는 8마력으로서 6마력의 일본제 얀마 경 운기보다 힘이 있어 인기가 있지만 일제인 얀마 경운기는 로터리 칼날을 3 개만 장착하여 로터리 작업을 함으로 국산 경운기에 비해 작업을 쉽게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급한 결과라고 판단된다.

다섯째, 농기계 사용에 필요한 농로 등 인프라가 미흡한 지역이 선정되었다. 이미 사업 종료 평가에서도 지적된 바와 같이 사업지구에서는 농기계를 사용하기 위하여 별도로 농로를 개설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을 만큼 농기계를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이 미흡한 지역이 선정되었다. 이 사업이 시범사업인 점을 감안한다면 농로가 정비되어 농기계 사용이 가능한 지역을 시범사업지구로 선정해야 소기의 성과를 얻을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여섯째, 농업기계화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지닌 지역이 선정되었다. 이 사업 도입 당시 벼농사 기계화에 대한 주민의 태도는 부정적이었기 때문에 부정적 시각을 극복하고 기계화 영농에 참여하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렸다. 따라서 기계 이용률이 낮고 시범사업의 효과도 기대한 것만큼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이 시범지역 확정 당시 영농 전문가, 지역 주민, 지역 의 전문가들과의 충분한 협의가 있었다면 시정할 수 있는 문제였다고 판단된다.

3) 사업 추진의 효율성

이 사업은 110만 달러로 농기계를 공급하고 이들 농기계의 운전 조작 방법을 전수해 주는 벼농사 기계화시범사업으로 계획되었다. 이 사업이 시범사업인 점을 감안한다면 전문가가 지도하기에 적당한 정도의 규모 의 면적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이 사업은 추진 과정에서 사업지 구가 방대하게 확대되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지적된다.

첫째, 사업 지구가 지나치게 외연적으로 확대되었다. 당초 이 사업은 남부 칼리만탄주의 반자르 바루군 등 3개 군 10개 마을 약 200ha 지역 에 한정하여 시범사업을 추진하고자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1998 년도에 실시한 현장 조사와 인도네시아 정부와의 협의 과정에서 대상 면적이 5,491ha로 대폭 확대되었고, 사업 종료 당시에는 3개군 13개 면 47개 마을로 시범지역이 확대되고 논 면적도 8,195ha로 확대되었다.

지원 예산과 전문가 파견이 확대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지구가 대폭 확대된 것은 그만큼 수혜층이 얇아지고 시범사업의 효과가 약화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기술교육 실시와 기술 전수 등에서 어려운 점이 발생하였고 사업 효과도 크지 않은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판단된다3. 따라서 이 사업은 시범사업이라는 당초의 목표를 벗어나 지원사업의외연적 확대에 치우쳐 추진되었으며 당초 기대했던 성과를 달성하기위한 노력이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되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둘째, 시범사업지구 운영을 위한 적정 사업비 확보 및 지출에 관한 문제이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부담하는 부분은 농기계를 보관하고 수 리하는 워크숍의 관리 인력 제공 등으로 극히 제한되어 있었으며 RD 상 협의된 인도네시아 정부의 지원은 계획대로 집행되었다. 협력단도 RD상에 규정된 110만 달러의지원금이 계획대로 집행하였다.

협력단에서 파견한 전문가는 연 2회씩 총 12개월 파견될 계획이었지만 실제로 연 1회 총 6개월간(연간 2명씩) 파견되었기 때문에 효율적인기술교육이 어려웠다고 평가된다. 또한 인도네시아 정부측 시행기관에서도 농기계 공급 이후 시범사업지구에 대한 영농교육 계획, 필요 예산확보 등 적절한 행정 조치가 주체적으로 따랐어야 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에 농기계 조작과 관리 기술자를 확보하기 위하여 칼리만탄주 사업 대상 군의 농기계 실무자 39명에 대한 실무 교육을 농촌진 흥청에서 실시하여 농기계 기술의 현지화에 기여한 점은 높이 평가다.

³ 현장 조사 시 일부 지역에서는 농기계 훈련을 받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추가 적인 훈련을 실시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4) 사업 결과의 효과성

이 사업은 사업 목표로 제시한 사업지구 내 저습지벼농사 기계화 기술은 성공적으로 보급되었다고 평가된다. 그러나 개발 목표인 인도네시아 저습지 벼농사 기계화 촉진, 식량증산이라는 목표는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 사업의 직적적인 효과와 간접적인 효과는 다음과 같이 평가될 수 있다.

이 사업의 직접적인 효과로 쌀의 증산과 경영비 절감 효과를 들 수 있다. 기계화 영농을 시행한 농가의 경우, 쌀 생산은 30% 내외의 증산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⁴. 그러나 쌀의 증산 효과는 2모작에 의한 것이기보다는 적기적작업(適期適作業)이 가능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⁵.

벼농사 기계화 영농은 인력에 의한 전통적인 영농방식보다 ha당 150,000루피아(Rps)의 경영비 절감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전통적으로 Tajak이라는 농구를 이용하여 인력으로 1ha의 농지를 정지하는데 소요되는 인건비는 600,000루피아이나 경운기를 이용할 경우 ha당 정지 비용이 450,000루피아로 감축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이 절감 비용이 경운기의 감가상각비를 충당하기에는 부족한 실정이기 때문에 기계화 영농의 경제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저습지 영농이 힘들고 작업 시간이 많이 걸려 적기(適期) 적작업(適作

⁴ 재래종의 경우 ha당 2.8톤에서 3.8톤, 다수성 신품종의 경우 3.1톤에서 4.0 통 정도의 증수가 있던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⁵ 관행 방식인 인력으로 2모작을 할 경우, 여름 벼를 재배한 후 가을에 다수 성 2모작 벼를 재배하는 데 필요한 작물 간 재배 간격이 짧아 경운으로 나 타나는 산성토양의 피해가 나타나는 반면, 기계작업인 경우는 정지 작업 후 1주일 정도 기간이 경과하여 산성화된 토양이 원상회복된 후에 이앙하게 되어 벼의 생육 상태가 좋아져 증산 효과가 나타난다고 지적하고 있다.

⁶ US\$ 1.0은 약 10,000루피아(Rps)에 해당한다.

業)이 어렵게 되어 농업생산에 지장을 초래하므로 인도네시아정부가 농기계 구입비용을 대폭 지원하여 농기계의 구입가격이 크게 인하될 경우 벼농사 기계화의 경제적 타당성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 사업의 간접적인 효과로 기대되었던 2모작 지대의 확대, 벼농사 기계화 기술도입으로 인한 기계화 영농 면적의 확산, 한국산 농기계의 수출 효과 등은 확인되지 않았다.

5) 사업 성과의 확산성

- 이 사업은 인도네시아 중앙 정부 차원에서 남부 칼리만탄의 벼농사 기계화 시범사업의 경험을 타 지역에 확산시킨다는 목표를 지니고 있 었으나 이 사업 이전에 이미 일본과 중국의 경운기가 도입되어 기계화 영농 기술이 보급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사업으로 인한 영농기술의 혁 신성(innovation)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이 사업이 2모작 벼 재배 면적 확대나 벼 재배 기술 혁신 등의 성과를 기대하고 있었으나 결과적으로 이 사업을 통하여 시도된 2모작 시범사업이 나 기계 운전 조작 이외의 벼농사 재배기술 전파는 나타나지 않고 있었다.
- 이 사업에 의한 효과, 즉 기계화 영농의 경험을 다른 지역으로 확산 시킨다는 계획은 사업 실시 과정에서 구현되지 않았다.
- 이 지역 농민들이 경운기 부품을 구입하려 해도 한국산 경운기 부품을 공급하는 업체가 없고, 한국산 경운기를 구입하고자 해도 이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와 같은 현실 하에서 이 사업의효과에 의해서 한국산 농기계의 수입 계기를 마련한다는 계획은 지나치게 막연한, 현실성이 결여된 계획인 것으로 판단된다.

6) 사업의 지속성

이 사업의 지속성 여부는 농민들이 필요한 부품을 지속적으로 조달

하고 노후화된 기계를 대체할 수 있을 만큼 경제력이 향상되어야 가능하다. 현재는 이 사업에서 조달한 일부 부품과 자체 제작한 부품으로 유지되고 있지만 중요 부품 부족으로 일부 지역에서는 경운기의 20% 정도가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인도네시아 정부가 농기계 수리센터인 워크숍의 기자재와 부 품을 공급해 주고 농기계 수리 서비스를 확충해 준다면 이 사업의 지 속성은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인도네시아의 농기계 이용조직인 Woopja는 농기계의 공동 이용 조직으로 농기계의 활용도를 높이고 협동을 통해 기계화 영농을 가능하게 해 준다는 측면에서 장려되어야 할 중요한 농업생산 조직으로 평가된다. 협력단에서 지원한 시범사업지구의 기계화 영농의 지속성을 위해서도 이와 같은 조직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이 요청된다.

4.2. 베트남 새마을운동 시범사업

4.2.1. 사업 개요

가. 사업 추진 경위

한국의 농촌새마을운동은 한국형 농촌개발모델로 UN 등 국제사회에 잘 알려져 있으며, 아시아 여러 나라에서 농촌개발을 위한 수단으로 도

⁷ 농민들은 Woopja라고 하는 농기계 이용조직을 조직해서 농기계를 임대하고 있다. 시범지역 안에 경운기 11대로 9ha의 농지를 경작하는데 회원으로 구성된 한 Woopja의 경우 1개월간 경운기를 임대하는데 500,000루피아를 지불하고 있다. 이 경운기를 임대한 농가는 농기계 임작업을 통하여 개별 수입을 얻고 있으며 농기계 조직인 Woopja는 기계 임대를 받아 기계 감가상각비 충당 내지 기계부품 교체 등의 비용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 Woopia의 경우 1999년 이후 2004년까지 22,000,000루피아를 저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입하려는 시도가 꾸준히 진행되어 왔다.

한·베트남 수교 이후 베트남 정부 관료들이 한국정부의 초청으로 한국을 방문하여 농촌새마을운동을 시찰하고 이를 베트남에 도입하기 를 희망하였으며 이에 따라서 베트남 정부와 KOICA는 베트남에 농촌 새마을운동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와 같은 배경 하에 1999년도 9월에 협력단 전문가가 파견되어 고 위직을 대상으로 정책세미나를 개최하였고 2000년 6월 29일부터 2000 년 9월 28일까지 3개월 간 협력단 전문가 1인이 파견되어 새마을운동 시범사업 지구 선정, 계획수립 지원 등 베트남 정부와 합의한 목적 달 성을 위하여 활동하였다.

베트남 농촌개발 모델로서 농촌새마을운동의 베트남 시범 사업 추진 경위는 다음과 같다.

- 1999. 5. 베트남 주재 한국공관이 무상협력사업으로 한국의 새마을 운동을 베트남에 시범사업으로 지원할 것을 공식 요청
- 1999. 9.~10. 서울대 이질현 박사가 새마을운동 전문가로 파견되어 새마을운동 관련 세미나 개최, 고위직 면담 등 활동 전개
- 2000. 6.~9.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정기환 박사가 새마을운동 전문 가로 파견되어 시범사업 지구 선정(2개 지역 7개 마을) 및 새마을 운동 시범사업 추진 계획서 작성
- 2001. 1. 2001년 프로젝트 사업으로 외교부 승인 확정
- 2001. 4. 동 사업계획서 수립
- 2001. 6. 시범사업 실시 협의 및 RD 서명

나. 사업 추진 배경

베트남은 1986년 경제개혁 이후 연평균 7.7%라는 높은 경제성장을 기록해 왔으며, 이와 같은 경제성장은 주로 비농업분야의 빠른 성장에 서 비롯되고 있다. 2000년 베트남 정부 통계에 의하면 농촌부문에 거주하고 있는 인구는 78%를 점하고 있지만 1999년도에 베트남의 GDP에서 농업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45%에 불과하며 농촌지역 주민의 1인당월 평균 소득은 도시지역 주민의 1인당월 평균 소득의 1/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1996년 이후 농촌지역 주민의 소득은 평균 20% 성장한 반면, 도시지역 주민들의 소득은 63% 성장한 것으로 나타나 도·농 간의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

경제의 부문간 성장 격차로 인해 베트남은 농업과 비농업, 농촌과 도시부문간의 발전 격차가 현저해지고 농가와 도시 근로자간의 소득격차가 벌어져 사회갈등이 심화되는 등 도·농간 발전격차는 정치적 부담으로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으며 농촌지역의 소득증대와 고용창출, 사회하부구조 개발과 생활환경 개선 등이 베트남 정부가 시급히 해결해야 하는 당면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의 새마을운동을 바탕으로 하는 베트남형 농촌개발 시범 사업을 추진하여 농촌의 생활환경 개선과 생산기반 정비, 소득활동 개 발 등을 통하여 도농간 발전격차를 해소하는 일이 중요한 정책 과제로 등장하였다.

다. 사업의 타당성 검토

1) 사업의 필요성

베트남의 농업인구는 전체 인구의 78%를 차지하고 있으나, 생산량은 전체 GDP의 45%에 불과하며, 농가 소득 또한 도시 가구원의 1인당 월 평균 소득 \$59의 27.3% 수준에 그치고 있어 도시와 농촌간의 심각한소득불균형에 처해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새마을 운동은 소속 마을 및 지역의 환경 및 농업여건을 자발적인 조직 및 노력으로 개선하고 발전시켜 소득 증대를 이루고자

하는 정신운동으로 과거 우리의 농촌지역과 유사한 베트남 농촌지역에 우리 경험을 알맞게 접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새마을 운동 모델전수로 1989년 이래 시장경제 도입 후 베트남 정부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용 창출 및 소득 증대, 생활환경 개선 등 베트남 정부의 농촌근대화 노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2) 지원 계획

- 사업기간: 2001~2002년(2개년)
- 사업비: 30만 달러
- 사업 지역: 2개 지역 7개 마을
 - Thai Nguyen성 Dai Tu군 Khioi Ky면내 6개 마을
 - Quang Tri성 Vin Linh군 Vinh Thanh면 Hien Lung마을
- 개발 목표: 새마을운동 모델 전수로 지역 주민의 생활여건 개 선 및 소득증대
- 사업 목표: 지역 주민의 농업생산량 증대 및 생활환경 개선
- 지원 내역
 - 전문가 1인 파견: 2년간 4개월씩 2회 파견
 - 연수생 초청: 24인
 - 건축지원: 소규모 댐, 관개수로개설, 마을회관, 주택개량 등
 - 기자재 지원: 마을회관 집기 등
 - 농업생산 관련 훈련지원
 - 봉사단원 파견: 2인
- 사업 실시 기관
 - 총괄책임: 농촌개발부(Ministry of Agriculture and Rural Development)
 - 시행기관: 국립농촌계획연구소(National Institute for Agricultural Planning and Projection)

3) 기대 성과

- 사업대상 지구의 관개시설, 도로 개보수 등을 통한 농업 여건 과 인프라 개선
- 농업생산량 증대로 농가소득 증대
- 새마을지도자 육성 및 교육을 통한 주민의 자조정신 함양

라. 사업 추진 실적

1) 전문가 파견

- 2001~2002년 기간 중 3회 총 4개월간 파견하여 사업실시에 필 요한 공무원 및 주민 교육,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의견 조율, 베트남측 예산확보 지원, 사업 실시 지원 등 활동
- 2002년도 사업 종료 시점에서 사업 추진에 관한 평가 실시 및 사업 성과에 관한 세미나 개최

2) 연수 훈련

- 사업 실시를 위해 사업지구 지도자, 시행기관 및 해당 자치단 체 관련 공무원 등 24명에 대한 국내 초청 연수
 - 연수실시기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연수 내용:새마을운동의 배경 및 이론계획 수립 및 사업 시행 방법

3) 사업 대상 지구

○ 사업 대상 지구는 북부 Thai Nguyen성 Dai Tu군 Khioi Ky면내 6개 마을과 Quang Tri성 Vin Linh군 Vinh Thanh면 1개 마을

- 4) 새마을운동 시범사업의 내용
 - 지구내의 농업생산기반 정비, 마을환경과 주거환경 개선, 소득작목 도입, 보건, 위생 향상 사업, 교육환경 개선사업, 청소년 문화 지원, 새마을정신 함양을 위한 새마을운동의 날 지정 등 종합적인 개발을 지향하는 내용으로 추진
 - 코이키(Khoi Ky) 지역의 사업 계획 대비 실적

	계획(A)	실적(B)	A/B(%)	비고
n O 취기기기				7132
마을회관건립	2동(230m²)	2동(270m²)	100.0(117.0)	
관개수로	2983m	3000m	100.0	
소규모 댐건설	35m	-	-	사업변경
도로포장	3.0km	500m	16.7	예산배정지연
주택개량(가구)				
-부엌개량	404	318	78.7	
-화장실건축	150	152	101.3	
-샤워장건축	115	153	133.0	
-우물 개량	243	185	76.1	
교육시설지원				
-컴퓨터	2대	2대	100.0	
-앰프	1조	1조	100.0	
-유아원 장난감	1조	1조	100.0	
보건사업지원				
-구급약	6조	6조	100.0	
-자전거	6대	6대	100.0	
기타 자재				
-기타	12대	12대	100.0	
-스포츠 기구	1조	1조	100.0	
-마을회관 비품	1조	1조	100.0	
농업신용	US\$ 10,000	US\$ 10,000	100.0	

○ 빈짠(Vinh Tran) 지역의 사업 계획 대비 실적

	계획(A)	실적(B)	A/B(%)	비고
마을회관건립	1동(160m2)	1동(242m2)	100.0(152.5)	
유아원	-	1동		
관개수로	2983m	2983m	100.0	
도로포장	1.52km	2.20km	144.7	
주택개량(가구)				
-부엌개량	143	134	93.7	
-화장실건축	126	128	101.6	
-세면실건축	127	126	99.2	
 교육시설지원				
-컴퓨터	2대	2대	100.0	
-앰푸	1조	1조	100.0	
-유아원 장남감	1조	1조	100.0	
-학교 교육자재	1조	1조	100.0	
보건사업지원				
-구급약	1조	1조	100.0	
-자전거	1대	1대	100.0	
기타 자재				
-기타	2대	2대	100.0	
-스포츠 기구	1조	1조	100.0	
-마을회관 비품	1조	1조	100.0	
농업신용	US\$ 14,000	US\$ 14,000	100.0	

마. 사업 종료 평가

프로젝트 종료 후 2004년 2월에 협력단 베트남 사무소는 다음과 같은 사업 종료 평가서를 작성하였다.

베트남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 하에 추진된 2개 지역 7개 마을의 농촌 개발 시범사업은 지역주민의 생활여건 개선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향 후 농가소득증대에도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됨.

1) 목표 달성도

- 개발 목표인 새마을운동 모델 전수로 지역 주민의 생활여건 개 선 및 소득증대는 대체로 달성된 것으로 평가
- 사업 종료 평가시 주민의 56.8%가 매우 성공적으로, 39.4%가 성 공적으로 사업이 수행되었다고 평가

2) 기대 성과

- 대상지역의 관개시설과 도로개보수 등을 통한 농업 여건 개선 에 대해서 두 지역 주민 모두 만족하였으며 마을회관과 유치원 건축을 높이 평가함.
- 농업생산 증대와 소득증대를 위해서는 2만4천달러의 농업신용 이 운영 중에 있으므로 향후 신용사업이 정착되어 예정대로 운 영될 경우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새마을지도자 육성 및 교육을 통한 주민의 자조정신 함양에 관련해서는 군 농업부 직원들이 방문지도, 교육 등을 통하여 이루어졌으며 봉사단원들이 컴퓨터 교육을 실시하였으나 성과는 대체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 마을 주민이 생산기반 등 인프라 개선에 관심을 갖고 있어 협 동을 바탕으로 하는 자발적인 새마을운동정신이 뿌리내리기에 는 한계가 있음.

3) 투입의 적정성

○ 지원 내역과 투입이 적정했던 것으로 평가됨. 그러나 당초 예정되었던 전문가 파견 기간이 단축됨에 따라서 당초 30만 달러집행에 못 미치는 26만1천 달러를 집행하였으며 베트남 측은 18만 달러를 투입하였음.

○ 일부 사업에서 베트남 측의 예산 미확보 등으로 사업 지연 현상 이 나타났으나 투입 내역은 대체로 적정한 것으로 평가

4) 지속가능성

- 동 사업은 베트남 정부측의 적극적인 관심과 사업 의지에 따라 서 지속가능성이 매우 높은 편임.
- 베트남 정부는 동 사업의 경험과 빈짠지역의 모델8을 다른 마을로 확대할 계획을 수립 중임을 감안할 때, 동 사업의 효과와 발전 가능성은 높다고 할 수 있음.
- 이를 위해 지역개발 모델링에 대한 자문과 소득증대를 위한 기술 자문, 농업신용 관리에 대한 지속적인 자문이 필요함.

4.2.2. 사업 평가

가. 사업지구의 현황

1) 코이키 커뮨

코이키 커뮨은 하노이에서 150km 정도 서북쪽에 위치한 타이웬성 다이투현에 속한 커뮨으로 한국의 면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주변이 산으로 둘러싸인 중산간지대에 속한다. 주변의 높은 산에서 발원하는 작은 강들이 코이키 커뮨을 관통하고 있어 대부분의 농가들이 이 강물을 이용하여 벼농사를 짓고 있다.

특히 사업 대상 지역인 코이키 커뮨의 나팍(Na Phac)과 선매(Son Me) 마을은 이 지역을 흐르는 카이(Cai)강 줄기에 돌로 보(洑)를 만들어 수리(irrigation)에 활용하고 있다.

⁸ 베트남에서는 빈짠지역의 한 마을을 대상으로 실시한 시범사업 모델을 꽝 찌모델(Quang Tri Model)이라고 부른다.

코이키 커뮨은 중산간지역이기 때문에 코이키 커뮨 소재지에서 마을 간을 연결하는 도로가 나뭇잎 형태(dendroid type)로 잘 발달하였다. 그 러나 마을과 마을 간의 거리가 멀어 도로의 관리 상태가 불량하고, 특 히 우기에는 도로 면이 진흙이기 때문에 차량의 통행이 매우 어려운 지역이다.

코이키 커뮨 지역은 수도작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건조한 지대에 농가들이 집단적으로 모여서 마을을 이루는 집촌형(clustered type) 취락형태를 지니고 있지만 중산간지역에 위치하기 때문에 평야지와 달리마을의 규모는 평균 50~60호 정도로 소규모이며 계곡을 따라서 분산된 형태를 보이고 있다.



그림 4-3. 베트남 새마을 시범사업 지구

시범사업 대상 마을은 나팍과 선메 두 행정리로 구성되어 있지만 나 팍의 3개 자연마을, 선매의 3개 자연마을, 도합 6개 자연마을로 구성되어 있다. 나팍과 선매마을에는 각각 행정적으로 마을을 대표하는 이장이 있지만 자연부락별로 각 마을을 대표하는 이장을 별도로 지니고 있다. 6개의 자연부락은 각각 지역사회를 운영하는 부녀회, 청년회, 노인회, 재향군인회 등이 있어 자치적인 지역사회 구조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6개의 자연부락이 실질적인 마을이며 나팍과 선메마을은 행정구역 통합에 의해서 인위적으로 구성된 행정단위이다.

표 4-2. 코이키 커뮨 시범사업지역의 농가 및 인구 구성

구 분	가구수	인구수(명)			소수민족수
		계	남	여	2千七年十
Son Me	210	1,041	513	528	4
- N Nieng	69	350	175	175	4
- Son Me	53	308	149	159	3
- Bai Pho	88	383	189	194	3
Na Phac	194	861	430	431	9
- Go Mieu	69	311	153	158	6
- Ngon Dong	53	225	118	107	6
- Go choi	72	325	159	166	7
계	404	1,902	943	959	9

시범사업 지역의 농가 수는 총 404호이고 인구는 1,902명이며, 이 지역의 주민들은 모두 9개 민족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중에서 베트남 족인 킨(kinh)족이 80% 정도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무엉족이 그 다음을 차지하고 있다. 한 마을이 3~9개 다민족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마을에서 민족간의 갈등은 잘 표출되지 않은 채 민족 고유의 주거와 생활문화를 지니고 있으며 교육, 사회·경제활동에서 서로 큰 차별을 느끼지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 빈짠 커뮨

빈짠 커뮨지역은 하노이로부터 600km 정도 남쪽에 위치한 광찌(Quang Tri)성의 빈링(Vinh Linh) 현에 속한 커뮨으로 베트남 1번 국도와 북위 17도 선이 지나간다. 북위 17도선은 베트남전쟁 당시 휴전선이 지나가는 지역으로서 남북 분단의 현장이자 철도, 육로, 해운이 교차하는 교통의 요지다. 빈짠 커뮨은 해안가 평야지에 위치하며 커뮨의 남단 경계지역에 벤하이 (Ben Hai)강과 사롬(Sa Lum)강이 흐르고 있다. 빈짠 커뮨은 논 면적 260ha에서 벼를 년 2모작으로 재배하고 있고 쌀, 고무, 후추 등이 주산물이다.

시범사업 지역인 현릉(Hien Luong)마을은 빈짠 커뮨의 남단에 위치하며 북위 17도선이 지나는 곳이고 마을 옆을 지나는 벤하이강과 사롬강이통일 전 남북 베트남의 휴전선이었던 곳이다. 쌀이 주 산물인 현릉마을의 농지 면적은 70.5ha로서 농가당 평균 면적은 0.5ha정도로 영세한 편이다. 강이 두 줄기 흐르지만 염기가 많아 농업용수가 부족하고 빈번한 홍수와 침수로 2모작 가능면적은 전체 벼 재배 면적 중 31.0%에 불과하다.

경제활동 인구 362명 중 82.6%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고 17.4%는 쌀을 이용한 식품가공이나 회사, 공무원, 자영업 등에 종사한다. 2000년도 농가조사에서 이 마을의 가구당 연간 평균 소득은 5,900천동(VND) 정도로 농촌지역 가구 평균 소득의 53%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현릉 마을은 베트남 1번 국도가 마을을 관통하고 있고 벤하이 강은 남북 대치시대의 상징인 휴전선이었으며 벤하이 강을 지나는 벤하이 다리가 전쟁의 상흔을 안고 부서진 채 전쟁의 상징으로 남아 있어 국내외의 많은 관광객이 찾는 관광지로 부상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나. 사업의 평가

1) 사업의 적합성

경제의 부문간 성장 격차로 인해 농업과 비농업, 농촌과 도시부문간

의 발전 격차가 현저해지고 농가와 도시 근로자간의 소득격차가 벌어져 사회갈등이 심화되는 등 도·농간 발전격차가 정치적 부담으로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는 시점에서 농촌지역의 소득증대와 고용창출, 사회하부구조 개발과 생활환경 개선 등이 베트남 정부가 시급히 해결해야 하는 당면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따라서 새마을 방식에 의한 농촌개발을 시범사업이라는 모형을 통해 제시한 것은 베트남이 당면한 농업·농촌 문제를 해결하는데 시기적으로 적합한 사업이라고 평가된다. 한국의 새마을운동의 해외 전수 가능성은 오래 전부터 제기되어 온일이지만 베트남에서와 같이 마을 단위의 새마을운동을 종합적으로 접근한 사례는 처음이라는 점에서, 그리고 성공적으로 수행되었다는 점

2) 사업계획의 합리성

기존에 시도되었던 한국의 새마을운동 전수가 교육에 그치는 경향이 많았고 프로젝트가 진행되었다고 해도 신용사업, 마을회관 건립, 도로 포장 등 부분적으로 시행되어 왔기 때문에 한국의 새마을운동을 이해 하고 성공적으로 전파되는 데 어려움을 겪어 왔다고 평가된다.

에서 적절하고 의의가 있는 사업이라고 평가된다.

그러나 베트남의 새마을운동 시범사업은 마을이라는 지역사회를 종합적으로 개선해서 잘사는 마을로 만든다는 측면에서 주민 참여하에, 종합적으로 접근하였다. 그 결과 마을의 생산기반 정비, 소득증대를 위한 농업개발, 마을의 생활환경 개선, 교육, 문화, 보건위생, 사회조직 활성화에 이르기까지 마을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주민 주도로 시행했다는 점에서 계획이 경제와 사회문화제 측면에서 균형적이고 합리적으로 수립되었다고 평가된다. 특히 이사업의 계획수립을 위해 베트남측 수행시관인 NIAPP의 전문가 6명이참여하여 사업지구의 현황분석, 주민의 개발수요 조사 등을 함으로써

주민요구에 충실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었던 점은 높이 평가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트남에 생소한 새마을운동을 2년간의 짧은 기간에 수행한다는 것이 무리였다고 평가된다. 따라서 베트남 측 전문가가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기간이 불충분했으며 한국측 전문가가 주도적으로 사업의 계획과 집행을 이끌어 온 면이 있다.

이 사업은 시범사업 지역으로 2개 지역을 선택했다. 한 지역은 6개 마을이 강과 마을간 도로를 공유하는 마을간 공동체 지역이고, 다른 한 지역은 1개의 마을로 구성된 단일 마을 공동체 지역이다. 지역도 중산 간지역과 평야지를 선택했기 때문에 농촌 마을의 유형별 개발 모델을 모색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된다.

3) 사업 추진의 효율성

당초 협력단의 사업계획에서는 이 사업에 30만 달러를 지원하는 것으로 하고 베트남 측에서 17만7천달러를 투입하는 것으로 협약했으나 사업 실시 과정에서 협력단의 전문가 파견 비용이 축소되어 한국 측 지원이 26만1천달러로 축소되었다.

반면 베트남측 투입은 18만달러로 약간 증가되었다. 지역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빈짠지역의 투입액은 크게 증가한 반면 코이키 지역은 지방정부가 도로포장에 필요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여 투입이축소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코이키 지역의 도로포장 사업은 3,000m 목표 중 560m만이 포장되었다.

특히 빈짠 지역은 총 1,940,163,000동(VND)이 투입된 가운데 KOICA 47.3%, 지방정부가 32.4%, 주민이 20.3%를 현금으로 부담하였다. 주민의 현물투입과 노동력 지원을 감안한다면 주민 부담은 이보다 훨씬 높게 나타나게 된다.

특히 마을별로 베트남측 수행기관인 NIAPP의 전문가 1명씩을 사업

지구에 배치하여 지역의 새마을 지도자와 이장들과 함께 사업 추진이 계획대로 이루어지도록 집중 지도하도록 계획된 점과 베트남의 사회조 직 시스템을 활용한 점, 해당지역의 부성장과 군수, 관련 공무원과 새마을지도자로 구성된 새마을운동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의 추진 방향과 문제점 해결을 모색하는 체제를 구축한 것은 이 사업이 단기간에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던 중요한 성공요인이라고 평가된다.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부분적으로 베트남 측의 예산 미확보로 도로 포장의 일부를 완성하지 못한 점을 제외하면 한국 측의 지원과 베트남 측의 지원이 비교적 원활하게 진행되었다.

4) 사업 추진의 효과성

협력단이 베트남 사무소에서 작성한 사업 종료 평가 보고서에서도 나타 나는 바와 같이 이 사업은 계획한 사업들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주민의 참여 하에 성공적으로 수행된 것으로 평가되었다. 협력단 베트남 사무소에서 사업 전반에 관한 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다.

- 프로젝트 개발 목표의 달성도: 4
- 농업 여건개선과 농가소득증대 및 자조정신 함양: 4
- 투입의 적정성: 4
- 투입의 충분성: 3
- 투입 시기의 적절성: 3
- 수원국과 지원국간의 조율의 적정성: 4
- 투입물량 조달의 효율성: 3
- 프로젝트 지속 가능성: 4
- 마을회관, 유치원 등 건축사업의 만족도: 4
- 기자재 지원의 효과성: 4
- 연수생 초청의 적절성: 4

○ 전문가 파견의 만족성: 4

이상의 평가 결과를 종합해 보면 투입물량이나 투입 시기 등을 제외하면 사업에 대한 평가는 평점 5점 만점(매우 만족)에서 평점4(만족)로나타나고 있어 사업의 성과가 만족스러웠음을 알 수 있다. 다음은 시범사업지구별로 조사된 직접적인 사업성과이다?

(1) 코이키 지역

4,009m의 2차 관개수로 개량을 통하여 48ha의 논과 10ha의 차밭에 관개를 개선하여 만성적인 가뭄을 해소하였고 3기작인 겨울철 옥수수를 20ha 재배하게 되었다. 이 결과 2000년도 쌀은 ha당 4톤에서 2004년도에는 5.13톤으로 증가되어 12.8%의 증산 효과가 있었고 쌀과 옥수수 및 잡곡 등 총 50톤의 식량이 증산되는 효과를 얻게 된 것으로 평가된다.

농업신용사업은 2002년부터 153,000,000동(VND)을 기금으로 하여 2년 간 연리 7.0%의 이자율로 운영하였다¹⁰. 2001~2004년간 245농가가 융자 의 혜택을 받았고 125호가 축산에, 120호는 농작물 생산에 사용하였다. 2004년 12월 결산시 농업신용 기금 총액은 164,800,000동(VND)으로 원 금의 8%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사업지구에 318호가 굴뚝을 설치한 부엌을 개량하였고 152호가 화장실을, 153호가 샤워장을 신설하였으며 마을간 도로 560m를 폭 3m, 깊이 18cm로 시멘트 포장하여 수송조건을 개량하였다. 2개 지역에 135㎡ 규

⁹ 직접적인 효과와 관련된 통계자료는 현장 조사시 지방정부의 보고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다.

¹⁰ 베트남 은행의 대출 이자는 월 0.98% ~1.15%에 달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이자율에도 불구하고 대출을 받기가 어렵다. 시범사업지구에서 부과하는 연이율 7%는 농업은행과 같은 특수은행에서 정책금융으로 지원하는 월이자율 0.5% 수준보다 약간 높은 수준에서 주민이 자율적으로 책정한 이자율이다.

모의 마을회관 2동을 신축하여 마을 주민을 위한 회의시설을 확보하고 이 시설은 유아원으로도 활용하고 있다.

컴퓨터 2대, 기타 12대, 스포츠 기구 및 앰프, 스피커, 의자 등 마을회 관 비품, 간호봉사자를 위한 자전거 1대와 구급약 1조를 지원하여 주민 의 문화적, 교육적, 보건위생적 욕구를 충족시켰다.

(2) 빈짠지역

총 2,983m의 관개수로를 개선하여 50ha의 논에 관개를 개선하였고 ha 당 쌀이 4.5톤에서 5.6톤으로 24.4% 증산되는 효과를 거두었다. 결과적으로 1인당 연간 쌀 생산량이 450kg에서 530kg으로 증가하는 효과를 얻게되었다. 또한 2,200m의 마을 도로를 시멘트로 포장하여 매년 홍수에 의해파괴되는 도로의 유실을 방지하고 통행의 편리를 도모하도록 하였다.

농업신용사업으로부터 융자를 받아 새우 양식장에 집중 투입한 결과 새우 양식 면적은 2002년도에 4ha에서 2004년도에는 23ha로 증가하였다. 2005년도에 새우 양식에 종사하는 가구수는 60호로 증가하였으며 사료비를 제외한 ha당 연간 조수입은 6,200,000동(VND)(약 US\$4,133)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소득 증대에 힘입어 1인당 소득액은 2002년도에 3,000,000동(VND)에서 2004년도에는 4,900,000동(VND)으로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2002년부터 210,000,000동(VND)의 농업신용 기금을 135농가가 연리 6.0%의 이자율로 활용하였다. 농업신용기금은 주로 새우 양식에 사용되고 있으며 이외에도 양돈, 농작물 생산을 위한 자재 구입비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자는 매월 26일 상환되도록 하고 27일에 다른 농가에게 대부하는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자 수입금 중 40%는 기금 운영을 위한 비용으로 활용하며 60%는 적립하여 원금에 합산하고 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운영된 농업신용 기금은 2004년도에 231,000,000동(VND)으로

2002년 대비 10%가 증가하였다.

242m² 규모의 2층 마을회관 겸 학교를 건축하여 마을 주민의 집회장과 사무실, 현대식 초등학교 교실 2개와 현대화된 학습용 비품 구비, 마을 보건요원 사무소를 구비하게 되었으며 청소년 놀이터, 앰프와 스피커, 텔레비전, 책상과 의자, 사무집기 등 시설을 현대식으로 구비하게 되었다. 또한 134동의 부엌을 개량하였고 128동의 화장실과 126동의 샤워장을 신설하였다.

컴퓨터 2대, 기타 2대, 스포츠 기구 및 앰프, 스피커, 의자 등 마을회 관 비품, 간호봉사자를 위한 자전거 1대와 구급약 1조를 지원하여 주민 의 문화적, 교육적, 보건 위생적 욕구를 충족시켰다.

5) 사업 성과의 확산성

베트남 농업·농촌개발부(MARD)는 2001-2002년 기간 중에 실시된 한국의 새마을운동 모델을 바탕으로 2006년부터 5개년간 500개 마을을 대상으로 하는 베트남식 새마을운동(Lang Moi)을 추진할 것을 계획하고 있다.

베트남 정부는 2001년부터 전국의 50개면을 대상으로 면 단위 농촌 개발사업을 새마을운동 방식을 적용하여 새농촌운동이라는 이름 하에 추진한 바 있다. 그러나 이 사업은 면 단위라는 광역지역에 충분한 예산 뒷받침과 행정적 지원이 충족되지 않아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베트남 정부는 평가하고 있다.

이와 같은 평가를 바탕으로 2001-2002년에 협력단 사업으로 추진한 모델 중 1개 마을을 대상으로 한 새마을운동을 광찌모델로 모형화하고 한 마을을 대상으로 하는 종합개발사업을 새마을운동 방식으로 추진하 는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다.

2005년 5월 10일 베트남의 농촌개발부가 작성하고 관련 기관의 전문 가가 참석한 농촌개발계획은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협력단이 실시한

시범사업의 개발 모델을 따르고 있다.

- 하나의 행정마을을 개발 대상으로 함.
- 하나의 사업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을을 종합적으로 연 계 개발할 수 있는 종합개발 방식을 채택
- 마을개발 5개년 계획서를 작성하여 중장기적으로 추진
- 정부는 개발 비용의 50%를 지원하되 가이드라인만 제시하고 마을 개발을 위한 개발계획과 의사결정은 지역 주민이 주도적으로 함.
- 전국적인 추진 체제를 구축하고 농촌개발부가 간사조직이 되고 전 체 정부 부처로 구성된 지원단을 구성함.
- 2년 후 개발성과를 평가하여 잘하는 마을에는 추가적인 지원을 함. 이와 같은 개발 방식은 정확하게 새마을운동 방식이며 2001년부터 2002년까지 실시한 베트남형 농촌개발 모델에 제시된 내용과 일치한다. 따라서 이 사업은 2개 지역 7개 마을에서 시작되었지만, 사업 실시 3년 후에 중앙정부의 정책으로 채택되어 전국적인 사업으로 확산되고 있다 고 평가된다.

한편 시범사업지구인 코이키면에서는 시범사업지구 내에서 실시한 부 억개량, 화장실 및 샤워장 개설 등의 확산 효과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면 내 여러 마을에서 자력으로 800호가 부엌을 개량하였고 1,200호가 샤워장 을 새로 설치하였으며 500호가 화장실을 개설하였다.

빈짠면이 속한 빈링군에서는 빈짠면의 경험을 토대로 7개 마을에 시범사업을 확대 추진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 사업에 종사할 군직원들에 대한 새마을운동 계획 수립과 실시에 관한 훈련을 협력단에서 시켜줄 것을 요구하였다.

6) 사업의 지속성

이 사업은 현재 농업금융사업이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베트남

각지에서 공무원들이 견학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모두 깊은 관심을 갖고 지원하고 있으며 이 사업을 베트남 정부가 성공한 모델로 평가하고 있고 이를 전국에 확산하고자 하므로 이 사업의지속성은 매우 높다고 평가할 수 있다.

4.3. 라오스 볍씨증산사업

4.3.1. 사업 개요

가. 사업 추진 경위

라오스 볍씨 증산사업은 1998~1999년 기간 중 라오스 현지에 파견된 우리나라의 농업전문가의 제안에 따라 라오스 농림부가 1999년도에라오스의 볍씨 증산과 종자관리체계 개선을 위해 동 사업의 지원을 우리나라 공관에 요청하면서 추진되기 시작하였다.

라오스 주재 한국대사는 1999년 6월 본국 정부에 이 사업의 지원을 요청하였으며 이 요청에 따라 2000년 3월부터 4월까지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였고 2001년 1월 15일자로 외교통상부에 의해서 2001년도 사업으로 승인되었다.

외교통상부의 승인에 따라서 협력단은 사업 추진을 위한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2001년 7월에 사업 추진을 위한 실시협의회를 가졌으며 협의 의사록(Record of Discussion: RD)을 교환하였다. 구체적으로 동 사업의 추진 절차는 다음과 같다.

- (1) 1999. 3. 협력단이 주재국 공관에 프로젝트 수요 조사 요청
- (2) 1999. 6. 라오스 정부의 요청에 따라서 주 라오스 공관이 동사업의 추진을 요청

- (3) 2000. 2. 협력단 라오스 주재 사무소를 통해 1차 타당성 조사
- (4) 2000. 3. 협력단 주관 하에 타당성 조사 실시
- (5) 2000. 4. 외교부 2001-2003년도 사업으로 승인
- (6) 2001. 7. 사업 실시협의 및 RD 작성

나. 사업 추진 배경

라오스 정부가 추진하는 농업분야 5개년 발전계획의 핵심 사항은 식량증산이며 이를 위해 볍씨 종자 제도 확립과 종자관리소 운영 능력향상에 노력해 왔다. 그러나 라오스 정부의 재정 및 경험 부족으로 볍씨 종자 증식과 종자 증식을 위한 제도 개선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었다.

따라서 라오스 정부는 종자관리 제도 개선, 법령 정비 및 우량 종자 보급을 위해 선진국의 종자관리 기법 전수를 희망하고 있으며 세계은 행 등과 협력하여 종자 증식을 위한 사업을 추진한 바 있고 한국에 대 해서도 미곡증산 기술의 습득을 위해 연수생을 20여명 파견한 바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라오스정부는 단위 면적당 세계 최고의 쌀 생산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한국의 벼농사 기술과 볍씨 생산에 많은 관심을 갖고 한국 종자관리 및 영농기술을 체계적으로 전수받고자 동 사업의 지원을 한국 정부에 요청하게 되었다.

다. 타당성 검토

1) 사업 지원의 필요성

라오스 전체 인구의 80%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농업이 라오스 GDP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국가가 농민들에게 공급할 볍씨는 연간 수요량 6,250톤의 18%에 불과해 식량증산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

법씨 증산 분야에 있어 세계은행 등 국제기구의 지원을 받은바 있었으나 라오스 정부의 기술 부족, 경험 미숙, 인력 부족 등의 문제로 크게 개선되지 못하였다. 따라서 한국이 비교 우위를 지니고 있는 법씨생산 기술, 법씨 관리 기술, 기계화 영농기술을 전수한다면 라오스 법씨 생산과 쌀 증산 체계를 개선하고 농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판단 하에 라오스 농림부는 볍씨종자관리소의 활성화를 포함한 라오스 볍씨 생산 체계의 개선에 필요한 사업 기획과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한국정부에 요청하였다. 구체적으로는라오스 정부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협력단의 지원을 요청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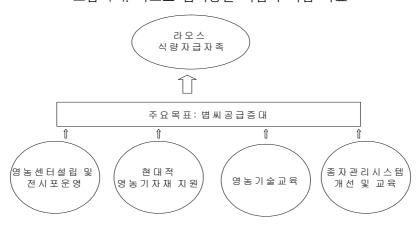
- ① 종자관리소 요원들의 이론 및 실무 훈련
- ② 볍씨 종자생산, 기계화 시범영농과 영농기술지도
- ③ 영농장비 및 농자재의 통합관리 운영을 통한 장비용역 제공
- ④ 개선된 영농기술과 영농장비를 이용한 훈련과 영농지도를 위한 영 농센터 건립
- ⑤ 이 사업의 기획, 운영, 교육, 지도와 자문을 위한 농업자문관 및 전문가, 기술자, 봉사단원 파견과 영농센터의 유기적 운영 등에 대한지원

2) 지원계획

- 사업기간: 2001~2003년 (3년간)
- 사업비: 49만 달러
 - 기자재 및 시설: 34만 달러
 - 연수생 초청: 16명(6만 달러)
 - 전문가 파견: 1명(7만 달러)
 - 기타: 2만 달러

- 사업 대상지
 - 브엔티안특별시 및 나폭지역
- 개발목적: 라오스의 볍씨 공급증대를 통한 식량증산
- 사업목표: 볍씨 종자관리제도개선, 법령 및 시스템 기반조성
 - 종자관리소 및 농민에 대한 볍씨 공급증대
 - 선진 영농기술 전수를 통한 생산성 향상
- 주요 지원 내역
 - 영농센터 건립 및 전시포 운영을 통한 볍씨 생산과 공급 증대 및 선진영농기술 전수
 - 최신영농기자재 지원 및 기계화영농기술 전수
 - 시범영농센터 설립을 통한 지속적 교육실시
 - 종자관리시스템 개선 및 전문인력 양성

그림 4-4. 라오스 볍씨증산 사업의 사업 목표



○ 단계별 사업추진 사항

- 1단계(2001년): 실시협의, 영농센터 건축(1,332m²), 연수생 초청 교육 및 전문가 파견을 통한 종자관리 기반 전수
- 2단계(2002년): 영농기자재 공여 및 현지 기술지도, 1차 시험포

운영(9ha)

- 3단계(2003년): 영농센터 운영 및 영농기술교육 확대, 2차 전시포 확대 조성(45ha)

○ 사업투입 계획

라오스 정부	협력단	
○ 영농센터 및 전시포 부지제공	○ 영농기자재지원: 220천불	
○ 영농센터 운영인력 및 예산(10명)	○ 영농센터건축: 120천불	
○ 기자재 통관 및 유지보수예산	○ 연수생 초청: 60천불	
○ 파견전문가의 행정지원 및 기타	○ 전문가 파견: 80천불	
사업 추진에 필요한 행정사항	○ 실시협의 및 평가: 20천불	

- 기대 성과 및 파급 효과
 - 볍씨 공급량 증대로 인한 미곡생산량 증대
 - 선진영농기술 전수를 통한 생산성 증대
 - 우리나라 영농 기자재 공여로 인한 영농장비 수출증대 효과
- 3) 사업 추진 실적
- 총지원액: 50만 달러
- 영농센터 건립 및 시험 전시포 운영
 - 건립시기: 2001. 9~12
 - 입지: 비엔티안시 근교 국도 13번 주변
 - 규모: 사무실, 회의실 및 장비 전시장 432㎡ 정비장, 거치장 및 주유시설 900㎡
 - 시험포면적: 54ha
 - 활용방안: 종자관리소 직원 및 농민에 대한 우량벼 생육과정 및 수확 후 생산성 비교를 통한 우량종자의 홍보와 보급

표 4-3. 공여된 농기계 및 장비 현황

기종계획공급트랙터33파워틸러(Power tiller)44트레일러66액스커베이터(Excavator)21플라우(Plough)66프론트로더(Front Roader)11정지작업기11로타리작업기88양수기4-법씨 파종기33파종 상자9000500이앙기-3콤바인22살포기3종3종컴퓨터-2절단기11수분측정기22기타 부품-49종공구-60종냉장고1-에어컨3-팩스(Fax)1-자동차1-							
파워틸러(Power tiller)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기종	계획	공급				
트레일러66엑스커베이터(Excavator)21플라우(Plough)66프론트로더(Front Roader)11정지작업기11로타리작업기88양수기4-별씨 파종기33파종 상자9000500이앙기-3콤바인22살포기3종3종컴퓨터-2절단기11수분측정기22기타 부품-49종공구-60종냉장고1-에어컨3-팩스(Fax)1-	트랙터	3	3				
엑스커베이터(Excavator)21플라우(Plough)66프론트로더(Front Roader)11정지작업기11로타리작업기88양수기4-법씨 파종기33파종 상자9000500이앙기-3콤바인22살포기3종3종컴퓨터-2절단기11수분측정기22기타 부품-49종공구-60종냉장고1-에어컨3-팩스(Fax)1-	파워틸러(Power tiller)	4	4				
플라우(Plough) 6 6 6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트레일러	6	6				
프론트로더(Front Roader)	엑스커베이터(Excavator)	2	1				
정지작업기 1 1 1	플라우(Plough)	6	6				
로타리작업기88양수기4-법씨 파종기33파종 상자9000500이앙기-3콤바인22살포기3종3종컴퓨터-2절단기11수분측정기22기타 부품-49종공구-60종냉장고1-에어컨3-팩스(Fax)1-	프론트로더(Front Roader)	1	1				
양수기4-법씨 파종기33파종 상자9000500이앙기-3콤바인22살포기3종3종컴퓨터-2절단기11수분측정기22기타 부품-49종공구-60종냉장고1-에어컨3-팩스(Fax)1-	정지작업기	1	1				
볍씨 파종기33파종 상자9000500이앙기-3콤바인22살포기3종3종컴퓨터-2절단기11수분측정기22기타 부품-49종공구-60종냉장고1-에어컨3-팩스(Fax)1-	로타리작업기	8	8				
파종 상자 9000 500 이앙기 - 3 콤바인 2 2 살포기 3종 3종 컴퓨터 - 2 절단기 1 1 수분측정기 2 2 기타 부품 - 49종 공구 - 60종 냉장고 1 - 에어컨 3 - 대스(Fax) 1 -	양수기	4	-				
이앙기 - 3 콤바인 2 2 살포기 3종 3종 3종 경종 컴퓨터 - 2 절단기 1 1 1 수분측정기 2 2 기타 부품 - 49종 공구 - 60종 냉장고 1 - 에어컨 3 - 대스(Fax) 1 -	볍씨 파종기	3	3				
콤바인22살포기3종3종컴퓨터-2절단기11수분측정기22기타 부품-49종공구-60종냉장고1-에어컨3-팩스(Fax)1-	파종 상자	9000	500				
살포기3종3종컴퓨터-2절단기11수분측정기22기타 부품-49종공구-60종냉장고1-에어컨3-팩스(Fax)1-	이앙기	-	3				
컴퓨터-2절단기11수분측정기22기타 부품-49종공구-60종냉장고1-에어컨3-팩스(Fax)1-	- 콤바인	2	2				
절단기 1 1 1 수분측정기 2 2 1 2 기타 부품 - 49종 공구 - 60종 냉장고 1 - 의어컨 3 - 패스(Fax) 1 -	살포기	3종	3종				
수분측정기 2 2 기타 부품 - 49종 공구 - 60종 냉장고 1 - 이어컨 3 - 팩스(Fax) 1 -	컴퓨터	-	2				
기타 부품 - 49종 공구 - 60종 냉장고 1 - 에어컨 3 - 팩스(Fax) 1 -		1	1				
공구 - 60종 냉장고 1 - 에어컨 3 - 팩스(Fax) 1 -	수분측정기	2	2				
냉장고1-에어컨3-팩스(Fax)1-	기타 부품	-	49종				
에어컨 3 - 팩스(Fax) 1 -	공구	-	60종				
팩스(Fax) 1 -	냉장고	1	-				
	에어컨	3	-				
자동차 1 -	팩스(Fax)	1	-				
	자동차	1	-				

○ 기자재 지원

- 트랙터, 이앙기 등 기계화 영농장비를 우선 지원하되 필요 부품 및 수리공구 지원을 통하여 영농장비의 지속적 사용이 가능하도 록 지원
- 일부 기자재를 공구로 변경하여 공급

○ 연수생 초청

- 볍씨 종자관리제도 마련 및 종자처리에 관련된 연수를 라오스

전국 7개 종자관리소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8명, 2주)

- 영농기자재 사용방법 및 정비에 관한 실무교육을 통한 영농기자 재의 지속적 사후관리(8명, 2주)

○ 전문가 파견

- 벼 종자생산체계 및 보급체계 기술 자문
- 선진 벼 영농기술 전수
- 벼 신품종 육성기술 자문
- 파견인원 및 기간: 1명, 12개월
- ※ 영농시설 및 기자재 설치기술자 2인을 1개월간 파견하여 기계 화 영농운영을 위한 현지 실무진 교육 실시

표 4-4. 연도별 사업지출 현황

단위: 천불, %

	2001	2002	2003	합계
물자지원	-	210(95.5)	10(4.5)	220(44.0)
영농센터 건립	120(100.0)	-	-	120(24.0)
연수생 초청	30(50.0)	30(50.0)	-	60(12.0)
전문가 파견	-	60(75.0)	20(25.0)	80(16.0)
사업관리	10(50.0)	-	10(50.0)	20(4.0)
합계	160(32.0)	300(60.0)	40(8.0)	500(100.0)

○ 봉사단원 파견(2002~2004)

- 라오스 국립농업연구소 파견 예정인 농기계분야 봉사단원을 한·라오 영농센터 및 나폭 종자관리소에 파견하여 지속적인 농기계보관, 유지 및 정비에 관한 임무를 부여함으로써 사업의 효율성및 지속성 제고 도모

라. 사업 종료 평가

협력단 라오스 사무소는 2003년 사업종료 평가회를 개최하고 다음과

같이 사업 종료 평가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 1) 평가 요약
- 사업의 개발목표나 사업 목표는 좋았으나 사업계획이 현지 사정에 부합하지 않은 점이 나타나고 사업 추진 및 투입 내역이 미흡하며 영농센터의 건물 설계가 부적합하고 공여된 농기계의 활용도가 낮고 기계화 영농기술 파급 효과가 낮은 것으로 평가됨.
- 파견 전문가의 전문성과 사업의 기획성이 미흡한 것으로 평가됨.
- 영농기계화는 현지 실정에 맞도록 기획되어야 하나 공급된 기계의 현지 활용도는 낮은 것으로 평가됨.
- 종합적으로 이 사업은 지원 목적이 불분명하며 프로젝트의 기획과 자문의 비전문성이 노출된 것으로 평가됨.
- 2) 주요 자체 평가 지표 결과
- 종합 평가: 4
- 사업의 적합성: 4
- 개발 목표: 5
- 사업 목표: 5
- 사업 추진 및 투입 내역: 3
- 영농센터 건물의 적정성: 4
- 영농센터의 시설장비의 적합성: 3
- 영농센터 시설 장비의 효율성: 4
- 전문 인력활용의 효율성: 4
- 전시포 운영의 적정성: 5
- 공여된 기자재의 적정성: 3
- 연수생 초청 적합성: 5

- 전문가 파견 전문성: 4
- 종자 생산의 파급효과: 5
- 영농기계화 기술 파급효과: 3

3) 세부 평가

- 사업 배경
 - 2000년도에 쌀 자급을 달성하였으나 소작농이 많고 전통농법에 의존하고 있어 기계화 영농기술 이전의 필요성이 있음.
 - 한국의 농기계산업 진출과 연계될 필요성이 있음.
- 개발 목표 및 사업 목표
 - 라오스에서 쌀은 유일한 식량자원이며 13,192종의 벼 유전자원을 보유하고 있지만 세계 여러 기관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볍씨 생 산과 쌀 증산 기술이 낙후되어 있음.
 - 라오스의 실정에 비추어 볼 때, 한국의 선진 기술 접목 가능성이 높아 개발 목표와 사업 목표가 현실적이라고 판단됨.

○ 투입 내역

- 영농센터의 시설이 비효율적으로 배치되어 있고 기상관측장비, 토양 진단용 기자재, 병충해 진단용 기자재, 종자선별용 기자재 등 종자생 산과 영농기술 보급에 필요한 기자재가 누락되어 있음.
- 건물은 기술 이전을 위한 시설로 적합하지 않으며 시설장비의 활용도도 낮은 실정임.
- 한국식 영농기술의 우수성은 입증되었으나 한국의 기술이 현실에 적용이 될 수 있는 여건이 아니므로 현지 여건에 맞는 응용기술이 개발되어 확산되도록 지원해야 함. 따라서 현지 실정에 맞는 영농 기술을 전파할 전문가 파견이 요구됨.

○ 추진 계획

- 각종 시설과 기자재 지원이 일부 보완되어 시행되었지만 사업기 획이 전반적으로 미흡함.
- 전시포는 9ha이지만 육묘용 상자가 1.5ha분만 공급되어 작업의 비효율성 발생

○ 사업의 효과성

- 한국산 품종의 우수성이 입증되어 농가로부터 각광받고 있으며 보급 대기 중임.
- 우리가 지원한 기술을 현지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으므로 현지 실정에 맞는 영농기술의 보급이 필요함.

○ 사업의 지속성

- 현지에 적용하기 어려운 장비와 기계 지원은 의미가 없음.
- 현지 실정에 맞는 장비와 기술이 개발되어 보급되어야 지속성이 유지될 수 있음.
- 향후 프로젝트 사업은 사업기획 단계부터 전문가에 의해서 철저하게 수원국의 여건을 분석해야 하며 사후 평가를 통해 교훈을 도출하여 차기 사업에 활용해야 함.

4.3.2. 사업평가

가. 사업 대상지 현황

현대식 건물 1,332㎡와 9ha의 시험포로 이루어진 한·라오 영농센터 (KLADC: Korea-Lao Agriculture Development Center)는 비엔티안시 근교 타이국경으로 연결되는 13번 국도변에 입지함으로써 전시 및 홍보 효과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메콩강 반경 1km 이내에 입지함으로써 영농에 필수적인 수자원을 풍부하게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그림 4-5. 라오스 볍씨 증산사업 대상 지구

2005년 현재 시험포 9ha에서 라오스산 우량 품종 5종과 밀양23호, 삼 강벼, 태백벼 등 3종의 한국산 우량 품종을 재배하고 있다. 한국에서 도입된 우량 품종의 경우 한국 전문가 귀국 이후 3시즌 동안은 건기에는 조곡 기준으로 ha당 6.5~7.0톤, 우기에는 6.6~8.1톤의 수확량을 유지하였으나 그 이후 수확량이 감소하고 있다.

한·라오 영농센터의 운영은 6인으로 구성된「합동운영위원회 (joint steering committee)」에서 결정한다. 합동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라오스 측 운영위원인 농림차관이 맡고 있으며 농산국장 (사업담당 책임관: Project Director), 농림부 국제협력담당관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고 한국 측 위원은 대사, KOICA임원 또는 KOICA가 의뢰하는 한국대사관 직원, 한국측 전문가의 3인으로 구성된다.

합동운영위원회는 센터의 운영방침, 센터 소장의 인준, 센터 활동 기간 등 운영에 관한 제반 지침을 조정·결정한다. 사업담당책임관인 라오스 농림부 농산국장은 영농센터소장을 임명하고 조정위원회 회의주도 등 실질적 업무조정을 총괄한다.

영농센터소장은 농업장비, 훈련 및 현장 농가 실습교육, 관리 및 마케팅 등 3개 실무부서를 관장하고, 각 부서의 전문요원은 해당 분야별 현장 직원 및 노무자를 관리한다.

한-라오 영농센터는 지속적인 적자운영으로 센터소장이 타부서의 부소장으로 겸임 발령된 상태이며 인근 15만평의 미작생산의 책임자로 활동하고 있다. 전문요원 또한 타부서로 전근된 상태이고 현재는 단순 노무자 및 현장 직원만 상주하고 있는 실정이다.

비엔티안주에 입지하고 있는 나폭종자관리소는 9개 라오스 종자관리소 중에서 규모 및 생산능력이 가장 크고 중심이 되어 타 종자관리소에 대한 기술 지원 및 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1986년 세계은행(World Bank)의 차관공여로 설립된 나폭종자관리소는 연간 볍씨 500톤(건기: 200톤, 우기: 300톤)의 공급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나. 사업 평가

- 1) 프로젝트 선정의 적정성
- 이 프로젝트의 목적은 라오스의 식량 증산에 기여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필요한 우량 볍씨의 증식과 보급, 볍씨 종자 보급체계의 개선, 선진 영농기술의 보급 등을 사업 목표로 정하고 있다.

라오스는 전형적인 농업국가일뿐만 아니라 국가 5개년발전계획에서 식량증산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의 목적은 라오스의 농업 발전에 긴요한 볍씨 증산과 영농기술을 보급한다는 측면에서 적절하게 선정된 것으로 판단된다.

2) 사업 계획의 합리성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영농센터의 설립과 전시포 운영을 통하여 법씨의 생산과 보급, 선진 영농기술을 보급하고 현대적 영농기자재 지원, 영농 기술교육 실시, 종자관리 시스템 개선 등을 계획하고 있는 것은 사업 목적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 그 자체로는 적합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볍씨 생산 전문가 1인이 파견되었고, 지원 금액의 96%가 주로 영농기자재 공급과 영농센터 건립, 전문가 파견과 훈련생 초청에 사용된 점을 감안한다면 이 계획이 지니고 있는 볍씨 증식과 보급, 선진 영농기술 보급, 쌀 증산달성이라는 목표는 주어진 기간과 예산, 영농보급과 관련이 적은 비전문가의 파견 등으로 달성 가능한 사업 목표를 제시한 것인지 의문스럽다.

이러한 사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건물이나 기자재 공급, 전문가 파견이나 연수생 초청 예산 이외에 전시포 운영, 종자생산과 공급에 필요한 인건비와 관리비, 지속적인 영농훈련과 기술 보급 체계 개선을위한 예산이 수반되는 계획을 수립해야 마땅한 것으로 판단된다.

즉, 주어진 예산으로는 농기계와 자재 공급, 영농센터 건립, 전문가 파견이 전부이며 선진 영농기술 전수도 볍씨 종자증식 전문가가 담당 할 부분이 아닌 점을 감안한다면 볍씨의 생산, 영농기술 보급 및 영농 기술 훈련 등을 통해 쌀 생산에 기여한다는 사업 목표의 제시는 적절한 듯하나 주어진 조건으로는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가 되고 있다.

종자관리 시스템 개선은 제도에 관한 사항으로 볍씨 중산 기술자가 담당할 분야가 아니다. 종자관리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사업계 획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세계은행 등에서 시도한 종자증식 사업이 왜 효과를 거두지 못했는가에 대한 냉철한 판단 위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라오스의 실정이 한국과 유사하다는 이유에서 한국의 경험이 훌륭한 성과를 거둘 것이라는 판단은 지나치게 안이한 계획이라는 지 적을 불러올 수 있다.

더욱이 영농센터는 종자증식을 위한 건물인지 아니면 영농기술을 전수하기 위한 훈련센터인지 그 목적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건물의 설계도 모호하게 되었다고 종료 평가에서 지적되고 있다.

같은 의미에서 한국의 농기계를 보급하여 라오스에 영농기계화 기술을 보급하겠다는 계획도 현실을 정확히 판단하지 못한 계획이다. 따라서 현실에 적용하기 어려운 농기계 공급과 영농기계화 기술 보급은 현실적인 계획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 프로젝트가 계획될 당시 라오스의 우량 볍씨 종자 증식과 보급을 위하여 한국의 우량품종을 보급한다는 계획을 갖고 밀양 23호와 삼강 벼 등을 증식하여 농가에 보급한 바 있으나 시장성이 없어 농가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는 상태이다. 쌀의 시장 수요가 생산량에 의해서 결정되 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의 식미와 가격 등에 의해서 결정되어야 한다는 간단한 사실이 계획단계에서 간과되었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3) 사업 추진의 효율성

협력단과 라오스 정부간에 맺은 협력사업 내용으로 본다면 협력단이 지원하는 예산을 온전히 집행했다는 측면에서는 효율적이라고 볼 수 있 다. 영농기계와 기자재가 계획대로 공급되었고 영농센터도 건립되었으며 전시포도 영농센터와 나팍지역에 선정·운영되었으므로 RD의 협의 내용 대로 사업이 추진되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앞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시설 계획뿐만 아니라 볍씨 증식과 보급, 볍씨종자관리 시스템의 개선, 영농기술 보급과 이에 필요한 제도의 정비가 이루어졌어야 한다. 그러 나 이러한 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의 기획과 필요 예산이 확보되지 않 아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되지 않았다.

- 4) 사업 결과의 효과성
- 이 사업의 효과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측정될 수 있다.
- 볍씨 생산과 공급 체계가 개선되었는가?
- 사업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인프라 구축과 시설이 공급되었는가?
- 볍씨가 계획한 대로 증식되고 공급되었는가?
- 우수 종자 공급에 따른 우수 영농인력 육성과 기술이 보급되어 재 배기술이 향상되었는가?
- 공급된 볍씨를 이용한 농가들의 쌀 생산량이 증대되었는가?

농기계와 기구 및 영농센터의 건립, 전시포 확보라는 측면에서 볍씨 증식을 위한 인프라는 구축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우수 볍씨의 증식과 공급 제도의 개선, 영농기술 보급 등의 측면에서는 성공적이라 고 보기 어렵다.

한라영농센터는 한국의 우량 볍씨를 실험한 후 밀양 23호와 삼강벼가 생산량이 우수하다는 실험결과를 얻었다고 발표하고 이들 품종을 30톤 생산하여 농가에 공급하였으나 밀양벼와 삼강벼에 대한 시장 가격이 형성되지 않고 판로가 없어 농가들이 생산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당초 계획된 바와 같이 2004년도에 54ha의 전시포에서 540톤의

법씨를 생산하여 농가에 공급한다는 계획이 달성되었다는 증거를 확인 할 수 없었다¹¹.

라오스의 9개 종자관리소에서 볍씨종자를 생산하고 있지만 이들 종 자관리소의 볍씨 생산량 비중은 전체수요의 3%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는 프로젝트 이전의 비중과 동일한 것으로 이 프로젝트에 의한 볍씨 증산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계획한 바와 같이 볍씨 증식을 위한 연수생 초청 사업은 예정대로 이루어졌지만 영농센터에서의 영농기술 교육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한 이곳에서 생산된 볍씨를 이용한 농가의 쌀 생산량이 증가하였다는 통계도 확인되지 않았다.

5) 사업 효과의 확산성

한국의 우량 볍씨는 라오스의 현지 적응 시험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두었으나 이 품종들이 라오스에서 우량 품종이 되기 위해서는 라오스국민의 식미 테스트를 통과하고 시장 수요가 형성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치지 않고 생산량 하나만을 기준으로 우량품종으로 선발하여 공급하고자 한 것은 절차를 생략한 무모한 시도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산 품종의 생산량은 전체 볍씨 생산량의 5% 수준이지만 한국산 품종의 생산과 보급은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영농기계의 보급과 기계화 영농기술의 보급도 라오스와 같이 영세한 농가가 대부분일 경우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으며 기계화 영농 기술의 현지화가 요구된다. 볍씨 종자보급체계의 개선도 볍씨 증식 기술자의힘으로는 부족하며 법이나 제도를 전공하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이프로젝트의 성과 효과 확산은 이와 같은 문제들이 극복된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나야 확인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¹¹ 볍씨 종자 생산통계를 정확히 확인할 수 없었다.

6) 사업의 지속성

이 프로젝트가 성립될 당시 라오스측은 영농센터 건립 부지와 전시 포 확보, 영농센터 소요 인력 확보 및 운영 예산 확보, 사업 추진에 필 요한 행정 사항 부담 등을 약속하였다. 그러나 사업이 종료된 이후 영 농센터에 종사하는 인력의 인건비조차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전 시포를 운영하여 우량 볍씨 종자를 공급하는 일은 체계적으로 이루어 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며 영농센터를 활용한 영농기술 교육도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현재와 같은 상황이 지속된다면 이 프로젝트가 설정한 종자 증식 및 보급, 영농 기술 교육 등은 계속되기 어렵다. 따라서 한라영농센터 (LKADC)의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이들 활성 화 대책은 다음과 같이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

(1) 제1안

현 영농센터의 활성화를 위해 추가 지원하는 방안이다. 영농센터의 인건비를 포함해서 종자증식을 위한 전시포 운영비, 농기계 운영비, 영 농 기술 교육비의 일정 부분을 협력단이 일정 기간 지원한다는 조건하 에 라오스 정부의 재정 지원을 촉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영농센터 활성 화와 함께 당초 기대했던 쌀 증산을 유도하기 위하여 라오스 정부의 법씨 종자 증식 및 농업기술지원제도 개선을 촉구하도록 한다.

(2) 제2안

영농센터를 새마을훈련을 포함한 종합훈련센터로 개편하여 추가 지원하는 방안이다. 라오스에 새마을운동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 비추어 현재의 영농센터를 강의실, 합숙소, 실습장, 실습농장을 갖춘 새마을운동 관련 종합 훈련장으로 개편하여 영농기술교육과

새마을운동 훈련을 종합적으로 실시하도록 지원한다.

5. 프로젝트 사업 추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프로젝트 사업의 성패는 프로젝트 선정 과정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 언이 아닐 정도로 프로젝트 사업의 선정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 협력사 업의 특성상 한번 선정된 프로젝트는 외교 관례상 취소되기 어렵기 때 문에 더욱 선정 과정이 중요하다. 따라서 프로젝트가 객관적이고 과학 적인 프로세스를 걸쳐 선정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선정된 프로젝트의 사업 계획 수립의 객관성과 합리성 확보를 위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며 합리적인 평가를 실시하기 위한 제도의 개선이 요청된다.

5.1. 프로젝트 선정을 위한 타당성 분석 실시

5.1.1. 타당성 분석

프로젝트가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공관을 통해 파악된 프로젝트 수요를 협력단 내부나 외교부 내부에서 약식 타당성 검토를 통해 결정할 것이 아니라 전문가에 의해서 사업의 타당성이 객관적으로 검증되고 국별 우선순위에 따라서 사업이 결정되도록 해야 한다. 이때 경제적 타당성(economic feasibility) 뿐만 아니라 기술적 실천 가능성(technical practicability), 목표 달성 가능성(object obtainability), 현실적용 가능성(applicability),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수원국의 인력 자원

활용 가능성, 수원국의 재원 조달 가능성 등이 집중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타당성 분석은 다음과 같은 부분에 대해 집중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1) 경제적 타당성(economic feasibility)

-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이 총 투입에 상응할 만큼의 경제적 효과 를 가져올 수 있는가?
- 이러한 경제적 효과가 수원국의 빈곤 완화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가? 이때 경제적 타당성은 직접적 효과와 간접 적 효과 모두를 포함한다.

2) 기술적 실천 가능성(technical practicability)

○ 지원하고자 하는 기술이 현실적으로 수원국의 현실에 타당한 것이며 현실적으로 실천 가능한 기술인가?

3) 현실 적용 가능성(applicability)

- 지원하고자 하는 기술이나 제도가 수원국의 현실에 적합하며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가?
- 현실 적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한가?

4) 목표 달성 가능성

- 제시된 목표가 주어진 기간과 예산으로 달성될 수 있으며 그 목표가 측정 가능한 것인가?
- 제시된 목표가 빈곤완화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가?

5) 지속 가능성(sustainability)

○ 지원된 사업이 지원이 완료된 후에도 자국의 예산 혹은 주민의 예산이나 기술, 혹은 노력으로 지속될 수 있는 것인가?

6) 수원국의 인력자원 활용 가능성

- 수원국의 인력이 지원되는 사업에 참여하여 공동의 파트너가 되어 사업을 지속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가?
- 이를 위해 훈련, 혹은 어떠한 추가적 조치가 필요한가?

7) 수원국의 재정 조달 가능성

- 수원국이 지원되는 프로젝트의 시행을 위하여 얼마나 재정 부 담 능력이 있는가?
- 수원국의 파트너쉽, 참여, 사업의 주인의식 고취를 위하여 얼마 정도의 재정 부담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협력단이나 외교부는 전문가가 검토한 사업의 타당성 분석 결과를 토대로 하여 투명하게 사업을 선정해야 한다.

5.1.2. 평가 지표 제시

사업 선정을 위한 타당성 분석시 사업선정과 사후 평가에 활용할 수 있는 평가 지표를 개발하여 제시해야 한다. 평가 지표에는 사업의 효과를 측정할 수 있도록 목표를 계량화하고 기대성과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 경제·사회지표를 제시해야 평가시 활용할 수 있다.

평가 지표는 프로젝트의 성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지만 다음과 같은 지표를 준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경제 지표

- 소득과 소비 지표(가구 소득, 1인당 소득, 농업소득, 농외소득, 기타)
- 생산수단 소유 지표(토지, 건물, 기계, 공장 등)
- 식량 관련 지표

- 계급 혹은 계층 구조
- 생산성 지표(노동생산성, 단위면적당 생산성, 작물별 생산성 등)
- 고용 실태와 고용 형태 지표(취업률과 실업률, 정규직 비정규 직, 성별 취업 등)

2) 사회지표

- 인구 관련 지표(인구 구조, 성별 구조, 출생률과 사망률, 결혼, 출산율, 이농률, 노령화 지수, 부양률 등)
- 주거, 환경 관련 지표
- 교육 관련 지표(문맹률, 취학률, 진학률, 학업 중도 포기율 등)
- 보건위생 지표(기생충 감염률, 전염병 예방주사 접종률, 병상수, 인구 대 의사 및 간호사 비율 등)
- 문화·여가활동 관련 지표
- 정보·통신 관련 지표
- 사회 참여 지표

5.1.3. 국별 수요 파악과 종합적인 우선순위에 따른 사업 선정

프로젝트 사업은 중장기적 관점에서 국별 수요를 검토하여 국별 사업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결정되도록 해야 한다. 현재와 같이 프로젝트를 단위 사업별로 선정할 경우, 이 사업이 정말로 수원국의 우선순위가고려된 사업인지, 빈곤 완화와 경제발전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는 과제인지에 대한 판단이 어렵게 된다.

협력단이나 외교부는 전문가가 검토한 사업의 타당성 분석 결과를 토대로 국별 우선순위에 따라서 투명하게 사업을 선정해야 한다.

5.2. 사업계획 수립과 사업계획 심의회 운영

5.2.1. 사업계획의 합리성 확보

프로젝트 사례연구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계획을 수립하는 전문가가 사업의 영역을 충분히 이해할 수 없을 경우, 수립된 계획은 현실성을 벗어나게 된다. 특히 사업을 제안한 전문가는 사업이 채택될 수 있도록 실천 가능성을 넘어서는 사업 목표를 제시할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 제안자와 동일한 전문가가 사업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사업 제안자 이외에 사업의 영역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1인이상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계획수립과정에 수원국의 전문가, 지역주민, 관련 기관 등이 참여하여 주민의 개발수요를 반영하고 현지 실정에 맞는 계획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5.2.2. 사업계획 심의와 승인제도 도입

전문가 집단이 수립한 계획일지라고 계획의 객관성과 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립된 계획을 제3자가 심의하고 승인하는 제도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협력단 내부에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협력사업 계획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이 심의를 통과한 계획을 토대로 기본 계획및 실시계획이 수립되도록 해야 한다.

5.3. 프로젝트 사업 기간과 예산의 유연성

프로젝트 사례연구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사업이 선정된 이후 사업의 성격이나 중요도에 의해서 사업기간과 예산이 결정되기 보다는 사업 기간과 예산이 결정된 다음에 사업계획이 수립된다는 점

이다. 이 경우 사례연구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업이 지향하는 목표와 내용을 계획이 충분히 소화하여 수용하기 어렵게 된다.

따라서 프로젝트 사업의 성공 여부는 유능한 전문가의 확보와 합리적 인 사업계획의 수립, 그리고 효율적인 사업 추진 체제 구축 등이 전제되 지만 이보다 앞서 충분한 사업기간과 예산이 확보되어야 가능하게 된다.

(사례1) 인도네시아 저습지 벼농사기계화 시범사업

- 인도네시아 저습지 벼농사기계화 시범사업은 4년이라는 장기사업 으로 프로젝트의 기간은 충분한 것으로 평가되지만 예산이 부족하 게 책정되었고, 사업 대상지 선정이 불합리했고, 사업계획이 비현 실적으로 짜였기 때문에 기대했던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평 가됨.
- 4년의 사업 추진 기간에 중간 평가 과정이 없어 사업 추진의 불합 리성을 발견하지 못하고 추진되었음.

(사례2) 베트남 새마을운동 시범사업

- 베트남 새마을운동 시범사업은 2년 이내에 완료될 수 없는 중장기 사업이지만 사전적으로 이미 2년의 사업 기간에 30만 달러의 예산 이 책정되었음.
- 따라서 무리하게 짜인 기간과 예산에 맞추어 새마을시범사업이 무리하게 추진된 면이 있음. 이 경우 주민에게 재정적인 부담을 주게되어 부작용이 발생하게 됨.
- 그럼에도 이 사업이 예정대로 추진될 수 있었던 것은 프로젝트 사업 실시 이전에 전문가 파견 사업으로 수원국 전문가 집단이 참여하는 가운데 사업 대상지역에 대한 분석과 개발수요를 파악해 주민들의 요구가 반영된 개발계획이 수립되었기 때문임.

(사례3) 라오스 볍씨 증산사업

- 라오스 볍씨 증산사업도 3년의 사업기간과 49만 달러의 예산에 짜 맞추기는 마찬가지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이는 사업계획이 잘못 수립되거나 사업을 제안한 기관이 예산을 잘못 제안한 결과이기도 함.
- 따라서 이와 같은 오류를 줄이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타당성 분석 과 사업계획의 합리적 수립, 수립된 계획에 대한 제3자의 심의와 승인 절차가 따라야 함.

요컨대 사업기간과 예산은 전문가의 타당성 분석 결과를 충분히 검토하여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서 협력단의 예산제도는 3~5년간의 보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총괄 예산제도를 도입하여 예산의 유연성을 확보해야 한다. 정부가 총괄적인 예산을 협력단에 지원하면 협력단은 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자율성을 갖고 중장기 사업을 추진할 수 있어야 한다.

5.4. 수원국 사업 실시기관의 주체적 참여

프로젝트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KOICA가 모든 과정을 주도적으로 추진할 경우 수원국 현지의 관련 주체들은 방관자의 위치로 밀려나기 십 상이다. 그런데 수원국이 방관자로 남는 한 사업계획 자체의 현실적합성은 물론 사업추진의 효율성은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 프로젝트 사업이성공하기 위해서는 사업의 적합성과 효율성 확보가 필수적이므로 수원국 측 사업 실시기관의 주체적 참여는 사업 성공에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를 위해 KOICA는 프로젝트 사업 관련 지원을 가능한 한 재정적·기술적 측면에 국한하고 수원국 현지 기관이 사업을 주도할 수 있도록 수원국 현지에서의 추진체계를 수원국과 공여국 간, 수원국 공공부문과 민간부

문 간의 협력적 파트너십 구축과정으로 전환해야 한다. 수원국 입장에서 장기적인 인적 자원(human resource development)과 제도적 역량(institutional capacity)을 강화할 수 있으려면 이와 같은 과정이 반복적·지속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필수적이다.

5.5. 사업 평가제도 개선

5.5.1. 중간 평가

3~4년간에 걸쳐 시행되는 장기 프로젝트가 중간 평가 없이 사업이 추진되고 완료될 경우 많은 문제를 내포할 수 있다. 사례연구에서 나타 난 바와 같이 장기 프로젝트의 경우 중간 평가가 이루어 졌다면 상당 부분 잘못된 부분을 수정하거나 사업의 변경을 유도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2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는 모든 프로젝트에 대해서 중간평가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평가 결과에 따라서 잔여기간의 사업을 예정대로 추진할 것인지, 수정해서 추진할 것인지, 아니면 사업을 중단할 것인지 판단해야 한다.

5.5.2. 사업 종료 평가

현재 사업 종료 평가는 사업 종료와 동시에 협력단 지역 사무소에서 사업 목표 달성도, 사업의 효과, 자립 발전성/지속가능성 등 평가지표를 활용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평가는 UN 등 전문기관에서도 프로젝트에 대한 간이 평가로 흔히 사용하는 지표이기 때문에 형식상으로는 큰 문제가 없다.

그러나 위와 같은 항목에 대한 평가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

서는 사업 타당성 분석시 사업평가를 위한 지표가 제시되어야 한다. 사업 실시 이전의 기준 지표가 없을 경우 프로젝트의 성과를 정확히 측정하여 평가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타당성 분석, 혹은 사업계획 수립 당시에 각 항목별로 평가를 위한 사회경제지표(social and economic indicators)를 설정하여 사업 종료 평가와 사후 평가가 객관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한편 프로젝트의 평가는 계획한 목표를 얼마나 달성했는가도 중요하지만 그 목표가 빈곤의 완화와 삶의 질 개선, 경제·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목표인지, 그러한 방향으로 목표가 설정되고 이행되었는지의 여부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협력단에서 실시하는 평가 항목에 프로젝트 선정이 적절했는지, 이러한 목적을 위해 사업계획이 합리적으로 수립 되었는지를 평가하는 항목을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5.3. 사후 평가

3개 프로젝트에 대한 사례 연구를 통하여 확인한 것은 사업 종료 이후 이에 대한 사후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프로젝트에 대한 사후 평가는 사업의 성과와 효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사업의 성공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물론 추가 지원 여부의 판단, 추진상 미흡한 부분에 대한 개선 방안 도출에 의미가 있다. 따라서 전문가에 의해서 사후 평가가 객관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제도화해야 한다. 프로젝트 사후 평가는 다음과 같은 항목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 사업 선정의 적절성

사업 선정을 위한 타당성 검토 등 합당한 절차에 의해서 선정된 사업인가?

-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가?
- 수원국 혹은 프로젝트 대상지역의 빈곤완화와 삶의 질 향상, 경제발전 등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인가?
- 수원국의 개발 우선순위를 고려해 합당하게 선정된 사업인가?

2) 사업 계획의 합리성

- 설정된 목표가 합목적적이고 타당한가?
- 제시된 목표가 주어진 기간과 예산으로 달성 가능한 것인가?
- 목표 달성을 위해 적절한 전략과 수단을 동원하고 있는가?
- 사업 계획이 기술적으로 실현 가능하고 현실성 있게 설계되었는가?
- 수원국의 기술 수준과 현지 사정을 충분히 검토하여 수립된 계획인가?
- 수원국의 인적 자원을 적절히 동원했는가? 인적 자원 개발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이 마련되었는가?
- 수원국의 재정 부담이 적절했는가?
- 계획 수립 과정에 수원국의 전문가가 참여했는가?
- 수립된 계획에 수원국 전문가 의견, 현장의 의견이 얼마나 반 영되었는가?
- 수원국의 주인의식(project ownership)을 위해 어떠한 장치들이 마련되었는가?

3) 사업 추진의 효율성

- 사업 추진을 위해 수원국이 적절한 추진 체제를 갖추었는가?
- 계획대로 예산이 확보되고 집행되었는가?
- 수원국의 예산확보, 인력 동원, 사업 추진을 위한 협조체제가 효율적으로 작동되었는가?

- 사업 추진상의 문제 해결을 위한 조정 기능을 수행하는 기구가 설립되고 문제에 대해 효율적으로 대처했는가?
- 사업 추진에 따른 진도 파악, 중간 평가, 모니터링이 제대로 이루어졌는가?
- 당초 계획에 대한 사업계획의 변경 혹은 중단이 있었는가? 있 었다면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는가?

4) 사업 추진의 효과성

- 계획된 사업의 목표를 달성했는가?
 - 사업의 목표에 대한 추진 실적
 - 수혜자 만족도
- 사업 추진 결과 얻은 성과는 무엇인가?
 - 생산성 향상과 소득증대
 - R&D 시설, 장비의 현대화, 기술 습득
 - 인프라 개선
 - 제도 개선
 - HRD와 추진 주체의 능력개발(capacity building)
 - 기타

5) 사업 결과의 확산성

- 사업 방식의 확산 가능성 및 실적
- 기술의 확산 실적 혹은 가능성
- 프로젝트를 통해 전파된 기술 혹은 제도의 현지화

6) 지속 가능성

○ 사업 종료 후 재정적, 기술적으로 자립 가능성이 있는가?

136 농업분야 협력사업 평가

- 사업 종료 후 자체적으로 확대 발전 가능성이 있는가?
- 수원국 정부의 지원 여부, 정책적 확대 가능성이 있는가?

5.6. 프로젝트 사업 발굴을 위한 조사 연구 강화

협력사업의 방향이 주요 수원국을 대상으로 하는 국별 협력 체제로 전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 수원국이 필요로 하는 프로젝트 사업을 개발하기 위해서, 그리고 협력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프로젝 트 발굴을 위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조사연구가 전문가에 의해서 지 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프로젝트 발굴을 위한 조사 연구는 국내 전문가와 수원국의 관련 전문가가 한 팀이 되어 조사하여 수원국의 프로젝트 수요와 우선순위를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5 3

전문가 파견 사업 평가

1. 전문가 파견 사업 동향

1999~2003년 동안 농업분야 전문가는 인도네시아, 네팔, 미얀마,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몽골, 아프카니스탄, 이집트, 이디오피아, 탄자니아, 피지, 에쿠아도르, 페루, 콜롬비아, 우루과이 등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 등 16개국에 대해 56건의 사업에 파견되었다.

분야별로는 「경제 및 수출작물분야」에 총 21건의 사업에 전문가가 파견되어 전체의 37.5%를 점하고 있고 그 다음으로 「농업용수 및 자원개발 분야 11건에 전문가가 파견되어 19.6%를 점하고 있다.

협력사업 전문가는 아시아 지역에 집중적으로 파견되었다. 전문가 파견 금액 기준으로는 전체 금액의 78.9%, 파견인원 기준으로는 전체 파견 전문가의 62.5%가 아시아 지역 국가에 집중적으로 투입되었다.

1999년 이후 농업분야에서 전문가가 가장 많이 파견된 국가는 인도네 시아이며 그 다음으로 미얀마로 나타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 가 파견 사업은 아시아지역뿐만 아니라 남아메리카지역, 오세아니아지 역, 아프리카지역 등에 걸쳐 광범위하게 수행되었다.

이 기간 중 전문가 파견 사업은 금액기준으로 전체 공적 원조액의

2~3%를 유지하다가 2003년도에는 1%수준으로 하락하였다. 전문가 파견 예산액 중에서 농림수산 분야의 전문가 파견 예산이 점하는 비중은 1999년 32.8%에서 2003년 2.4%로 급격히 감소하였다. 이는 전반적으로 전문가 파견 사업이 낮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농림수산 분야의 전문가 파견이 매우 소홀하게 다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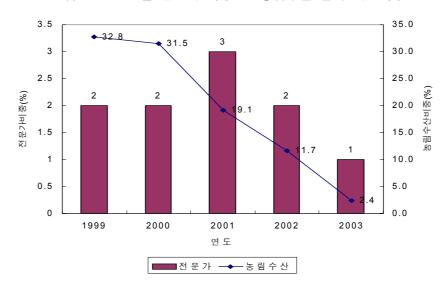


그림 5-1. 연도별 전문가 비중 및 농림수산 분야 파견비중

2. 전문가 선발 과정

전문가 선발은 수원국의 수요를 파악한 후 이를 취합하여 매년도 파견 분야, 인원 등을 확정한 후 파견 시기별로 협력단의 홈페이지 등을 통하 여 공개 모집하거나 정부 기관의 추천을 받아 경쟁을 거쳐 선발하고 있

¹² KOICA의 사업 분류상 다부문에 상당액의 농업분야 사업이 포함된 것을 감 안한다면 절대적으로 농업분야의 비중이 줄었다고는 보기 어렵다.

다. 파견 전문가 공개 모집에 응모한 자 또는 기관의 추천을 받은 자는 서류심사 후 적격자로 판정된 자에 한하여 면접을 거쳐 선발하고 있다.

전문가의 자격 요건은 국가공무원법 제 33조 각호의 1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로서 ① 파견 예정 분야 및 해당 국가에서 전문가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학식과 경력을 갖춘 자, ② 외국어 구사 능력이 있고 파견 예정분야에서 학사 이상의 학위를 지니고 5년 이상 실무경력을 구비한 자, 외국 정부 또는 국제기구가 지명하여 요청하거나 특별히 파견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등의 요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전문가 파견기간은 1개월 내외의 단기 파견, 3~6개월의 중기 파견, 1~2년의 장기 파견 등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파견 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다.

그러나 전문가 파견시 공개 모집한다고 해도 적격 후보자가 응모하지 않거나 적격 후보자를 찾기 어려울 경우 이와 같은 절차를 거쳐 선정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특히 농업분야에서 경종, 원예, 과수, 축산 분야를 제외한 분야에서 전문지식과 어학 능력을 구비하고 해외 전문가 활동을 원하는 적격자를 찾기가 어려울 경우가 많아 관련 기관을통해 전문가를 추천 받아 파견하거나 협력단이 비치하고 있는 전문가인력 풀(pool)을 활용하여 파견 가능한 적격 전문가를 확인한 후 선정하는 경우도 나타나게 된다.

전문가 파견 사업의 세부 추진 절차는 다음과 같다.

- (1) 수원국의 수요 조사 및 직무 기술서 접수
- (2) 연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외교부 승인 요청
- (3) 국별 파견 계획 통보
- (4) 전문가 모집 및 선발
- (5) 수원국 측과 선발된 전문가 파견 협의
- (6) 파견 준비 및 파견

140 농업분야 협력사업 평가

- (7) 현지 활동
- (8) 귀국 및 귀국보고서 제출

3. 전문가 파견 사업 평가

3.1. 평가 방법

전문가 파견 사업의 성과에 대한 평가와 파견 전문가의 적격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특히 파견하고자 하는 분야의 전문가 가 부족하거나 전문가로 파견되었지만 파견국의 요청에 의해서 파견 목적과 다른 분야의 업무에 종사하게 될 경우 이에 대한 평가는 매우 어려워지게 된다.

이 연구에서는 협력단의 요청에 의해서 전문가로 해외에 파견된 경험을 갖고 있는 전문가를 대상으로 전문가 선발 절차와 파견 절차, 파견 업무, 파견국과의 협력사항, 주요 성과, 파견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을 조사하였다. 이 조사는 설문지를 작성하여 조사가 가능한 대상자 26명에게 우편으로 발송한 결과 회수된 설문지 10매를 대상으로 정성적으로 분석하였다.

3.2. 평가 지표

전문가 파견에 관한 평가는 ① 선발 과정의 적합성, ② 파견 준비의 적절성, ③ 파견 목적의 부합성, ④ 파견활동의 성과성 등을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3.2.1. 전문가 선발의 적합성

- (1) 선발 절차의 공정성
 - 선발 절차가 공정했는가? 공개모집을 통하여 선발되었는가? 혹 은 소속 기관장 추천에 해서 선발되었는가?
 - 협력단의 권유에 의해서 선발되었는가?
- (2) 전문성 확보 여부
 - 파견 분야가 자신의 전문 분야와 부합했는가?
 - 파견 전문가의 전문성이 적절했는가?

3.2.2. 파견 준비의 적절성

- (1) 파견 전에 협력단 혹은 수원국으로부터 파견 업무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었는가?
- (2) 파견 전에 파견에 필요한 정보, 파견 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 습득 등 준비를 충분히 할 수 있었는가?
- (3) 파견 대상국인 현황은 물론 파견 분야에 대한 수원국의 사정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었는가?

3.2.3. 파견 목적의 부합성

- (1) 전문가로 파견되어 파견 목적에 부합한 활동을 수행하였는가?
- (2) 전문가로 파견된 이후 협력단 사무소로부터 파견 관련 업무를 명확히 부여받았는가?
- (3) 전문가로 파견된 이후 파견국으로부터 업무 수행에 따른 카운터 파트를 지정받고 업무를 명확히 부여받았는가?
- (4) 파견 기간은 적절했는가?

3.2.4. 파견 활동 지원의 적절성

- (1) 파견 활동 수행에 필요한 사무실, 통역요원, 전화, 차량 등 사무실 과 관련 시설을 제공받았는가?
- (2) 파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출장지원, 차량지원, 업무연락 등 수원 국의 협조 및 지원이 원활했는가?

3.2.5. 파견 활동의 성과성

- (1) 파견 기간에 파견 목적과 부합하여 파견 성과가 만족스러운가?
- (2) 파견 성과가 확산되고 있는가?

3.3. 전문가 파견 사업 평가

3.3.1. 기 파견 전문가의 일반현황

10명의 기 파견전문가의 전공 분야는 농촌개발 2명, 양잠 2명, 과수, 버섯 각 1명, 농업토양, 농업토목, 수자원 및 환경, 농기계 및 농업용 자재, 농산물가공 및 유통, 농업경제, 통계 및 정보 각 1명으로 구성되 어 있다.

이들 전문가의 해당분야 평균경력은 30.6년이고 1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해당분야 박사학위를 소지한 자로서 평균 2.8회 협력단 해외전문가 파견 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었으며 평균 연령은 61.6세이고 현 (또는 최종) 근무지는 대학 5명, 연구소 2명, 정부 2명, 그리고 민간기업 종사자가 1명이었다.

전문가가 파견국에서 담당하였던 분야는 기술이전 및 R&D가 3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특용작물, 농산물가공기술 및 유통 관련산업, 새마을운동과 농촌개발, 정책자문이 각 2건이었다.

응답자의 평균 파견기간은 10.2주였고 응답자 중 7명이 파견기간이 주어진 업무에 비하여 짧았다고 응답하고 있다. 바람직한 파견기간은 평균 6개월(24주)로 나타나고 있다.

3.3.2. 주요 지표별 평가

가. 전문가 선발의 적합성

기 파견된 농업분야 전문가 10명 중 6명은 소속 기관장 추천에 의해서 선발되었고 나머지 3명은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되었다. 그러나 공개모집된 전문가들도 두 번째 파견부터는 공개모집 과정을 거치지 않고협력단의 제안이나 다른 전문가 또는 소속기관의 추천에 의해서 선발되었다고 응답하고 있다.

이는 한정된 전문가 인력 풀에서 공개모집하는 경우에도 지원하는 인력이 한정되어 있거나 적격 지원자가 나타나지 않는 현실을 감안할 때불가피한 현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그러나 일부 특수하게 전문가가 한정된 경우를 제외한 일반 경종, 경영, 축산 부분 등 상대적으로 전문가층이 두터운 분야에 대해서는 공정한 선발 과정을 통해서 공개적으로 전문가를 모집하거나 공개모집과 기관 추천제를 병행하여 선발하는 것이바람직하다. 이러한 공개모집 과정은 참신한 신인 전문가의 진입(new entry)을 위해서 의미가 있다.

나. 파견 준비의 적절성

전문가 파견 사업 목적 및 활동 내역과 관련하여 협력단의 정보제공이 충분했다고 응답한 경우는 10명 중 3명에 불과하다. 나머지 7명은 파견국에 대한 정보 제공이 불충분했다고 응답하고 있으며 파견국가의현지 근무환경, 수행업무(job specification)에 대한 정보 또한 충분히 제

공받지 못했다고 응답하고 있다.

10명의 응답자 중 6명은 현재 파견국과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고 있고, 5명은 수원국 정부와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응답하고 있다. 반면에 파견사업 완료 후 사후관리 과정에서 협력단으로부터해외 농업·농촌개발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받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3명에 불과하다.

향후 전문가 파견 사업의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파견 목적과 직무(job specification)를 명확히 하고 관련국의 파견 요청에 따른 배경과전문가가 수행해야 할 업무와 관련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며, 파견 종료 이후에도 협력단 사업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효과적인 전문가 관리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다. 파견 목적의 부합성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수원국 정부가 전문가에 대한 기대 수준이 높으며 파견 전문가에게 부여된 업무도 수원국 실정에 적합하였다고 응답하고 있다.

응답자의 대부분이 자신들의 전문성이 파견 목적에 부합했으며 파견 국에서도 파견 목적과 전문성에 합당한 업무수행을 요청하였다고 응답 하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 파견 사업을 통한 기술 이전이나 정책 자문보 다 향후 기대되는 프로젝트 사업 유치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어 전문 가 활동에 애로사항이 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라. 파견 활동 지원의 적절성

전문가 파견 활동에 대한 수원국의 협조가 충분했다고 응답한 사람은 4명, 충분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사람은 6명이었다. 전문가 활동에 대한 수원국의 협조가 불충분했던 이유로 응답자의 50% 이상이 다음

과 같은 사유를 들고 있다.

- 현지기관의 지원 인력과 예산 및 시설 지원 부족
- 파견 기관 또는 카운터파트의 전문성 결여
- 업무 수행 관련 자료 부족
- 현지 주민과의 의사소통을 위한 통역 요원 지원 불충분
- 전문가에 대한 파견국 요구사항 불명확

마. 파견 활동의 성과성

파견 전문가 모두 수행업무의 성과가 보통, 또는 그 이상이었다고 응답하고 있다. 파견 수행 업무를 구분해 보면 강의 및 세미나가 66.0%, 정책자문 50.5%, 기술이전 및 R&D지원 활동 55.0%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자신의 수행 성과가 "보통 수준"이라고 응답한 비중이 40%에 달한다는 것은 상당수의 전문가가 파견 업무의 완성도면에서 기대에 미치지 못했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바. 전문가 파견 사업의 애로사항

전문가 파견자 10명 중 7명의 전문가들은 소속기관으로부터의 큰 애로사항이 없었던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이는 파견된 전문가들이 대학과 정부기관 및 연구소 소속이 10명 중 9명을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파견기간의 조정문제, 승진 및 보직 등 인사상 불이익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도 있었다. 실제 파견되었다가 귀국 후 소속기관으로부터 기존 업무의 연속성 상실과 인사상 불이익을 받았다고 응답한 사람이 2명이었다.

4. 국내 농업분야 전문가 파견 가능성

향후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협력사업에 대비하기 위하여 국내 농업분야 전문가에 대한 협력사업 참여 의사와 파견 가능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국내 농업분야 전문가들의 전문가 파견 가능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설 농림기술관리센터에 등록되어 있는 농림업부문 전문가 풀 9,000명을 활용하여 조사에 응한 622명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이들의 협력사업 참여 의사와 파견 가능성, 관심 분야, 어학 구사능력, 우리나라 농업의 분야별 경쟁력 등을 조사하였다13.

4.1. 일반 현황

전체 응답자 중 72.2%인 449명이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있었다. 이 중 국내 박사학위 소지자는 295명으로 65.7%를 차지하고 있다.

총 622명 응답자의 13.8%가 농산물 가공 및 유통분야 전공자라고 응답했으며 그다음으로 13.7%가 축산업 전공자, 그리고 농업토양, 농업토목, 수자원 및 환경 전공자는 각각 11.3%를 점하고 있다.

전공분야별 최종학위는 양잠의 경우 응답자의 100%가 박사학위 소지자이고, 그 다음 축산업이 88.9%, 농업경제, 농업통계 및 정보 분야의 전문가 중 84.0%가 박사학위를 소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¹³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설 농림기술관리센터에 등록된 농림수산 분야 전문 가는 대학, 국공립연구소, 민간 연구소, 기업체 등에서 R&D에 종사하는 학사 이상의 학력을 지닌 고급 인력이다.

표 5-1. 농업분야 전문가의 최종학위

단위: 명,%

최종학력		국내			국외		단구	
전문분야	학사	석사	박사	학사	석사	박사	기타	합계
	7	5	25	1	1	13	0	52
식량작물	13.5	9.6	48.1	1.9	1.9	25.0	0.0	8.4
	2	3	9	0	1.5	1	2	18
화훼	11.1	16.7	50.0	0.0	5.6	5.6	11.1	2.9
2.3	9	1	18	1	0	7	1	37
채소	24.3	2.7	48.6	2.7	0.0	18.9	2.7	5.9
-기 스	5	2	12	0	0	3	0	22
과수	22.7	9.1	54.5	0.0	0.0	13.6	0.0	3.5
양잠	0	0	2	0	0	0	0	2
상 급	0.0	0.0	100.0	0.0	0.0	0.0	0.0	0.3
버섯	2	0	6	0	0	5	1	14
可汉	14.3	0.0	42.9	0.0	0.0	35.7	7.1	2.3
기타특용작물	2	2	8	0	0	7	0	19
/1년 <u>국</u> 중국물	10.5	10.5	42.1	0.0	0.0	36.8	0.0	3.1
축산업	8	6	40	1	1	27	2	85
	9.4	7.1	47.1	1.2	1.2	31.8	2.4	13.7
임업	2	3	13	0	0	10	1	29
	6.9	10.3	44.8	0.0	0.0	34.5	3.4	4.7
농업토양, 토목,	9	5	38	0	0	17	1	70
수자원	12.9	7.1	54.3	0.0	0.0	24.3	1.4	11.3
농기계 및 농업용	8	7	23	0	1	4	1	44
자재	18.2	15.9	52.3	0.0	2.3	9.1	2.3	7.1
농산물가공 유통	12	8	51	0	0	13	2	86
0 년 월 기 0 11 0	14.0	9.3	59.3	0.0	0.0	15.1	2.3	13.8
농촌개발 -	4	1	8	0	1	4	2	20
	20.0	5.0	40.0	0.0	5.0	20.0	10.0	3.2
농업경제, 농업통계	3	1	5	0	0	16	0	25
및 정보	12.0	4.0	20.0	0.0	0.0	64.0	0.0	4.0
인적개발	1	1	5	0	0	2	1	10
	10.0	10.0	50.0	0.0	0.0	20.0	10.0	1.6
기타	22	3	32	0	1	25	6	89
. 1.1	24.7	3.4	36.0	0.0	1.1	28.1	6.7	14.3
합계	96	48	295	3	6	154	20	622
H / II	15.4	7.7	47.4	0.5	1.0	24.8	3.2	100.0

4.2. 파견 의향

응답자의 69.8%가 협력사업 전문가 파견 사업에 참여할 의향이 있는 반면 30.2%는 참여 의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 파견에 대한 의견 중 전문가 파견 경험이 있는 전문가가 협력사업에 참여하지 않았던 전문가에 비해 향후 전문가 파견 사업에 대한 참여 의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카이제곱 검정결과 파견 경험이 있는 전문가의 파견 의사가 그러하지 못한 경우와 상이하다는 것이 95%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파견 경험과 향후 전문가 파견 사업 참여 의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비례한다는 것은 협력사업 전문가 파견 사업이 국내 농림업 전문가들에게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고 개발도상국 지원에 대한 관심의 폭을 넓힐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는 의미 있는 결과라고 판단된다.

의향 유 무 합계 파견경험 24(88.9) 유 3(11.1) 27(4.4) 무 399(68.9) 180(31.1) 579(94.5) 합계 423(69.8) 183(30.2) 606(100.0)

표 5-2. 파견 경험별 파견 의향 유무

전문가 파견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로 67.2%가 현재 수행업무가 과다하기 때문이라고 응답하고 있고, 20.2%가 개인사정이라 응답하고 있다. 향후 양질의 농업분야 전문가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소속기관에서 충분히 협조할 수 있도록 파견 방법과 파견 기간, 파견업무, 파견자에 대한 처우 등에서 협력단의 제도개선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불참 이유응답수(%)현재 수행하는 업무의 과다133(67.2)연령 및 체력 등 개인사정40(20.2)수원대상국의 필요에 적합하지 않아서17(8.6)전문가 파견 사업 관심 없음8(4.0)합계198(100.0)

표 5-3. 향후 파견전문가 프로그램 불참 이유

4.3. 파견 희망자의 업무 능력

전문가의 파견을 결정짓는 2대 요소로 분야별 파견자의 전문성과 언어 구사 능력을 들 수 있다. 파견을 희망하는 전문가들의 80% 이상이 통상적인 언어 소통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전문가와의 토론, 영어강의 등에서는 $50\sim60\%$ 수준에서 가능하다고 응답하고 있다.

표 5-4. 파견을 희망하는 전문가의 영어 구사능력

단위: 응답수, %

	통상적 언어소통	전문가와 토론	영어 강의 가능
자유롭다	173(28.5)	146(24.1)	98(16.1)
가능하다	326(53.7)	267(44.1)	217(35.7)
어려운 편	108(17.8)	193(31.8)	292(48.1)
합계	607(100.0)	606(100.0)	607(100.0)

그러나 응답자의 절반에 가까운 48.1%가 영어 강의가 어렵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는 기 파견 전문가의 분석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응답자의 73.1%가 박사학위 소지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영어 구사 능력은 기대수준에 미치지 못함을 알 수 있다. 총체적으로 농림업분야의 전문가들은 전문가 파견시 통역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중이 43.8%에 달한다. 따라서 농업분야에서 잠재적 전문가군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리고 선발된 전문가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협력단 사업에 참여할 전문가 양성을 위

150 농업분야 협력사업 평가

한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

표 5-5. 업무 수행을 위한 통역의 필요 여부

통역필요여부 전문분야	필요함	필요 없음	합계
식량작물	13(25.5)	38(74.5)	51(8.4)
화훼	8(44.4)	10(55.6)	18(3.0)
채소	18(50.0)	18(50.0)	36(5.9)
과수	12(54.5)	10(45.5)	22(3.6)
양잠	0(0.0)	2(100.0)	2(0.3)
버섯	8(57.1)	6(42.9)	14(2.3)
기타특용작물	6(33.3)	12(66.7)	18(3.0)
축산업	28(33.7)	55(66.3)	83(13.7)
임업	13(48.1)	14(51.9)	27(4.5)
농업토양, 토목, 수자원	29(41.4)	41(58.6)	70(11.6)
농기계 및 농업용 자재	24(57.1)	18(42.9)	42(6.9)
농산물가공 유통	36(43.9)	46(56.1)	82(13.5)
농촌개발	15(75.0)	5(25.0)	20(3.3)
농업경제, 농업통계 및 정보	9(37.5)	15(62.5)	24(4.0)
인적개발	8(80.0)	2(20.0)	10(1.7)
기타	38(43.7)	49(56.3)	87(14.4)
합계	265(43.7)	341(56.3)	606(100.0)

4.4. 분야별 전문가 파견 의향

응답자의 전공분야별 파견 의향이 가장 높은 분야는 양잠 분야를 제외하면 화훼, 식량작물, 채소, 농업토목, 농기계 순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전문가 파견 프로그램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응답비중이 가장 높게나타나는 분야는 기타 특용작물을 제외하면 새마을운동을 포함한 농촌개발(40.0%), 농산물 가공 및 유통(38.1%), 과수(36.4%)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 분야에 파견에 적합한 전문가가 부족함을 의미한다.

전공분야	참여	불참여	합계
식량작물	39(76.5)	12(23.5)	51(100.0)
화훼	14(77.8)	4(22.2)	18(100.0)
채소	28(75.7)	9(24.3)	37(100.0)
과수	14(63.6)	8(36.4)	22(100.0)
양잠	2(100.0)	0(0.0)	2(100.0)
버섯	10(71.4)	4(28.6)	14(100.0)
기타특용작물	10(55.6)	8(44.4)	18(100.0)
축산업	57(68.7)	26(31.3)	83(100.0)
임업	20(71.4)	8(28.6)	28(100.0)
농업토양, 토목, 수자원	51(73.9)	18(26.1)	69(100.0)
농기계 및 농업용자재	31(73.8)	11(26.2)	42(100.0)
농산물가공 유통	52(61.9)	32(38.1)	84(100.0)
농촌개발	12(60.0)	8(40.0)	20(100.0)
농업경제, 농업통계 및 정보	17(70.8)	7(29.2)	24(100.0)
인적개발	8(80.0)	2(20.0)	10(100.0)
기타	59(67.8)	28(32.2)	87(100.0)
합계	424(69.6)	185(30.4)	609(100.0)

표 5-6. 전공분야별 파견의향 유무

4.5. 경쟁력 있는 협력 분야

농업분야 협력사업에서 국제간 경쟁력이 있고 한국의 경험 등을 고려하여 개발도상국에 지원이 가능한 중요 분야로 응답자의 20.2%가 식량작물분야를 지적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 11.3%가 새마을 운동과 농촌개발사업을, 9.9%가 농산물가공기술 및 유통관련 분야가 국제사회에서경쟁력이 있어 개도국에 지원 가능한 분야라고 응답하고 있다. 2순위로중요하다고 응답한 분야는 원예작물(11.9%), 기술이전 및 R&D(11.2%), 식량작물(8.2%)이고, 3순위로 중요하다고 응답한 분야는 인적개발(9.6%), 기술이전 및 R&D(9.0%), 새마을운동과 농촌개발(9.0%)이다.

표 5-7. 경쟁력 있는 주요 농업분야

항목		응답:	수(%)	
89	1순위	2순위	3순위	종합
 식량작물	125(20.2)	58(10.3)	29(6.1)	212(13.1)
원예작물	45(7.3)	67(11.9)	35(7.3)	147(9.1)
과일 및 과수	13(2.1)	25(4.4)	23(4.8)	61
특용(양잠, 버섯 등)	21(3.4)	38(6.7)	27(5.7)	86(5.3)
임산물	10(1.6)	11(2.0)	5(1.0)	26
가축육종 및 사양	28(4.5)	21(3.7)	28(5.9)	77(4.8)
기술이전 및 R&D	54(8.7)	63(11.2)	43(9.0)	160(9.9)
관배수, 농업토목 등 수리시설	19(3.1)	21(3.7)	19(4.0)	59
농업환경	31(5.0)	38(6.7)	30(6.3)	98(6.1)
농기계 및 농업용 자재 관련	18(2.9)	25(4.4)	28(5.9)	71(4.1)
농산물가공기술 및 유통관련	61(9.9)	41(7.3)	34(7.1)	136(8.4)
새마을 운동과 농촌개발	70(11.3)	44(7.8)	43(9.0)	157(9.7)
농업경제, 통계 및 정보	7(1.1)	6(1.1)	12(2.5)	25
정책자문	11(1.8)	29(5.2)	33(6.9)	73(4.5)
 인적개발	37(6.0)	46(8.2)	46(9.6)	129(8.0)
강의 연수 또는 세미나	15(2.4)	25(4.4)	38(8.0)	78(4.8)
기타	9(1.5)	5(0.9)	4(0.8)	18
<u></u> 합계	574	563	477	1614
Д/II	(100.0)	(100.0)	(100.0)	(100.0)

그러나 우리나라 농업 중 국제적으로 경쟁력을 갖추면서 개발도상국 지원이 가능한 10대 분야는 ① 식량작물, ② 기술 이전 및 R&D, ③ 새마을운동 및 농촌개발, ④ 원예작물, ⑤ 농산물 가공 및 유통, ⑥ 인력개발, ⑦ 환경농업, ⑧ 양잠과 버섯 등 특용작물, ⑨ 가축사양 및 육종, ⑩ 농기계 및 농자재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주요 분야의 기술력을 세계수준과 비교할 경우, 즉 분야별 세계 최고 수준을 "5"라 하고 한국의 해당 기술 수준을 점수로 환산할 때, 쌀이 3.11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고 그 다음으로 양잠이 3.10, 버섯이 3.08, 용수 및 수리시설 개발이 3.04 순으로 나타났다.

분야 점수(*) 3.11 기타 식량작물 3.03 화훼 3.01 채소 및 과채류 3.01 과수 3.02 열대과수 2.86 양잠 3.10 버섯 3.08 축산사양 3.03 삼림경영 2.95 농산물가공 3.00 관배수, 토목 등 용수 및 수리시설 3.04 농기계 및 농업용 자재 관련 2.99

표 5-8. 우리나라 분야별 농업기술 수준

반면에 열대지역의 농업, 즉 열대 과수는 조사 대상 분야 중에서 가장 낮은 점수인 2.86을 받고 있다. 열대과수의 경우는 우리나라의 자연적 조건에 비추어 볼 때, 열대지역의 농업 연구 환경이 열악하고 접근이 어렵기 때문에 기술 수준이 국제적 수준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평가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삼림경영의 경우 평가 점수가 낮은 것은 우리나라의 삼림정책이 주로 산림보존에 중점을 둠으로써 삼림의 경제적 이용과 경영에 대한 기술수준이 발달되지 못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농기계 및 농업용 자재 관련 기술과 농산물 가공 기술, 화훼와 채소 및 과채류에서도우리나라의 기술이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4.6. 파견 희망 지역

농업분야 전문가에게 가장 인기가 있는 파견 희망 지역은 동남아

주: *표에서 최고 점수는 5점

지역이며 그 다음으로 라틴아메리카 지역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조사에서 응답자의 24.1%가 동남아를 파견 희망지역으로 들고 있으며 응답자의 12.6%가 라틴아메리카를 파견 희망지역으로 꼽았다. 그러나 전문가의 파견 희망이 높은 동남아시아와 라틴아메리카의 농업, 특히 벼농사를 제외한 열대지역의 과수, 채소, 화훼, 산림경영 등에 대한국내 전문가의 지식과 경험이 부족한 것이 향후 이 지역에 대한 전문가 파견에 따르는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다.

표 5-9. 파견 희망 지역

단위: 응답수, %

					_				- ' ' ' '
동북	동남	서남	중앙	서브	라틴아	카리브	오세아	동유럽	합계
아시아	아시아	아시아	아시아	사하라	메리카	해지역	니아	ठगा	합계
152	215	77	98	33	112	33	77	94	891
(17.1)	(24.1)	(8.6)	(11.0)	(3.7)	(12.6)	(3.7)	(8.6)	(10.5)	(100.0)

주: 중복 허용

특히, 우리와 경제적 협력관계가 긴밀한 동남아시아와 서남아시아, 중앙아시아 지역에 대한 파견 희망 비중이 49.9%를 차지하고 있지만 이들 지역에 대한 우리 전문가들의 연구 축적이 미흡하고 전문가가 부족하다는 것이 향후 전문가 파견의 큰 장애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5. 전문가 파견 사업의 개선방향

5.1. 전문가 확보

우리나라가 OECD 회원국이 되면서 향후 대 개발도상국 공적원조가 급 격히 증가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며 농업분야에서도 전문 인력의 해외 파 전 수요가 따라서 증가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분야별 전문성과 외국어 구사 능력을 갖춘 경력 있는 전문가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전문가 파견 사업이 당면한 가장 큰 어려움이다.

전문가 풀(pool)을 이용하여 우리나라 농업 중 국제적으로 경쟁력을 갖추면서 개발도상국 지원이 가능한 분야를 조사한 결과 나타난 10대분야 중 첫 번째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고 지적한 식량작물 분야를 제외하면 분야별 전문성과 외국어 구사 능력을 갖춘 전문가를 찾기가쉽지 않다.

식량 작물 중에서도 벼는 열대와 온대지방에 걸쳐 분포하고 있기 때문에 식물의 특성이나 재배 기술이 우리나라와 유사하여 한국의 기술을 개발도상국에서도 쉽게 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양잠이나 버섯 등 특용작물 분야에서도 수는 많지 않지만 적격 전문 가를 확보하기가 어렵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잠업은 우리나 라에서는 이미 사양화의 길로 들어선 분야이지만 한국의 경험과 기술 을 전수할 수 있는 전문가는 해외 수요에 응할 수 있을 만큼 축적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버섯은 한국에서도 성장산업 분야인 만큼 전문가층이 충분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수원국의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열대지역의 과수, 채소, 축산, 임업, 화훼 등의 분야에서는 전문가를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열대지역 국가들의 경제 상황이 개선되면 쌀 이외의 채소와 과일, 축산물, 화훼 등의 수요가 급증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수원국으로부터 이러한 분야의 전문가에 대한 수요가 급증할 것이고 우리나라의 농업과 관련해서도 열대지역의 농업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

국제기구 및 개발도상국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새마을운동 및 농 촌개발 분야에서도 전문가를 확보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중국 을 비롯하여 베트남 등 새롭게 공업화의 길을 추구하는 국가에서는 농업과 농촌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선진 공업국으로 진입할 수 없기때문에 농업·농촌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의 하나로 새마을운동에 관한관심이 크다. 따라서 새마을운동 관련 전문가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를 담당할 적절한 수준의 전문가 수는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농업분야 협력사업에 참여할 적격 전문가를 확보하기가 어려운 것은 앞의 조사에서도 나타나듯이 파견 가능한 전문가의 어학 능력이 부족하고 파견을 희망할 경우 소속 기관의 승인이 쉽지 않으며 파견과 관련한 소속기관의 업무처리, 파견지의 근무 여건 등이 현재로서는 만족할 만한 상태가 아니라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협력사업에 참여할 자격을 갖춘 전문가를 시장에서 무제한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한국의 현실을 잘못 이해하는 데서오는 착각이다. 협력사업에 참가할 수 있는 전문가는 전문 분야에서 최고 수준의 지식과 경험, 외국어 능력을 갖춘 자라야 하며 행정과 실무, 현지 사정을 두루 잘 아는 경륜이 요구된다.

이와 같은 요건을 갖추지 못한 전문가가 파견되면 비록 개발도상국일 지라도 파견 후에 개발도상국의 전문가 혹은 파견 기관으로부터 외면당하게 되고, 파견국으로부터 업무상의 협조를 받지 못하여 주어진업무를 수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이러한 현상이 반복되면한국의 국제협력사업 중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전문가 파견 사업은 국제시장에서 신뢰를 상실하는 위기를 맞게 될 것이다. 또한협력단에서 파견된 전문가의 신뢰가 상실되면 협력사업 그 자체가 위기를 맞게 된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농업분야의 전문가 풀(pool)을 정비하여 파견이 가능한 전문가 D/B를 구축하고 파견 가능한 인력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면서 육성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앞의 분석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현재 협력단 사업으로 파견된 농업분야 전문가의 연령이 평균 62세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들을 이어 파견사업에 동참할 젊은 학자들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이들의 참여 의사는 그리 높은편이 아니다.

협력단의 전문가는 전문가 파견 사업에 의해서 파견되는 경우와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파견되는 경우로 구분될 수 있다. 대부분의 프로젝트 사업을 협력단이 직접 주관하고 필요한 전문가를 선발하여 파견하는 경우, 파견되는 전문가 이외의 사람이 이와 같은 경험을 할 수 없게된다.

협력단에서 주관하는 전문가 파견 사업이나 프로젝트 사업을 외부 전문가 집단이 팀워크(team work)로 수행하게 된다면 팀 구성원들이 자문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 되어 새로운 전문가로서 경험을 쌓게 되고 전문가적 소양을 함양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향후 협력단이 전문가 파견 사업이나 프로젝트 사업을 전문가 집단에게 패키지로 위탁하고 팀워크를 이루어 업무를 수행하게 한다면 전문가 육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민간연구소나 기업 등민간부문으로부터 전문가를 확보하여 파견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5.2. 파견 목적의 명확화

협력사업으로 파견된 전문가 평가에서 파견 목적의 불명확성이 지적되고 있다. 이들은 파견 전에 협력단으로부터 파견 업무와 관련된 충분한 정보를 듣지 못했다는 지적과 함께 파견국으로부터도 자신들의 업무를 명확히 부여받지 못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수원국으로부터 전문가 파견 수요가 발생한다면 전문가의 활용 목적이 보다 분명해야 하고 전문가가 파견되었을 경우 수행해야 할 업무를 명확히 제시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특히 업무와 관련하여 수원국이 이와 같은 일이 필요한 배경과 현황, 해결해야 할 문제점 및 업무 등이기술되어야 파견이 예상되는 전문가가 출국 전에 충분한 준비를 할 수있을 것이다.

파견 목적이 분명하지 않은 상황에서 전문가가 선발된다는 점도 문제점의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 파견 분야와 수행해야 할 업무가 분명하면 전문가 선발도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으며 전문가가 파견되었을 경우 직무 수행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다.

그러나 수원국으로부터 파견 목적이 불분명하게 되면 전문가 파견 후 배속된 기관에서의 업무가 불분명해 져 파견자 스스로 업무를 찾아서 일을 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고, 그럴 경우 전문가 파견 목적에 대해서 의문을 갖게 할 뿐만 아니라 수원국으로부터 전문가 활동에 필요한 적절한 지원을 받기 어렵게 된다.

따라서 협력단에서 전문가 파견 수요 조사시 이와 같은 점을 명확히 해야 한다. 현재 협력단이 실시하는 전문가 수요 조사 양식에는 파견될 전문가가 해야 할 일을 기간과 함께 아주 간략하게 기재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전문가가 해야 할 일은 적어도 2~3페이지로 구체적으로 작성하도록 요구해야 전문가 파견을 요청하는 수원국에서도 파견 요청 전에 전문가가 해야 할 일을 충분히 검토할 것이고, 이와 같은 정보의 토대위에서 전문가가 선발되어야 적격자를 선발 할 수 있게 된다. 협력단의 신청 양식에는 다음과 같은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한 정보를 기재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예) 전문가가 수행해야 할 직무
 - (1) 직무 명

- (2) 직무와 관련된 현재의 상황과 문제점(구체적으로)
- (3) 전문가가 중점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직무의 내용
 - 정책 자문
 - 자문 분야
 - 주요 자문 대상
 - 자문 방법
 - 강의 및 토론회
 - 내용
 - 대상
 - 시간 및 장소
 - 현장 지도
 - 현장 지도의 내용
 - 현장 지도의 필요성
 - 현장 지도의 대상
 - 현장 지도의 시간 및 장소
 - 프로젝트 개발
 - 현장 조사
 - 개발계획 수립
 - 전문인력 육성
 - 기타
- (4) 기대되는 성과
 - 정책 활용
 - 인력 육성
 - 프로젝트 실시
- (5) 전문가 파견 활동 지원
 - 파견 기관

160 농업분야 협력사업 평가

- 기관명
- 사무실 제공 여부
- 통역제공 여부
- 차량 및 운전기사 제공 여부
- 파견 활동 지원
 - 카운터파트 지정
 - 출장 등 현장 활동 지원 수단

5.3. 프로젝트 사업과의 통합

전문가 파견 사업은 프로젝트 사업 속에서 추진하는 전문가 파견과 이원화되어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경우 전문가 파견 사업으로 수원국에 파견되는 전문가는 프로젝트 사업 관련 전문가가 프로젝트와 함께 파견되는 것에 비유되기 때문에 기대 수준이 높고 이러한 기대치에 충족하지 못할 경우 상대적으로 일을 처리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된다.

조사 결과 전문가 사업으로 파견된 전문가들이 수원국으로부터 프로 젝트 사업과의 연계 가능성에 관심을 가지는 나머지 전문가 파견 사업 그 자체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프로 젝트 사업과 연계 가능성이 적은 전문가 파견 활동은 어려움을 겪게되고 장기간 파견될 경우, 당초 파견 목적과 다른 활동을 하게 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전문가 파견 사업은 프로젝트 사업 속의 전문가 파견 사업과 연계하던지, 아니면 전문가 파견 사업 자체를 아주 축소하여 프로젝트 사업과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다음 3가지를 검토할 수 있다.

- (1) 프로젝트 사업과 전문가 파견 사업을 연계하여 실시
- (2) 프로젝트 사업과 전문가 파견 사업을 통합
- (3) 외국 정부, 국제기구, 국제대학이나 단체에서 요구하는 전문가 파견을 제외한 전문가 파견은 특정업무 수행을 위한 단기 파견으로 한정

5.4. 파견 전문가 대우 개선

현재 협력단 사업으로 파견되는 전문가는 소속 기관으로부터 파견되는 형식이기 때문에 파견에 필요한 여비와 약간의 파견 수당을 협력단으로부터 지급받고 있다. 그러나 소속기관 입장에서 보면 인건비가 비싼 고급인력을 손실당하는 것이므로 쉽게 동의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문가 파견시 여비와 수당은물론 파견 기간에 해당하는 급여를 지급하거나 기관일 경우는 전문가파견업무를 용역의 형태로 위탁하여 전문가 선발과 파견, 업무수행, 귀국 후 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하도록 하고 파견자의 급여는 이에 상응하는 간접비를 인정해 주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파견된 전문가가 활동하는데 소요 되는 비용, 즉 현지 출장비, 회의비, 자료 수집비 등은 협력단이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해외 파견에 따르는 해외근무 수당이 지급되어야 하고 장기 파견자에 대해서는 주택, 자녀학자금 지급 등을 고려해야 한다. 이와 같은 지원 제도의 개선은 특히 젊은 연령층의 전문가 확보를 위해서도 필요하다.

제 6 장

연수생 초청 사업 평가

1. 연수생 초청 사업 동향

1.1. 일반 동향

연수생 초청 사업은 1963년부터 미국 국제개발청 (U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USAID)의 자금지원에 의해 수탁훈련 형태로 시작되었지만 우리나라의 자체예산으로 독자적으로 실시하기 시작한 것은 1965년부터이다.

1991년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설립되면서 연수생 초청 사업은 협력단의 3대 주요 사업 중 하나로 자리잡고 있는데, 사업비 비중으로 보면 연수생 초청 사업이 프로젝트 사업과 물자지원사업 다음으로 3위를 차지하고 있다. 2002년도에는 전체 사업예산의 17.4%를 차지했으나, 2003년에는 아프간과 이라크 재건지원사업의 증가로 그 비중이 8.7%로 감소하였다. 그러나 연수생 초청 사업의 연수과정 및참여인원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표 6-1. 연수생 초청 사업 연도별 실적

구분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계
국가수	91	92	79	100	92	95	102	109	116	113	115	124	112	159
인원	362	461	459	716	871	1,029	1,210	1,350	1,401	1,926	2,089	2,408	2,484	16,766
과정수	36	35	28	39	44	55	61	71	74	106	124	145	155	973

자료: 한국국제협력단(2003), 『연수생 초청 사업 실적』

지역별로는 아시아 지역이 중점 지원 대상이 되고 있는데, 1991 ~ 2003년 기간 동안에 초청한 연수생의 61.6%가 아시아 지역 국가에서 참가하였다.

표 6-2. 1991-2003년간 지역별 연수생 초청 사업 실적

구분	아시아	중남미	구주·CIS	중동	아프리카	계
연수생 수(명)	10,330	1,361	2,664	1,194	1,217	16,766
비율(%)	61.6	8.1	15.9	7.1	7.3	100.0

자료: 한국국제협력단(2003), 『연수생 초청 사업 실적』

연수형태상으로는 일반연수에 해당하는 정규과정에 연수생이 집중되어 있다. 1991~2003년 기간동안 정규과정 연수생 비율이 54.4%를 차지하고 있고, 국별 연수는 17.7%, 지역별 연수는 12.0%를 차지하고 있다.

표 6-3. 1991-2003년간 형태별 연수생 초청 사업 실적

	구 분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계
정	과정(개)	20	21	21	21	22	32	34	41	40	48	55	69	92	516
규	인원(명)	259	276	329	407	476	648	702	777	773	863	950	1,161	1,507	9,128
국	과정(개)	11	5	3	8	10	13	16	17	12	11	23	34	29	192
별	인원(명)	45	41	59	151	174	205	265	293	192	202	360	512	467	2,966
지	과정(개)	-	-	-	1	-	-	-	-	8	32	33	27	18	119
역	인원(명)	-	-	-	12	-	-	-	-	159	577	551	463	240	2,002
공	과정(개)	5	9	4	9	12	10	11	13	14	15	13	15	16	146
동	인원(명)	58	144	71	146	220	176	243	280	277	284	228	272	270	2,669

자료: 한국국제협력단(2003), 『연수생 초청 사업 실적 ; KOICA(2004), 『2003년도 한국 국제협력단 연보』

164 농업분야 협력사업 평가

연수분야 중에서는 사회하부구조에 관련되는 분야, 특히 공공행정과 교육 분야에 큰 비중이 주어져 있다. 2003년도에 DAC 구분에 의한 공공행정 분야의 연수가 연수생비율로 22.4%, 교육 분야가 13.3%, 농림수산 분야가 8.3%를 차지하였다.

표 6-4. 2003년도 연수분야별(DAC) 사업실적

대분류	소분류	과정수	인원(명)	비율(%)
	교육	20	329	13.3
	공공행정	34	556	22.4
사회하부	보건	9	151	6.1
구조	식수공급 및 위생	4	75	3.0
	인구정책/프로그램 및 생식보건	1	18	0.7
	기타 사회 인프라 및 서비스	7	97	3.9
	통신	17	258	10.4
경제하부	금융 및 재정 서비스	3	46	1.9
구조	에너지 생산 및 공급	6	87	3.5
	운송 및 보관	5	66	2.6
	광·공업 및 건설	9	141	5.7
생산부문	농림수산	12	207	8.3
	무역 및 관광	15	240	9.7
-110	환경	9	122	4.9
다부문	기타	4	69	2.8
기타	개발인식 증진	1	21	0.8
계		156	2,483	100.0

자료: 한국국제협력단(2004), "2003년도 한국국제협력단 연보』

1.2. 농업분야 연수사업 실태

1.2.1. 농업분야 연수사업 추진 현황

연수생 초청 사업 중 농림수산 분야가 차지하는 사업비 비중은 감소

하고 있다. 농림수산 분야의 사업비 비중은 1991~2003년 간 평균 12.3%를 차지하고 있으나, 최근 4년간(2000~2003년)의 비중은 평균 9.1%로 떨어졌다.

특히 최근에는 농업·농촌분야 연수생 수 자체가 줄고 있다. 1999~2003년 기간에 산림 및 수산을 제외한 농업분야(새마을운동과정 포함)만의 연수생 수는 전체 연수생의 7.8%를 차지하고 있다. 2001년부터 농업·농촌분야 연수생 수가 절대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표 6-5. 농업분야 연수생 수 (1999~2003)

구분	1999	2000	2001	2002	2003	합계
연수생 수	180	152	189	155	124	800

자료: 한국국제협력단 내부자료

1.2.2. 연수과정 운영 현황

1999~2003년 기간 동안 새마을운동 과정을 포함한 농업·농촌분야 연수는 1999년에 8과정, 2000년 12과정, 2001년 15과정, 2002년 13과정, 2003년 7과정이 실시되었다.

표 6-6. 농업분야 연수과정 목록

구분	연수과정명	비고
1999년	 ○ 관개개발 및 농업용수 관리 ○ 농업금융 및 농업협동조합 ○ 농업정책 ○ 새마을운동 ○ 작물생산기술 ○ 참업 ○ 한국-이스라엘 건조지역 농업 ○ 한국-이스라엘 관개기술 및 영농지도 	정규 정규 정규 정규 정규 정규 공동(3국) 공동(3국)
2000년	○ 농업금융 및 농업협동조합○ 농업정책○ 미곡생산기술○ 베트남 새마을운동	정규 정규 정규 공동(국제)

	ㅇ 아세안 농촌개발	지역			
	ㅇ 아세안 미곡생산기술	지역			
	ㅇ 아세안 새마을운동	지역			
	ㅇ 아세안 축산	지역			
	ㅇ 인니 새마을운동	국별			
	○ 작물생산기술				
	ㅇ 잠업	정규			
	ㅇ 잠업기술 사후관리	정규			
2001년	ㅇ 농업금융 및 농업협동조합	정규			
	ㅇ 농정개혁과 농촌개발	정규			
	ㅇ 아세안 농촌개발과 새마을운동	지역			
	ㅇ 아세안 가축인공수정과 수정란 이식	지역			
	○ 식품생명공학	정규			
	○ 한국-이스라엘 작물관개 기술	공동(3국)			
	○ 관개개발과 농업용수관리	정규			
	ㅇ 아세안 미곡생산	지역			
	ㅇ 농촌개발과 새마을운동	정규			
	ㅇ 작물생산기술 사후관리	정규			
	○ 아세안 라오스 농업개발정책	국별			
	ㅇ 아프리카 농업발전정책	지역			
	ㅇ 아세안 인니 농촌개발과 새마을운동	국별			
	ㅇ 벼생산기술 이전	공동(국제)			
	ㅇ 아세안 캄보디아 농업발전정책	국별			
	ㅇ 라오스 농촌개발과 새마을운동	국별			
	ㅇ 캄보디아 농촌개발과 새마을운동	국별			
	ㅇ 인니 새마을운동 정책제도 운영	국별			
	ㅇ 베트남 가금육 위생관리	국별			
	ㅇ 식품성분과 분석법	정규			
	ㅇ 미얀마 농업발전정책	국별			
2002년	ㅇ 미곡생산기술	정규			
	ㅇ 원예재배기술	정규			
	ㅇ 인니 새마을운동 파트너쉽	국별			
	○ 필리핀 농산물유통	국별			
	ㅇ 새마을운동	공동(국제)			
	ㅇ 가축인공수정과 수정란 이식기술	정규			
	○ 관개개발과 농업용수 관리	정규			
2003년	ㅇ 농업금융 및 협동조합 경영	정규			
	○ 관개개발과 농업용수 관리	정규			
	○ 미곡생산기술	정규			
	○ 원예재배기술	정규			
	○ 아세안 가축인공수정과 수정란 이식	지역			
	○ 아세안 미곡생산기술	지역			
	○ 인니 새마을운동정책제도	국별			
	E 1 11 1 2 E 0 0 31 11 22	112			

1999~2003년 기간 중 정규연수가 27과정, 지역별 연수 10과정, 국별 연수 12과정, 공동연수 6과정이 실시되었다. 전체 연수사업의 평균에비해 농업·농촌분야 연수사업에서 국별 및 지역별 연수가 높은 편이나, 여전히 정규과정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6-7. 농업ㆍ농촌분야 연수과정의 연수형태별 구성

단위: 개, %

구분	정규	지역별	국별	공동	계
과정 수	27 (49.1%)	10 (18.2%)	12 (21.8%)	6 (10.9%)	55 (100%)

이 기간에 실시된 농업·농촌분야 연수 중에서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비교적 지속적으로 실시된 연수 과정은 다음과 같다.

- ㅇ 미곡 생산기술
- ㅇ 원예재배기술
- ㅇ 가축인공수정과 수정란 이식 기술
- ㅇ 잠업기술
- ㅇ 관개개발 및 농업용수 관리
- ㅇ 농업금융 및 협동조합
- 농업(발전)정책
- ㅇ 새마을운동

2. 평가 방법 및 지표

2.1. 연수사업의 실시체계

연수생 초청 사업은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서 실시되고 있다.

168 농업분야 협력사업 평가

- (1) 연수과정 제안서 제출
- (2) 사업계획 확정
- (3) 연수생 선정 심사
- (4) 과정실시계획서 제출
- (5) 연수 실시
- (6) 연수실시 결과 및 평가보고
- (7) 연수생 사후관리

이러한 업무절차 상에서 (1)~(4)는 연수의 사전작업에 해당하는 연수 준비과정이고, (5)는 연수 실시과정이며 (6)~(7)은 사후평가 및 관리과정에 해당한다.

여기서 연수 준비과정은 외형상 연수 실시기관의 준비가 주된 것으로 보이나, 실제로 그 핵심은 연수에 대한 수요 조사와 연수생 선정 작업에 있다. 그리고 사후 평가 및 관리 과정에는 연수생 및 연수 실시기관의 연수사업 평가와 동창회 등을 통한 연수생 사후관리가 주된 내용이 된다.

2.2. 연수사업의 평가방법

연수사업에 대한 평가는 가시적으로 나타난 연수결과뿐 아니라 연수 과정에 대한 전반적 평가를 통해 온전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다. 연수과정은 연수 준비 과정과 연수 실시 과정, 그리고 사후 평가 및 관리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이들 세부 과정이 연수사업을 평가하는 기준이 된다.

연수 준비 과정 평가는 연수 수요 조사 과정과 연수생 선정 과정에 대한 평가가 핵심이므로 이들 과정들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를 조사하 여 평가하는 작업이 요구된다. 여기에 주된 조사대상은 협력단 연수사 업 담당자와 현지사무소의 연수사업 담당자가 된다.

연수 실시 과정에 대한 평가는 ① 연수 과정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 ② 강의내용 및 강사 수준, ③ 강의방법, ④ 현장견학 및 산업시찰 내용, ⑤ 연수 실시기관의 시설 및 협조 수준, ⑥ 한국사회와 문화에 대한 이해, ⑦ 연수생 특성 등에 대해 평가하는 것이다.

연수 실시과정에 대한 평가를 위해서는 연수 실시기관과 연수생 그리고 협력단 연수담당자의 평가를 종합하는 작업이 필요하나, 이 중에서 참여한 연수생들의 평가가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사후 평가 및 관리 과정 부분에서는 연수사업의 효과에 대한 평가와 협력단의 사후 관리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는지를 평가하는 것이다. 이 평가를 위해 연수사업에 참여했던 연수생들에 대한 조사와 사후관리를 담당하는 협력단 본부 및 현지사무소 담당자와의 면담이 필요하다.

2.3. 연수사업 평가지표

연수사업 평가를 위해서 다음과 같은 평가지표를 개발하여 활용하였다.

2.3.1. 연수 준비과정 평가

- (1) 연수수요 조사과정 평가
 - ㅇ 수요조사 방법
 - ㅇ 연수과정의 수요와 공급의 상호연계성
- (2) 연수생 선발과정 평가
 - ㅇ 선발기준의 적절성
 - ㅇ 연수생 자격심사 여부

2.3.2. 연수 실시과정 평가

- (1) 연수 과정에 대한 전반적 평가
 - ㅇ 연수 과정의 전문성
 - ㅇ 연수 내용의 적합성
 - ㅇ 연수 기간의 적절성
- (2) 강의 내용 평가
 - ㅇ 강의 내용의 수준
 - ㅇ 강의 내용의 적합성
 - ㅇ 강의 수준
 - ㅇ 국별 사례발표의 유용성
- (3) 강의 방식에 대한 평가
 - 강사와 연수생의 의사소통
 - ㅇ 연수생의 강의 참여도
 - ㅇ 연수생 의견의 반영 정도
- (4) 산업시찰의 내용 평가
 - ㅇ 연수 과정에의 적합성
 - ㅇ 시찰 기간의 적정성
- (5) 연수 기관의 시설
 - ㅇ 강의실 시설
 - 기숙사(숙박) 시설
 - 이 시청각 및 기자재 시설
- (6) 한국사회 및 문화에 대한 이해
 - 홈스테이 및 홈비지트
 - ㅇ 한국사회에 대한 이해
- (7) 연수생의 특성에 대한 평가
 - ㅇ 교육 수준의 동질성

ㅇ 직무 경험의 동질성

2.3.3. 사후 평가 및 관리 과정 평가

- (1) 연수효과
 - ㅇ 직무 수행에 적용 여부
 - ㅇ 지위 상승 여부
 - ㅇ 한국과 수원국간의 상호이해 증진 여부
- (2) 협력단의 사후관리
 - 협력단과 관계 유지 여부
 - ㅇ 협력단 소식지 수령 여부
 - ㅇ 협력단 동창회 가입 여부

3. 연수 사업 평가

3.1. 분석방법

농업·농촌분야 연수생 초청 사업을 평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분석방법을 사용한다.

3.1.1. 설문조사

1999년부터 2003년까지 농업·농촌분야 연수에 참가했던 연수생에 대한 설문조사를 하여 그 결과를 분석한다. 이 조사를 위하여 인터넷과 협력단 지역 사무소를 통해 조사표를 1,200부 발송하였으며 그 중 회수된 180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이 설문조사와 별도로 2001년도에 한국국제협력단의 연수사업 전 분야에 참가했던 171개국에서 참가한 1,776명의 연수생 설문조사 분석 결과와 2000년도 농업 및 농촌개발분야 아세안 연수프로그램에 참가한 3개국 118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참고 자료로 활용하였다.

3.1.2. 면담조사

농업·농촌분야 연수사업의 준비 과정과 사후 관리 과정의 분석을 위해 협력단 연수사업부의 담당자와 면담을 실시하였다.

해외 출장조사에서 연수생 선정과정과 사후 관리 과정에 대해 현지사무소 담당자와 면담을 실시하고 연수사업에 참가한 연수생들과 인터뷰하였다.

3.1.3. 연수과정 조사

농업·농촌분야 주요 연수과정에 대해서는 교과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였으며 교과 과정과 교과목의 부합 및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고 교과목의 개편이 필요한 경우에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였다.

3.2. 연수사업에 대한 평가

3.2.1. 사전준비 과정 평가

연수사업의 사전 준비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연수 과정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수요자가 원하는 연수과정을 개설하고, 연수 과 정에 적합한 연수생을 선발하는 것이다.

가. 연수과정 수요조사

현재 협력단의 연수과정 수요조사는 두 가지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그

하나는 국내에 있는 연수 실시기관을 대상으로 그들이 개설할 수 있는 연수과정에 대해 조사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해외에 있는 협력단 현지사무소 및 해외공관을 통하여 수원국의 연수 수요를 조사하는 것이다.

이러한 수요조사는 외견상 연수과정의 공급측면과 수요측면을 모두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문제는 두 가지 형태의 수요조사가 상호 연계를 맺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있다. 연수과정의 수요와 공급이 긴밀 히 연계되기 위해서는 연수실시기관에 대해 조사한 내용이 수원국에 전달되어 연수 수요를 확정짓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현재의 협력단 시스템은 연수의 수요와 공급이 같은 시기에 각기 조사되어 그 내용을 취합하기 때문에 연수 과정에 대한 수원국의 수요와 연수 공급 기관의 수요가 상호 연결되기 어렵게 되어 있다.

연수과정에 대한 수요조사는 연수 수요자의 요구와 연수 공급자의 능력이 지속적으로 피드백되어 그 결과가 연수과정으로 확정되도록 해야 한다. 먼저 연수 공급자의 연수실시기관에 대한 공급조사 결과가 연수 수요자에게 전달되어 선택할 수 있게 하고, 그 결과로 연수과정을 확정하도록 한다. 또한 연수 수요자로 하여금 새로운 연수 수요를 제안하게 하여 그 내용을 연수 공급자가 제공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게 한다. 이와 같은 지속적인 피드백 속에 연수과정에 대한 수요가 조사되고 확정되도록 해야 한다.

다시 말해 연수 기관과 수원국으로부터 각기 새로 요구되는 연수 과정은 당해 연도에 해결하기 보다는 각각 적절한 검토를 거쳐 차 연도 연수계획에 반영되도록 연수과정 수요조사 시스템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수원국 연수수요 발생)

[&]quot;수확후 관리기술" → 협력단 접수 → 연수실시기관 검토 → 연수 과정 수락 → 협력단 신규 교육 과정으로 확정 → 과정 설정을 위한 교과 편성 및 교안 작성 → 차년도 협력단 연수 계획에 포함 → 수원국으로부터 연수생 신청 접수

본 연구가 실시한 수료 연수생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연수과정에 대한 새로운 수요는 ① 수확 후 관리기술, ② 친환경 농업기술, ③ 농업·농촌 발전 경험과 정책 등으로 나타났다.

나. 연수생 선발과정

연수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선발과정을 통해 적절한 연수생이 선발되도록 해야 하는데, 현재에는 연수생 선발에서 선발기준이 명확히 적용되지 않고 있으며 복수 추천도 일반화되지 않고 있다.

연수과정에 참가하는 연수생의 경력이나 종사 업무가 연수과정이 규정한 자격과 상이할 경우, 연수 효과가 낮을 뿐만 아니라 연수과정 자체에 대한 평가가 악화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미곡증산 과정: 벼 육종 연구관이 참여할 경우, 연수 과정의 비전문성에 대해 불평

채소재배 과정: 식품가공 관련자가 참여할 경우, 연수생 관심과의 불일치성 불평

농업용수 과정: 일반 농업직 공무원이 참여할 경우, 과정의 지나친 전문성에 대한 불평

연수생 선발의 기준이 잘 지켜지지 않는 것은 수원국과의 외교관계상 엄격한 선발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 또한 수원국에서 연수생 추천기한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기 때문에 연수생을 재선발하기 어려운 문제도 있다.

그러나 연수사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이러한 관행을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연수생 선발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세부심사기준을 마련 하여 연수생에 대한 자격요건을 세부화하는 작업이 요구된다. 그리고 협 력단 차원에서 연수과정의 실시를 조기에 확정하여 추천기한이 지켜질 수 있도록 하는 여건과 기반을 마련하도록 한다.

3.2.2. 연수 과정에 대한 연수생 평가

가. 설문 응답자 특성

1999년부터 2003년 사이 농업·농촌분야 연수사업에 참가한 연수생 중 설문에 응답한 180명은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갖는다.

- 남자가 76.7%이고 여자가 23.3%임.
- 40대가 40.6%가 가장 높고, 그 다음 50대와 30대가 비슷한 수준임.
- 베트남, 캄보디아, 미얀마, 인도네시아에 속한 응답자가 전체의 60% 이상을 차지함.
- 대학졸업의 학사가 43.9%로 가장 많았고, 대학원 석사 졸업자가 그 다음으로 30%를 차지함.
- 국장급 이상의 고위 공직자가 20%, 그 이하 직급이 80%임.

표 6-8. 응답자의 연령분포

단위: %

연령	20~29세	30~39세	40~49세	50세 이상
응답자 비율	4.4	27.2	40.6	27.8

표 6-9. 응답자의 국별 구성

단위: %

국가별	베트남	캄보디아	미얀마	인도네시아	아프가니스탄	기타
응답자 비율	17.8	17.2	15.0	11.1	8.9	30.0
연수참가 비율	6.8	8.0	6.6	6.4	2.9	69.3

표 6-10. 응답자의 학력

단위: %

	_			
학력	고졸 이하	학사	석사	박사
응답자 비율	18.3	43.9	30.0	7.8

참가한 연수과정별로 분류해 보면 새마을운동 과정 참가자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농업발전정책 과정 참가자였다. 참가한 연수과정의 연수기간은 2주간이 63.3%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 4주간이 26.7%였다.

연수과정 응답자 수(명) 비율(%) 새마을운동 과정 45 25.0 농업발전정책 과정 35 19.4 미곡생산기술 과정 15.0 27 원예재배기술 과정 18 10.0 관개개발 및 농업용수 관리 과정 10.0 18 가축 인공수정과 수정란 이식 기술 과정 14 7.8 농업금융 및 협동조합 과정 2.8 기 타 18 10.0 계 180 100.0

표 6-11. 응답자의 참가연수과정

나. 연수과정에 대한 평가14

1) 전반적인 평가

연수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는 성공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2001년 조사에 비해 '매우 성공적'으로 응답한 비율은 낮게 나 타나고 있다.

표 6-12. 연수과정에 대한 전반적 평가

단위: %

구분	매우 성공적	성공적	보통	나쁨	매우 나쁨
2005년 조사	39.4	52.8	7.2	0.6	0
2001년 조사	50.3	42.6	3.7	0.3	0.1

¹⁴ 연수과정에 대한 연수생 평가는 본 연구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와 비교 분석이 가능한 선행연구 결과를 같이 제시하기로 한다. 여기서 본 연구결 과는 2005년 조사로, 2001년도 한국국제협력단의 연수생 설문조사 결과를 2001년 조사로 약칭 표기한다

회귀분석 결과에 따르면, 연수과정에 대한 전반적 평가는 학력이 높고 나이가 많을수록 낮게 나타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연수과정의 내용 자체가 고학력자나 상대적으로 연수경험이 많은 고령자가 기대하는 수준에는 미치지 못함을 보여주는 것이라 판단된다.

$$Y_1 = 0.897 + 0.12X_1 + 0.141X_2$$

 (t_{1}^{-1}) (3.513) (2.229) (2.62)

F = 5.541, D.W = 1.594

 Y_1 : 연수과정에 대한 전반적 평가

X₁ : 나이, X₂ : 학력

2) 연수과정의 전문성

연수과정의 전문성 여부는 개별 연수과정별로 차이가 있고, 참가연수생의 수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 일반적 경향을 보여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수참가생들의 자격과 수준이 균일하지 않다는 반증이다. 2001년 조사는 평가분류를 3단계로 하였기 때문에 연수내용이 적절하다는 응답이 많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표 6-13. 연수과정의 전문성

단위: %

구분	너무 일반적	일반적	적절함	전문적	너무 전문적	무응답
2005년 조사	6.7	25.5	41.1	25.0	1.7	0
2001년 조사	6.5	-	85.8	-	6.2	1.5

3) 연수기간

연수기간에 대해서는 짧다고 응답한 비율이 46.7%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2001년의 조사결과에 비해서도 매우 높은 것으로 농업·농촌분야 연수사업이 타 분야 연수사업에 비해 연수기간이 짧게 구성되어 있다

는 반증으로 보인다.

표 6-14. 연수기간

단위: %

구분	너무 길다	길다	적절하다	짧다	너무 짧다	무응답
2005년 조사	1.1	1.1	51.1	35.6	11.1	0
2001년 조사	4.4	-	79.5	-	14.2	1.9

4) 연수교재의 적합성

연수교재는 적절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농업·농촌분야 연수에서 교재가 '보통'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전체 과정 연수생을 대상으로한 조사결과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 6-15. 연수교재의 적합성

단위: %

구분	매우 적절	적절	보통	부적절	매우 부적절	무응답
2005년 조사	40.6	44.4	14.4	0.6	0	0
2001년 조사	47.7	44.6	6.0	0.2	0.1	1.4

5) 수행 직무와의 적합성

협력단 연수가 현재 수행하는 직무에 적합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85%로 나타나고 있다. 회귀분석에 따르면, 수행직무와의 적합성 평가는 나이가 많을수록 낮게 나타나고, 지위가 높을수록 높게 나타나는 연관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한국국제협력단의 연수와 수행직무와 연관시키는 데는 상대적으로 젊은 층과 고위직급자가 더 적극적임을 보여준다.

표 6-16. 연수과정의 수행직무와의 적합성

단위: %

구분	매우 적합하다	적합하다	보통	적합하지 않다	매우 적합하지 않다
응답자 비율	32.2	52.8	13.9	1.1	0

 $Y_2 = 1.237 + 0.166X_1 - 0.25X_3$ (t_{H}^{2}) (5.149) (2.731) (-1.932)

F = 4.742, D.W = 1.932

Y2 : 수행직무와의 적합성 평가

X₁: 나이, X₃: 지위

6) 강의 내용 수준

강의 내용 수준은 전체적으로 적합했던 것으로 보이나, 일부 연수생들에게는 강의가 상대적으로 난해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강사들의 교수기법이 뛰어났다는 점에는 대부분 동의하고 있다.

표 6-17. 강의 수준

단위: %

						<u> </u>
구분	너무 높다	높다	적당하다	낮다	너무 낮다	무응답
2005년 조사	3.9	19.5	74.4	1.1	1.1	0
2001년 조사	6.1	-	85.8	-	6.5	1.6

표 6-18. 강사의 교수기법

단위: %

구분	매우 좋다	좋다	보통	나쁘다	매우 나쁘다	무응답
2005년 조사	31.1	62.8	6.1	0	0	0
2001년 조사	36.9	51.4	8.6	0.6	0.1	2.4

7) 연수과정 참여 및 의사소통

연수과정에서 강사와 연수생 간의 의사소통은 매우 원활하게 이루어 진 것으로 조사되었다. 연수생의 연수과정 참여와 연수생의 의견 반영 도 높은 편이지만, 상대적으로 강사와의 의사소통만큼 훌륭하게 진행 되지는 않았음을 보여준다.

표 6-19. 연수과정에의 참여도

단위: %

구 분	아주 좋다	좋다	보통	형편없다	아주 형편없다
강사와 연수생의 의사소통	45.5	47.2	6.7	0.6	0
연수생의 과정 참여	30.0	58.3	10.6	1.1	0
연수생의 의견 반영	25.0	63.3	11.7	0	0

8) 연수생 동질성

연수생들의 상호평가에 따르면, 같은 과정의 연수생들이 직무경험과 교육 수준에서 서로 간에 동질적으로 느끼는 면이 서로 이질적으로 느끼는 면보다 많았음을 보여주고 있다.

표 6-20. 연수생 특성

단위: %

			_	_	
구 분	매우 동질적	동질적	보통	이질적	매우 이질적
직무경험 환경	12.8	43.6	29.6	12.4	0.6
교육 환경	15.0	40.8	33.0	10.6	0.6

9) 현장견학 및 산업시찰의 적절성

현장견학 및 산업시찰은 적절했던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런데 2001년 조사와 비교해 보면, 적절성 평가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농업·농촌분야 연수의 현장견학이 연수과정별 특성이 없이 거의 천편일률적인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 것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6-21. 현장견학의 적절성

단위: %

구분	매우 적절	적절	보통	적절하지 않다	매우 적절하지 않다	무응답
2005년 조사	27.9	54.2	17.3	0.6	0	0
2001년 조사	68.5	27.8	0	1.6	0	2.1

10) 국별 사례발표(country paper)의 유익성

국별 사례 연구 발표 내용이 유익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약 80%이지만, 응답자의 20% 정도가 국별 사례발표의 내용이 부실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실제로 연수 실시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충분히 검토되고 정리되지 않은 국별 사례 연구 자료가 제출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표 6-22. 국별 사례발표의 유익성

단위: %

구분	매우 유익	유의	보통	유익성 없음	아주 유익성 없음
응답자 비율	22.2	57.2	19.5	1.1	0

국별 사례발표 시간에 대해서는 대부분 적절하다고 응답하고 있지만 짧다고 응답한 비율이 19.5%로, 길다고 응답한 비율(9.4%)보다 높은 편이다. 이는 국별 사례발표에서 토의 시간이 충분하지 못한 면이 있었던 것이라고 판단된다.

11) 가정방문 및 홈스테이 평가

응답자의 90% 이상이 가정방문이나 홈스테이가 좋았던 것으로 평가하고 있어 가정 방문이 유익한 프로그램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12) 연수시설

연수 기관의 연수 관련 시설은 전반적으로 좋았던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표 6-23. 연수시설

단위: %

구 분	아주 좋다	좋다	보통	형편없다	아주 형편없다
강의실 및 실험실	57.2	38.9	3.9	0	0
기숙사 시설	52.0	43.0	5.0	0	0
시청각 및 교육시설	44.7	50.8	4.5	0	0

다. 사후평가 및 관리과정에 대한 평가

1) 연수의 효과

연수를 통해 습득한 지식과 기술이 일상의 직무수행이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자한 비율은 94.4%로 나타나고 있어 연수의 효과가 직무 수행에 크게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연수사업이 수원국과한국과의 상호이해 증진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연수 이후 승진이나 전직 등 신상의 변화는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설문응답자의 약 70%가 연수 후 신상의 변화가 없 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24. 연수 효과

단위: %

구 분	그렇다	아니다	모르겠다
연수지식이 일상 업무 수행에 유용한가?	94.4	5.6	0
연수지식을 직무수행에 적용해 보았는가?	82.2	17.8	0
연수과정이 한국과의 상호이해 증진에 기여했나?	95.0	0.6	4.4

표 6-25. 연수과정을 통한 한국에 대한 이해도 변화

단위: %

			_			
구분	아주 깊어짐	깊어짐	약간 깊어짐	변화없음	나빠짐	무응답
2005년 조사	60.6	35.3	3.5	0.6	0	0
2001년 조사	62.6	32.6	1.5	0.1	0	3.2

2) 연수생 사후관리

연수과정 수료자 중 약 60% 정도는 연수 이후에도 한국국제협력단과 직·간접으로 관계를 맺고 있으나, 약 40% 정도는 사실상 연결이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협력단에서 발송하는 뉴스가 주소지 이전 등의 사유로 제대로 전달되지 않거나 국별 동창회 혹은 친목회가 연락할 수 있는 적절한 수단을 갖지 못한 결과로 보인다. 따라서 연수생이 귀국 한 후 각국에 주재하고 있는 협력단 사무소 혹은 동창회가 연수생들의 주소를 확인하여 소식지가 전달되고 동창회 등 친 목 단체에 가입 하여 사후관리가 되도록 적극 노력할 필요가 있다.

표 6-26. 연수생 사후관리

단위: %

	_		
구 분	그렇다	아니다	모르겠다
연수 후 한국국제협력단과 관계 유지	57.2	42.8	0
한국국제협력단의 소식지 수령	58.9	41.1	0
한국국제협력단 동창회 가입	45.0	55.0	0
한국국제협력단 연수생 간의 비공식 모임 결성	43.3	37.8	18.9

3.3. 개별 연수과정 평가

개별 연수과정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과정별로 응답한 설문이 10 부 이상 되는 연수 과정에 대해서 연수 내용을 보다 심층적으로 비교 분석하였다.

심층 분석 대상 연수과정은 새마을운동 과정, 농업발전 정책 과정, 미곡생산 기술 과정, 원예재배 기술 과정, 관개개발 및 농업용수 관리 과정, 가축 인공수정과 수정란 이식 기술 과정 등 6개 과정이다.

표 6-27. 분석대상 개별연수과정

연수과정	설문응답자 수(명)	비율(%)
새마을운동 과정	45	28.6
농업발전정책 과정	35	22.3
미곡생산기술 과정	27	17.2
원예재배기술 과정	18	11.5
관개개발 및 농업용수 관리 과정	18	11.5
가축 인공수정과 수정란 이식 기술 과정	14	8.9
소 계	157	100.0

가. 연수과정 전반에 대한 평가

개별 연수과정 중에서 새마을운동 과정이 전반적 평가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획득하였다. 직무수행에 대한 연수내용의 적합성은 '관개개발 및 농업용수관리 과정'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연수과정	전반적 평가	직무 적합성
새마을운동 과정	1.40	1.80
농업발전정책 과정	1.89	2.03
미곡생산기술 과정	1.80	1.92
원예재배기술 과정	1.94	2.0
관개개발 및 농업용수 관리 과정	1.50	1.56
가축 인공수정과 수정란 이식 기술 과정	2.07	1.79
(응답설문 전체 평균)	(1.71)	(1.86)

표 6-28. 개별 연수과정의 전반적 평가

나. 연수과정의 전문성

연수과정의 전문성에서 개별 과정들은 대개 적절한 수준으로 수렴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원예재배기술 과정'이 좀더 일반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관개개발 및 농업용수관리 과정'이 좀더 전문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 0 20. THE ET TO TEEO	
연수과정	평점
새마을운동 과정	3.0
농업발전정책 과정	2.86
미곡생산기술 과정	3.04
원예재배기술 과정	2.56
관개개발 및 농업용수 관리 과정	3.30
가축 인공수정과 수정란 이식 기술 과정	2.64
(응답설문 전체 평균)	(2.93)

표 6-29. 개별 연수과정의 전문성

주: 5단계 평점으로 1은 '매우 높음', 5는 '매우 낮음'을 의미함.

주: 5단계 평점으로 1은 '아주 일반적', 3은 '적절함', 5는 '아주 전문적'을 의미함.

다. 강의내용의 유용성

강의내용에 대해서는 '관개개발 및 농업용수관리 과정'과 '새마을운 동 과정'이 좀더 유용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원예재배기술 과정'이 상대적으로 유용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받았다.

개별 연수과정의 강의내용 수준은 모두 적절한 쪽으로 수렴하여 과 정별로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연수과정	강의 유용성	강의 수준
새마을운동 과정	1.60	2.78
농업발전정책 과정	1.83	2.63
미곡생산기술 과정	1.92	3.12
원예재배기술 과정	2.11	2.83
관개개발 및 농업용수 관리 과정	1.56	2.78
가축 인공수정과 수정란 이식 기술 과정	2.07	2.64
(응답설문 전체 평균)	(1.81)	(2.79)

표 6-30. 개별 연수과정 강의 평가

라. 연수과정별 교수기법 및 교재

표 6-31. 개별 연수과정 강사의 교수기법

연수과정	강사 교수기법	교재의 적합성
새마을운동 과정	1.60	1.51
농업발전정책 과정	1.63	1.66
미곡생산기술 과정	2.0	1.88
원예재배기술 과정	2.0	1.78
관개개발 및 농업용수 관리 과정	1.67	1.94
가축 인공수정과 수정란 이식 기술 과정	1.93	2.14
(응답설문 전체 평균)	(1.77)	(1.77)

주: 5단계 평점으로 1은 '매우 우수', 5는 '매우 나쁨'을 의미함.

주: 5단계 평점으로 1은 '매우 높음', 5는 '매우 낮음'을 의미함.

강사의 교수기법이 연수과정별로 별 차이를 보이지 않으나, 상대적으로 '새마을운동 과정'과 '농업발전정책 과정'이 좀더 나은 교수법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수과정의 연수교재는 '새마을운동 과정'과 '농업발전정책 과정'이 더 적합했던 것으로 나타나고, '가축 인공수정과 수정란 이식기술 과정'의 교재가 적합성에서 낮은 평점을받았다.

마. 국별 사례발표 및 현장견학 평가

'새마을운동 과정' 참가자들이 비교적 충실하게 국별사례 발표자료를 준비해 온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현장견학 및 산업시찰이 연수과정의 적합성에서도 '새마을운동 과정'이 높은 평점을 받았다.

11	6-32	연수과정별	구변	사례	여구반표	미	혀 자겨 하이	저 하서
-14	() ()/	1 1 2 3 3	~ =	/\I L_II	:	-	7701111	

연수과정	국별 사례 연구	산업시찰
새마을운동 과정	1.67	1.64
농업발전정책 과정	2.26	2.11
미곡생산기술 과정	2.28	2.0
원예재배기술 과정	2.0	2.06
관개개발 및 농업용수 관리 과정	1.94	1.72
가축 인공수정과 수정란 이식 기술 과정	2.07	2.29
(응답설문 전체 평균)	(2.02)	(1.92)

주: 5단계 평점으로 1은 '매우 적합', 5는 '매우 적합하지 않음'을 의미함.

3.4. 주요 연수과정 교과내용 분석

비교적 오랫동안 정규적으로 개설되어 진행된 농업·농촌분야의 주요 8개 연수과정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표 6-33. 주요 연수과정 개요

연수과정	주된 연수기관	연수기간
미곡 생산기술	농촌진흥청	8주
원예재배기술	경북대학교 국제농업훈련원	4주
가축인공수정과 수정란 이식 기술	농촌진흥청 축산연구소	4주
	농촌진흥청 농업과학원 잠사곤충부	5주
관개개발 및 농업용수 관리	농업기반공사	2주
농업금융 및 협동조합	농협대학	2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촌진흥청	2주
새마을운동	새마을운동중앙연수원	2주

3.4.1. 교과내용 분석

가. 미곡생산기술 과정

(1) 연수목표

- 한국의 녹색혁명 성공경험과 미작기술을 전수하여 개발도상국
 의 미곡생산기술을 향상시키고 농업발전에 기여함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함.
- 직접적으로는 미곡생산의 현대적 기술과 지식을 교육하여 연수 생들이 기술을 습득하고 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 는 것에 연수의 목표를 둠.

(2) 교과내용

- 미곡증산 관련 과목
 - 벼 육종기술(강의)
 - 벼 인공교배 기술(강의, 실습)
 - 벼 병해 방제기술(강의, 실습)
 - 한국의 벼 품종 개량(강의)

- 육묘 및 이앙 재배기술 (강의, 실습)
- 벼 유전자원 보존관리(강의, 실습)
- 파종기, 이앙기, 방제기(강의, 실습)
- 답 토양 관리(강의)
- 벼 충해 방제(강의, 실습)
- 벼 영양생리(강의, 실습)
- 물 관리 기술(강의, 실습)
- 논 잡초 방제 기술(강의, 실습)
- 벼 본답 시비기술(강의, 실습)
- 벼 다수확 재배기술(강의)
- 농약 안전관리(강의, 실습)
- 벼 1대 잡종 품종개량(강의)
- 생명공학 이용 벼 육종기술(강의, 실습)
- 벼 직파 및 기계이앙 실습(실습)
- 시비원리와 양분관리 기술(강의, 실습)
- 기후와 벼 재배기술(강의, 실습)
- 벼 실험 통계분석(강의, 실습)
- 벼 병의 생태와 방제(강의, 실습)
- 남부지역의 벼 연구 동향(강의)
- 미질 평가 및 품질 관리(강의, 실습)
- 벼 작황 진단(강의, 실습)
- 벼 경영분석(강의, 실습)
- 논 생리장해 진단기술(강의, 실습)
- 쌀 가공이용 기술(강의, 실습)
- 관련 분야 과목
 - 한국의 농업 현황(강의)

- 농협 직거래 유통체계(실습)
- 한국의 농촌진흥사업 소개(강의)
- 김치 만들기(실습)
- 한국의 원예산업(강의)
- 한국의 농업기술 보급체계(강의)
- 한국의 축산업(강의)
- IRRI 연구사업 동향(강의)
- 개발도상국 농업기술 이전 사례(강의, 실습)
- 한국의 새마을운동 소개(강의)
- 한국의 녹색혁명(강의)
- 한국의 친환경농업(강의)
- 한국의 전문농업인 육성(강의)
- 한국의 농업기반조성사업(강의)
- 농촌생활개선사업 소개(강의)
- 농촌여성의 역할(강의)
- 농업의 공익적 기능(강의)
- 현장견학 및 산업시찰
 - 버섯단지 (볏짚 이용 버섯재배 기술)
 - 농업기술센터 시범농장
 - 재래시장, 가락동 도매시장
 - 우수 지도자 농장
 - 신흥강판(주)
 - 국제종합기계(주)
 - 현대자동차(주)
 - 남해화학(주)
 - 호남농업시험장

(3) 교과 과정 평가

- 미곡증산기술에 대한 교과목은 연수목표에 맞게 충실하게 구성되어 있지만 관련 교과목은 그 수가 지나치게 많고 내용상으로도 밀접한 연관이 없는 교과목들이 있음.
- 관련교과목에 대한 정비작업이 필요하며 이에 상응해서 연수기 간도 8주에서 6주로 줄이는 것이 바람직함.
 - 최근에 '미곡생산기술 과정'의 연수기간이 4주로 줄여 운영되고 있으나, 이것은 과정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운영이라 여겨지며 6주의 연수기간이 적절하다 판단됨.
- 연수과정에 대한 새로운 수요로 "수확 후 관리기술"에 대한 요구가 높은 만큼 이를 교과목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나. 원예재배기술 과정

(1) 연수목표

 원예작물 생산에서 한국의 현행 기술을 소개·교육함으로써 한 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상호이해를 증진시키고 국제협력체계의 기초를 발전시켜 원예작물 생산의 지식과 정보를 서로 교환하고 공유하도록 함.

(2) 교과내용

- 원예기술 관련 교과
 - 한국의 원예산업과 발전전망(강의)
 - 한국의 종묘산업과 원예발전(강의)
 - 채소육종기술(강의, 실습)
 - 낙엽과수의 과수원 관리(강의)
 - 과수병 저농약 방제(강의)

- 약 배양과 반수체 육종(강의)
- 콩나물과 채소 생산(실습)
- 조직배양(실습)
- 식물병학(실습)
- 생장조절과 잡초 방제(실습)
- 잡초 방제기술(강의)
- 식물조직배양과 기내 대량증식(강의, 실습)
- 원예작물의 주요 바이러스 방제(강의, 실습)
- 콩나물과 엽채류 생산(강의, 실습)
- 원예작물에서 생장조절제의 이용(강의)
- 양념채소 생산기술(강의, 실습)
- 원예생산시설과 환경관리(강의, 실습)
- 원예작물의 주요 선충 방제(강의)
- 화훼작물의 개화 조절(강의)
- 과실의 등급화와 유통전략(강의)
- 중간 잡종기술을 이용한 화훼 유전육종(강의)
- 화분매개곤충의 이용(강의)
- 채소-시설 생산기술(강의)
- 관련 분야 교과목
 - 한국의 농촌개발 계획(강의)
- 현지견학 및 산업시찰
 - 원예농가
 - 농촌진흥청 원예연구소
 - 삼성전자
 -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
 - 아시아농기계(주)

(3) 교과 과정 평가

- '원예재배기술 과정'의 교과목은 연수목표에 부합되게끔 충실하게 구성되어 있음. 다만, '원예재배기술 과정'의 교과내용이 가장 '일반적'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원예재배기술 과정'이 기초과정의 특성을 보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연수기간은 교과목의 구성상 현행대로 4주를 유지하는 것이 바 람직함.

다. 가축인공수정 및 수정란 이식기술 과정

(1) 연수목표

- 가축인공수정 및 수정란 이식기술 이전으로 개발도상국의 축산 기술을 향상하고, 축산개발의 성공 경험을 전수함으로써 개발 도상국의 축산발전에 기여함.
- 가축 인공수정 기술 관련 산업의 대 개발도상국 연계 기반을
 조성하는데 기여함.

(2) 교과내용

- 전공분야 교과
 - 한국의 축산업 개황(강의)
 - 가축의 유전체 연구동향(강의)
 - 형질전환 가축 생산(강의)
 - 복제동물 생산 및 이용(강의)
 - 한우 개량 성과 및 전망(강의)
 - 축산물 이용가공 실습(실습)
 - 소 인공수정 및 체외 수정(강의, 실습)
 - 돼지 인공수정(강의, 실습)

- 수정란 생산 및 난자 채취기법(강의, 실습)
- 수정란 동결(강의, 실습)
- 가금의 인공수정(강의, 실습)
- 수정란 이식(강의, 실습)
- 가축 질병 방제(강의, 실습)
- 관련 분야 교과목
 - 개발도상국 기술 이전 사례(강의)
- 현장견학 및 산업시찰
 - 수의과학검역사업
 - 목장관리 및 우유가공 기술
 - 가축전염병 연구사업
 - 농협 축산물 판매
 - 농촌진흥청
 - 새만금 사업지구
 - 대호환경농업사업소
 - 삼성전자

(3) 교과 과정 평가

- '가축인공수정 및 수정란 이식기술 과정'의 교과내용은 연수목 표에 부합되게 구성되어 있으며 현장견학이 연수과정의 특성에 부합되게 구성되어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과정은 개별 연수과정들 간의 비교분석에 서 강의교재의 적합성에서 가장 낮은 평점을 받고 있음.
 - 이는 교재의 충실도가 상대적으로 낮음을 의미함. 따라서 강의 교재의 개선이 요구됨.
 - 3주 과정이 적절함.

라. 잠업기술과정

(1) 연수목표

 개발도상국의 잠업관련 기술인력을 대상으로 한국의 선진 잠업 기술과 지식을 강의와 실습을 통해 이전함으로써 잠업기술 인 력의 기술능력 향상 및 개발도상국 저소득 농민의 소득 증대와 빈곤퇴치에 기여함.

(2) 교과내용

- 잠업기술 관련 교과목
 - 누에사육 실습(실습)
 - 상족, 수견, 누에사육 평가(강의)
 - 잠사곤충 산업의 전망(강의)
 - 누에 사육(강의, 실습)
 - 알깨기(강의, 실습)
 - 인공사료 제작(강의, 실습)
 - 누에의 새로운 기능(강의)
 - 뽕나무 품종 육성(강의, 실습)
 - 상묘생산(강의, 실습)
 - 뽕나무 병해충(강의)
 - 모아검사(강의, 실습)
 - 누에병(강의, 실습)
 - 잠종생산(강의, 실습)
 - 제사원료(강의)
 - 실크 신소재(강의)
 - 제사(강의, 실습)
 - 정련, 염색(강의, 실습)

- 견의 화학가공(강의, 실습)
- 관련분야 교과목
 - 한국의 농업 현황(강의)
- 현장견학 및 산업시찰
 - 전북잠업사무소
 - 신화직물
 - 견직연구원
 - 삼성전자
 - 현대자동차
 - 포항제철

(3) 교과 과정 평가

- 연수과정의 교과내용이 연수목표에 부합되게 구성되어 있으며
 연수 기간도 적절한 것으로 나타나고 연수 결과에 대한 만족도
 가 높게 나타남.
- 현장견학 대상지가 연수과정의 특성에 부합하는 곳으로 이루어져 있음.

마. 관개개발 및 농업용수 관리 과정

(1) 연수목표

개발도상국의 연수생들이 관개개발과 농업용수 관리를 효율적
 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술을 전달하여 그들의 지식과 기술을
 향상시키고 이를 자국의 농업발전에 활용할 수 있도록 기여함.

(2) 교과내용

○ 관개개발 및 용수관리 관련 교과목

- 한국의 농업용수 개발과 농업용수 관리정책
- 한국의 관개용수 관리와 자동화 시스템
- 농업용수 관리를 위한 컴퓨터 모델
- 관련 분야 교과목
 - 한국 농촌개발과 새마을운동
 - 농촌개발과 환경영향평가
 - 벼 재배기술과 논 물관리
- 현장견학 및 산업시찰
 - 새만금 종합개발사업지구
 - 대호농어민복지센터
 - 동화댐
 - 아산 현대자동차
 - 농촌진흥청

(3) 교과 과정 평가

- 연수 기간은 적절한 것으로 보이나 교과목은 연수목표에 부합 할 만한 내용을 갖고 있지 못함.
 - 개설한 교과목 6개 과목 중 연수목표와 직결되는 과목은 3과 목에 불과하여 교과목을 재구성할 필요가 있음.

바. 농업금융 및 농업협동조합 과정

(1) 연수목표

 농촌지역개발과 농업경영에 필요한 자금을 조성하고 공급하는 농업금융에 대한 실용적 지식을 제공하고, 농업 및 지역사회의 서비스 기관으로서의 농업협동조합의 역할에 대한 이해를 증진 시킴. 한국에서 농업금융시스템을 이용한 지역개발 프로젝트 수행 전략과 우리의 협동조합운동 경험을 개발도상국의 농촌개발 프로그램 작성에 활용하게 하여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에 기 여함.

(2) 교과내용

- 농업금융 및 농협 관련 교과목
 - 한국 농협의 발달과정
 - 농협사업의 이해
 - 농업발전과 농업금융
 - 농협의 신용사업
 - 협동조합의 농촌개발에서의 역할
- 관련분야 교과목
 - 한국 농업과 농촌의 현황과 전망
 - 농산물 마케팅 전략
 - 한국의 농업정책: 현재와 미래
 - 농업부문 투융자와 농업생산성
 - 2000년대 한국농업의 비전
- 현장견학 및 산업시찰
 - 회원농협(도고농협)
 - 농협교육원(안성교육원)
 - 농협유통
 - 현대 자동차
 - 청양유가공공장
 - 농업박물관

(3) 교과 과정 평가

- 연수과정의 교과내용이 연수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만큼 충분히 체계적이지 못함.
 - 교과목에 대한 체계적인 재구성이 필요함.
 - 현장견학 대상지는 연수과정의 특성에 부합하는 편임.

사. 농업발전정책 과정

(1) 연수목표

한국의 농업발전과 농촌개발에 대한 경험을 바탕으로 개발도상
 국의 농업발전정책 수립과 농업정책개혁에 실질적 도움을 주며
 이들 국가와 유대강화에 기여함.

(2) 교과내용

- 농업발전 및 정책 관련 교과목
 - 한국 농업의 발전과정과 전망
 - 한국 농업·농촌 현안과 정책결정
 - 한국의 농업구조조정과 시사점
 - 새마을운동의 배경과 추진전략
 - 새마을운동의 개발도상국 적용 가능성
 - 농업·농촌개발과 협동조합
 - 한국의 농촌개발 전개과정
 - 농촌소득 증대와 소규모 농촌공업화
 - 농산물 유통정책
 - 농산물 무역과 국제협력
 - 개발도상국 지역개발을 위한 농업금융 토의
 - 개발도상국 농업정책과 제도 토의

- 개발도상국 농촌개발전략 토의
- 개발도상국 농업·농촌정책 개혁에 관한 토의
- 현장견학 및 산업시찰
 - 농업기반공사
 - (주)국제종합기계
 - 호남농업시험장
 - 환경농업단지

(3) 교과 과정 평가

- 한국의 농업발전 경험 및 농업정책을 소개하는데 있어 교과내용이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지 못함.
 - 농업생산기반 정책과 같은 주요한 항목이 빠져있는가 하면, 부차적인 내용이 교과목에 포함되어 있음.

아. 새마을운동 과정

(1) 연수목표

 한국의 독특한 농촌개발모델인 새마을운동의 기본개념과 추진 과정, 성공요인과 성과를 소개함으로써 개발도상국의 농촌개발 에 기여함.

(2) 교과 내용

- 새마을운동 관련 교과목
 - 새마을운동과 국가발전
 - 새마을운동의 역사
 - 농촌개발과 새마을운동의 역할
 - 새마을운동의 자국모델 개발

- 새마을운동의 국제화
- 새마을운동의 전개방안
- 농촌 새마을운동 체험 사례
- 부녀 새마을운동 체험 사례
- 관련 분야 교과목
 - 한국농업과 정책개발
 - 한국의 농촌지도사업
- 현장견학 및 산업시찰
 - (주)국제종합기계
 - 홍성 환경보전 시범마을
 - 현대 자동차
 - 광양제철
 - 농협중앙회

(3) 교과 과정 평가

- 새마을운동의 실천경험을 개발도상국에 전수하고자 하는 연수
 목표가 명확히 설정되지 않고 있음. 따라서 연수목표를 새롭게
 재설정할 필요가 있음.
- 교과내용 또한 새로운 연수목표에 맞게 재구성되어야 함.
- ㅇ 현장견학 대상지가 연수과정의 특성에 부합되지 않고 있음.

3.4.2. 교과내용 분석 종합

가. 교과 내용 및 구성상의 문제점

같은 연수과정 내에서 교과목별로 수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연수과정의 수준이 연수생에 따라 너무 일반적이거나 너무 전문적 인 것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동일한 연수테마 하에서 기초반과 고급반으로의 연수과정의 세분화가 필요하다. 연수과정의 세분화는 현행 연수과정을 정규반으로 그대로 유지하면서 보다 전문적인 내용을 교육하는 고급반, 혹은 사후관리반을 신설하면 연수과정은 보다 완결된 체제를 갖출 수 있을 것이다.

농업·농촌분야의 주요 연수과정 중에는 교과목이 연수의 목표와 취지에 집중하는 형태로 구성되지 않고 농업 및 농촌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 소개가 많이 포함된 것이 있다.

현장견학 및 산업시찰에서는 연수과정별 특성이 잘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있다. 현장견학에서 대부분의 연수과정들이 같은 기관들을 방문한다면 개별 연수과정 특유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농업·농촌분야 연수가 갖는 공통의 방문기관이 있다 하더라도 개별 연수과정 특유의 현장견학이 되도록 방문지를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나. 연수기간 검토

'미곡생산기술과정'은 종래 8주간의 과정으로 운영해 오다가 최근 4 주 과정으로 연수기간을 축소하였다. 그러나 미곡생산의 전 체계를 교 육하는 이 과정의 특성상 4주로서는 연수목표 달성과 원활한 연수과정 운영에 무리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의 교과목 중 인접분야와 연관된 과목은 대폭 축소하고 생산기술 과목은 일관된 체계로 유지하 는 체제로 운영할 경우, 이 과정은 6주 과정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판단된다.

'가축인공수정과 수정란 이식기술 과정'은 종래 4주 과정으로 운영했다가 최근 3주 과정으로 변경하였다. 이 과정은 축산 중에서도 전문분야에 속하므로 핵심기술 연수 위주로 운영할 경우, 3주 과정으로도 소정의 연수목표에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원예재배기술 과정'과 '잠업기술 과정'은 현행대로 4주와 5주 과정으로 운영하는 것이 연수목표 달성에 부합하는 것이라 판단된다. 특히 '잠업기술 과정'은 누에 생육과정과 잠견 및 잠사 생산과정을 관찰하는 것이 필수적이므로 5주간의 연수기간은 최소한의 조건에 해당하다.

'관개개발과 농업용수관리 과정', '농업금융 및 협동조합 과정', '농업 발전정책 과정', '새마을운동 과정'등 나머지 4개 과정은 농축산물의 생장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기술 및 정책 분야이기 때문에 2주간의 연 수기간이 적정한 기간으로 판단된다.

연수과정	현행 연수기간	개선안
미곡생산기술	8주 → 4주	6주
원예재배기술	4주	4주
가축인공수정과 수정란 이식 기술	4주 → 3주	3주
- 잠업기술	5주	5주
관개개발 및 농업용수 관리	2주	2주
농업금융 및 협동조합	2주	2주
농업발전정책	2주	2주
새마을운동	2주	2주

표 6-34. 주요 연수과정의 적정 연수기간

3.4.3. 교과내용 개선안

이 연구에서 검토한 8개의 주요 연수과정의 교과목에 대한 정밀분석에서 연수목표에 비추어 교과목 구성이 체계적이지 않다고 판단되는 연수과정은 '관개개발과 농업용수관리 과정', '농업금융과 협동조합 과정', '농업발전정책 과정', '새마을운동 과정'이다. 이들 과정에 대한 개괄적인 교과목 개선안을 제시하기로 한다.

(1) 관개개발과 농업용수관리 과정 (교과목 개선안)

연수목표	개도국의 연수생들이 관개개발과 농업용수 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술을 전달하여 그들의 지식과 기술을 향상시키고 이를 자국 의 농업발전에 활용할 수 있도록 기여
연수기간	2주
교과목 (전공분야)	- 관개시설의 이용 및 유지 보수 - 관개시설 및 농업용수의 유지관리 조직 - 관개 및 농업용수 시설의 다용도 이용 - 관개개발의 첨단기술 - 벼재배 물관리 기술

(2) 농업금융과 협동조합 과정 (개선안)

연수목표	농촌지역개발과 농업경영에 필요한 자금을 조성하고 공급하는 농업금융에 대한 실용적 지식을 제공하고, 한국에서 농업금융시스템을 이용한 지역개발 프로젝트 수행전략과 우리의 협동조합운동 경험을 개발도 상국의 농촌개발 프로그램 작성에 활용하게 하여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에 기여
연수기간	2주
교과목 (전공분야)	- 한국농업의 이해 - 한국농협의 이해 - 농업발전에서 농협의 역할 - 농협의 신용사업 - 농협의 경제사업 - 농촌개발에서의 협동조합의 역할 - 한국의 농업금융정책 - 농가의 자금운용과 재무구조

(3) 농업발전정책 (개선안)

연수목표	한국의 농업발전과 농촌개발에 대한 경험을 바탕으로 개발도상국의 농 업발전정책 수립과 농업정책개혁에 실질적 도움을 주며 이들 국가와 유 대강화에 기여
연수기간	2주
교과목 (전공분야)	- 한국농업의 이해 - 한국농업정책의 전개과정 - 새마을운동의 이해 - 농업발전과 협동조합의 역할 - 생산기반 정비정책 - 농산물 유통정책 - 농업금융정책 - 농업인력 육성정책 - 농업기계화 정책

(4) 새마을운동 과정 (개선안)

구분	개선안
연수 목표	새마을운동의 기본개념과 이론체계, 계획 수립과 실천 방법을 소개함 으로써 새마을운동의 개도국 이전이 가능하도록 지원
연수 기간	2주
교과목	- 새마을운동의 배경과 추진 성과 - 새마을운동의 이론적 체계 - 마을지역사회의 구조와 사회조직 - 리더 육성과 리더십 구조 - 지역사회 조사방법론 - 지역발전 저해요인과 발전 잠재력 분석 - 개발 수요의 mapping 기법 - 개발 목표 설정과 부문별 계획 방법 - 새마을운동의 실천방법 - 새마을운동의 사후관리 방법
요점	새마을운동의 배경과 성과, 이론체계, 새마을운동 추진체제, 계획 수립 방법, 실천 방법 등을 중심으로 교과목을 편성하여 개발도상국의 새마 을운동 도입과 추진 방법론 제시

나머지 4과정, 즉, '미곡생산기술 과정', '원예재배기술 과정', '잠업기술 과정', '가축인공수정과 수정란 이식기술 과정'은 전형적인 기술연수 과정으로 개별 과정 자체가 비교적 완결된 체제를 갖추고 있고연수목표에도 충실한 것으로 분석되어 개선안을 별도로 제시하지 않았다.

다만 이들 과정과는 별도의 보다 전문적인 고급반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미곡생산기술과정'에서 고급반은 일종의 사후관리과 정으로 정규반 수료자를 대상으로 미곡생산과 관련된 유전공학, 병충해 방제, 수확후 관리 등에 대한 보다 전문적인 내용을 실험 중심으로 연수하는 과정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연수생 초청 사업의 개선 방향

4.1. 연수과정의 다양화 및 구체화

현재 연수 내용이 너무 광범위하여 연수의 효과를 극대화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연수과정을 보다 다양하게 하고 연수목표를 보다 구체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즉, 현재의 연수사업을 수원국의 일반적인 인적 자원 개발과정(Human Resource Development, HRD), 특정 기술이전을 전제로 하는 선진기술과정(Advanced Technical Cooperation, ATC), 특정 정책 개발을 지원하는 과정(Policy Oriented Seminar, POS)으로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연수목표를 보다 구체화하기 위하여 개별 연수과정을 정규반과 고급 반 등으로 분화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정규반은 연수기술에 대한 종합 적인 내용을 체계적으로 교육하는 세부과정이고, 고급반은 정규반 수 료자 및 이에 준하는 자격을 갖춘 자에 대해 보다 전문적인 지식 및 기술을 전수하는 과정이다. 일종의 사후관리과정이라 할 수 있는 이러 한 고급반 창설은 개발도상국에 대한 기술이전과 한국과의 상호협력 가능성을 높여 연수사업이 지향하는 목표에 다가갈 수 있게 할 뿐 아 니라 해당 과정에 대한 연수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게 할 것이다.

4.2. 개별연수(OJT) 실시

연수사업을 통한 기술전수의 완전한 효과는 팀연수(team training)가 아니라 연수생 개개인에 대한 개별연수(on the job training)를 통해 얻을 수 있다. 개별연수는 연수과정의 정규반을 수료한 자에 대해 개개인의 특성과 전문분야에 따라 실험실에서 직접 기술을 연수받을 수 있게 하는 것으로서 연수과정의 고급반에 요구되는 연수방법이다.

팀연수에 비해 연수기간이 길고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단점이 있지만, 연수내용을 제대로 전달하는 데 가장 적절한 방법이다. 연수효과를 양적인 연수물량이 아니라 전수된 기술의 크기로 나타낼 경우, 개별연수에 의한 연수효과가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

4.3. 수요자 중심의 국별 연수계획 도입

수원국의 경제발전과 기술수준에 상응한 연수가 이루어지도록 수요자 중심의 국별 연수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우리나라도 체계적인 ODA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독일, 일본과 같은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수원국들에 대한 국별 개발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으며 연수사업도 이러한 국별 개발계획의 틀 내에서 계획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수원국에 대한 국별 연수계획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한국국제협력단의 현지사무소의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전문가를 육성하는 정책을 동시에 추진해야 할 것이다.

4.4. 연수사업과 프로젝트 사업의 연계

연수사업의 효과는 프로젝트 사업과 연계될 때 시너지 효과가 발생하므로 두 사업을 연계하는 정책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수원국의 국별 개발계획이 수립되는 단계에 이르면 연수사업과 프로젝트 사업이 자연스럽게 상호 연계되겠지만, 그 이전 단계에도 국별 연수를 강화하고국별 연수를 프로젝트 사업과 연계하는 작업은 충분히 가능하므로 이러한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도록 한다.

4.5. 연수 교과목 평가와 재구성

기존의 연수 교과목들이 연수목표 및 취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그 결과에 따라 연수교과목을 재구성하도록한다.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교과목을 평가하고, 문제가 있는 연수과정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연수과정 폐쇄, 연수기관 변경, 교과목 재구성 등의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기술관련 연수과정에서는 강의보다 실험과 실습 위주의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교과목을 조정하여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6. 국별 사례발표 방식 개선

국별 사례발표는 연수생들이 상호 학습할 수 있는 제도로 매우 유용한 학습형태이지만 협력단의 연수과정에서는 그만큼 중요하게 다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국별 사례발표에 대해서는 연수생들이 만족하지 못하고 있고, 특히 발표시간이 짧다고 평가하고 있다. 국별 사례발표가 불만족스러운 것 은 한편으로 연수생 측에서 사전에 충분한 준비를 하지 못해 토론할 만큼 구체적이지 못하기 때문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연수기관에서 국 별 사례발표를 심도 있게 다루지 않고 형식적으로 처리해 버리기 때문 이기도 하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먼저 협력단의 연수사업부에서 국별 사례발표문을 연수 실시 1개월 전에 받아 그 내용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수정안을 작성하도록 한다. 그리고 연수기관에 대해서는 국별 사례발표를 강의와 같은 비중을 두어 실시하도록 해야 한다.

4.7. 연수생의 사후관리 강화

현재 협력단 연수 수료자 중 약 절반 정도가 협력단의 소식지를 받지 못하고 연수생 동창회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므로 연수생들에 대한 사후관리가 약하다 할 수 있다. 사후관리가 잘 되지 않는 이유로는 연수생들이 자신의 주소지가 변경되었을 때 이를 협력단에 제대로 통보 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현지사무소가 사후관리 업무를 강화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예산과 인력을 지원하도록 한다.

4.8. 연수전문기관 설립

현재 농업·농촌분야 연수를 담당하고 있는 연수기관들은 협력단의 연수생 초청 사업을 위해 전문화된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다. 대부분 국가관련 기관 내지 공공기관들로 국가업무 협조 차원에서 연수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연수기관의 전문화를 위해서는 협력단이 독자적인 연수기관을 운영 하거나, 연수사업을 프로젝트화하여 연수사업을 전문적으로 위탁할 기 구가 형성되도록 해야 한다.

협력단의 독자적인 연수기관 운영은 현재 연수교육의 일부를 담당하고 있는 협력단의 국제협력연수센터(ICTC)를 확대 개편하는 형태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시기적으로 독자의 연수전문기관을 설립할 여건이 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연수사업을 프로젝트화하여 연수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구가 형성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프로젝트 형태로 연수사업을 수행할 경우, 연수기관에 수익모델이 될 정도의 조건이 주어져야 하는 반면, 연수기 관 선정은 연수역량에 대한 충분한 검토 후 선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한다.

제 **7** 장

농업분야 협력사업의 발전방향

1. 농업분야 협력사업의 기본 구상

1.1. 기본 구상의 전제

대부분의 개발도상국이 농업 국가이고 이들 국가의 인구 대부분이 농촌 지역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농업 부문은 개발도상국가들이 당면한 문제, 즉 빈곤 해소와 기아로부터의 해방,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기초 수요를 공급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분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력단 사업에서 농업분야 사업은 미약하고 최근에는 그 비중마저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이와 같은 추세에 대한 해석은 다음과 같은 두 측면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첫째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로서 개발도상국에 대한 공적 원조 에 대한 우리나라 정부의 기본 철학과 정책 방향이 정립되지 않은 채 단기적으로 개발도상국의 단편적 수요에 맞추어 협력사업을 추진하거 나, 단기간에 성과를 거둘 수 있는 분야에 협력사업을 치중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해석이다. 두 번째로 수원국이 공적 원조를 통하여 농업 부문에 대한 투자를 증가시켜 식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농촌 지역의 실업률저감과 소득 증대, 삶의 질 개선에 역점을 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기간에 가시적 인 성과를 가져올 수 있는 분야에 대한 원조 수요가 집중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개발도상국에 대한 개발수요 조사에서 농업분야 협 력사업에 대한 수요가 6.0% 안팎으로 낮게 조사되고 있다.

따라서 공적 개발원조에 대한 국가의 기본 철학이 정립되고 이 바탕 위에서 공적 개발원조의 기본방향을 정립해야 하며 이에 따라 분야별 공적 개발원조의 방향이 수립되는 것이 중요하다. 이와 같은 방향에서 협력사업의 기본방향이 설정되면 식량 부족 문제, 빈곤 완화 문제, 인간의 존엄성 유지에 필요한 기초수요 공급 문제, 삶의 질 개선 문제 등의 해결을 위한 지원 쪽으로 협력사업의 방향이 정해질 수 있기 때문에 농업 부문에 대한 협력은 보다 중요하게 다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도 OECD/DAC 회원국의 원조 방향과 같이 사회하부구조 부문의 원조를 증가시키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농업 부문의 협력은 점차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사회하부구조 부문에 대한 원조를 살펴보면 공공행정, 보건위생, 교육, 사회조직, 환경과 자원의 지속가능한 개발, 사회간접자본 지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러한 부분은 개발도상국에서 대부분 농업과 농촌 부문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사항이기에 OECD/DAC의 협력 방향에 맞추어 협력사업을 추진해도 농업과 농촌개발 분야에 대한 지원이 축소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개발협력사업이동남아시아에 집중되어 있고 동남아시아 수원국들이 농업개발을 중시하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농업분야의 협력사업 비중은 일본과 같이 10%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공적 개발원조의 철학과 정책의 기본방향이 정립되지 않

은 상태에서 농업분야 개발원조의 기본방향을 논의하는 것이 대단히 어려운 일이지만, 이 연구에서는 OECD/DAC 등 국제기구에서 설정하고 있는 개발원조의 기본 이념과 철학, 주요 국가의 공적 원조의 방향을 참고하여 우리나라의 농업분야 공적 개발원조의 기본방향과 추진 방안 을 검토하고자 한다.

1.2. 농업분야 협력사업의 기본방향

우리나라의 농업분야 협력사업의 기본방향도 OECD/DAC의 가이드라 인을 충족시킬 수 있는 수준에서 설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우리 나라의 농업분야 협력사업의 기본방향은 인도주의에 바탕을 둔 개발도 상국의 빈곤 타파와 인간의 존엄성 유지에 필요한 기초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기본 목표를 두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분야를 우선 지원하되 장기적으로는 지속가능한 개발에 중점을 두고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보다 구체적으로 우리나라 농업분야 협력사업의 기본방향은 다음과 같이 설정될 수 있다.

- (1) 국민의 기초 식량 확보가 가능하도록 식량생산 기반 구축과 생산 활동에 필요한 기술이전, 인력육성, 제도개선 지원
- (2) 인간다운 삶에 필요한 기초수요(basic Needs)를 공급할 수 있도록 지원
 - 소득 창출 활동 관련 기술 지원
 - 기초교육(primary education) 공급 지원
 - 깨끗하고 건전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활동 지원
 - 보건, 위생환경 개선을 위한 활동 지원
 - 균형 있는 영양 공급이 가능하도록 하는 활동 지원

- (3) 지역개발을 위한 주민의 자주적 의사결정과 자치능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원
- (4) 건강한 농촌 지역사회건설을 위한 지역개발운동 및 자조활동 지원
- (5) 정부-민간부문의 파트너십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지원
- (6) 리더십 육성 지원
- (7) 농업·농촌개발에 필요한 R&D 지원
- (8) 농업 부문의 생산, 유통, 가공, R&D, 환경과 자원관리, 지역사회 관리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능력개발을 위한 공공행정과 교육 활동 지원

1.3. 추진 전략

협력단이 설립된 이후, 개발도상국에 대한 협력사업 추진의 근간은 지난 30년간 한국이 달성한 고도 경제성장의 경험을 개발도상국에 전수하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왔었으며 이러한 협력사업의 기본방향은 농업분야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제공한 협력사업은 수원국의 입장에서 제공된다 기보다는 원조 공여국인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우리의 경험을 전수하는 일방적인 원조의 성격을 지녀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프로젝트 사업의 평가와 연수생 초청 사업에서의 평가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우리나라가 제공하는 원조사업은 우리의 입장에서 추진되기보다는 수원국의 입장을 고려하여 수원국의 여건에 적합하고 적용 가능한 범위 안에서 추진되어야 하며 제공된 원조가 개발도상국 의 빈곤 해소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고려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볼 때, 농업분야 협력사업은 다음과 같은 추진 전략을 고려해야 한다.

1.3.1. 국별 계획에 의한 협력사업 추진

협력사업 중 농업분야 프로젝트 사업 선정과 전문가 파견 과정을 살펴보면 이와 같은 사업들이 진정 수원국의 빈곤을 해소해 주고 기초수요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중요한 사업이며 수원국의 농업과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지, 그리고 국가 발전을 위한 여러 과제 중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된 과제인지에 대한 검토가 충분하지 못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프로젝트 선발이 단편적으로 이루어지기보다는 국별로 5년 정도의 중장기 계획 하에 추진되어야 할 과제를 종합하고 우선순위에 따라서 프로젝트가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와 관련하여 전문가 파견 사업, 연수생 초청 사업이 연계되어 추진되는 국별 협력사업 추진체제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3.2. 파트너십을 통한 협력사업 추진

협력사업은 공여국의 입장에서 일방적으로 제공되기보다는 수원국의 입장에서 필요한 사업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어 제공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농업분야 원조사업은 협력단의 담당자와 우리나라 농업분야 전 문가, 수원국의 협력사업 담당기관 및 농업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국 별 협력사업 추진 협의회」를 구성하고 이 협의회에 수원국의 공무원과 분야별 전문가들이 참여토록 하고 이들과의 파트너십을 형성하여 협력 사업을 추진하는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개발도상국의 개발사업, 특히 농업분야 협력사업을 현지 사정에 어두운 우리나라 전문가의 입장에서 추진하는 것은 위험한 일일 수 있다. 따라서 프로젝트와 관련된 수원국의 파트너를 선정하여 이들이 프로젝트 선정 과정과 실시계획 수립 및 실시 과정에 참여하여 이들과 한국전문가들이 중심이 되어 프로젝트가 선정되고, 계획이 수립되고 시행되도록 하는 파트너십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3.3. 프로젝트 관리 능력을 지원하는 협력사업 추진

협력사업은 일회성으로 끝나거나 시혜적인 성격을 지니기보다는 수 원국의 참여를 통해 수원국의 공무원과 지역 주민의 개발사업 능력을 제고(capacity building)할 수 있는 방향에서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협력사업 추진 과정에서 수원국의 관계자가 사업의 타당성 분석이나 계획수립, 사업 실시 및 평가 단계에 참여하는 것은 수원국 공무원이나 관계자의 프로젝트 사업 추진을 위한 계획 수립, 관리 능력을 함양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만약 이러한 과정에 수원국 관계자가 충분히 참여하지 못할 경우 사업 추진 과정에서 시행착오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며 프로젝트의 사후 관리에 문제가 발생하여 프로젝트 사업의 실시 효과를 반감시키게 된다. 이는 프로젝트의 주인의식(project ownership) 제고를위해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1.3.4. 선택과 집중

현재 협력단은 아시아지역, 아프리카지역, 동유럽지역, 남미지역에서 127개 국가를 대상으로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같은 현실은 유럽의 주요 국가들과 미국이나 일본이 집중적인 지원 국가군을 선택해서 집중 지원하고 그 외 지역에 대해서는 차별적인 지원을 하는 것과 대조적이다.

한국과 같이 협력사업의 지원금액이 적은 경우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국가군을 지정하여 이들 국가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고 그 외 지역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지원을 하는 차별화 전략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필요성에 따라 협력단은 2005년부터 수원국을 특별 협력국 20개국, 우선 협력국 41개국, 일반 협력국 66국으로 구분하여 차별적으로 협력사업을 추진하는 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그러나 농업분야에서는 더욱 선택과 집중이라는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업 분야에 대해서도 개발도상국의 빈곤 탈피와 경제발전에 유익한

사업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그 외의 분야에 대해서는 최소 한의 조건으로 지원하는 선택과 집중 전략이 필요하다.

2. 국별 계획에 의한 협력방안

2.1. 국별 계획의 필요성

국별 원조계획은 이미 독일 등 유럽의 여러 나라와 미국과 일본 등이 채택하고 있는 원조방식으로 수원국의 참여 하에 수원국이 당면한 농업 분야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을 우선순위에 따라서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환영받고 있다.

한국이 현재와 같이 단기적이고 단편적인 사업 중심으로 원조사업을 지속할 경우 수원국으로부터 관심을 얻지 못하거나 선진국들이 미처 손쓰지 못하는 작은 틈새를 담당하는 역할을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다.

한국이 가까운 장래에 OECD/DAC 회원국으로 가입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따라서 원조 금액도 대폭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에 농업분야의 협력사업도 수원국이 필요로 하는 분야에 대해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종합적이고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전략이 요구된다.

2.2. 추진 방법

2.2.1. 대상 국가

협력단은 무상 원조대상 국가 127개국을 다음과 같이 특별 협력국,

주요 협력국, 일반 협력국으로 구분하여 지원하는 계획을 수립하여 추 진 중에 있다.

(1) 특별 협력국

- UN이 지정한 개발도상국가 중에서 소득이 세계은행이 지정한 하위 중간소득 국가(Low Middle Income Countries: LMICs)로서 총 GNI가 3,035달러 이하인 국가
- 총 GDP가 30억불 이상이고, 경제 외교적 관계, 자원보유 현황, 동포거주, 국제적 영향력 관련 중요 국가
- 지역별 거점 국가
- 이에 해당하는 국가는 라오스, 네팔, 미얀마, 방글라데시, 에티오피아, 탄자니아, 몽골,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스리랑카, 타이, 인도네시아, 중국, 페루, 필리핀, 파라과이, 우크라이나, 이집트, 이라크 등 20개국임.
- 지원 방침
 - 연간 200만불 이상 지원
 - 인력사업과 개발사업을 조화롭게 지원
 - 원칙적으로 개발조사/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발굴, 지원
 - 수원국과의 정책/실무협의회 정례적 개최 적극 추진

(2) 주요 협력국

- UN이 지정한 개발도상국가 중에서 소득이 세계은행이 지정한 하위 중간소득 국가(Low Middle Income Countries: LMICs)로서 총 GNI가 3,035달러 이하인 국가
- 양국 교역규모, 자원보유, 국제적 영향력 등을 감안 적정수준의 협력관계 유지가 필요한 국가
- 이에 해당하는 국가는 동티모르, 아프가니스탄, 몰디브, 모리타

니아, 세네갈, 모잠비크, 소말리아, 우간다, 콩고민주공화국, 파키스탄, 파푸아뉴기니, 니카라과, 키르기즈스탄, 나이지리아, 케냐, 카메룬, 가나, 코트디브와르, 피지, 과테말라, 엘살바돌, 볼리비아, 콜롬비아, 에쿠아돌, 도미니카공화국, 온두라스, 카자흐스탄, 세르비아, 러시아, 루마니아, 불가리아, 이란, 요르단, 시리아, 모로코, 튀니지, 파나마, 베네수엘라, 벨리즈, 코스타리카, 우루과이 등 41개국임.

○ 지원 방침

- 연간 10만~200만불 규모 지원
- 인력사업과 개발사업을 지원
- 인력협력을 중점 지원
- 필요시 중소규모의 물자지원, 개발조사/프로젝트 지원

(3) 일반 지원 대상국

- (1)과 (2)에 해당하지 않는 국가 중 DAC 기준 수원국
- 정치·경제·외교적 관계 유지를 위해 최소한의 협력이 필요한 국가로서 66개 국가가 이에 해당함.
- 지원 방침
 - 연간 10만불 이하 범위에서 지원
 - 인력협력 위주로 지원하되, 필요시 소규모 물자 또는 프로젝 트 지원

소득구분	특별 협력국	주요 협력국	일반 협력국
I그룹 (41국)	라오스, 네팔, 미 얀마, 캄보디아 방글라데시, 에 티오피아, 탄자 니아	모리타니아, 세네갈, 모잠비크, 소말리아. 우간다, 콩고민주공화	부탄, 키리바시, 사모아, 적도기네, 아이티, 수 단, 예멘, 베넹, 부르키나파소, 부룬디, 중앙아프 리카, 챠드, 지부티, 에리트리아, 감비아, 기네비 소,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말리, 르완다, 니제 르, 시에라레온, 토고, 잠비아, 앙골라
II그룹 (16국)	몽골,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파키스탄, 파푸아뉴기니, 니카라과, 키르기즈스탄, 나이지리아, 케냐, 카메룬, 가나, 코트디브와르	타지키스탄, 몰도바, 짐바브웨, 콩고
III그룹 (44국)	스리랑카,태국,인 도네시아, 중국, 페루, 필리핀, 파 라과이, 우크라 이나, 이집트,이 라크	스탄, 세르비아, 러시아, 루마니	통가, 브라질, 쿠바, 가이아나, 자메이카, 수리 남, 팔레스타인, 벨라루스, 아르메니아, 아제르 바이잔, 그루지아, 알바니아, 보스니아, 알제리, 스와질랜드, 남아공
IV그룹 (25국)		파나마, 베네수엘라, 벨리즈, 코스타리카, 우루과이	말레이시아, 팔라우, 칠레, 안타구아바부다, 도미니카연방, 그레나다, 세인트루시아, 멕시코, 트리니다드토바고, 세인트키츠네비스, 세인트 빈센트 그레나딘, 바베이도스,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슬로바키아 레바논, 사우디아라비아, 오만, 리비아, 가봉
V그룹 (1개국)			브루나이
총127국	20국	41국	66국

표 7-1. 협력단의 무상원조 지원 대상 국가 분류

이와 같은 협력단의 무상원조 지원 방침을 고려할 때, 농업분야에서도 무상 원조사업의 국별 계획은 모든 수원국을 대상으로 할 것이 아니라 특별지원 대상국을 우선 대상으로 하여 협력단이 설정한 요건을 갖춘 국 가 중에서 다음과 같은 조건을 참작할 필요가 있다.

(1) 한국의 농업개발 경험을 필요로 하는 국가 중에서 빠르게 지원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국가

주: 지원대상국 범위는 OECD/DAC의 수원국 리스트15

¹⁵ I 그룹은 UN 지정 최빈국, II~V그룹은 세계은행(WB)의 1인당 GNI (2003년 기준) 기준으로 분류하되, II그룹은 US 765 이하인 국가, III그룹은 US\$ 766 ~ US\$ 3,035, VI그룹은 US\$ 3036 ~9,385에 해당하는 국가, V그룹은 US\$ 9,386 이상인 국가이다.

- (2) 우리나라의 전문가 집단이 지원 가능한 분야나 개발 가능한 자원 을 많이 보유한 국가
- (3) 작은 지원으로도 개발 잠재력이 큰 국가
- (4) 장기적으로 상호 호혜적 입장에서 협력의 필요성이 있는 국가

그러나 특별지원 대상국 중 태국이나 중국은 개발도상국 중 농업분 야에서 앞서 가는 나라일뿐만 아니라 향후 국제 시장에서 큰 영향력과 발전 잠재력을 지니고 있는 만큼 이와 같은 국가는 농업분야의 특별지원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가. 동남아시아 지역

동남아시아 지역은 기존에 우리나라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해 온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등 5국을 특별지원 대 상국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그 외 국가는 주요 협력국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베트남은 협력사업 규모 면에서 보면 1위에 해당하는 국가이며 인도 차이나의 중심국가이고 농업국가에서 공업국가로 빠르게 전환하고 있 는 국가 중의 하나로서 한국의 개발 경험이 가장 필요한 국가이다. 따 라서 한국의 농업발전 전략, 농촌공업화전략, 농산물 가공 및 유통, 새 마을운동과 농촌개발, 열대과수와 채소, 열대난 등 화훼 개발 등의 분 야를 중점 지원한다면 상호 호혜적인 입장에서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인도네시아는 인구와 국토의 측면에서 보면 대국이지만 낮은 생산기술, 취약한 물적 사회적 기반, 국토의 분산과 다인종 등으로 사회통합이 어렵 고 빈곤이 만연한 국가이다. 그러나 풍부한 자원을 바탕으로 한국의 경험, 특히 산업화 과정에서의 농업구조 조정과 생산기반 정비, 농업기술 및 보 급 기술, 농산물 가공 및 유통, 산림경영과 보존 및 산림자원 개발, 새마을 운동과 농촌개발 등을 필요로 하는 국가이다. 따라서 이러한 분야에 대해 집중 지원한다면 인도네시아의 농촌발전과 농촌 빈곤해소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는 1인당 1일 소득이 미화 1달러 미만인 절대빈곤층 비율이 25~35%에 달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많은 해외 원조를 필요로 하고 있다. 이들 국가는 한국이 경쟁력을 갖고 있는 쌀의 생산과 R&D 지원, 농업개발을 위한 기술지원과 생산기반 정비, 농업제도 정비, 새마을운동과 농촌개발 등을 하나로 묶는 종합개발 방식으로 협력사업을 추진한다면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는 야생 벼 품종이 많이 분포하고 있는 국가들이기 때문에 내냉성 벼, 내도열병성 벼, 내충성 벼, 내염해성 벼 등 벼의 품종 육종 관련 R&D를 묶어서 지원한다면 협력사업을 통하여 우리나라의 농업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나. 서남아시아 지역

서남아시아에서는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네팔 등 3개국을 농업분야 특별지원 대상국으로 지정하여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스리랑카는 인적 구조와 사회구조가 비교적 건전하여 발전의 토대는 마련되어 있지만 자원의 부족과 낙후된 기술로 인해 농업발전 속도가느린 국가이다. 따라서 스리랑카의 주요 산업인 쌀과 차, 그리고 성장가능성이 있는 화훼 분야, 새마을운동 방식을 적용한 농촌개발 전략, 농업행정과 제도개선 등을 중점 지원한다면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방글라데시와 네팔은 1인당 1일 소득이 미화 1달러 미만인 비율이 35~40%에 달하는 최빈국으로써 많은 원조를 필요로 하는 국가들이다.

한국이 경쟁력을 지니고 있는 생산기반 조성, 쌀과 차 등 특용작물, 새 마을운동과 농촌개발, 농업행정과 농업개발 전략 등을 중점 지원한다 면 빠르지는 않지만 효과적인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네팔은 히말라야를 중심으로 열대, 온대, 한대에 걸친 많은 식물자원을 보유한 국가이지만 이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진행되지 않은 채 외부 세계로부터 화훼자원과 약용물질 자원을 탈취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네팔의 산림자원, 약초자원, 화훼자원을 체계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R&D 체계를 구축하여 지원한다면 장기적인 관점에서호혜적인 협력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 중동 지역

중동 지역에서는 정치적 상황으로 인해 현재까지 밀접한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를 제외하면 특별한 협력관계를 유지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지역 국가들을 주요 협력국으로 분류하여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라. 중앙아시아 지역

중앙아시아 국가 중 몽골은 역사적으로나 문화적으로 한국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 온 국가로서 몽골의 농업과 한국의 농업간에 협력 가능 성도 큰 편이다. 그러나 1인당 1일 소득이 미화 1달러 미만인 비율이 30%에 달하는 빈곤 국가로서 많은 외국의 원조가 필요한 국가이다.

몽골은 체제 전환 이후 빠르게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따르면서 한국의 개발 모델을 배우기를 희망하는 국가 중의 하나이다. 따라서 몽골의 농업현대화, 즉, 목축업, 채소재배, 화훼재배, 농산물 가공기술, 취락구조개선, 농촌개발 전략 등을 중점 지원한다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몽골의 개발 사례는 우즈베키스탄 등 중앙아시아의 체제 전환 국가들에게 파급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마. 남아메리카 지역

남미 국가 중 칠레는 많은 부분에서 한국의 농업과 보완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국가 중의 하나이면서 한국 농업의 남미 진출 보루가 될수 있는 국가다. 칠레의 농업은 포도 등 과일과 가공품, 축산물, 수산물등 다양한 분야에서 세계시장을 상대로 수출을 지향하고 있다. 따라서남미 농업을 연구하고 남미 농업국가의 세계 진출 전략을 연구함과 동시에 남미 농업 국가를 지원할 수 있는 중심 국가로서 칠레를 중점 지원국가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

바. 기타 지역

아프리카, 동부 유럽 지역에 대한 원조도 절실한 편이지만 한국의 협력사업 규모로 이 지역에 대해 중점 지원하기는 어려울 것이므로 당분간은 주요 협력국으로 분류하여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아프리카의 빈곤 문제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따라서 한국이 OECD/DAC 회원국이 되면 아프리카의 중심성이 있는 국가 중에서 개발 효과가 크고 아프리카 농업개발 사 례를 인근 국가에 전파하는 효과가 있는 국가를 지정하여 아프리카 의 빈곤 완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중점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 요가 있다.

이러한 국가로 에티오피아를 들 수 있다. 에티오피아는 오랜 역사를 지닌 문명국가이지만 부족 간의 전쟁으로 산업시설이 피폐해지고 식량 문제가 심각한 최빈국 중의 하나이다. 따라서 농업용수개발, 관개기술, 쌀, 카사바, 목축업 등을 중심으로 하는 농업생산기술과 기술 보급 체 계, 취락개선과 농촌개발, 농촌교육과 의료체계 등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표 7-2. 주요 지역별 농업분야 특별 대상국 농업현안과 중점 지원 방향

지역	대상국	현안 문제점	중점지원 방향
동남 아시아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인도네시아	○ 식량 부족 ○ 농업생산기반 취약 ○ 과다한 농업인구와 농촌의 낙후	○ R&D와 HRD 지원 ○ 농업기술과 농산가공, 유통 및 농업생산기반정 비 기술 ○ 농업용수개발, 수리시설 개발 기술 ○ 새마을운동을 통한 자조적 농촌종합개발 지원
서남 아시아	스리랑카, 네팔, 방글라데시	○ 식량 부족 ○ 농업용수의 부족 ○ 농업생산기반 취약 ○ 과다한 농업인구와 농촌의 낙후	 ○ R&D와 HRD 지원 ○ 농업생산기반정비 기술 지원 ○ 농업용수개발, 수리시설 개발 기술 지원 ○ 농촌종합개발 지원
중앙 아시아	몽골	○ 식량 절대 부족 ○ 농업용수 부족 ○ 생산기반 미비	○ R&D와 HRD 지원 ○ 채소, 식량작물, 축산기술 및 가공유통 기술 ○ 농업기술 보급 체계 지원
중남미	칠레	○ 유통, 가공 등 농업 기술 미흡	○ 중남미 농업개발 R&D 지원 ○ 유통 가공 기술 지원
아프리카	에티오피아 (검토 대상)	○ 식량적대부족 ○ 농업용수 부족 ○ 취락기반 파괴	○ 식량증산 기술 ○ 용수개발 및 생산기반 정비 ○ 취락기반 조성 ○ 농촌사회하부구조 조성

2.2.2. 계획 수립의 주체

국별 원조 계획의 주체는 원조 공여국과 수원국의 관계 공무원과 관련 분야의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원조 공여국은 수원국 정부 관계관, 분야별 전문가 집단의 참여 하에 국별 계획 수립단을 구성하고 수원국의 농업 실태 분석과 발전방향, 개발 목표 등을 제시하고 이들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현실적인 공적 원조계획을 수립하도록 한다.

전문가 집단이 수립한 국별 계획은 양국 정부가 검토하고 이를 승인 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이와 같이 수원국 정부 관계자와 전문가 집단이 참여한 국별 원조계획을 공여국과 수원국이 승인한 후 협력 계약을 체 결하면 수원국 스스로 주인의식을 갖는 원조계획이 되기 때문에 사업

의 집행에 필요한 예산과 인력 등의 확보가 용이하고 사업 집행에 따른 성과도 높아질 수 있다.

2.2.3. 계획의 단위

국별 원조계획은 5개년을 한 계획 단위로 하여 5년 동안 수원국의 농업·농촌 분야 원조 수요를 체계적으로 분석 검토한 후 우선순위를 정하고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별 계획은 매 5년마다 협력단측의 전문가와 수원국의 책임 있는 기관 간에 국별 원조계획 추진 협의회를 구성하여 추진하도록 하고 이계획에 따라서 매년 원조 계획에 대한 연례 협의회를 거쳐 연차별 원조계획을 집행하도록 한다.

국별 원조계획은 매년 연례협의회시 당해년도 사업의 적정성 여부와 우선순위를 재검토하여 실정에 맞도록 조정하고 부적합한 사업에 대해 서는 당해년도 사업계획에서 제외하도록 한다.

2.2.4. 농업분야 국별 지원 계획의 수립 절차

가. 국가 농업 실태와 문제점 조사

- (1) 국별 농지, 기후, 농업생산력, 인구 등 농업생산 관련 현황을 파악
 - 토지와 기후, 인력 등 기초 현황
 - 작물별 생산력과 기술 수준 및 발전을 위한 제약점과 가능성
 - 농산물 가공 및 유통 현황
 - 농산물 수출 현황
 - 농촌 사회와 문화에 관한 실태
 - 농촌생활 환경 실태
 - 농촌 교육, 보건, 의료 실태 등

- (2) 파악된 현황을 중심으로 국별 농업이 당면한 문제 발굴
- (3) 대안 제시

나. 국가 계획상의 농업과 농촌 발전 계획 검토

- (1) 중앙정부의 농업분야 발전 계획
- (2) 외국 원조기관 및 국제 원조기관의 지원 계획 파악
- (3) 국별 원조 계획과의 연계성 검토

다. 농업분야 발전 계획 수립

- (1) 발전의 목표, 방향, 전략, 수단 강구
- (2) 사업별 개발 계획 수립
- (3) 사업별 지원의 우선순위 결정
- (4) 재정 지원 계획 검토
- (5) 수원국의 재정 부담 능력 검토
- (6) 연도별 원조 금액 도출

라. 정부 승인

- (1) 수원국 정부의 검토와 승인
- (2) 공여국 정부의 검토와 승인

마. 연차별 협의 및 실시

- (1) 공여국과 수원국간에 매년도 사업 실시 계획 협의
 - 공여국의 정부 관계 및 농업분야 전문가와 공여국의 관계 기관 및 농업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국별 공적 원조사업 협의체를 구 성하고 이를 정례화
 - 공적공여에서 차년도 협력사업의 내용을 검토·확인하고 차년도

수원국의 재정계획을 포함하여 연도별 사업계획을 확정

- 연도별 협의에서 5개년 계획에 제시된 사업계획에 대한 조정을 건의할 수 있도록 함.
- (2) 사업 실시
 - 연차별 협의 결과에 따라서 사업 집행
 - 완료된 사업에 대한 평가

3. 농업분야 협력사업의 모델 구상

3.1. 한국형 농업분야 협력모델

3.1.1. 한국형 농업분야 협력 모델의 정의

한국형 농업분야 협력 모델을 정의하기는 매우 어려운 작업이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특성을 지니고 있는 농업과 농촌분야를 국제협력사업에서의 한국형 협력 모델이라고 정의하고자 한다.

- (1) 한국의 경제성장 과정에서 농업과 농촌발전에 기여 했다고 국제사회에서 인정받고 있는 분야
 - (예) 한국의 경제성장 전략, 쌀 증산과 관련된 녹색혁명, 농업발전 전략, 새마을운동과 농촌개발 등
- (2) 국가 간 비교에서 월등하게 비교우위를 지니고 있다고 인정되는 농업기술이나 농업·농촌개발 정책
 - (예) 농촌공업화 전략, 가축인공수정 기술, 농업분야 BT, 수도육종

및 재배 기술 등

- (3) 개발도상국의 빈곤 타파에 현저하게 기여할 수 있고 개발도상국에 이전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농업기술이나 농업·농촌개발 정책을 효율적으로 이전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분야
 - (예) 새마을운동, 용수개발, 수리시설 및 경지정리 등 생산기반 정비 기술, 잠업기술, 농산물 가공 기술

농업분야 협력사업 중 경쟁력 있는 협력사업 유형을 분야별로 다음 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가. 식량작물 분야

- 수도 육종 기술
- 쌀 생산, 가공, 유통기술
- 잡곡류 생산, 가공, 유통 기술
- 감자, 고구마 등 서류 재배기술
- IPM 등 주요 병해충 예방 기술

나. 과채류 및 화훼류 분야

- 온대 및 열대 채소 재배 기술
- 온대 및 열대 과채류 생산 기술
- 온대 및 열대 과수 재배 기술
- 채소 병충해 관리 기술
- 온대 및 열대 과수 병충해 예방 기술
- 난 등 화훼 재배 기술

다. 낙농 분야

- 젖소 번식 및 사양관리 기술
- 젖소 질병 예방 기술
- 우유 가공 기술
- 초지 관리 기술

라. 비육우 분야

- 비육우 번식 및 사양관리 기술
- 비육우 질병 예방 및 치료 기술
- 초지 관리 기술

마. 양돈 분야

- 번식돈 및 비육돈 사양관리 기술
- 돼지 번식 기술
- 돼지 질병 예방 및 치료 기술

바. 양계 분야

- 산란계 및 육계 사양관리 기술
- 부화 및 육추 기술
- 닭 질병 예방 및 치료 기술

사. 잠업 및 버섯 분야

- 잠종 및 육잠 기술
- 제사, 견직, 나염 기술
- 각종 버섯류 재배 기술
- 버섯류 병충해 예방 기술

아. 유전공학

- 인공수정 기술
- 조직배양 기술
- 수정란 착상 기술
- 동식물 유전자 조작 기술
- 종자 은행 운영 관리 기술

자. 식품가공 및 유통 분야

- 수확 후 관리 기술
- 과채류 및 육류의 가공 기술
- 식품 저장 및 유통 기술

차. R&D 지원 분야

- 연구소 시설 지원
- 연구소 운영 관리 지원
- 인력 육성을 위한 인력 교류

카. 농업 정책 분야

- 농업개발 계획 수립
- 협동조합 조직 육성
- 농업기술 보급 및 농촌지도
- 농촌공업화
- 새마을운동
- 농촌 지역 종합개발
- 지역농업개발
- 농업정책 평가

타. 농업 토목 분야

- 소규모 댐 건설
- 수리시설 건설
- 지하수 및 농업용수 개발
- 경지정리
- 농촌도로 및 소규모 교량 건설

파. 수자원 관리

- 수리시설 관리
- 농업용수 관리

3.1.2. 농업분야 한국형 협력 모형

이제까지의 농업분야 협력사업은 수원국의 요청에 의해서 단위 사업 별로 추진되었다. 단위 사업별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높은 전문성이 확보되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단위 사업들 이 완료된 후, 관련된 사업을 연계하여 추진한다면 개발의 상승효과가 기대되어 수원국이 필요로 하는 개발 수요를 더욱 충족시킬 수 있다. 따라서 농업개발 프로젝트 사업은 가급적 연관 효과가 있는 사업들을 하나로 묶어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농업분야 한국형 협력 모델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닌 사업을 의미 하게 된다.

- (1) 동일 분야의 경쟁력 있는 단위사업은 가급적 하나의 패키지로 묶어 종합화
- (2) 연관되는 개발사업은 하나로 묶어 종합개발사업 형식으로 지원 따라서 한국이 비교우위를 지니고 있는 농업기술 및 농업농촌개발 정책 중에서 다음과 같은 분야는 패키지로 프로그램화하여 종합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수원국의 개발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는 방안이 될 수 있고 개발의 상승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가. 벼육종 및 재배기술에 관한 지원

법씨 육종에 대해서는 라오스뿐만 아니라 캄보디아, 베트남, 미얀마 등지에서도 같은 수요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산간 고랭지에 적합한 내 냉성 벼 품종 육종, 병충해에 강한 내병충성 벼 품종 육종에 대한 수요가 크다.

근본적으로 볍씨를 육종, 생산하고자 하는 것은 쌀의 증산을 목표로 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국민의 식량을 안전하게 확보하고 농가의 소득을 올리고자 하는 것이므로 볍씨 육종이나 증산이라는 프로젝트를 하나로 단일화하여 지원하는 것보다는 볍씨의 육종에서부터 증산 재배기술, 기계화 작업기술, 기술보급까지를 하나의 패키지로 묶어 3~5년간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경우는 공여국이 지원해 주는 것뿐만 아니라 수원국에서 이러한 지원을 통하여 달성할 수 있는 목표를 분명히 수립하고 이를 달성할 수 있는 재정계획, 인력지원 및 육성 계획, 제도개선 계획까지를 포함하는 실천계획을 수립해서 공동사업으로 추진해야 한다.

- (1) 볍씨 육종과 증식
 - 내냉성 볍씨 육종
 - 내병충성 벼 육종
 - 내염성 볍씨 육종
 - 우량품종 관리, 증식, 보급 기술 및 제도 확립
- (2) 농업기술 보급 체계 개선
 - R&D와 기술보급사업의 연계 방안

- 기술보급사업의 체계 개선
- 기술보급에 종사하는 인력 육성
- 농민 기술 보급 및 교육 방안
- 농기계 이용 영농기술 보급 지원
- 기술보급 관련 장비 및 물자 지원

(3) 쌀 증산을 위한 종합적 지원

- 볍씨 육종과 증식 및 농업기술 보급 체계 개선, 수확 후 관리기 술 등을 통합하여 대형 프로젝트로 지원
- 이와 같은 프로젝트는 식량이 절대 부족한 국가에 적합한 지원 형태로 장기적인 프로젝트로 적합함.

나. 가축 사양 및 번식기술 지원

한국의 가축 육종과 가축 사양기술, 조사료 생산기술 등은 선진 수준에 이르지는 못하지만 인공수정, 수정란착상, 체세포이용 배아줄기세포 증식 등 BT 분야에서는 세계 정상 수준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한 기술지원 요청이 쇄도하고 있는 실정이다.

개발도상국, 특히 공업국가로 발돋움하려는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은 경제성장에 따른 동물성 단백질 수요 증가에 따라서 축산업 진흥에 관심이 높다. 그러나 이와 같은 축산업 진흥 프로젝트는 부분 사업으로는 그 효과를 달성하기 어렵기 때문에 종축 생산 기술, 가축사양기술, 사료생산기술, 축산물 도축 가공 기술 등을 하나의 패키 지화하여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1) 종돈 생산 및 양돈 진흥사업 지원
 - 종돈 증식 및 보급 사업
 - 돼지 사양기술 지원

- 돼지 사육환경 개선 지원
- 돈 콜레라 등 돼지 질병 방역기술 지원
- 돈육 가공 및 저장, 유통 지원

(2) 종계 생산 및 양계 진흥사업 지원

- 종계 증식 및 부화장 시설 지원 사업
- 양계 사양기술 지원
- 양계장 사육환경 개선 지원
- 뉴캐슬병, 조류독감 등 질병 방역 기술 지원
- 계육 가공 및 저장, 유통 사업 지원

(3) 구제역 방역기술 지원

다. 잠업 기술 지원

한국은 잠업 관련 기술, 즉, 잠종 생산, 육잠, 제사, 견직, 나염 등의 분야에서 고급 기술을 지닌 기술자가 축적되어 있다. 그러나 산업으로 서의 잠업은 한국에서 이미 사양화하고 있기 때문에 잠업 관련 기술이 유휴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유휴화한 잠업 기술을 이용하여 이 를 필요로 하는 잠업 후진국을 지원한다면 수원국의 기술발전은 물론 농가소득 증대를 통한 빈곤 탈출에 기여할 수 있는 모델이 될 수 있다. 현재 중국이 육잠, 잠견, 제사, 견직에서 경쟁력을 갖고 있지만 머지

않아 중국의 잠업은 주변 잠업국인 미얀마, 라오스, 베트남 등과의 경쟁에서 열위에 서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이들 후진 잠업국이 잠견생산, 제사, 견직, 염색기술 등에 대한 지원을 요청해 올 경우, 혹은 국별 지원 계획에서 이와 같은 분야를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한국에서 잠업 관련 시설이 생산되지 않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잠업 관련 기술지원은 물자 지원보다도 전문가 파견 등을 통하여 수원국 의 잠업 관련 산업을 진흥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잠업에 대한 기술지원은 잠업의 생산기반이 이미 형성된 동남아 잠업국, 즉 미얀마, 라오스, 베트남 등에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와같은 생산기반이 없는 기타 지역에 대한 지원은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 (1) 잠종 육종 및 잠종 생산 기술 지원
- (2) 육잠 및 잠견 생산 기술 지원
- (3) 제사 및 견직 기술 지원
- (4) 천연 염색 및 견직물 가공 기술

라. 버섯재배 기술 지원

개발도상국이 경제적 성장을 이룩하면서 식생활과 건강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버섯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한국의 양송이, 느타리, 표고, 영지버섯 등 고급 버섯에 대한 재배 기술을 전수받아 버섯산업을 발전시키고 농가 소득을 증대시키고자 하는수요가 발생하고 있다.

향후 식용버섯은 산업으로 크게 발전할 것으로 기대되며 일부 버섯으로부터 신물질 추출 등을 통한 약제생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많은 나라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이다. 열대지역에 적합한 버섯을 개발지원하는 것은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과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서 뿐만아니라 우리나라의 버섯산업의 발전에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 따라서인도네시아, 베트남, 미얀마, 네팔 등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버섯재배기술, 종균생산기술, 버섯 관련 R&D 지원 등에 관한 종합적인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1) 종균 생산 및 증식 기술
- (2) 버섯 재배기술
- (3) 버섯 병충해 방제 기술
- (4) 버섯 가공 유통 기술
- (5) 버섯 연구용 R&D 시설

마. 새마을운동을 연계한 농촌개발사업 지원

새마을운동은 UN 등 국제기구, 세계은행, 각국의 전문가들에 의해서 개발도상국에 적합한 농촌개발 모델로 널리 알려져 있는 실정이다. 그 러나 이와 같은 한국의 새마을운동 모델을 체계 있게 개발도상국에 전 수하는 교육 프로그램도 없을 뿐만 아니라 새마을운동을 희망하는 국 가에 대해서도 체계적으로 지원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2001~2002년에 협력단이 베트남에 지원한 새마을운동 시범사업은 베트남 정부의 평가와 협력단의 자체 평가에서 성공적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베트남 중앙 정부에 의해서 베트남형 농촌개발 모델로 채택되어 2006년부터 전국적으로 베트남형 새마을운동(Lang Moi)을 시도하고자 하고 있다.

한편 UN ESCAP을 통하여 한국의 새마을운동을 캄보디아, 라오스, 네팔에 확산시키려는 시범사업을 시도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된다면 한국의 새마을운동은 개발도상국에 적합한 농촌개발모델로 보다 확고한 위상을 확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들 사업을 제외하면 협력단이 새마을운동을 지원한 것은 새마을운동 관련 연수, 농업개발을 통한 소득증대, 생활환경, 신용사업 등부분적으로 새마을운동이라고 명명될 수 있는 사업을 지원하는데 그쳤을 뿐, 체계적으로 새마을운동을 지원한 실적이 없다.

베트남에서의 시범사업 결과와 UN ESCAP의 중간 평가 결과(2005년 도 협력단 내부 자료) 등을 종합해 보면 농촌개발 모델로서 새마을운

동은 국제기구가 실천하는 어떠한 모델에 못지않게 경쟁력을 갖춘 농 촌개발 모델이라고 평가된다.

따라서 새마을운동을 모델로 하여 새마을운동을 전국적으로 확산하려는 베트남과, 새마을운동을 오랫동안 도입하고자 노력해 온 인도네시아와 캄보디아, 라오스 등지에 새마을운동을 모델로 하는 농촌종합개발 시범사업을 확대 시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새마을운동은 지역사회의 자치적이고 자주적인 조직을 통하여 협동과 자조정신을 함양하고 주민이 정부의 지원을 받아 소득증대, 환경개선, 생 산기반 정비, 교육, 문화, 보건위생 등 사회개발, 마을회관 건립과 공공시 설 등 농촌 지역사회를 종합적으로 개발하고자 하는 운동이므로 이러한 농촌지역개발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도록 5년 정도의 기간을 갖고 종합적 으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1) 새마을연수원 운영사업 지원
 - 연수원 시설 지원
 - 연수 교과 편성 및 강사 지원
 - 연수원 운영에 관한 지원
- (2) 새마을운동 시범사업 지원
 - 시범지역 선정 및 개발계획 수립 지원
 - 시범사업 실시 지원
- (3) 새마을운동 추진에 관한 정책 자문

바. 농업협동조합운동 지원

한국의 농업협동조합운동은 한국 농업의 발전 과정에서 정책자금의 운용, 생산활동 지원, 농자재의 공동구매 및 농산물 공동 판매 등을 성

공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유럽 지역의 단위사업 협동조합과는 다른 형태로 아시아 개발도상국가에 적합한 모델로 평가받고 있기 때문에 많은 아시아의 개발도상국들이 한국의 협동조합을 벤치마킹하고자 한다. 따라서 한국의 협동조합운동에 대한 이론과 실제 운용에 대한 자문 및 시범적 프로젝트 사업으로의 지원이 필요하다.

- (1) 농업협동조합 전문가의 정책 자문 지원
- (2) 면단위 농업협동조합 운영에 대한 시범사업 지원
- (3) 면 단위 농업협동조합 운영에 대한 자문 지원

사. 열대 채소/과수 연구소 지원

열대지역은 연중 고온다습으로 엽채류 등 온대채소의 생산이 어려워 열대지역의 주민은 식생활에서 비타민 등의 결핍과 영양의 불균형으로 건강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열대 지방에서 온대채소와 과 일 또는 열대의 채소와 과일을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보급 하는 것은 빈곤해소뿐만 아니라 국민 건강증진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러나 국내 연구진 중에는 열대채소와 과일에 대한 전문가를 확보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향후 국제화 시대에 대비하여 국내에서도 열대지역의 채소와 과수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함을 감안할 때, 열대채소와 과수에 대한 연구소를 지원하여 국내 학자의 양성과 공동연구 등을 진행시키도록 지원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

열대과일 및 채소 관련 연구소가 지원되면 국내 학자들을 파견하여 연구 및 현장 지도활동을 하도록 하여 전문가를 육성할 필요가 있다. 또한 온대 및 열대 채소 육종, 종자 생산 및 보급, 열대 및 온대채소 생산기술 지원, 마케팅 지원을 통하여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 하도록 지원사업을 프로그램화하여 3~5년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1) 열대 및 온대 채소 종자 생산 및 보급 체계 지원

- (2) 열대 및 온대 채소 재배 기술 보급 지원
- (3) 열대 및 온대 과수 종묘 생산 기술
- (4) 열대 및 온대 과수 생산기술지도
- (5) 과일 저장, 유통, 가공 기술 지원

아. 수자원개발 및 생산기반 정비 지원사업

개발도상국이 당면한 가장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가 식량 생산에 긴 요한 농업용수를 개발하고 농경지, 도로 등 취약한 생산 기반을 개량하 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수자원개발을 위한 댐을 건설한다면 댐 건설에 그치지 말고 댐의 물이 공급될 수 있는 몽리지역에 경지정리 및 수리시설 건설, 농 업개발 지원, 몽리구역 내의 농촌마을에 대한 경제·사회개발 등을 하 나의 프로그램으로 패키지화하여 5년 정도의 기간을 두고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협력사업의 지원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1) 소규모 댐 건축 및 수자원 개발 사업 지원
- (2) 수리 몽리구역에 대한 관개시설 지원
- (3) 몽리구역에 대한 농업개발사업 지원
- (4) 댐 유역 및 몽리구역에 대한 농촌 지역종합개발사업 지원

자. R&D 지원

이 이외에도 열대 난, 벼, 산림, 약초, 신물질 등 식물자원 연구를 위한 연구소 및 연구시설 지원을 고려할 수 있다.

앞으로의 농업 경쟁력은 우수한 식물 유전자원을 어느 나라가 얼마나 확보할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고 할 만큼 식물 유전자원 확보에 대한 경쟁은 치열하다. 이를 위한 수단으로 선진국들은 유전자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으며 연구소지원, 연구원 파견, 공동 연구 등을 통하여 우수

한 식물 유전자원을 확보하는데 전력을 기울이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현실을 감안할 때, 동남아시아 지역을 비롯하여 아프리카, 남미 지역에 대한 농업분야 지원 중에 농업분야 R&D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장기적으로는 국가전략의 하나로 농업분야에 대한 R&D 지원을 통하여 열대농업, 산림, 식물자원에 대한 한국 학자 육성, 공동 연구 추진, 우량 식물 유전자 확보에 중점을 두는 전략이 필요하다.

연구소	가능지역	후보 국가군
○ 작업연구소 ○ 열대 난 연구소 ○ 병 육종연구소 ○ 온대채소연구소 ○ 열대채소연구소 ○ 열대과일연구소 ○ 온대과일연구소 ○ 건지농업연구소	○ 아시아 ○ 동남아시아 ○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 동남아시아 ○ 동남아시아 ○ 동남아시아 ○ 동남아시아 ○ 동남아시아 ○ 동남아시아 ○ 서남아시아, 서아시아, 아프리카	
○ 약용식물연구소 ○ 식품연구소 ○ 새마을연수원	○ 동남아시아, 서남아시아 ○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 동남아시아	○ 네팔, 라오스,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칠레, 에짚트 등 ○ 베트남, 라오스, 인도네시아 등

표 7-3. R&D 연구시설 및 운영 관리 지원의 예

차. 농산물 가공과 유통사업 지원

중국, 인도,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선진 개발도상국은 식량의 자급 단계에 이르거나 이미 자급 단계를 넘어서고 있어 이들 국가들은 농산 물의 과잉 시대에 대비하고 농촌공업화, 도시민의 가공식품 수요 증대 등 산업사회가 필요로 하는 가공식품에 대한 준비를 서두르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수확 후 기술을 중심으로 농산물의 가공, 유통, 소비까지를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하는 농산물 가공, 유통 프로젝트에 대해 지원하 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지역에 대한 농산물 가공산업 지원

은 거대한 아세안 지역의 식품산업과 국내 농업을 연계하여 상호 호혜

적인 경제협력 체제를 구축하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

제 8 장

요 약

1. 농업분야 협력사업의 위치

1991년 협력단이 설립될 당시 5,740만 달러에 불과하던 우리나라의 공적개발원조는 10여년이 지난 2003년도에는 3억6,591만 달러로 6.4배가 증가하였다. 향후 한국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 OECD 가입과 한국 경제의 국제적 역할 증대, 한국의 경제성장 경험 전수에 대한 국제사회의 요구 증대 등에 의해서 이와 같은 공적개발원조는 가까운 장래에 국민총소득(GNI) 대비 2003년 현재의 0.06%에서 두 배 수준인 0.1%(2009년도 목표)로 증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농림수산 분야의 협력사업은 개발도상국의 빈곤퇴치와 경제개발을 지원할 수 있는 협력 수단으로써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993~2003년 기간 중에 추진된 한국의 전체 공적개발원조 예산 중에서 농업분야 협력사업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5.6%에 불과한 실정이다.

농업분야 공적개발원조사업이 개발도상국의 빈곤퇴치와 경제발전 지원을 위해 대단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우리의 대응은 미흡했으며 계획적이고 체계적이지 못했다고 지적될 수 있다. 따라서 우리

나라의 대 개발도상국 원조사업에 대한 우리 정부의 기본 철학과 명확한 정책 방향이 제시되어야 하며 이러한 원칙에 따라서 공적 원조사업에 대한 종합적이고도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이 연구는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국내외 무상원조사업의 동 향과 국내 협력사업 중 농업분야 협력사업의 추진 동향을 살펴보고 농업 분야 협력사업 중 주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프로젝트 사업, 전문가 파 견 사업, 연수생 초청 사업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개선방향을 모색하였다.

2. 농업분야 협력사업의 개선방향

2.1. 농업분야 협력사업 기본 방향 설정

2.1.1. 농업분야 협력사업 원칙과 기본 방향

농업분야 협력사업의 원칙과 기본 방향도 UN 밀레니엄 개발 목표와 OECD/DAC의 가이드라인을 충족시킬 수 있는 수준에서 인도주의에 바탕을 둔 개발도상국의 빈곤 타파와 인간의 존엄성 유지에 필요한 기초수요를 충족, 지속가능한 개발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에 목표를 두고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협력사업은 실용적 호혜주의나 자국의 이익을 앞세워 그 기본 방향이 정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농업분야 협력사업은 농업생산과 생산구조개선, 농업과 농촌의 빈곤 타파와 기초 수요 공급이 가능하도록 하는 교육과 제도개선, 지역사회 건설 등 사회하부구조 개선에 역점을 두고 추진되어야 한다.

2.1.2. 세부 방향

보다 구체적으로 우리나라 농업분야 협력사업의 세부 방향은 다음과 같이 설정될 수 있다.

- (1) 국민의 기초 식량 확보가 가능하도록 식량생산 기반 구축과 생산 활동에 필요한 기술이전, 인력육성, 제도개선 지원
- (2) 인간다운 삶에 필요한 기초수요(basic needs)를 공급할 수 있도록 지원
 - 소득 창출 활동 관련 기술 지원
 - 기초교육(primary education) 공급 지원
 - 깨끗하고 건전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활동 지원
 - 보건, 위생환경 개선을 위한 활동 지원
 - 균형 있는 영양 공급이 가능하도록 하는 활동 지원
- (3) 지역개발을 위한 주민의 자주적 의사결정과 자치능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원
- (4) 건강한 농촌 지역사회건설을 위한 지역개발운동 및 자조활동 지원
- (5) 정부-민간부문의 파트너십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지원
- (6) 리더십 육성 지원
- (7) 농업·농촌개발에 필요한 R&D 지원
- (8) 농업 부문의 생산, 유통, 가공, R&D, 환경과 자원관리, 지역사회 관리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능력개발을 위한 공공행정과 교육 활동 지원

3. 추진 전략

이제까지 한국의 협력사업은 지난 30년간 한국이 달성한 고도 경제 성장의 경험을 개발도상국에 전수하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왔으며 이러한 협력사업의 기본 방향은 농업분야에서도 예외가 아니었다. 이러한 협력사업은 공급자 위주의 성격을 벗어나기 어렵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제공하는 원조사업은 우리의 입장에서 추진되기 보다는 수원국의 입장에서, 수원국의 여건에 적합한 사업이 되어야 하 며 제공된 원조가 개발도상국의 빈곤 해소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배려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볼 때, 농업분야 협력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는 다음과 같은 전략적 고려가 필요하다.

3.1. 국별 계획에 의한 협력사업 추진

프로젝트 선발이 단편적으로 이루어지기보다는 국별로 5년 정도의 중장기 계획 하에 추진되어야 할 과제를 종합하고 우선순위에 따라서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 관련하여 전문가 파견 사업과 연수생 초청 사업을 연계하여 추진하는 국별 협력사업 추진 체제로 협력사업의 추진 전략을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2. 수원국의 능력개발 중심의 협력사업 추진

원조사업은 일회성으로 끝나거나 시혜적인 성격을 지니기보다는 수 원국의 참여를 통해 수원국의 공무원과 지역 주민의 능력제고(capacity building)를 기할 수 있는 방향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이는 프로젝트에 대한 주인의식(project ownership) 제고와 프로젝트 사업의 효과적인 사후 관리를 위해서 중요하다.

협력사업을 국별 지원체제로 전환하면 수원국의 담당자와 전문가, 그리고 협력단의 관계자와 전문가 집단이 함께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조사연구, 계획수립, 사업실시를 추진한다면 수원국의 공무원과 전문가 집단, 수혜지역의 주민의 능력을 제고하는 과정이 될 것이다. 이와 같은 협력 방식은 UN의 밀레니엄 개발 목표나 OECD/DAC 가이드라인이 제시하는 목표와 일치한다.

3.3. 선택과 집중

사업 분야에 대해서도 개발도상국의 빈곤 탈피와 경제발전에 유익한 사업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그 외의 분야에 대해서는 최소한 의 조건으로 지원하는 프로젝트별 선택과 집중 전략이 바람직하다.

이와 같은 협력단의 무상원조 지원 방침을 고려할 때, 농업분야에서 도 무상 원조사업의 국별 계획은 모든 수원국을 대상으로 할 것이 아 니라 특별협력 대상국을 지정하여 실시하되 다음과 같은 조건을 참작 할 필요가 있다.

- (1) 한국의 농업개발 경험을 필요로 하는 국가 중에서 빠르게 지원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국가
- (2) 우리나라의 전문가 집단이 지원 가능한 분야나 개발 가능한 자원 을 많이 보유한 국가
- (3) 작은 지원으로도 개발 잠재력이 큰 국가
- (4) 장기적으로 상호 호혜적 입장에서 협력의 필요성이 큰 국가

가. 동남아시아 지역

동남아시아 지역은 기존에 우리나라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해 온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등 5국을 특별지원 대 상국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그 외 국가는 주요 협력국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 서남아시아 및 중동 지역

서남아시아에서는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네팔 등 3국을 농업분야 특별지원 대상국으로 지정하여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중동 지역 국가와는 정치적 상황으로 인해 현재까지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를 제외하면 특별한 협력관계를 유지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주요 협력국으로 분류하여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 중앙아시아 지역

중앙아시아 국가 중 몽골은 역사적으로나 문화적으로 한국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 온 국가로서 몽골의 농업과 한국의 농업 간에 협력 가 능성도 큰 편이다. 따라서 몽골을 특별협력국으로 지원하여 몽골의 개 발 사례를 우즈베키스탄 등 중앙아시아의 체제 전환 국가들에게 전시 효과를 거두도록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라. 남아메리카 지역

남미 국가 중 칠레는 많은 부분에서 한국의 농업과 보완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국가 중의 하나이면서 한국 농업의 남미 진출 보루가 될 수 있는 국가다. 따라서 남미 농업을 연구하고 남미 농업국가의 세계 진출 전략을 연구함과 동시에 남미 농업 국가를 지원할 수 있는 중심 국가로서 칠레를 특별협력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

마. 기타 지역

아프리카, 동부 유럽 지역에 대한 원조도 절실한 편이지만 한국의 협력사업 규모로 이 지역에 대해 중점 지원하기는 어려울 것이므로 당분간은 주요 협력국으로 분류하여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아프리카의 빈곤 문제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따라서 한국이 OECD/DAC 회원국이 되면 아프리카의 중심성이 있는 국가 중에서 개발 효과가 크고 아프리카 농업개발 사례를 인근 국가에 전파하는 효과가 있는 에티오피아를 특별협력국으로 지정하여 아프리 카의 빈곤 완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중점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 요가 있다.

4. 추진 방식

4.1. 프로젝트 사업 개선

4.1.1. 사업 선정을 위한 타당성 분석

프로젝트가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전문가에 의해서 사업의 타당성이 객관적으로 검증되고 수원국의 개발 우선순위에 따라서 사업이 결정되도록 해야 한다. 이때 경제적 타당성(economic feasibility)뿐만 아니라 기술적 실천 가능성(technical practicability), 목표 달성 가능성(object obtainability), 현실 적용 가능성(applicability),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수원국의 인력 자원 활용 가능성, 수원국의 재원 조달가능성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타당성 분석에는 수원국 전문가집단이 반드시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

4.1.2. 평가 지표 제시

사업 선정을 위한 타당성 분석시 사업실시 이전과 사업 실시 이후에 변화 사항을 측정할 수 있도록 경제적·사회적 지표를 제시해야 한다.

4.1.3. 사업계획의 합리성 확보

프로젝트 계획시 사업 계획을 수립하는 전문가가 사업의 영역을 충분히 이해할 수 없을 경우, 수립된 계획은 현실성을 벗어날 수 있으므로 사업의 영역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1인 이상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계획수립은 수원국의 사업 대상지역 주민과관련 전문가가 참여하여 현지 실정에 맞는 계획이 될 수 있도록 한다.

4.1.4. 사업계획 심의와 승인제도 도입

전문가 집단이 수립한 계획일지라고 계획의 객관성과 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립된 계획을 제3자가 심의하고 승인하는 제도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협력단 내부에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협력사업 계획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이 심의를 통과한 계획을 토대로 기본 계획및 실시계획이 수립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1.5. 프로젝트 사업 기간과 예산의 유연성

프로젝트 사업 기간과 예산은 전문가의 타당성 분석 결과를 충분히 검토하여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서 협력단의 예산제도 는 3~5년간의 보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총괄 예산제도를 도입하여 예산의 유연성을 확보해야 한다.

4.1.6. 수원국 사업 실시기관의 참여 강화

농업분야 협력사업 중 프로젝트 사업은 수원국 시행기관의 주체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다. 협력단은 사업 시행에 필요한 재정적·기술적 지 원, 사후 평가 등을 담당하도록 하고 사업의 계획과 실행은 수원국 기 관이 주도적으로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1.7. 사업 평가제도 개선

2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는 모든 프로젝트에 대해서 중간평가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평가 결과에 따라서 잔여기간의 사업을 예정대로 추진할 것인지, 수정해서 추진할 것인지, 아니면 사업을 중단할 것인지 판단해야 한다.

사업 종료 평가는 사업 종료와 동시에 사업 목표 달성도, 사업의 효과, 자립 발전성/지속가능성 등 평가지표 이외에 프로젝트 선정의 적절성, 사업계획의 합리성 등이 추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프로젝트의 평가는 계획한 목표를 얼마나 달성했는가도 중요하지만 그 목표가 빈곤의 완화와 삶의 질 개선, 경제·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목표인지, 그러한 방향으로 목표가 설정되고 이행되었는지의 여부에 대한 평가도 이루어져야 한다.

프로젝트에 대한 사후 평가는 사업의 성과와 효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사업의 성공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물론 추가 지원 여부의 판단, 추진상 미흡한 부분에 대한 개선 방안 도출에 의미가 있다. 따라서전문가에 의해서 사후 평가가 객관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제도화해야 한다.

4.1.8. 프로젝트 사업 발굴을 위한 조사 연구 강화

수원국이 필요로 하는 프로젝트 사업을 개발하기 위해서, 그리고 협력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프로젝트 발굴을 위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조사연구가 전문가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프로젝트 사업 발굴을 위한 조사 연구는 수원국 전문가집단과 파트너십을 구축해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2. 전문가 파견 사업 개선

4.2.1. 전문가 확보 대책 강구

우리나라가 OECD 회원국이 되면서 향후 대 개발도상국 공적원조가 급격히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농업분야에서도 전문 인력의해외 파견 수요가 증가하게 될 것이 예상되므로 분야별로 적격 전문가확보에 대비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협력단이 전문가를 개별적으로 활용하기보다는 전문가 집단에게 패키지로 수탁하고 팀워크(team work)를 이루어 업무를 수행 하게 한다면 전문가 양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4.2.2. 파견 목적의 명확화

수원국으로부터 전문가의 활용 목적이 보다 분명히 제시되어야 하고 전문가가 파견되었을 경우 수행해야 할 업무를 명확히 제시하도록 요 구해야 한다. 특히 업무와 관련하여 수원국이 이와 같은 일이 필요한 배경과 현황, 문제점 등이 기술되어야 파견이 예상되는 전문가가 출국 전에 충분한 준비를 할 수 있을 것이다.

4.2.3. 프로젝트 사업과의 통합

개별 전문가 파견 사업은 현재 프로젝트 사업 속에서 추진되는 전문가 파견 사업과 이원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경우 전문가 파견사업으로 수원국에 파견되는 전문가는 프로젝트 사업 관련 전문가가 프로젝트와 함께 파견되는 것에 비유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일을 처리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따라서 전문가 파견 사업은 프로젝트 사업 속의 전문가 파견 사업과

연계하던지, 아니면 전문가 파견 사업 자체를 아주 축소하여 프로젝트 사업과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4.2.4. 전문가 대우 개선

현재 협력단 사업으로 파견되는 전문가는 소속 기관의 입장에서 보면 인건비가 비싼 고급인력을 손실당하는 것이므로 쉽게 동의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문가 파견 사업을 용역의 형태로 위탁하여 시행하고 파견자의 급여는 이에 상응하는 간접비를 인정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4.3. 연수생 초청 사업 개선

4.3.1. 연수과정의 다양화 및 구체화

현재의 연수사업을 수원국의 일반적인 인적 자원 개발과정(Human Resource Development, HRD), 특정 기술이전을 전제로 하는 선진기술과 정(Advanced Technical Cooperation, ATC), 특정 정책 개발을 지원하는 정책세미나과정(Policy Oriented Seminar, POS) 등으로 다양화해야 한다.

4.3.2. 개별 연수(OJT) 제도 도입

연수생 초청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연수과정의 정규반을 수료한 자 중 특수한 성과를 거두거나 전문분야에 종사하는 자를 선발 하여 실험실에서 직접 기술을 연수받을 수 있는 기회를 추가적으로 제 공하는 개별 연수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4.3.3. 연수 사업과 프로젝트 사업의 연계

연수사업이 프로젝트 사업과 연계될 때 그 효과가 배가되는 시너지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또한 연수사업도 국별 연수계획을 수립하여 3~ 5년간의 장기적인 계획 하에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3.4. 수요자 중심의 국별 연수계획 도입

수원국의 경제발전과 기술수준에 상응한 연수가 이루어지도록 국별 연수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우리나라도 체계적인 ODA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독일, 일본 등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과 같이 수원 국에 대한 국별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으며, 연수사업도 이러한 국별 개발계획의 틀 내에서 계획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3.5. 연수 교과목 평가와 재구성

기존의 연수 교과목들이 연수목표 및 취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그 결과에 따라 연수교과목을 재구성하도록한다. 과정별 교과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교과목을 평가하고, 문제가 있는 연수과정에 대해서는 연수과정 폐쇄, 연수기관 변경, 교과목 재구성등의 조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4.3.6. 연수전문기관 설립

현재 협력단이 운영하는 ICTC를 확대 개편하여 보다 전문적인 연수기관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전문 연수기관이 수용하기 어려운 특수 분야의 연수사업은 프로젝트화하여 연수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할수 있는 기관이 육성되도록 협력단의 연수 지원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5. 농업분야 한국형 협력 모형

한국형 농업분야 협력 모델을 정의하기는 매우 어렵지만 이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특성을 지니고 있는 농업과 농촌분야를 국제협력사업에서의 한국형 협력 모델이라고 정의하고자 한다.

- (1) 한국의 경제성장 과정에서 농업과 농촌발전에 기여했다고 국제사회에서 인정받고 있는 분야
- (2) 국가 간 비교에서 비교우위를 지니고 있다고 인정되는 농업기술이 나 농업·농촌개발 정책
- (3) 개발도상국의 빈곤 타파에 현저하게 기여할 수 있고 개발도상국에 이전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농업기술이나 농업·농촌개발 정책을 효율적으로 이전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분야

따라서 한국이 비교우위를 지니고 있는 농업기술 및 농업·농촌개발 정책 중에서 다음과 같은 분야는 패키지로 프로그램화하여 수원국에 메뉴 방식으로 제시하는 것이 수원국의 개발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 하는 방안이 될 수 있고 개발의 상승효과를 거둘 수 있다.

5.1. 벼육종 및 재배기술에 관한 지원

법씨 육종에 대해서는 라오스뿐만 아니라 캄보디아, 베트남, 미얀마 등지에서도 같은 수요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산간 고랭지에 적합한 내 냉성 벼 품종 육종, 병충해에 강한 내병충성 벼 품종 육종에 대한 수요가 크다.

근본적으로 볍씨를 육종, 생산하고자 하는 것은 쌀의 증산을 목표로 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국민의 식량을 안전하게 확보하고 농가의 소득 을 올리고자 하는 것이므로 볍씨 육종이나 증산이라는 프로젝트를 하 나로 단일화하여 지원하는 것보다는 볍씨의 육종에서부터 증산 재배기술, 기계화 작업기술, 기술보급까지를 하나의 패키지로 묶어 3~5년간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경우는 공여국이 지원해 주는 것뿐만 아니라 수원국에서 이러한 지원을 통하여 달성할 수 있는 목표를 분명히 수립하고 이를 달성할 수 있는 재정계획, 인력지원 및 육성 계획, 제도개선 계획까지를 포함 하는 실천계획을 수립해서 공동사업으로 추진해야 한다.

5.2. 가축 사양 및 번식기술 지원

한국의 가축 육종과 가축 사양기술, 조사료 생산기술 등은 선진 수준에 이르지는 못하지만 인공수정, 수정란착상, 체세포이용 배아줄기세포 증식 등 BT 분야에서는 세계 정상 수준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한 기술지원 요청이 쇄도하고 있는 실정이다.

개발도상국, 특히 공업국가로 발돋움하려는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은 경제성장에 따른 동물성 단백질 수요 증가에 따라서 축산업 진흥에 관심이 높다. 그러나 이와 같은 축산업 진흥 프로

젝트는 부분적인 사업으로는 그 효과를 달성하기 어렵기 때문에 종축 생산 기술, 가축사양기술, 사료생산기술, 축산물 도축 가공 기술 등을 하나의 패키지로 프로그램화하여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3. 잠업 기술 지원

한국은 잠업 관련 기술, 즉, 잠종 생산, 육잠, 제사, 견직, 나염 등의 분야에서 고급 기술을 지닌 기술자가 축적되어 있다. 그러나 산업으로 서의 잠업은 한국에서 이미 사양화하고 있기 때문에 잠업 관련 기술이 유휴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유휴화한 잠업 기술을 이용하여 이를 필요로 하는 잠업 후진국을 지원한다면 수원국의 기술발전은 물론 농가소득 증대를 통한 빈곤 탈출에 기여할 수 있는 모델이 될 수 있다.

현재 중국이 육잠, 잠견, 제사, 견직에서 경쟁력을 갖고 있지만 머지 않아 중국의 잠업은 주변 잠업국인 미얀마, 라오스, 베트남 등과의 경쟁에서 열위에 서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이들 후진 잠업국이 잠견생산, 제사, 견직, 염색기술 등에 대한 지원을 요청해 올 경우, 혹은 국별 지원 계획에서 이와 같은 분야를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한국에서 잡업 관련 시설이 생산되지 않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때, 잠업 관련 기술지원은 물자 지원보다도 전문가 파견 등을 통하여 잠업의 기반을 갖춘 수원국이 잠업 관련 산업을 진흥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4. 버섯재배 기술 지원

개발도상국이 경제적 성장을 이룩하면서 식생활과 건강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버섯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한국의 양송이, 느타리, 표고, 영지버섯 등 고급 버섯에 대한 재배 기술을 전수받아 버섯산업을 발전시키고 농가 소득을 증대시키고자 하는수요가 발생하고 있다.

향후 식용버섯은 산업으로 크게 발전할 것으로 기대되며 일부 버섯으로부터 신물질 추출 등을 통한 약제생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많은 나라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이다. 열대지역에 적합한 버섯을 개발지원하는 것은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과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서 뿐만아니라 우리나라의 버섯산업의 발전에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 따라서

인도네시아, 베트남, 미얀마, 네팔 등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버섯재배기술, 종균생산기술, 버섯 관련 R&D 지원 등에 관한 종합적인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5. 새마을운동을 연계한 농촌개발사업 지원

새마을운동은 UN 등 국제기구, 세계은행, 각국의 전문가들에 의해서 개발도상국에 적합한 농촌개발 모델로 널리 알려져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한국의 새마을운동 모델을 체계적으로 개발도상국에 전수하는 교육 프로그램도 없을 뿐만 아니라 새마을운동을 희망하는 국가에 대한 지원도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베트남에서의 시범사업 결과와 UN ESCAP의 중간 평가 결과(2005년도 협력단 내부 자료) 등을 종합해 보면 농촌개발 모델로서 새마을운동은 국제기구가 실천하는 어떠한 모델에 못지않게 경쟁력을 갖춘 농촌개발 모델이라고 평가된다.

새마을운동은 지역사회의 자치적이고 자주적인 조직을 통하여 협동과 자조정신을 함양하고 주민이 정부의 지원을 받아 소득증대, 환경개선, 생산기반 정비, 교육, 문화, 보건위생 등 사회개발, 마을회관 건립과 공공시설 등 농촌지역사회를 종합적으로 개발해 나가는 운동이므로 새마을운동을 오랫동안 도입하고자 노력해 온 베트남,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라오스 등지에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6. 농업협동조합운동 지원

한국의 농업협동조합운동은 한국 농업의 발전 과정에서 정책자금의 운용, 생산활동 지원, 농자재의 공동구매 및 농산물 공동 판매 등을 성

공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유럽 지역의 단위사업 협동조합과는 다른 형태로 아시아 개발도상국가에 적합한 모델로 평가받고 있기 때문에 많은 아시아의 개발도상국들이 한국의 협동조합을 벤치마킹하고자 한다. 따라서 한국의 협동조합운동에 대한 이론과 실제 운용에 대한 자문 및 시범적 프로젝트 사업으로의 지원이 필요하다.

5.7. 열대 채소/과수 연구소 지원

열대지역은 연중 고온다습으로 엽채류 등 온대채소의 생산이 어려워 열대지역의 주민은 식생활에서 비타민 등의 결핍과 영양의 불균형으로 건강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열대 지방에서 온대채소와 과 일 또는 열대의 채소와 과일을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보급 하는 것은 빈곤완화뿐만 아니라 국민 건강증진에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러나 국내 연구진 중에는 열대채소와 과일에 대한 전문가를 확보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열대과일 및 채소 관련 연구소가지원되면 국내 학자들을 파견하여 연구 및 현장 지도활동을 하도록 하여 전문가를 육성할 필요가 있다. 또한 온대 및 열대 채소 육종, 종자생산 및 보급, 열대 및 온대채소 생산기술 지원, 마케팅지원을 통하여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도록 전문가 파견 사업을 프로그램화하여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5.8. 수자원개발 및 생산기반 정비 지원사업

개발도상국이 당면한 가장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가 식량 생산에 긴 요한 농업용수를 개발하고 농경지, 도로 등 취약한 생산 기반을 개량하 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수자원개발을 위한 댐을 건설한다면 댐 건설에 그치지 말고 댐의 물이 공급될 수 있는 몽리지역에 경지정리 및 수리시설 건설, 농 업개발 지원, 몽리구역 내의 농촌마을에 대한 경제·사회개발 등을 하 나의 프로그램으로 패키지화하여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협력사업의 지원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9. 농산물 가공과 유통사업 지원

중국, 인도,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선진 개발도상국은 식량의 자급 단계에 이르거나 이미 자급 단계를 넘어서고 있어 이들 국가들은 농산물의 과잉 시대에 대비하고 농촌공업화, 도시민의 가공 식품 수요 증대 등 산업사회가 필요로 하는 가공식품에 대한 준비를 서두르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수확 후 기술을 중심으로 농산물의 가공, 유통, 소비까지를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하는 농산물 가공, 유통 프로젝트에 대해 지원하 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지역에 대한 농산물 가공산업 지원 은 거대한 아세안 지역의 식품산업과 국내 농업을 연계하여 상호 호혜 적인 경제협력 체제를 구축하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

5.10. R&D 지원

앞으로의 농업 경쟁력은 우수한 식물 유전자원을 어느 나라가 얼마나 확보할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고 할 만큼 식물 유전자원 확보에 대한 경쟁은 치열하다. 이를 위한 수단으로 선진국들은 유전자원에 대한지원을 강화하고 있으며 연구소 지원, 연구원 파견, 공동 연구 등을 통

하여 우수한 식물 유전자원을 확보하는데 전력을 기울이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현실을 감안할 때, 동남아시아 지역을 비롯하여 아프리카, 남미 지역에 대한 농업분야 지원 중에 농업분야 R&D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장기적으로는 국가전략의 하나로 농업분야에 대한 R&D 지원을 통하여 열대농업, 산림, 식물자원에 대한 한국 학자 육성, 공동 연구 추진, 우량 식물 유전자 확보에 중점을 두는 전략이 필요하다.

참 고 문 헌

- 권율. 1995. 「ODA 운용체제 개선방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조사보고 95-05.
- ____. 1999. 「OECD/DAC의 공적개발원조 논의와 동향』.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자료논문 99-16.
- 김학수. 1990. 『우리나라의 대개도국 중·장기 경제협력 방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나원찬. 1991. 「우리나라의 대개도국 기술협력 정책방향」. 산업연구원
- 나원찬ㆍ송하율. 1989. 「우리나라의 대개도국 개발원조정책』. 산업연구원
- 외교통상부. 2002. 「우리나라의 공적개발원조(ODA)』.
- _____. 2003. 『우리 ODA 현황 및 향후 정책과제』. 지속가능발전위원회 ODA 정책토론회 자료.
- 이창재. 1995. 「우리나라의 공적개발원조: 현황 및 정책방향」.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장현식. 1999. 「OECD/DAC 회원국의 원조체계 비교분석 및 우리의 국제협력 방향』. 한국국제협력단.
- 재경부. 각년도. 「우리나라 ODA 공여실적」(내부자료)
- 정기환·김영렬. 2001. 『농업 및 농촌개발분야 아세안 연수프로그램 평가』. 한국 국제협력단.
- 한국국제협력단. 2005. 「국제협력동향」. 2005년 제1호.
- _____. 2005. 『국제협력동향』. 2005년 제2호.
- _____. 2003. 『국제협력 종합안내서』.
- 한국국제협력단·한국기술교육대학교. 2004. 『직업훈련 프로젝트 사업 외부위 탁평가결과보고서』.
- Kim, Sang-Tae. 2003. ODA Policy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 Context of Its Evolving Diplomatic and Economic Policies.
- Federal Ministry of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BMZ). 2005.

 Germany's Contribution to Achieving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Federal Ministry of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BMZ). 2001. Poverty Reduction, a Global Responsibility: Program of Action 2015.

Federal Ministry of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BMZ). 2001. Rural Development: a Reference Framework.

Federal Ministry of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BMZ). 2001. Asia Strategy.

JICA. 2005. Annual Report 2004.

JICA. 2004. Annual Report 2003.

OECD. 2004. The DAC Journal 2004 5(2).

OECD. 2003. The DAC Journal 2002 3(4).

OECD. 2005. Development Cooperation Report 2004.

OECD. 2004. Development Cooperation Report 2003.

OECD. 2000. Development Cooperation Report 1999.

USAID. 2003. U.S. Overseas Loans and Grants.

USDS & USAID. 2005. U.S. Foreign Assistance Reference Guide.

USDS & USAID. 2003. Strategic Plan: Fiscal Year 2004-2009.

<주요 웹페이지>

BMZ: http://www.bmz.de/

DAC:

http://www.oecd.org/department/0,2688,en_2649_33721_1_1_1_1_1_00.html

JICA: http://www.jica.go.jp/english/index.html

USAID: http://www.usaid.gov/

부록 1

전문가 파견 사업 조사표(기파견 전문가용)

I. 귀하의 인적사항에 대한 질문입니다.

1. 7	l하의 주 전문분야는 다음 중	중 무엇입니까? ()
1	식량작물	② 화훼
3	채소	④ 과수
(5)	양잠	⑥ 버섯
7	기타 특용작물:	
8	축산업	⑨ 육림 및 삼림경영
10	농업토양, 농업토목, 수자원	<u>및</u> 환경
11	농기계 및 농업용 자재	⑫ 농산물 가공 및 유통
13	· 농촌개발	⑭ 농업경제, 농업통계 및 정보
15	인적개발(HRD)	⑥ 기타(직접 기술 요망)
2. 7]하의 학력은 어떻게 됩니끼	-? 해당되는 모든 항목에 √표 하시고
힉	위취득 국가명을 함께 기입	해 주십시오.
() ① 학사 (국가명:)
() ② 석사 (국가명:)
() ③ 박사 (국가명:)
() ④ 기타 (국가명:)

3. 귀하의 연령과 성별은 어떻게 됩니까?
3-1. 연령 만세
3-2. 성별 ① 남 ② 여
4. 귀하가 현재 근무하고 있는 기관이나 귀하가 마지막으로 근무했던 기관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
① 정부 ② 대학 ③ 연구소
④ 민간기업 ⑤ NGO
⑥ 기타(구체내용 직접 기술):
5. 위 문항 1.에서 언급한 귀하의 전문분야에 종사한 기간은 모든 얼마입니까?
()년 ()개월 종사하였음
6. 전문분야 종사기간 동안 귀하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주관하는
전문가 해외파견사업에 몇 번 참여했습니까?()번 참여했음
7. 전문가 파견 사업에서 귀하가 담당했던 분야는 무엇입니까? 아래 ①부터 ⑯까지 보기에서 해당하는 항목에 모두 √표 해 주십시오.
() ① 식량작물 분야
() ② 원예작물(화훼, 채소 등) 분야
() ③ 과일·과수 관련 분야
() ④ 특용작물(양잠, 버섯 등)
() ⑤ 육림 및 삼림경영
() ⑥ 가축육종 및 사양

() ⑦ 기술이전 및 R&D
() ⑧ 관배수시설, 농업토목 등 용수 및 수리시설 개발
() ⑨ 농업환경
() ⑩ 농기계 및 농업용 자재 관련 산업
() ① 농산물 가공기술 및 유통 관련 산업
() ⑫ 새마을운동과 농촌개발
() 🗓 농업경제, 농업통계 및 정보 등
() ⑭ 정책자문
() ⑤ 인적개발(HRD)
() ⑯ 강의·연수 또는 세미나

8. 각 파견사업의 파견기간은 각각 얼마였습니까? 또 파견기간은 적절했다고 봅니까? 적절한 파견기간은 어느 정도입니까?

	파견국(사업명)		파	변기간	기간의 적절성 바람직한 기간
1.	()	()주	①짧았음 ②적절 ③길었음 ()주
2.	()	()주	①짧았음 ②적절 ③길었음 ()주
3.	()	()주	①짧았음 ②적절 ③길었음 ()주
4.	()	()주	①짧았음 ②적절 ③길었음 ()주

- 9. 파견국의 체류기관은 어느 곳이었습니까? ()
 - ① 대학 및 교육기관

() ① 기타(직접 기술 요망:

- ② 연구소
- ③ 정부기관
- ④ 현장거주

10-1.	통상적 언어소통 ①자유롭다	· () ②가능하다	③어려운	편이다
10-2.	전문가와 토론 (①자유롭다) ②가능하다	③어려운	편이다
10-3.	영어 강의 가능 ①자유롭다	() ②가능하다	③어려운	편이다
10-4.	통역 필요 (① 필요함) ② 필요 없음		

10. 전문가 파견시 귀하의 영어구사능력은 어느 정도였습니까?

- Ⅱ. 파견전문가 선발 및 사전준비 단계에 대한 질문입니다.
- 1. 귀하는 파견사업에 어떻게 참여하게 되었습니까? ()
 - ① 공개선발과정에 지원해서 선발되었다.
 - ② 다른 전문가 또는 소속기관이 본인을 한국국제협력단에 추천해서 선발되었다.
 - ③ 한국국제협력단이 직접 본인에게 파견을 제안하였다.
 - ④ 기타(구체내용 직접기술):

2. "선발 후 파견"까지 파견목적 및 활동내역과 관련하여 다음 각 문항에서 대한 귀하의 견해는 어떠하였습니까?

③ 정보가 아주 불충분하였다
2-2. 파견국가와 관련한 현지정보 ()
① 자세하게 제공되었다.
② 제공되었으나 충분치 못했다.
③ 정보가 아주 불충분하
2-3. 현지 근무환경이나 수행업무(job description)에 정보 ()
①자세하게 제공되었다.
②제공되었으나 충분치 못했다.
③정보가 아주 불충분하였다
2-4. 기타(구체내용 직접기술):
3. 파견사업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귀하가 원래 소속되어 있던 기관에
대해 느꼈던 가장 큰 애로사항은 무엇입니까? 파견전과 귀국후로 구
분하여 답변하여주시길 바랍니다.
3-1. 파견 전 ()
① 별다른 애로사항이 없었다.
② 파견 승인문제
③ 파견기간 조정 문제
④ 급여지급 문제
⑤ 소속 기관의 인사상(승진 등) 불이익 문제

⑥ 기타(구체내용 직접기술): _____

2-1 파견사업에 대한 정보제공 ()

② 제공되었으나 충분치 못했다.

① 자세하게 제공되었다.

3-2. 귀국 후 ()
① 별다른 애로사항이 없었다
② 급여상 불이익
③ 소속 기관 내 인사상 불이익
④ 기존 업무의 연속성 상실
⑤ 기타(구체내용 직접기술):
Ⅲ. 파견국에서의 활동 단계에 대한 질문입니다.
1. 파견사업과 관련한 수원국의 협조는 충분했습니까? ()
① 충분했다. ② 충분하지 못했다.
2. 위 1번 문항에서 '② 충분하지 못했다'고 응답한 경우,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 자료의 부족
② 기자재 등 시설의 낙후 및 부족
③ 현지민과의 의사소통에 대한 지원 부족
④ 현지기관 지원인력 부족 및 지원인력의 전문성 결여
⑤ 파견국의 전문가에 대한 요구사항이 불명확
⑥ 기타(구체내용 직접기술):
3. 수원국이 파견목적에 맞는 업무 수행을 요청하였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아니다 ⑤ 매우 아니다

	4-1.	사무실은 적절하게 제공도 ① 그렇다.	었다 () ② 아니다.
	4-2.	현지 활동예산은 적절하게 ① 그렇다	지급되었다 () ② 아니다
	4-3.		은 원활하게 이루어졌다 () ② 아니다
5.	(1) (2) (3) (4)	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전문가 파견 사업을 통한 DDA관련 프로젝트 사업에 전문가의 수행업무가 명확하 수원국의 일관된 수원자세기	⑤ 매우 아니다"라고 응답한 경우, 그 나?() · 기술이전이나 컨설팅보다는 한국의 관심이 치우쳐 있었기 때문하게 정해져 있지 않았기 때문가 확립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 요청한 분야와 일치하지 않았기 때문
6.	의 ① :	국국제협력단의 협력사업을 기대수준은 어느 정도였습 기대하는 바가 많았다 기대하는 것이 별로 없었다	

4. 수원국이 파견 전문가에 제공한 활동여건에 대한 질문입니다.

7. 귀하에게 부여되었던 전문가 파견업무는 수원국의 실정에 적합했다
고 생각합니까? ()
① 적절했다
② 부적절했다
8. 귀하께서 수행한 업무의 주요 완성도는 얼마나 됩니까?
① 강의 및 세미나 ()%
② 정책자문 ()%
③ 기술이전 및 R&D지원 ()%
④ 기타활동: ()%
9. 귀하가 수행한 파견사업에서 업무 완성도는 어느 정도라고 평가합니
까 ? ()
① 업무가 잘 수행되었다
② 보통이다
③ 업무가 잘 수행되지 못했다
10. 위 9번 문항에서 '③ 업무가 잘 수행되지 못했다'고 응답한 경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사전조사 미흡
② 파견기간 문제
③ 현지기관의 협조 미흡
④ 협력단의 전문가 관리 프로그램 미비
⑤ 전문가의 능력 부족
⑥ 기타(구체내용 직접기술):

11. 그렇다면 향후 협력단의 전문가 파견 사업의 발전을 위해 우선되어
야 하는 것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우선순위 3가지를 기입해주
십시오. 1순위: (), 2순위: (), 3순위: ()
① 사전조사 충실
② 전문가 파견업무의 명확화
③ 현지기관의 협조체계 개선
④ 협력단의 전문가 관리 프로그램 개선
⑤ 전문가의 능력 배양
⑥ 기타(구체내용 직접기술):
12. 파견 전문가의 자질개선을 위한 우선 조치사항은 무엇이라 생각하
십니까? ()
① 언어능력 배양
② 전문성 고취
③ 현지사정에 대한 지식 및 경험축적
④ 기타:
13. 귀하께서 생각하시기에 현지활동 중 가장 중요한 업적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세 가지 이내로 자유롭게 적어주시길 바랍니다.
2
3

Ⅳ. 파견사업 완료 이후 사후관리단계에 대한 질문입니다.

1. 협력단으로부터 소식지나 해외 농업·농촌개발과 관련한 정보를 제

	공받고 있습니까? () ① 그렇다	② 아니다
2.	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	있는 국가의 정부 및 관련 기관과 지속 까?() ② 아니다
3.	해당국이나 협력단으로부터 / 까?() ① 그렇다	사후 컨설팅 요청을 받은 적이 있습니 ② 아니다
4.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까? (소속기관에서 해당국과 관련한 연구나) ② 아니다
V	. 전문가 파견 사업의 향후 !	발전방향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외 전문가 파견사업에 다시 ① 있다	참여할 의향이 있습니까? () ② 없다
	① 경험전수 (답한 경우,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② 경제협력확대를 위해서 ④ 국제적 Network 형성 및 전문성 향상

 3. 위 1번 문항에서 '없다'고 응답한 경우,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현재 수행하고 있는 소속기관의 업무에서 벗어날 수 없어서 ② 연령이나 체력 등 개인적인 사정으로 ③ 수원대상국의 필요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 ④ 전문가 파견에 따른 대우가 낮기 때문에
4. 위 1번 문항에서 '① 있다'고 응답한 경우, 귀하가 가장 우선적으로 희망하는 지역은 어디입니까? 또 응답한 지역 내 희망국가 1개를 적어주십시오.
① 동북아시아 (국가명:))② 동남아시아 (국가명:))③ 서남아시아 (국가명:))④ 중앙아시아 (국가명:))⑤ 라틴아메리카 (국가명:))⑦ 카리브해지역 (국가명:))⑧ 오세아니아 (국가명:))⑨ 동유럽 (국가명:))
5. 귀하의 전문성과 관계없이 한국이 제공할 수 있는 ODA 농업협력분이 중 국제경쟁력, 한국의 경험 등을 참고할 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시업분야는 ①부터 ⑥까지 보기 중에서 무엇입니까? 우선순위로 3가지를 선택하여주십시오. 1순위: (), 2순위: (), 3순위: () ① 식량작물 분야 ② 원예작물(화훼, 채소 등) 분야

272 동업문(야 협력사업 평가										
③ 과일	· 과수 관련 분	o}:									
④ 특용	④ 특용작물(양잠, 버섯 등)										
⑤ 육림	⑤ 육림 및 삼림경영										
⑥ 가축	⑥ 가축육종 및 사양										
⑦ 기술	⑦ 기술이전 및 R&D										
⑧ 관배	수시설, 농업토	목 등 용수 및 수	-리시설 개발								
⑨ 농업	환경										
⑩ 농기	계 및 농업용 기	아재 관련 산업									
① 농산	물 가공기술 및	유통 관련 산업									
① 새마	을운동과 농촌기	개발									
① 농업	경제, 농업통계	및 정보 등									
① 정책	자문										
⑤ 인적	개발(HRD)										
16 강의	·연수 또는 세ㅁ	1나									
① 기타	(직접 기술 요명	}·):									
6. 세계적	수준을 "5"라고	할 때 한국의 혀	해당 기술수준은	- 어느 정도라							
고 평기	-하십니까?										
① 쌀											
1	2	3	4	5							
② 기타	식량작물										
1	2	3	4	5							
	l										

③ 화훼				
्रा 1	2	3	4	5
1	2			3
③ 채소 및 과	·채류			
1	2	3	4	5
④ 온대과수				
1	2	3	4	5
⑤ 열대과수				
1	2	3	4	5
⑥ 양잠				
1	2	3	4	5
⑦ 버섯				
1	2	3	4	5
⑧ 가축사양				
1	2	3	4	5
⑨ 삼림경영				
1	2	3	4	5

⑩ 농산물가공				
1	2	3	4	5
① 관배수시설	, 농업토목 등	용수 및 수리	비시설 개발	
1	2	3	4	5
⑩ 농기계 및	농업용 자재	관련 산업		
1	2	3	4	5
③ 기타(직접	기술 요망) : _			
1	2	3	4	5
7. 마지막으로, [†] 관련한 귀하의				

※ 설문에 응답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록 2

전문가 파견 사업 조사표(DB등록 전문가용)

1. 귀	하의 주 전문분야는	: 다음 중 무	엇입니까	가? ()		
1	식량작물	② 화훼	3	채소			
4	과수	⑤ 양잠	6	버섯			
7	기타 특용작물:						
8	축산업						
9	육림 및 삼림경영						
10	농업토양, 농업토목	+, 수자원 및	환경				
11)	농기계 및 농업용	자재					
12	농산물 가공 및 유	통					
(13)	농촌개발						
<u>(14)</u>	농업경제, 농업통계	및 정보					
1 5	인적개발(HRD)						
16	기타(직접 기술 요	망)					
2. 7	하의 학력은 어떻게	∥ 됩니까? 해	당되는	모든	항목에	$\sqrt{\Xi}$	하시고
학	위취득 국가명을 힘	-께 기입해 주	·십시오				
() ① 학사 (국가	명:)				
() ② 석사 (국가	명:)				
() ③ 박사 (국가	명:)				
() ④ 기타 (국가	명:)				

3. 귀하의 연령과 성별은 어떻게 됩니까? 3-1. 연령 만세 3-2. 성별 ① 남 ② 여
4. 귀하가 현재 근무하고 있는 기관이나 귀하가 마지막으로 근무했던 기관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 ① 정부 ② 대학 ③ 연구소 ④ 민간기업 ⑤ NGO ⑥ 기타(구체내용 직접 기술):
5. 위 문항 1.에서 언급한 귀하의 전문분야에 종사한 기간은 모든 얼마입니까? ()년 ()개월 종사하였음
6. 전문분야 종사기간 동안 귀하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주관하는 전문가 해외파견사업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아래 6-1.과 6-2.는 6번에서 '①있다'고 응답한 경우만 답해 주십시오.> 6-1. 전문가 파견 사업에서 귀하가 담당했던 분야는 무엇입니까? 아래 ①부터 ⑥까지 보기에서 해당하는 항목에 모두 √표 해 주십시오. () ① 식량작물 분야 () ② 원예작물(화훼, 채소 등) 분야 () ③ 과일·과수 관련 분야 () ④ 특용작물(양잠, 버섯 등)

() (5)	육팀 및 삼팀성영
() 6	가축육종 및 사양
() ⑦	기술이전 및 R&D
() 8	관배수시설, 농업토목 등 용수 및 수리시설 개발
() 9	농업환경
() 10	농기계 및 농업용 자재 관련 산업
() ①	농산물 가공기술 및 유통 관련 산업
() 12	새마을운동과 농촌개발
() 🔞	농업경제, 농업통계 및 정보 등
() 4	정책자문
() 15	인적개발(HRD)
() 16	강의·연수 또는 세미나
() 17	기타(직접 기술 요망:

6-2. 각 파견사업의 파견기간은 각각 얼마였습니까? 또 파견기간은 적절했다고 봅니까? 적절한 파견기간은 어느 정도입니까?

파견국(사업명)			파김	년기간	기	간의 적절	널성	바람직	한 기간
1.	()	()주	①짧았음	②적절	③길었음	()주
2.	()	()주	①짧았음	②적절	③길었음	()주
3.	()	()주	①짧았음	②적절	③길었음	()주
4.	()	()주	①짧았음	②적절	③길었음	()주

7	저므기	ᆔ거시	긔됬이	영어구사능력은	러ㄴ	저ㄷ여스: 1 께?
1.	323171	4/3//1	1101-4	70117179	· I —	- 'A-L M H H // !

7-1.	통상적 언어소통	()		
	①자유롬다	②가능하다	③어려우	펴이다

하다	③어려운	편이다	
하다	③어려운	편이다	
오 없음			
		있습니까?	
기관의 업 인 사정으 '하지 않 <i>기</i>	무에서 벗 로 때문		
) ② 동남	날아시아 (국	국가명:)
) ④ 중앙	랑아시아 (-	국가명:)
) ⑥ 라	틴아메리카	(국가명:)
) ⑧ 오셔	네아니아 (=	국가명:)
	하다 요 없음 업에 참여 기관의 업 인 사정으 가 관심이 요 가 안 보 응답한 가 있 요 중 하다 이 ⑥ 라니	하다 ③어려운 a. 없음 업에 참여할 의향이 ② 없다 c. 응답한 경우, 그 여기관의 업무에서 벗인 사정으로 하지 않기 때문 관심이 없기 때문 다. 응답한 경우, 귀하기 때문 다. 음당한 경우, 그 여기 때문 다. 음당한 경우, 귀하기 때문 다. 음당한 경우, 금당한 경우, 금	업에 참여할 의향이 있습니까? ② 없다 2 응답한 경우, 그 이유는 무엇입기관의 업무에서 벗어날 수 없어 인 사정으로 하지 않기 때문 관심이 없기 때문 2 응답한 경우, 귀하가 가장 우선 가? 또 응답한 지역 내 희망국가 () ② 동남아시아 (국가명: () ④ 중앙아시아 (국가명: () ⑥ 라틴아메리카 (국가명: () ⑧ 오세아니아 (국가명:

- 11. 귀하의 전문성과 관계없이 한국이 제공할 수 있는 ODA 농업협력분 야 중 국제경쟁력, 한국의 경험 등을 참고할 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업분야는 다음 중 무엇입니까? 우선순위로 3가지를 선택하여 주십시오. 1. (), 2. (), 3. ()
 - ① 식량작물 분야
 - ② 원예작물(화훼, 채소 등) 분야
 - ③ 과일·과수 관련 분야
 - ④ 특용작물(양잠, 버섯 등)
 - ⑤ 육림 및 삼림경영
 - ⑥ 가축육종 및 사양
 - ⑦ 관배수시설, 농업토목 등 용수 및 수리시설 개발
 - ⑧ 농업환경
 - ⑨ 농기계 및 농업용 자재 관련 산업
 - ⑩ 농산물 가공기술 및 유통 관련 산업
 - ① 새마을운동과 농촌개발
 - ② 농업경제, 농업통계 및 정보 등
 - ③ 정책자문
 - ④ 인적개발(HRD)
 - ⑤ 강의·연수 또는 세미나
 - 16 기타(직접 기술 요망):

12. 세계적 수준을 "5"라고 할 때 한국의 해당 기술수준은 어느 정도라 고 평가하십니까?

280 농업분야 협력사업 평가 ① 쌀 1 2 3 4 5 ② 기타 식량작물 1 2 3 4 5 ③ 화훼 1 2 3 4 5 ④ 채소 및 과채류 1 2 3 4 5 ⑤ 온대과수 1 2 3 4 5 ⑥ 열대과수 1 2 3 4 5 ⑦ 양잠 1 2 3 4 5

1 2 3 4 5

⑧ 버섯

1	2	3	4	5			
⑩ 삼림경영							
1	2	3	4	5			
① 농산물가공							
1	2	3	4	5			
② 관배수시설	, 농업토목 등	· 용수 및 수리	기시설 개발				
1	2	3	4	5			
③ 농기계 및	농업용 자재	관련 산업					
1	2	3	4	5			
⑭ 기타(직접	기술 요망) : _		_				
1	2	3	4	5			
. 리키미스크	<i>키그그</i> 제처러	പ്രിച്ചി.	페이코커기어	ง) หไวไนไร			
3. 마지막으로,							
단단안 게야	의 의선물 사 ⁻ 	유롭게 적어주	시기 마답니니 	r. 			

※ 설문에 응답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록 3

연수사업 참여 연수생 조사표

Dear Fellows

This questionnaire is prepared to evaluate the KOICA training course you attended during 1999~2003 in Korea. We are now planning to evaluate "KOICA Training Courses" you attended in Korea during 1999~2003. Please read the attached questionnaire carefully and check each question, and send the questionnaire back to us.

Your contribution must be greatly helpful for us to improve the KOICA training course in the future. We are also like to let you know that the questionnaire will be used only for survey and research purpose.

We appreciate very much for your cooperation.

With best regards,

KOICA Training Program Evaluation Team

rear and Course Name:
Training Institute:
Period of the course: 1 week (), 2 weeks (), 3 weeks ()
4weeks (), more than 4weeks ()
Sex: Male (), Female ()
Age:
Country:
Organization:
Position:
Educational Background: under B.A.(), B.A.(), M.S.(), Ph.D.()

COURSE & TOPICS

1.	Hov	w ma	any courses you attended	l KC	OIC	CA	training course in Korea during
	the	last	5 years?				
	() a.	just once ()	b.	. t	wo courses
	() c.	three courses ()	d	. n	nore than four course
2.	Wh	at is	your general evaluation	on t	he	: tı	raining course you attended ?
	2-1.	Ove	rall evaluation on the tra	aining	g (coı	nrse.
	() a.	very successful	()	b.	successful
	() c.	moderate	()	d.	not successful
	() e.	not very successful				
	2-2.	Spec	cification of the training	cour	se		
	() a.	too general	()	b.	general
	() c.	appropriate	()	d.	specific
	() e.	too specific				
	2-3.	You	r satisfaction with the co	onten	ıts	of	the training course
	() a.	fully satisfied	()	b.	satisfied
	() c.	fair	()	d.	not satisfied
	() e.	fully not satisfied				
	2-4.	The	duration of training cou	rse.			
	() a.	too long	()	b.	long
	() c.	appropriate	()	d.	short
	() e.	too short				

2-5. Teaching materials of the training course.
() a. very appropriate () b. appropriate
() c. moderate () d. inappropriate
() e. very inappropriate
2-6. The relevancy of training course to your job-performance.
() a. fully relevant () b. relevant
() c. fair () d. not relevant
() e. fully not relevant
LECTURE & FIELD TRIP
3. What is your evaluation on the lecture offered during the training?
3-1. The level of lecture.
() a. too high () b. high
() c. appropriate () d. low
() e. too low
3-2. Lecture
A. lecturing:
() a. excellent () b. good
() c. fair () d. poor
() e. very poor
B. discussion:
() a. very active () b. active
() c. moderate () d. passive
() e. very passive

C. relevance of lecture contents:									
() a. fully relevant	() b. relevant						
() c. fair	() d. not relevant						
() e. fully not relevant								
3-3.	3-3. Country paper presentation								
A.	duration:	() a. too long						
() b. long	() c. appropriate						
() d. short	() e. too short						
B.	relevance of contents								
() a. fully relevant	() b. relevant						
() c. fair	() d. not relevant						
() e. fully not relevant								
C.	discussion								
() a. very active	() b. active						
() c. moderate	() d. passive						
() e. very passive								
3-4.	. Field trip								
D.	duration:								
() a. too long	() b. long						
() c. appropriate	() d. short						
() e. too short								
E. :	relevance to the course:								
() a. fully relevant	() b. relevant						
() c. fair	() d. not relevant						
() e. fully not relevant								

COURSE MANAGEMENT

4.	Wł	nat i	s your evaluation on t	he c	communication between lecturers a	ınc
	trai	nees,	and trainee's participation	n in	the training course?	
	4-1.	Con	nmunication between lect	urers	and trainees	
	() a.	excellent	() b. good	
	() c.	fair	() d. poor	
	() e.	very poor			
	4-2.	Trai	inees participation in the	cour	rse.	
	() a.	excellent	() b. good	
	() c.	fair	() d. poor	
	() e.	very poor			
	If c	ourse	e participation is poor or	very	y poor, the reason was:	
	() a.	trainee's inactivation			
	() b.	lecturer's poor organizat	tion		
	4-3.	Ref	lection of trainees opinio	n to	the course operation	
	() a.	excellent	() b. good	
	() c.	fair	() d. poor	
	() e.	very poor			
T	RAI	NINC	G FACILITY			
5.	Wh	at is	your evaluation on the	traini	ing facility?	
	5-1.	Clas	ssroom/or laboratory facil	ity.		
	() a.	excellent	() b. good	
	() c.	fair	() d. poor	
	() e.	very poor			

	5-2.	Dormitory facility.		
	() a. excellent	() b. good
	() c. fair	() d. poor
	() e. very poor		
	5-3.	Audio-visual aids & teaching	ma	terials
	() a. excellent	() b. good
	() c. fair	() d. poor
	() e. very poor		
		AL FUNCTIONS		
5.		•		ial activities provided by KOICA or
	-	pective institute you stayed du	ring	the training course?
	6-1.	Home stay /or home visit.		
	() a. excellent	() b. good
	() c. fair	() d. poor
	() e. very poor		
	6-2.	General impression about I	Core	an hospitality during the training in
		Korea		
	() a. excellent	() b. good
	() c. fair	() d. poor
	() e. very poor		

ABOUT TRAINEES

7. What is your evaluation on the trainees participated in the course you attended?

7-1.	Background of job experience	e:							
() a. very homogeneous	() b. homogenous						
() c. fair	() d. heterogeneous						
() e. very heterogeneous								
7-2.	Background of education:								
() a. very homogeneous	() b. homogenous						
() c. fair	() d. heterogeneous						
() e. very heterogeneous								
TRAI	NING EFFECTS								
8. Die	d you learn any knowledge	e/skil	lls, which is useful for your daily						
job	p-performance/ or for improvi	ng yo	our knowledge/skills?						
() a. yes	() b. no						
8-1. If yes, please specify the knowledge/or skills you learned.									
a.	a								
b.	b								
8-2.	If you the training was not	hel	pful for your job performance, would						
	please specify why it is not	help	pful?						
a.		• • • • • •							
b.		• • • • • •							
		-	you learned to your job-performance?						
) a. yes) b. no						
9-1. If		_	ge/or skills you applied to your job.						
a.		• • • • • •							
h									

10. Do you think that the F	KOICA training course contributes for improving
mutual understanding bet	ween your country and Korea?
() a. yes	() b. no
() c. do not know	
11. Was there any change or	n your position after the completion of training?
() a. not changed	
() b. transferred to oth	er job
() c. promoted to a hi	gher position
DEMAND OF DEVELOPM	IENT AIDS
12. In the future, what are need	cessarytraining courses for agricultural development
in your country?	
a	
b	
c	
COMMUNICATION WITH	KOICA
13. Do you keep contact wit	h KOICA after the training course?
() a. yes	() b. no
A. Do you receive newsle	tters of KOICA?
() a. yes	() b. no
B. Do you have KOICA a	alumni?
() a. yes	() b. no

() a. yes	() b. no	() c. do not	know
RECO	MMENDATIONS					
ple	you have any reconease specify them in Fraince selection:	the	following bla	anks.		-
Α.	rainee selection: ····					
В. (Course Specification:			•••••		
C. 7	Teaching materials:					
D. 1	Lecture: ·····					
	Laboratory work: ·····			•••••		
	Field trips:					
G. (Course management:					
Н. (Others, if any:					

C. Are there informal meetings among KOICA trainees?

Thank you very much for your kind cooperation.

Please return the questionnaire to soosuk@krei.re.kr

C2005-24

농업분야 협력사업 평가

등 록 제6-0007호(1979. 5. 25)

인 쇄 2005. 6.

발 행 2005. 6.

발행인 허길행

발행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30-71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동 4-102

전화 02-3299-4000 팩시밀리 02-959-6110 http://www.krei.re.kr

인쇄처 동양문화인쇄포럼

전화 02-2242-7120 팩시밀리 02-2213-2247 E-mail: dongyp@chol.com

ISBN 89-89225-82-5 93520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
- 이 연구는 본연구원의 공식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